

안성 활인선원장 대효 스님
참선으로 생활 포교
"국민 행복한 날 오길"
16 · 17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12월 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73호 2014년 1월 1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숫타니파타〉

집에 난 불을 물로 꺼 버리듯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슬픔을 재빨리 꺼 버린다



새해 바다에 온 마음 비추고… 2014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바다에 온 마음 비추고, 새 마음 새 발원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한다. 차가운 바다를 뜨겁게 달구며 솟는 태양처럼 모두 고단한 삶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탐진치를 줄여 행복의 길로 나아가길 기원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더 나누고 더 낮추고 더 비우자"

불교식으로 행복해지기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인, 시인

세상에서는 물질적 풍요가 행복의 척도다. 얼마나 큰 집에 사는가, 얼마나 큰 차를 타는가, 명품은 몇 개나 가졌는가, 해외여행은 몇 번이나 했는가로 행복의 등급이 매겨진다. 우리가 이런 풍요를 누리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50-60년대만 해도 절대빈곤의 시대였다. 그때는 어떻게든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사는 것이 소원이었다. '잘 살아보세' 가 노랫말이었다. 돈을 위해서라면 생머리도 잘라서 팔던 때였다.

덕분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2만 달러가 넘었다. 텔레비전 냉장고 없는 집이 없고 자동차 보급대수도 1천만대가 넘었다. 몇몇 나라를 빼고는 우리도 경제적으로 꿀릴 것이 없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좀 산다는 나라들이 가입한다는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겨우 32위다. 가난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행복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인가.

정반대의 사례 하나를 살펴보면 답이 될지 모르겠다. 히말라야 기슭에 인구 70만 명의 부탄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다. 텔레비전도 90년대 들어서야 보급됐을 정도로 경제적 풍요와는 거리가 먼 나라다. 그렇지만 이 나라 국민은 97%가 행복하다고 말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여기서는 치열한 경쟁이 적고 서로 나누며 사는 공동체가 확립돼 있다. 이웃나라들이 경제성장에 목을 맬 때도 정부는 생태와 전통보존, 국민건강을 고려한 정책을 폈다.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행복지수는 소박한 삶이 부끄럽지 않은 정신적 만족에 있다는 것이다..

'행복한 부탄' 의 경우에서 확인되듯 '물질적 풍요가 행복을 보장한다' 는 믿음의 허구다.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다 도리어 불행에 빠질 뿐이다.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달은 부처님은 참다운 행복이 어떤 것인가를 설법하고자 했다. 하지만 〈증일아함경〉10권 권청품에 따르면 부처님은 처음에는 설법을 주저했다고 한다. 부처님이 가르치고자 한 진리는 물질숭배자들이 좋아하는 삼독(三毒)의 길과 반대되는 역류도(逆流道)였다. 그런 사람들에게 욕망을 줄이라고 한다면 누가 동의하고 따르겠느냐는 우려였다.

아닌 게 아니라 중생들은 예로부터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탐욕(貪), 남을 억누르고 잘난 척하다가 그것이 잘 안되면 일으키는 분노(瞋), 모두가 헛된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痴)의 노예로 살아왔다. 현실에서 자주 목도되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훔치거나 속이는 일,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죽이는 일, 헛된 이름을 얻기 위해 벌이는 치사한 짓은 모두 삼독심의 결과다. 이 '욕망에 의한 삶' 은 결과가 뻔하다. 끝내 자기를 파멸시키는 독사처럼 위험한 것이어서 삼독심(三毒心)이라 부를 정도다. 자비로운 사람이라면 이를 방치할 수 없다. 자비로운 스승께서는 '내가 이제 행복의 문을 열 테니 귀 있는 자는 듣고 낡은 믿음을 버리라' 고 선언하며 설법에 나서기로 했다. 이 스승께서 45년간 했던 설법을 요약하면, 진정으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길을 선택하라는 권유였다.

부처님이 제시한 행복의 길은 간단하다. 지금까지 가던 길을 거꾸로 가라는 것이다. 우리는 늘 남보다 많이 가지려고 안간힘을 쓴다. 99개 가진 사람이 1개를 더 갖지 못해 안달이다. 이 욕심은 마치 소금물 같아서 채우면 채울수록 목이 마른다. 부처님은 그 반대의 방법인 '나누기' 즉 보시(布施)를 실천하라고 가르친다. 그래야 증폭되는 불행이 멈춘다는 것이다. 우리는 또 늘 내가 남보다 잘난 것으로 착각한다. 지위가 높고 힘이 셀수록 남이 나에게 복종하기를 바란다. 남을 용서할 줄 모르고 화부터 낸다. 부처님은 그 반대의 방법인 '낮추기' 즉 하심(下心)을 실천하라고 가르친다. 그래야 더 깊은 불행에 늪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늘 모든 것이 영원하고 불변할 것으로 생각한다. 청춘과 건강과 명예와 사랑이 항상할 것이라 집착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온갖 못된 짓을 서슴지 않는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부처님은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집착의 반대인 비우기(無着)를 실천하라고 가르친다. 그래야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불교수행이란 결국 삼독심의 반대인 나누기, 낮추기, 비우기를 얼마나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다. 잡아함〈진인경(眞人經)〉에 보면 '참다운 수행자는 명상과 선정을 얼마나 오래도록 닦았느냐에 있지 않다. 삼독심을 얼마나 줄였느냐에 있다' 는 말이 있다. 행복은 탐욕 대신 나누기, 분노 대신 낮추기, 집착 대신 비우기를 얼마나 잘 실천했느냐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불교는 참다운 행복(涅槃)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종교다. 누구든 행복해지려면 더 나누고, 더 낮추고, 더 비우는 수행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삼독을 줄이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가는 길을 거스르는 길(逆流道)이지만 행복하게 사는 올바른 방법(正法)인 까닭이다.

관련특집 A5면

조계사, 세계 최초 공정무역사찰

서울시와 22일 공정무역사찰 협약… 윤리적 소비 동참

서울 종로구 조계사(주지 도문)가 세계 최초로 윤리적 소비를 위한 공정무역사찰로 거듭났다.

서울 조계사는 구랍 22일 서울시와(시장 박원순), (사)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이사장 남부원)와 함께 공정무역사찰 협약을 체결했다.

'공정무역도시, 서울'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공정무역사찰 협약에 따라 조계사는 사찰 내외에서 공정무역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공정무역 제품 사용을 포함한 윤리적 소비 운동에 동참하게 된다.

특히 이날 협약식은 동지법회와 함께 진행돼 나눔과 배려의 의미를 더 했다.

공정무역(fair trade)은 기존의 국제무역 체계로는 세계의 가난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공정한 가격, 건강한 노동, 환경 보전, 생산자의 경제적 독립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가난한 제3세계 생산자가 만든 환경친화적 상품을 직거래를 통해 공정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가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얼마 전 태풍피해를 입은 필리핀 사람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에 조계사 신도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신 것처럼 부처님의 제자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며 이번 공정무역 사찰 협약에의 동참의 의의를 설명했다. **신중일 기자**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사진 왼쪽서 세 번째〉와 박원순 서울시장〈사진 왼쪽 첫 번째〉, 남부원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이사장〈사진 왼쪽 네번째〉이 12월 22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공정무역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제공=조계사

2014년 신년특집호 - 52면 발행

A 종합 2·3·4
특집 · 탐진치 줄이기 5
각 종단 신년법어 · 신년사 7·8·9
신년특집 · 새 아침을 여는 대담 10·11
이홍범 박사 · 현진 스님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14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새연재 · 붓다와 물리학 21

B 특집 · 공동체는 희망 1·2·3·5
테마가 있는 사찰기행 · 오대산 월정사 7
새연재 · 임연태 시인의 산사에 깃든 선비의 시심 8
불교와 말 · 말띠 해 불교소사 15
갤러리 색즉시공 · Buddha in Comic & Ani 20

자비광명이 충만한 새해 되십시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모든 생명의
행복과 평화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종정 진제 법원

원로회의의장 밀운 총무원장 자승
중앙종회의장 향적 교육원장 현응
호계원장 일면 포교원장 지원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2014 신년맞이 경전 속 덕담

새해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자

오늘도 이미 지나 그에 따라 목숨이 줄어든다. 마치 옹달샘의 물고기와 같으니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낮과 밤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세월의 빠르기는 번개와 같으니 사람의 목숨 빠르기도 그러하다.

-출요경-

희망을 가져라. 희망의 결과는 행복이니라. 저 새들까지도 언제나 바라면서 그 희망에 충만해 있으니 비록 그것은 멀고 오래더라도 끝내 희망은 이루어지리라.

-본생경-

욕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잡혀 온 들토끼처럼, 뱅글뱅글 돈다. 속박과 집착에 얽매어,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다.

-법구경-

장인이 도끼자루를 꾸준히 잡으면, 조금씩 점점 닳아 손가락 자국이 나타난다. 그러나 장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와 같이 열심히 노력하여 닦고 익히면, 오늘은 얼마쯤 번뇌가 없어지고 내일은 얼마쯤 번뇌가 없어진다고 스스로 알지 못하지만, 마침내 번뇌가 없어질 것이다.

-잡아함경-



활처럼 구부러지고 대나무처럼 유연하라. 그러면 당신은 어느 누구와도 다투지 않을 것이다.

-본생담-

늙으면 가을 나뭇잎 같으니 어찌 누추한 처지로 푸르름을 넘볼 것인가. 목숨은 죽음을 향해 내달리니 나중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 있겠는가. 목숨은 밤낮으로 줄어드니 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힘써라.

-법구경-

어리석은 사람은 성자와 한평생을 함께 지낼지라도 참다운 법을 알지 못한다. 마치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는 것처럼.

-법구경-

재물을 쌓되 적은데서 시작하라. 마치 여러 꽃에서 꿀을 모으는 벌처럼. 재물은 날마다 점점 불어나 줄거나 없어지지 않으리라. 음식에 만족할 줄 알고 일을 하되 게으르지 말며 미리 모으고 쌓아 그것으로 궁핍할 때를 준비하라.

-장아함경-

세상에 있는 참된 사람들은 그들의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그대는 탐욕을 길들이고 머무시오. 그대는 성냄을 길들이고 머무시오. 그대는 어리석음을 길들이고 머무시오. 그대를 폭력적인 마음을 길들이고 머무시오.

-니까야-



마도성공(馬到成功)

다사다난했던 2013 계사년 뱀띠해가 저물어가고 2014년 갑오년 말띠해가 다가왔습니다.

청마도의 주제인 '마도성공'은 '빠른 말처럼 성공하라'는 의미입니다. '말'은 역동성, 성공, 부, 건강, 강인함 등을 뜻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갑오년에는 역동적으로 활기참과 동시에 가내 두루 편안함이 깃들길 바랍니다.

동림사 주지 성타 스님 作

진관사 출토 유물이 국가 소유라고?

조계종 문화부 기자회견서 성토… 결정 철회 촉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진관사 출토 성보 문화재를 국가 귀속으로 결정한데 대해 불교계의 반발이 거세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혜일 스님은 구랍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과 12월 2차에 걸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에서 진행된 진관사 출토 성보의 소유권 판정 심의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는 11월 19일과 12월 16일 '진관사 인근 발굴유물 소유권 판정 심의'를 진행해 국가 귀속을 결정했다. 진관사에서는 2010년 발굴을 진행됐으며, 암수막새 51점, 기와류 121점, 자기류 84점, 금동불입상 2점과 잡상, 비석편, 용두 등 14점을 포함해 총 272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현재는 진관사 출토 성보문화재는 발굴 기관인 서울역사박물관에 수장돼 있다.

매장문화재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발굴 문화재의 소유권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소유권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관사 출토 성보의 소유권은 문화재청장의 결정만 남겨둔 상태다.

이에 대해 혜일 스님은 "진관사 경내 진관사 소유토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진관사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드러내는 귀중한 성보이며 진관사 소유의 소중한 불교 성보"라며 "그러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소유권에 대한 법적 이해나 진관사의 역사와 특성에 대한 인식 없이 진관사의 소유권을 부정했다. 이는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조계종 문화부장 혜일 스님이 12월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진관사 출토 유물 국가 귀속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문화재위, 구랍 16일 '국가귀속' 결정
사찰 귀속의 이전 판례에도 '상치'
조계종 "정체성 부정한 것과 같아"

혜일 스님은 "문화재를 관장하는 문화재청은 소유권 판정 심의가 어떠한 사안보다 신중해야 함에도 문화재위원회에 형식적으로 부의해 이 사태를 초래하게 했다"며 "이번 결정은 회암사, 월정사 판례에서 드러난 사법적 결정과 상치되며, 문화재청이 국가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무익한 소송을 조장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지난 4년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에서 부인사, 비로사, 인각사, 심곡사 출토 유물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한 사례에도 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혜일 스님은 "문화재 전문성은 인정하나 소유권 판단은 법적인 전문성이 수반돼야 소유권 판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계종은 서울시의 미숙한 행정처리, 문화재청의 사법적 판단을 부정하는 행정처리, 문화재위원회의 졸속하고 부당한 결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계당국은 진관사 성보의 소유권을 조속히 확인하고 문화재 소유권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올바른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구랍 9일 월정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진행한 출토 문화재 소유권 소송에서 월정사 '승소'를 판결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제8대 포교사단 '곽명희 호' 출범

구랍 24일…사상 최초 여성단장



재가불자의 대표적인 신행단체인 조계종 포교사단이 새 단장을 임명하고 새로운 출발에 나섰다. 곽명희 신임 포교사단장은 구랍 24일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제8대 포교사단장으로 임명됐다.

포교사단 역사 최초의 여성단장인 곽명희 포교사단장은 "포교사단호라는 큰 배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은 우리가 손님으로 모시고 가야 할 5000여 포교사들"이라며 포교사들의 위상강화와 활발한 활동을 강조했다.

곽 단장은 또 "포교사들을 안전하게 모시고, 한국 불교 포교 현장 곳곳에서 역할을 잘 하기 위해 오늘 임명장을 받은 이 멍에를 부처님과의 약속이라고 여기겠다"고 말했다.

곽 단장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불교 포교의 최일선인 포교사단을 이끈다.

노덕현 기자

불기2558년 단기4347년 甲午年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그득하시길 두손 모읍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 총연합 진흥회

이사장(총재) : 영산당 일공 대화상
부총재 : 고명 대선사, 부총재 : 법혜 대선사
회 장 : 덕산 연화
부회장 : 법성, 월암, 소운, 성관, 자운

❁ 원 로 위 원 : 은곡 효진 도선 원덕 운암 범진 혜승 오연
❁ 운영위원장 : 법붕
❁ 운영부위원장 : 현덕
❁ 문 화 원 장 : 혜월
❁ 교 육 원 장 : 청운
❁ 연 수 원 장 : 도현
❁ 홍 보 위 원 장 : 지성
❁ 지도위원장 : 체의 지우
❁ 기획실장 : 혜일
❁ 사서실장 : 무영
❁ 총 무 : 혜성
❁ 운영위원 : 혜문 약산 혜암 관연 반야 청화 김덕환 신판귀 명철 최기용 이영일 이강우
❁ 법사위원회 부위원장 : 명화
❁ 예술국장 : 목련화

참여종단 : 대한불교 동산조계종, 대한불교 대각조계종, 대한불교 법상종, 대한불교 조계종,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 대한호국불교 조계종, 한국불교 연화조계종, 해동호국불교 조계종, 한국육조선원, 호국불교 선미륵종, (사)대선불교 조계종, (사)대한호국불교 원융종,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사)한국불교 극락조계종, (사)한국불교 달마종 (가,나,다 순)

참여단체 : 나라사랑국민연합, 세계족심도협회, 세계평화유지군월남참전유공자회, 세계예술교류협회, 전국의용소방연합회, 한국민속예술연구원, 한국사회체육진흥회, 한국풍수지리학회, 911재난방송 (가,나,다 순)

주 소 : (우:152-870)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704-23(구로동로33길 15) 전 화 : 02)857-2250 / FAX : (02)853-0533

"철도 문제, 화쟁 통한 대화로 풀어냅시다"

노·사·정 극한 대립… 불교계 중재 역할 나서

"노사 양측 모두 기존의 입장을 고집하는 대신 국가 기간 산업인 철도의 안정과 발전, 나아가 국민의 보편적 행복의 관점에서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대화의 장에 나서달라."

불교계가 정부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철도 문제에 대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구랍 26일 "'철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화해와 중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노사정이 대립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 압박에 철도노조 조계사로 '피신'

조계종 화쟁위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은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원 4명이 구랍 24일 조계사 극락전에 피신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철도노조는 박 수석부위원장의 피신 직후 25일 용산 철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민주노총까지 침탈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양심을 지켜온 종교계에 기댈 수 밖에 없었다"며 "조계종에서 대화를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적 탄압에서 비롯된 사회적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계종은 이에 대해 26일 조계종 화쟁위를 중재자로서의 창구역할을 하기로 결정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품 안으로 들어 온 것에 대해 외면할 수는 없다"며 "자비문중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중재역할을 천명했다.

불교NGO활동가들이 철도파업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촉구하는 걷기 명상을 진행하는 동안 화쟁위에서는 "국민 행복 관점에서 대화의 장에 나서달라"는 성명을 내놓았다.

이 같은 불교계의 호소가 이어지고 난 직후 노사 양측은 조계사에서 첫 대화를 시작했다. 25일 철도회관에서 노조와의 대화에 실패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화쟁위원장 집무실에서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만나 실무접촉 개시에 합의했다.

"절박한 마음에 불교계로 왔다"
구랍 24일 철도노조 조계사 피신

"국민 행복위해 대화 해달라"
불교계 호소 진정성 전해지자
코레일 노사도 실무 접촉 '시작'
26일 코레일 사장, 조계사 찾아

화쟁위, 노사정에 제3대안 제시
KTX면허 발급 · 파업 중단 요청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사진 가운데)이 구랍 26일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사진 왼쪽), 최인혜 코레일 사장(사진 오른쪽)과 함께 손잡고 있다. 화쟁위원장 집무실에서 열린 이날 첫 대화에서 이들은 실무교섭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드려 다시 한 번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대화의 길은 열려있다. 코레일 서울 사옥서 노사 실무 교섭을 시작할 것"고 말했다.

박태만 철도노조 부위원장도 "노사간 상호 진정성 있는 만남을 가졌다"며 "그 결과로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파업 상황이 조기 종결되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철도노사 실무교섭 결렬에 화쟁위 '중재안'

하지만 재개된 철도 노사 실무 교섭은 26일과 27일 마라톤 회의 끝에 결국 중단됐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자회사 철도운송사업 면허발급'을 중단하면 파업을 풀겠다고 밝혔지만 코레일은 '면허발급 지체시 개통일정에 문제가 생긴다'며 27일 12시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최후 통첩했다. 교섭 결렬 소식에 민주노총은 28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화쟁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발표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입법의 효력을 지니는 사회적 협약이 마련될때까지 정부는 수서발 KTX 면허 발급 유보하고 노조는 파업을 잠정 중단해달라"며 "철도노조, 코레일, 국토교통부, 여야, 종교인, 시민사회 등이 나서 철도문제의 국민통합적 해결을 위한 대화기구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국민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며 "민영화 관련 입법을 두고 여야에서도 갈등이 있는 만큼 범국민적 대화창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중일 · 노덕현 기자

조계종 신년하례법회, 1월 7일 동화사서

종단협 신년법회는 1월 14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서

조계종은 갑오년 새해를 맞아 1월 7일 오전 10시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종정 진제 스님에 대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신년하례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중앙종회 의장 향적 스님을 비롯해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과 중앙종회의원 등 100여 스님들이 참석할 계획이다.

또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과 김희옥 동국대 총장 등 불교 각계 대표들과 재가 · 신도단체 대표 100여 명도 법회에 동참한다.

종정 진제 스님은 신년하례법회에서 불자들에게 수행정진을 당부하는 신년교시를 내릴 예정이다. 신년하례법회에 이어서는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 품서식이 열린다. 대종사 법계 품서식에서는 원로의원인 세민, 정련, 지성, 대원, 성파, 성우 스님이 대종사 법계를 수여받을 예정이다.

한편,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1월 14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갑오년 신년하례법회를 연다. 이날 신년하례법회에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각 종단 대표들 100여 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최전방 군부대 위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구랍 23일 강원도 화천 최전방 칠성부대를 방문해 군장병들을 격려했다. 자승 스님은 사단 측에 위문금 1000만원을 전달했으며 3연대 군법당 연승사를 방문해 기도를 올리기도 했다. 또 스님은 칠성부대 인성교육 시간에 강사로 나서 자신의 군 복무 경험을 소개하며 "서로 어울리며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다"며 장병들이 힘차게 군생활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진각종 새해 예산 164억9천837만원 확정

포교비등 대폭 증가…포교활성화 의지 반영

진각종 새해 예산이 164억9천837만원으로 확정됐다.

진각종 종의회(의장 혜명 정사)는 12월 19일 종의회 회의실서 제388회 임시종의회 및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를 열고 2014년도 새해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통리원 140억2천만 원, 교육원 7억5천만 원 등 지난해보다 5억137만 원이 증가한 164억9천837만 원으로 확정 했다.

진각종 새해예산은 통리원의 경우 청소년, 자성동이를 비롯한 유소년과 신행단체 회원 및 임원 교육연수, 교화결집대회 등 포교사업비가 대폭 증액되고, 서원가 창작보급비 등 문화홍보비도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회당문화축제, 종단 8대절, 기타 행사비 등은 예년수준으로 소폭 감소됐다. 이는 신교도와 산하단체 구성원들의 교육 및 연수를 확대해 조직강화는 물론 포교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종단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종무행정의 실질적 예산편성으로도 분석된다.

교육원의 경우도 이를 반영하듯 수행프로그램과 교화모델개발, 기초학술자료, 소의경전교재, 교법자료전산화, 과제개발워크숍 등을 비롯해 70년사 편찬, 선대스승사상연구비 등에서 다소 증액됐다.

종의회는 이에 앞서 총인원 지하주차장 신축공사금액과 진각종유지원연합회 구성안을 승인하기로 결의하고 종헌 제34조와 현정원법, 심인당법, 종단산하기관관리법, 종유재산관리법, 의전법 등 일부를 수정, 보완키 위해 상정된 종법개정을 의결했다.

종의회는 또 이사로 선임됨에 따라 공석이 된 덕운 정사 후임 학교법인 회당학원 감사로 명륜심인당 주교 효명 정사와 낙산심인당 주교 증혜 정사를 복수로 추천하는 한편 효심 정사 후임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이사로 대구교구청장 겸 희락심인당 주교 정효 정사와 포항교구청장 겸 보정심인당 주교 능원 정사를 복수추천 했다.

종의회는 이어 백월정(전 응신심인당 교화) 전수의 선사록 등재를 의결했다. 진각종의 '선사록'은 열반한 선대 스승을 담은 것으로 선사록에 등재되면 종단 차원 추모사업이 진행된다.

김주일 기자

불교 폄훼 · 담합 논란 '다라국문학상' 수상 철회

불교폄훼와 역사왜곡, 심사 담합 논란에 싸였던 '다라국문학상' 수상이 철회됐다.

합천군은 구랍 23일 제1회 다라국문학상 수상작에 선정된 '황강, 다라국의 발원'의 작가 표성흠 씨가 최근 스스로 수상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불교나라임을 선포한 신라가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기독교 국가인 가야와 종교전쟁을 벌인다는 이야기를 담은 표 씨의 작품은 불교폄훼라는 불교계의 비판과 심사담합 의혹의 지역문인계의 지적을 받았다.

합천군은 자체 감사를 벌여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합천군은 이와 함께 "문학상 선정과 심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절차를 어기거나 편의를 봐준 정황이 있는지 등을 계속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인쇄돼 시중에 배포된 작품은 회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군포지역 6개 직능단체 불자회원 합동 수계

정각사, 구랍 8일 불자 150명 합동 수계법회

군포지역 직장불자회원 150명이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군포 정각사(주지 정엄)는 12월 8일 군포 정각사 대법당에서 직장불자회 150명을 대상으로 '직장 불자 합동 수계법회'를 거행했다.

수계를 받은 불자는 정각사가 운영하는 군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보호작업장 보현회를 비롯해 군보시립노인요양센터 관음회, 군포 개인택시 법륜회, 군포경찰서 자비회, 군포시청 성불회 회원들이다.

이날 수계식은 정각사 주지 정엄 스님을 수계사로, 총무국장 정대 스님이 인례사로 한글반야심경 봉독, 참회진언, 귀의, 발원, 계첩수여 등을 진행했다.

정엄 스님은 "계라는 것은 어렵고 딱딱한 것이 아니다"라며 "계를 받아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해 참 불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님은 "거짓말 대신 진실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며, 술이나 마약등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 대신 정신을 맑혀주는 차를 음용하면 된다"며 생활 속에서 계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군포 정각사(주지 정엄)은 구랍 8일 군포 정각사 대법당에서 직장불자회 150을 대상으로 '직장 불자 합동 수계법회'를 거행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 조계종

계율청정종단

■종 정
총무원장 : 혜인 사서실장 : 대산

율 원 장 : 혜일
중앙선원장 : 도일

■원 로 원 : 성민,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총무원

부 원 장 : 동안, 도불
총무부장 : 천산
재무부장 : 혜만
교무부장 : 혜일
사회부장 : 정덕
문화부장 : 지운
총무국장 : 남산
교무국장 : 지성
사회국장 : 법일
문화국장 : 해인
문화재관리국장 : 진각
교육원장 : 상산
교육부장 : 태산
교육국장 : 진산
포교원장 : 정산
포교부장 : 법진
포교국장 : 무량
국제포교원장 : 중산청목
기획원장 : 진성
기획실장 : 노사나
호계원장 : 천불
호계부장 : 태산
규정부장 : 월성, 서산
규정국장 : 영암
호법부장 : 성산, 지호
호법국장 : 법성
감찰원장 : 정오
감찰부장 : 백산지견
감찰1국장 : 법산
감찰2국장 : 수산
감찰3국장 : 인산
감찰4국장 : 봉산
비구니 회장 : 지성
총무 : 정해
부회장 : 해월, 혜산, 월산
재무 : 도은, 향인
교무 : 현타, 수정
교육 : 법신, 성담
문화 : 남산, 보현
포교 : 보명, 홍산
강원 : 덕산, 원산
복지 : 본각, 보현
감찰 : 금산
불화 : 혜담, 인산, 진화
의식 : 영산, 지해, 수욱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 정산
서울남부종무원장 : 보덕
경기종무원장 :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 해인
인천종무원장 : 혜원
강원종무원장 : 광덕
충남종무원장 : 혜덕
충북종무원장 : 학산
경남종무원장 : 백산 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 천산
경남서부종무원장 : 지명
경남창원종무원장 : 지원
경북종무원장 : 덕운
부산종무원장 : 서봉
부산북구종무원장 : 수산
전남종무원장 : 도명
전북종무원장 : 법성
제주종무원장 : 청호
울산종무원장 : 혜공
일본오사카종무원장 :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 : 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 해산
중국청도종무원장 : 중산청목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 혜인 편집인 문화부장 : 태산
편집기자 : 이기영 문화국장 : 용산
사회부기자 : 이근진, 유현석 사회국장 : 법산
이사 : 혜원, 정산, 각원, 덕산, 향인, 관불, 해인,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삼화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종단사업부

대표이사 : 노사나

불교조계종
좋은상조 : 김호철
H&G : 이영호
금융사업본부

▣전국신도회

고문 : 김윤주
회장 : 설주성
사무처장 : 이상훈
부산신도회장 : 허민
강원신도회장 : 김현재

▣청년신도회

회장 : 손영진
홍보처장 : 박영실
총무계장 : 조일
기획실장 : 심원일

◇ 학교법인 삼화학원 ◇

▣불교조계종대학림

학 장 : 혜일 부학장 : 일봉
교 수 :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불교조계종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도홍,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중국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멘화 부 학 장 : 정오, 남산
한국총장 : 손혜인 중고등학교장 : 손영진
학생처장 : 손영진 조 교 : 심미, 유위, 손정 국제부교무과장 : 이안산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총무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135-887
총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 (02)549-1918

총무원장실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02)3445-7375~6
일간동국신문사 : (02)511-1080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jogaejong.or.kr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E-mail 주소 :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

영담 스님, '동포사회 빛낸 인물'



영담 스님(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이사장 · 부천 석왕사 주지)이 재외동포신문이 선정한 '동포사회를 빛낸 올해의 인물'에 선정됐다.

영담 스님이 이사장인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은 지난 2001년 재단 창립 이후 재외동포 및 동포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교재 발간, 재외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회의 개최, 한국어교육자 초청연수, e-러닝학습센터 구축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재외동포신문사는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 매년 개최하는 재외 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는 매년 20여 국가 100여 해외 한국어 교육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등 대표적인 동포 한국어교육 학술대회"라며 선정사유를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는 민족 정체성의 상징"

나선화 신임문화재청장



나선화 신임 문화재청장이 구랍 27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정식으로 취임했다.

나 청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은 세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여 주는 문화재"라고 강조했다.

나 청장은 또 "새로운 각오로 가장 합리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의 새 역사를 시작해야만 한다"며 신속 정확한 문화재 보존 협력 행정체계 구축과 엄정한 감리제도 마련 및 전국 문화재 점검 상태의 DB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 나 청장은 문화재 미래가치 개발을 위한 기초작업인 조사연구 활성화, 한국 고대문화 네트워크 복원을 위한 조사연구 · 자료수집 · 대외 전문기관과의 교류로 아시아 문화권의 문화원형 확보 등을 주문했다.

한편, 나 청장은 숙명여고와 이화여대 사학과(미술사)를 졸업해, 러시아 FarEastern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1976년부터 30여년 이화여대 박물관 학예실장 등을 역임했다. 2004년부터 사단법인 생명과평과의길 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및 인천시 문화재위원으로 일해 왔다. **노덕현 기자**

신규탁 교수, 연세대 공헌교수 뽑혀



신규탁 교수는 구랍 24일 연세대 2013 공헌교수상 대상자로 결정됐다. 연세대는 신규탁 교수가 최근 5년간 논문 25편, 저서 4권, 번역서 3권, 편저 3권을 내고, 50여회에 이르는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9월에 출간한 신 교수의 〈규봉종밀과 법성교학〉은 〈불교평론〉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저술상을 받기도 했다.

신규탁 교수는 "불교학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연세대와 불경(佛經)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신 봉선사 월운 강백 큰스님, 뒷바라지를 해준 가족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동림사 주지 성타 스님이 법연당을 둘러보고 있다.

그림으로 불법의 인연을 맺는다

문화포교 도량, 부산 기장 동림사

한국화를 통해 부산지역 문화포교에 앞장서 왔던 기장 동림사가 동림미술관 '법연당'을 개관하고 재한외국인과 청소년들을 위한 불교문화포교의 새희망이 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부산 기장 동림사(주지 성타)는 구랍 14일 경내에 동림미술관 '법연당'을 개원하고 개관기념 전시회를 개최하고 그 첫 걸음을 내디뎠다.

동림미술관 법연당은 경내 대웅전 옆에 위치한 49.5㎡의 단독 건물로 조성됐다. 개관기념 초대전으로 성타 스님이 직접 그린 한국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동림사 산내 작은 미술관 '법연당' 개관

재한 외국인, 청소년 대상 문화포교 박차

이곳에서는 연중 선화(禪畵), 문인화, 한국화 등 스님의 다양한 작품세계뿐 아니라 향후 회원 및 주요 예술인들의 기획전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동림미술관은 전시공간 외에도 외국인과 청소년, 불자들의 포교 및 교육 프로그램 장소로도 활용해 지역 불교문화포교의 산실로 활용할 방침이다.

동림사 주지 성타 스님은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 명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굳이 외국이 아니라 한국을 방문한 이들에게 온정을 쏟아 한국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 역시 국제포교의 일환이다"며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한국화와 전통사찰문화를 체험하면서 자연히 불교에 대해 친숙하게 접근하게 되고 불교와 한국을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고 있다"며 재한 외국인 포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젊은 청소년들이 절에 없는 것은 청소년관련 컨텐츠가 부족한 이유다. 동 떨어진 불교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학업과정에서 늘 접하는 주제들로 자질을 향상시키고, 재미를 유발하는 컨텐츠 개발이 절실하다"며 말했다.

성타 스님은 그림을 통한 해외포교에 원력을 이어오다 지난해부터 국내 유일한 러시아 초, 중, 고등학교와 모스크바 대학교에 한국화 미술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스님은 동명대학교 및 부산지역 대학들과 연계해 외국인 교환학생, 부산지역 외국인 원어민 강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전통문화체험을 통한 문화포교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스님은 "그림은 긍정적 마음의 힘과 안정을 키워줄 수 있는 최고의 치유 프로그램이다. 세대와 국경을 넘어 누구나 공감하고 배울 수 있다.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미술관을 개원하게 된 것"이라며 "전시 공간을 넘어 불법의 인연을 맺어 행복을 나누는 공간"으로 성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문화재청, 문화재수리에 5년간 739억 투입

문화재 수리 5개년 기본계획 고시

부재 수집 · 보존 · 연구 종합센터 설립

문화재청이 문화재 수리에 내년부터 2018년까지 73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부재 수집 및 보존, 연구 등을 수행하는 연구종합센터를 설립한다.

이와 함께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국가자격시험제도도 대폭 개선되며 관련 국내 · 국제학술대회 개최도 활성화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구랍 27일 이같은 내용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을 관보에 고시했다.

문화재수리 기본계획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최초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법 · 제도 현실화 △문화재수리 환경 기반 구축 △문화재수리 품질과 기술향상 기반 구축 △문화재수리업 역량 강화 기반 구축 △문화재수리 관련 인력 전문성 제고 △기반 구축 등의 핵심 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해 나갈 3개 정책 대과제, 6개 중과제, 20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들 과제에 총 739억 원(국비 682억원, 지방비 5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은 △문화재수리 부재의 수집 · 보존 · 연구 종합센터로 연면적 1만 3000㎡의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설립 △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한 평가 · 공시, 기술인력에 대한 경력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운영 △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자격시험 제도 개선 △감리대상 확대 및 감리자격 기준 강화 △문화재수리 전통재료 중장기 사업추진 방안 마련 △문화재수리 기술 관련 국내 ·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이다. 문화재수리 기술 전문성 구축 강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문화재수리 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기초가 된다. 고시 내용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재됐다.

노덕현 기자

천태종, 필리핀에 어선 200척 지원



천태종(총무원장 도정)이 태풍 피해를 입은 필리핀 주민들에게 어선 200척을 지원했다. 총무원장 도정 스님 등 천태종 방문단은 구랍 24일 필리핀 세부 카모테스 섬의 샌프란시스코 시를 찾아 신도와 승려들의 성금으로 마련한 필리핀 전통어선 200척과 의류 등을 전달했다.

천태종은 태풍 하이엔으로 카모테스 섬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 11월부터 서울 삼룡사를 시작으로 전국 사찰별로 성금 모금 대법회를 여는 등 모금 활동을 벌여 왔다.

부산 삼광사도 이달 초 대법회를 열어 성금을 모금해 이번 지원에 동참했다.

천태종 측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자력 회생이 되도록 카모테스 섬 주민들이 주 생계수단으로 삼는 어업에 필요한 어선을 지원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선 전달식은 도정 스님과 필리핀 출신의 이자스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현지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어선 승선식도 가졌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상담개발원, 동계 산사워크숍 개최

1월 4일 목동 국제선센터서 '불성깨우기' 주제로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1월 4일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불성깨우기'라는 주제로 동계 산사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최훈동 원장(한별정신건강병원)을 강사로 모시고 불교와 심리치료를 명상에 적용해 진정한 자기(불성)를 체험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또한 강의를 비롯해 숙고명상, 통찰명상, 치유적 간화선, 가피 명상 기도 등을 병행해 진행된다.

강의 주요내용은 불교의 심리 분석적 재해석 및 체험적 재발견을 위해 △초기불교의 사성제와 십이연기의 치유명상 적용 △대승불교의 불성실현 △간화선과 염불의 치유명상 적용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대상은 누구나 가능하며 홈페이지(www.kbcd.org)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02)737-7378 **이나은 기자**

동국대, 유학생 유치·관리 우수대학 선정

동국대가 구랍 24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 관리 역량 인증제'에서 우수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가 2011년부터 도입한 유학생 인증제는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실태를 평가해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 및 방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유학생 중도탈락률과 언어능력(TOPIK 4급 이상) 소지자 학생 비율, 외국인학생 국적 비율 등을 평가한다.

동국대는 올해 평가에서 유학생 중도탈락률을 전년 6%에서 3%대로 낮추고, 외국인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의무화, 언어능력 기준지표 달성 등 5개 지표를 무난하게 충족시킴으로써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특히 동국대는 유학생 입학부터 학사, 졸업까지 전담하는 부서인 국제학생지원센터를 2008년부터 운영함으로써,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생활유지와 학교생활 및 수업 적응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점을 우수하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석도선

승정원장 석벽봉 고 문 석암두 원로원원장 석법령 종회의장 석무송

원로위원 석월타 원로위원 석지관 원로위원 석대원 원로위원 석일장
원로위원 석혜암 원로위원 석화담 원로위원 석일우

호법원장 석대원 의전원장 석의담 교육원장 석남산 포교원장 석보광
기획원장 석일두 총무원장 석도선 비구니회장 석혜담 연수원장 석대공
문화원장 석도명 사정원장 석법혜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강 서울중앙종무원장 석설정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원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경기중앙종무원장 석재현
아포중앙종무원장 석혜천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전북중앙종무원장 석덕진 광주중앙종무원장 석아도 충남중앙종무원장 석문공
안산중앙종무원장 석일현 제주중앙종무원장 석경만 인천중앙종무원장 석지일
전남중앙종무원장 석청우

총무부장 석도흥 교육부장 석정허 사회부장 석청암 호법부장 석성보
포교부장 석도명 교무부장 석보현 비구니부장 석용정 문화부장 석도명
의전부장 석성담 중앙포교부장 석효성

문화국장 석민경 사서국장 석성덕 사서특보 석성만 기획국장 석성각
사회국장 석원각 종무국장 석보각 연수국장 석함월 비구니국장 석지현
의료봉사국장 석법천 포교국장 석성우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창종주 총무원장 석도선

■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이종길)
부회장 진불심(이순심)
총 무 심진화(차영란)
임 원 대도심(어월순)
임 원 법화심(김막두)

■ 총무원포교국장
포교국장 석지명
포교국장 석법성
포교국장 석성운
포교국장 석혜공
포교국장 석태허

종립예술원 원장 묘 각(이재인) 종립예술원 부원장 보연화(유희연)

■ 법사승단임원
경남원장 도혜 대구국장 혜련 울산원장 법광 재무국장 덕운
충남원장 보인 종무국장 혜명 경북원장 성호 국제국장 도원
포항원장 명성 부산국장 혜성 충북부장 상학 청도국장 지천
대전부장 정민 울산국장 상학 경기부장 덕산 포항국장 득원
전남부장 혜명 구미국장 혜진 강원부장 성월 화순국장 보정
재무부장 자운 포교국장 청운

■ 각 종무원 국장
사업국장 석민허 연구국장 석경담 역경국장 석청허 홍보국장 석동운
복지국장 석용운 의식국장 석운담 교화국장 석지허 지도국장 석청도
관리국장 석지도 조직국장 석견성 조사국장 석담월 호계국장 석원호
규정국장 석성공 사정국장 석도운 감찰국장 석성도 재무국장 석노담
총무국장 석원경 의전국장 석운경

■ 총 본 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대표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 총 무 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 3동 279-2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031)963-1688

보시, 탐욕적 자본주의 치유의 묘약

貪心 줄이기
탐심
–더 나누자

부자에겐 업장해소
빈자에겐 처지개선
탐욕병 근원적 해소



정 천 구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

욕구와 탐욕

식탐이 많은 사람은 점심을 먹으러 가서 음식을 한 그릇이 아니라 두 그릇 이상을 먹고 배탈이 난다. 식탐은 배탈에 그치지만 권력과 돈과 명예에 탐심을 내면 잘 나가던 유명 인사들이 패가망신한다. 국가와 같은 큰 집단이 탐욕을 부리면 나라가 패망하고 인류가 불행해진다.

그러나 탐욕과 욕구는 구별되어야 한다.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는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취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욕구 자체가 아니라 그런 욕구가 인간에게는 탐욕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데 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탐욕이 권력, 재산, 명예 등 감각의 대상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붓다는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는 감각 자체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붓다의 교설에 의하면 대상에 의해 촉발된 감각에는 즐거운 감각과 괴로운 감각, 그리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감각이 있다. 그런데 즐거운 감각에는 탐욕의 성향이 있고 괴로운 감각에는 혐오의 성향이 있으며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감각에는 무지의 성향이 잠재해 있다는 것이다.

현대 심리학이 밝혀낸 인간의 발달과정을 보면 어린 아이는 배고픔과 목마름과 같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표현하며 그것이 충족되면 즐거움을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괴로움과 불만족을 느낀다. 아이는 성장하여 사람들과의 유대를 경험하면서 자신에게 즐거운 감각적 욕구를 욕망으로 변화시킨다. 동물은 욕구가 충족되면 대개 거기서 그치지만 인간은 욕구를 넘어 그 이상을 추구한다. 그것이 바로 탐욕이다. 그러나 욕구를 벗어난 탐욕은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탐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끝없는 불만족과 고통 속에서 산다.

알맞은 양을 깨치기

탐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붓다는 제자들에게 먼저 수식관(數息觀)과 부정관(不淨觀) 등 탐심의 대상이나 그에 대한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관법(觀法)을 가르치셨다. 그러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신에게 약간 부족하게 느끼는 지점에서 멈출 줄 아는 지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자기에게 알맞은 양을 깨쳐서 그만큼만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욕구 자체를 끊는 것이 아니고 즐거운 감각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탐착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탐심을 치유하는 붓다의 대증(對症) 요법은 탐심의 대상과 그것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탐심을 포함한 번뇌를 치유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이 방법으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등, 성인(聖人)의 지위에 오른 수많은 수행자가 있었음을 불경은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남방불교의 수행법인 위빠사나(vipassana,觀)가 유행하고 있는 것은 그 탁월한 대증 치유법 때문이라고 본다. 탐심이 많은 사람에게 관법을 행하게 하면 탐심의 정체를 깨닫게 되고 자기의 필요한 것과 필요한 양만을 취하게 되어 탐욕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관법은 탐심에 대한 대증요법은 되지만 병의 근원을 뽑아내는 근본적인 치유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드라의 그물망과 같이 중중무진으로 연결되어 있어 혼자만 탐심을 끊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시–더 나누기

붓다는 근기가 성숙한 제자들을 위해서는 탐심의 근원적 해결 방법으로 대승(大乘)의 덕목인 보시를 가르치셨다. 보시는 대승불교의 육바라밀(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중 제일 바라밀이다. 탐진치의 근원을 자기중심으로 살아온 오랜 동안의 습관, 즉 업의 힘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받기만 하는 습관을 주는 습관, 나누는 습관으로 바꾸어야 탐욕의 병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사람들이 받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은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불교는 복(福)을 짓고(作福) 닦으라(修福)고 가르친다. 그런데 받는 것을 좋아하는 인심 때문에 어느 때인가 복을 받으라고 인사를 하게 된 것이다. 복은 받고 싶다 해도 먼저 지어야 한다.

금강경은 선입견이나 편견 등 상(相)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이 허공과 같이 무량하다고 설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실제로 주고 안주고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우선 무조건 주는 마음을 내면 쌓였던 것이 풀리기 시작한다. 병고에서 벗어나고 재양이 소멸되며 문재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 보시의 효과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는 모든 중생에게 확산되어 전 우주적으로 파급된다.

붓다는 자신이 보시의 습관을 생활화했다. 세존은 걸식해온 음식을 3등분하여 3분의 1은 육지중생에게 3분의 1은 수중중생에게 고수레를 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자신이 드셨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야외에서 음식을 먹을 때 고수레 하는 습관이 있었다. 또한 자신이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먹는 밥을 조금 떼어내어 산이나 냇물의 정갈한 곳에 놓아두는 헌식을 했다. 나누는 문화다.

보시는 부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빈자일등(貧者一燈)의 이야기와 같이 가난한 자의 정성스러운 작은 보시가 복덕이 더 클 수 있다. 부유한 자의 보시는 자기가 지은 업장을 해소하는 방편이 되고 가난한 자의 보시는 자신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보시는 금욕적 자본주의에서 시작되어 탐욕적 자본주의로 변모한 현대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묘약(妙藥)이며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원동력이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받는 마음 대신에 주는 마음을 내고, 받는 습관을 주는 습관과 나누는 습관으로 바꿀 때, 병든 사회는 건강한 사회로, 피로사회는 활력이 넘치는 사회로 그리고 분노사회는 인심이 훈훈한 정다운 사회로 변모해 갈 것이다.

분노는 자기 업… 스스로 소멸해야

瞋心 줄이기
진심
–더 낮추자

총장 선거 낙마 당시
분노를 수행으로 극복
내가 만든 업에
스스로 속지말자



송 석 구
前 동국대 총장

평생을 부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가슴이 막히고 시원스럽게 뚫리지 않고, 진정 깨달음이 있는가 물론 깨달음은 각자(覺者)를 의미한다. 그러한 각자(覺者)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분이신가? 수 없이 많은가?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깨달은 사람은 많고 누구나 부처님의 수행을 따르면 깨달을 수 가 있다 하였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그 불성은 청청한 마음이라고 한다. 깨달음은 그러한 청정한 마음이 계속 유지하여 차별없이 하나 같이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할진데, 어찌 우리마음은 이렇게도 변하고 있는가? 물론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여 마음이 평정되고 편안하지 않고 있는 것임은 확실하다.

무상(無常)한 이 마음을 무상(無常)함을 깨닫는 것, 한순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계에 부닥치더라도 평정하고 일심(一心)을 유지하는 상태, 그리하여 편안하다, 일심이다, 삼매(三昧)다 하는 것도 알지 못하여 자연 그대로의 모습. 마음자리가 각자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도 중생이요 무명번뇌의 존재이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도 할 일이 많고 신심을 내어 수행해야 한다.

수행에는 승속(僧俗)이 따로 없다. 승(僧)도 수행을 하지 않으면 속인(俗人)과 다름이 없으며, 속인(俗人)도 수행을 하면 출가승(出家僧)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수행하는 풍토이것이 불국토(佛國土)의 지름길이다.

나는 생각한다. 불교(佛敎)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무엇을 깨닫는가!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마음이 어떤것이기에 깨달아야 하는가, 우리 마음은 본래 맑고 깨끗한데 홀연히 무명이 덮혀 그 깨끗하고 맑음이 언제나 밝게 들어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믿음도 바로 이 청정함을 믿는 것이다. 이 무명이란 무엇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 두말할 것 없이 탐, 진, 치(貪,瞋, 癡) 세가지 독한 마음의 산물이다.

우리 마음은 낳고 멈추고, 변화하고, 사라진다(生,住,異,滅)라고 한다. 이 세계가 성(成), 주(住), 괴(壞), 공(空)이듯이 마음은 일어났다 변화되고 없어진다는 것이다. 마음이 이러한 것은 깨닫고 그렇게 보고 집착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대립도 투쟁도 없어질 것이지만 인간은 이러한 마음에 집착하여 온갖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일어나, 살인, 강도, 음란한 성폭행, 거짓말 악한말 이간질 말 사기하는 말 등으로 결행되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탐욕의 마음 분노의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가장 해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진에의 마음은 우리인간의 근본 번뇌의 하나라고 한다.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경계에 대하여 미워하고 분하게 여겨 몸과 마음을 편안치 못하게 하는 심리작용을 말한다.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는 이유는 물질적인 것(色) 나쁜말(聲) 냄새(香) 맛(味) 감각(觸) 등의 형상적인 것과 보이지 않지만 다른 하나는 의식작용이다. 이러한 경계에 자기마음과 다르면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것은 아주 무서운 행위로서 나타나야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살생, 도둑직, 음행, 거짓말, 두가지말 악한말 속이는 말을 방지하는 것이 곧 깨달음의 길인 것이다. 생각생각을 잘 단속하여 이러한 악행을 하지 않아야 만이 새로운 業을 짓지 않는 것이다.

아직도 마음을 가다듬고 억지로 단속해야만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지만 그래도 아직 분노의 마음 자체까지 뿌리가 뽑혀지지 않았으니 그 방법을 말하고자 한다.

내가 1990년에 동국대 총장직선에 입후보하여 압도적으로 일등을 한적이 있다. 그해 10월말에 이사회에서 총장선출이 있었는데 웬일인지(이유는 있었지만), 총장선출이 연기 되었다. 1991년 2월에 재차 총장선출 이사회가 열렸고 초반만해도 1등으로 교수회 추천을 받은 내가 유리하였다. 그런데 막상 표를 열고 보니 내가 한표가 적어서 낙방이 되었다.

누구도 만날 수 없었다. 가족도 친구도 모두가 모래알 씹는 기분의 상대였다. 그러나 거리를 헤멜 수 없지 않는가? 해가 떨어질 무렵 집으로 갔다. 아이들은 없고 집사람 혼자 안방에 있었다. 나는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말하게되면 이유를 설명하게 되고 설명하게 되면 분노가 폭발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나는 서재에 들어가 좌선을 하려고 결가부좌를 했다. 아무리 화두를 들려해도 배신의 증오가 눈에 어린거린다. 모두가 약속을 했는데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인간이 너무 간사하고 의리가 없고 정의가 없다는 것인가? 목탁을 들고 염불을 시작했다. 고성염불 속에 문득 '이 결과는 나의 업장의 결과이다. 그 누가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진 죄업을 갚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원망하는 것은 고통이다. 나는 오랫동안 수유리 화계사에서 매일아침 108참회와 함께 지장경 · 금강경 독송을 하고 있었다. 지장경의 죄업 소멸이 머리속에 박혀온다. 나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부처님법을 실천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나의 전생의 업장이 이 일로 소멸되어 새로운 업을 짓지 않도록 해야한다. 지금 나를 찍어주지 않은 분들은 전생에 내가 빚을 많이 진 분이고, 이제 이 고통으로 그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나는 저녁늦게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한분한분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전생의 죄업과 빚을 이것으로 갚았읍니다. 업장소멸이 되어 마음이 편안합니다"하고 진정 참회를 하였다.

물론 그후에도 분노의 마음 원망의 마음이 일어났지만 죄업소멸로 이겨냈다. 모든 업은 내가 짓는 것이다. 풀어내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다. 오온(五蘊)이 본래공(本來空)이다. 고액(苦厄)은 없다. 내가 만든 것에 속지말자.

'무아' 가르침이 자아중독 해독제

癡心 줄이기
치심
–더 비우자

자신의 정체성 모르는
우치가 탐욕·진에 일으켜
바깥과 상호작용 멈추고
내면의 독소와 투쟁을



윤 원 철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경전을 비롯한 불서(佛書)를 보면, 불법(佛法)을 병 고치는 약 처방에 비유하는 대목을 흔히 볼 수 있다. 하기는 꼭 불교가 아니더라도 어느 종교에서나 성현들이 범부들에게 주는 가르침은 인간과 세상의 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내용이다. 질병의 고통에 대해서 그 원인을 진단하고 치유할 방도를 처방하며 치유과정을 인도한다는 점에서 종교와 의술이 상통하는 셈이다.

부처님이 진단하는 중생의 근본적이고 절박한 문제는 무엇인가? 사성제(四聖諦)의 가르침에 그 진단과 처방의 요체가 담겨있다. 부처님은 중생의 삶이 온통 괴로움의 바다임을 보았고 그 원인은 갈애에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괴로움을 해결할 방법으로 팔정도를 처방하고, 이를 따르면 괴로움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가르쳐주었다.

사성제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갈애라고 했는데, 기실 갈애는 혐오와 짝을 이룬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좋아하는 것이 설정되면 자동적으로 싫어하는 것도 설정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양쪽 모두의 주체이며 기준이 되는 것은 '나' 즉 자아이다. 나한테 유리하고 즐거운 것에 대해서는 탐욕을 일으키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진에를 일으킨다. 즉 탐욕과 진에는 모두 결국 '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범부중생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에는 성을 내며 물리치는 데에다가 에너지를 온통 쏟아 붓는다. 그게 실은 괴로움을 생산해내는 활동인 줄을 모른다.

좋아하는 것을 가급적 많이 누리고 싫어하는 것을 가급적 피한다면 즐거운 삶이지 그게 왜 괴로움이란 말인가?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함의 주체이며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기는 '나'라는 게 당최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아'(無我)의 가르침이 바로 그 얘기다. 범부중생은 '나'를 당연하고 엄연한 고정불변의 절대적인 실체로 여긴다. 그래서 '나는 저게 좋아,' 또는 '나는 이거 싫어'라고 쉽게 판정하고 선언한다. 그 판정을 절대시하면서 현생에서 누리는 생명의 에너지를 온통 그 호오의 가름에다가 투여하며 살아간다. 그게 삶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무아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 '나'라는 관념이 애초에 허망하다. 그런 줄을 모르고 우리는 자신에게 고정불변의 절대적인 주체로서의 자아가 있다고 여기면서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이고 판단하며, 자기에게 이로운가 아니면 해로운가를 따지는 이기적인 욕구에 따라 살아간다. 자기 자신의 실제 정체성을 잘못 알고 있는 어리석음 즉 우치(愚癡) 때문에 탐욕과 진에를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부처님이 탐욕과 진에, 그리고 우치를 삼독이라고 일컬은 것은 그게 중생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일 터이다. 그 치명적인 독을 범부중생은 독인 줄 모르고 오히려 애지중지하며 집착한다. 원효대사가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에서 "세 가지 독물 같은 번뇌를 자기 재산으로 삼는다"(三毒煩惱爲自家財)고 한탄한 게 바로 그 얘기이다. 가히 심각한 중독 상태라 할 만하다.

중독(中毒)이 되었으면 해독(解毒)을 해야 살 수 있다. '디톡스'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해독을 뜻하는 디톡시피케이션(detoxification)의 줄임말인데, 대체의학에서는 좀 더 특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즉 유해물질의 섭취를 피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신진대사 과정에서 몸속에 생산되는 노폐물을 원활하게 배출하여 독소를 빼는 조치를 가리킨다. 정신의 해독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을 평온케 하기 위해 명상을 하는 방법이 디톡스라는 구호 하에 상업적으로 개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몸과 마음에서 탐진치 삼독을 풀어내는 일이다. 탐욕과 진에는 다른 글에 맡기고 이 글의 임무인 어리석음의 해독 방법을 궁리해보자면, 궁극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무아의 이치를 깨달아서 자아에의 집착과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극복해야지만 어리석음을 떨치고 실상을 환히 아는 지혜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실천적인 처방으로서 가장 먼저 제시하고 싶은 것은 한가로운 시간을 가급적 많이 또 자주 마련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로운 시간이라 함은 빈둥빈둥 노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잠자는 동안을 빼고 하루 종일 우리의 모든 지각과 감각과 관심과 신경은 오직 바깥을 향해서 뻗쳐나가고 바깥으로부터 자극을 흡수하느라고 분주하다. 그 '바깥' 과의 상호작용만으로 채워지는 나의 삶의 시간 속에 짬짬이 억지로라도 그 상호작용을 멈추는 시간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짬에는 회광반조(廻光返照)의 명상을 행하라는 것이다. 회광반조란 나의 관심과 지각과 감각과 신경이 온통 바깥으로만 향하던 것을 이제 거두어들여서 나 자신으로 향하게 하여 나 자신을 돌이켜 비추어보는 것이다. 그래야 나는 과연 누구이고 무엇인가, 내가 당연히 나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가 정말 나인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로 타당한 건가, 등등 자아의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탐색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불교에서 명상수련, 참선이 가장 기본적인 수행방법으로 되어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시시각각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일을 해도 먹고살기 힘든 판국인데, 웬 사치스러운 말씀이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표현이 한가로운 시간이니 어쩌니 했을 뿐이지, 그건 사실은 중생이 온전한 생명으로 살기 위해 내속의 독소와 치열하게 싸우는 생존투쟁의 시간이다. 사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절박한 일을 두고 한가롭고 사치스러운 일이라고 여긴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음의 극치일 것이다.



새해 빛 2014

謹賀新年 福

佛紀 2558年 甲午年 謹賀新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A6

원한의 마음 잔뜩 품은 사람들 속에 자비심 깊게 성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나는 살련다. 원망은 원망에 의해서 끝날 줄 모르니 참음(忍)을 실천해야만 능히 원망을 풀 수가 있으니 이것이 곧 불변의 진리니라.

– 법구경



한국불교태고종

종 정 혜 초

승정원 원장 남 파
부 원 장 법 장

원로회의 의장 덕 화
수석부의장 법 달
차석부의장 지 족

중앙종회 의장 혜 공
수석부의장 지 홍
차석부의장 자 운

총무원 원장 도 산
부 원 장 호 명
총무부장 재 홍
재경부장 지 관
문사부장 성 인
규정부장 지 담
사서실장 현 광

호법원 원장 운 곡
부 원 장 상 묵

종 도 일 동

■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 (사간동 112) / 전화 02)739-3450~4 팩스 02)739-3470

大韓佛教天台宗

종정 김도용 대종사

종정사서실장 박 덕 수

총무원

총 무 원 장 장도정
총 무 부 장 김 월 도
교 무 부 장 방 경 혜
교 육 부 장 정 도 웅
재 무 부 장 정 월 중
사 회 부 장 이 보 광
규 정 부 장 이 갈 지

원로원

원 로 원 장 전 운 덕

감사원

감 사 원 장 변 춘 광
감 사 위 원 조 용 문

종의회

종의회의장 이문덕
종의회부의장 김무원 · 김형구
참 의 원 장 김 학 송
금강대학교 총장 정 병 조

■ 충북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총본산 구인사 / TEL 043)423-7100 FAX 043)420-7399 www.cheontae.org

眞覺共感

당신은 진언향기 가득한 참 세상의 주인입니다.

총인 성 초

통리원장 회 정
예경실장 · 총무부장 덕 정
기획실장 혜 언
사회부장 호 당
총무국장 정 일
기획국장 능 원
재무 · 전산국장 수 혜
건설국장 진 광

현정원장 회 성
현정부장 덕 운

교육원장 경 당
교무부장 원 명
교무국장 법 경
교법연구국장 혜 담

진각대학원장 김봉갑
교학처장 증 혜

종의회의장 혜 명
부의장 일 석
부의장 경 일
사무처장 관 명

성지조성위원장 법 정
간사 원 주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136-130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3길 17 전화 : (02)913-0751~4 팩스 : (02)913-0755 http://www.jingak.or.kr

총기 43년
불기 2558년

謹賀新年

총지종은 생활 불교를 실천하는 정통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재가불교입니다

총지종은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 생활의 불교화'를 통하여
이 땅의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불교총지종

종령 효 강 대종사

통리원장 법 등

중앙종의회 의장 수 현
사감원장 법상인
총무부장 인 선
재무부장 우 인
교정부장 원 당
사회부장 지 정

중앙교육원장 화 령
동해중학교 이사장 지 성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법 우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안 성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시 정
충청전라교구 교구장 환수원

중앙종의회 의원 · 총지종 유지재단 · 전당건설 위원회 · 통리원 임직원
법장원 · 밀교 연구소 · (재) 사회복지재단 · 각 사원 주교 및 스승
총지종보 및 종보통신원 · (주) 이지스상조 · 각 교구 신정회 일동 · 만다라요양원 · 바라밀 공부방 · 초록어린이집 · 일원어린이집 · 포레스타7단지 어린이집

불교총지종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역삼동) | Tel. 02)552-1080~1083 | Fax. 02)552-1082 | www.chongji.or.kr

(사) 대한불교 무량종

종 정 정혜안 사서실장 보인

원로원장 양 지 은

총무원장 보운 교육원장 보산 감찰원장 정담 포교원장 지관

중앙종회의장 법우 부 의 장 보월. 보아 사무총장 보성

고시위원장 현장 종책자문위원장 종성 선관위원장 보아

총무부장 자운 재무부장 보혜 교무부장 정은 사회부장 보상 포교부장 무진

총무국장 보림 재무국장 보륜 교무국장 보선 사회국장 정혜 경호국장 정목

■ 총 림 :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314-7 은암천불정사 / 전화 051)292-4586
■ 총본산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칠성로 748-8 칠보정사 / 전화 055)883-7771. 7790

大韓佛教 佛入宗

宗 正 勉哲

元老院長 正 觀
總務院長 鏡 岩

호법원장 인 수 교육원장 지 학 종회의장 법 진 종회부의장 상 운 포교원장 혜 련

총무부장 보 성 역경부장 혜 광 재무부장 묘 훈 사회부장 봉 산
감찰부장 송 광 호법부장 무 각 포교부장 서 희

서울경기종무원장 지 철 부산경남종무원장 대 원
법화불교 교육대학 학장 혜 광 법화사상연구소 소장 혜 광
영남범음범패 교육대학 학장 대 원

■ 총본산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옥전길 125 전화 043)653-4800 / 팩스 043)653-5858
■ 총무원 :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30 안길4 전화 043)653-4848 / 팩스 043)653-5858

“나와 이웃이 함께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

서로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갑오년 새 아침에 진리의 법이 있습니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리의 법입니까?

일출동산대지명(日出東山大地明)이라. 새해의 장엄한 빛이 온 지구촌을 밝게 비추는 도다.

황금빛의 상서로운 기운이 마을마다 감도니 화합의 목소리 집집마다 들리겠습니다. 나무가 꽃에 집착하면 열매를 맺기 어렵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만 비로소 더 큰 바다에 들 수 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미래 앞에, 누적된 과거의 폐습, 반목과 갈등은 지난해에 잊혀 보내고 국가와 지구촌의 행복한 내일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염원합시다.

새 아침, 새 마당에 다 함께 나섭시다. 각자의 자기의 분을 따라 수행인은 수도에 전념하고 정치인은 국민의 안녕과 복리를 위해 헌신하며 농부는 생산에, 근로자는 일터에서, 학생은 배움에 매진할 때 태평가 울리는 일등국가 일등국민의 반열에 오를 것입니다.

사해오호(四海五湖)의 모든 형제들이여, 온 세계가 한 집안이요 만 가지 형상이 나와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그런데 어찌 남북과 동서가 있겠습니까? 귀하고 귀한 것이 생명이니, 생명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이 되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인과입니다. 원한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서로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키워내지만 막으면 찰 때까지 다투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부드럽고 더 겸손한 게 없지만 딱딱하고 강한 것에 떨어 질 때는 물보다 더 센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늘 낮은 곳에 처 하는 그 성품이기에 삼라만상을 윤택케 하나니 갑오년 한 해엔 물과 같은 덕행으로 고통 받고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서로 다투는 이웃이 없도록 서로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용서하며 통일과 세계평화를 앞당깁시다.

인빈(人貧)함은 지단(智短)이요 마수(馬瘦)하면 모장(毛長)이로다. 사람이 빈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기 때문이고, 말이 야위면 털이 길다고 하였습니다.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기를 염원한다면, 우리 모두 일상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하고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또 의심하여 진정한 참나를 찾아야 합니다. 참나 가운데 큰 지혜가 있고 참나 가운데 큰 복과 큰 덕이 갖추어져 있으니,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함께 누립시다.

진실과 화해의 큰 길로 나아갑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부처님은 모든 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화쟁과 중도의 가르침으로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원효 스님과 마하트마 간디, 그리고 만델라 등 인류의 지성들이 이 길을 이어왔습니다.

그분들이 온 몸으로 보여준 지혜와 자비의 울림은 우리들 가슴 속에 큰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에게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풍부한 물질을 누리고 있음에도 경제불황과 양극화, 끊임없는 분쟁과 자연재해 등 전 지구적인 고통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도 바다영토를 둘러싸고 한반도에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남북한은 정전 60년이 지나도록 평화체제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밖으로 화해와 상생의 물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자본가와 노동자 등으로 편을 가르기라도 한 것처럼, 대립하고 갈등하여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과 화해의 기운이 절실합니다. 옛 말씀에 바보 셋이라도 서로 모여서 의논 하면 문수보살의 지혜가 나온다 했듯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 종단의 주인인 사부대중이 서로 마음을 모아 지혜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한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나만의 것은 아닙니다. 바람과 햇볕과 이웃의 사랑이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불행한 이웃을 두고 내가 행복할 수 없으며, 나와 이웃이 함께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입니다.

내 옳음 속에도 빈틈이 있고, 상대방의 그름 속에도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한 발짝씩 다가가고 손을 잡으면 못 이룰 행복이 무엇이며, 못 이룰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과도한 욕심과 잘못된 성냄에서 벗어나, 진실의 눈과 자비의 손길로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진실과 화해의 마음이면 기로에 선 민주주의는 활로를 찾을 것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것으로써 빛을 발하는 협동과 공존의 대안경제가 열릴 것입니다.

타인을 존중하기에 내 마음을 비울 수 있으며, 남이 남이 아니기에 나눌 수 있습니다. 비움과 나눔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동체대비 배려로 갈등 치유하길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옛 조사 스님의 말씀 중에 ‘만약 한번이라도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겪지 않고서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 향기를 맡을 수 있으리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년 아침을 맞아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다가올 아늑하고 따사로운 봄볕이 더욱 많은 생명을 움트게 할 약속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러한 약속을 품고 다가 온 새해에는 이 땅의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덕화가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옛 것을 마무리하고 새 것을 맞이하는 신년벽두는 희망과 행복을 기대하는 설레임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나만의 행복, 나만의 희망만을 집착하고 욕심낸다면 진정한 행복은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타인과 나누고자하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마음속에서만 세계일화(世界一花)의 한 송이 꽃이 만개하고 국민행복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옆 자리의 사람을 경쟁과 대립의 상대가 아닌 함께 호흡하고 발맞추어 나갈 아름다운 동행의 동반자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사회는 진정한 불국토로 화현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소외되고 지친 이웃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는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자칫 낙오될 수도 있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요, 마음을 나누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불자(佛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기소불욕(己所不欲) 물시어인(勿施於人)이라! ‘내가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는 말처럼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남을 나와 같이 여기는 동체대비의 배려를 통해 우리는 갈등과 대립을 상생과 화합으로 전환시키는 무한한 나눔을 온 누리에 채울 수 있습니다. 활달하고 푸른 기운을 갖춘 진취적인 청마의 해를 맞아 부강한 나라와 국민행복 시대를 염원하며 국민과 불자 모두가 근본의 자리에서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소중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두를 공경하는 새 해 되길 바랍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 해 첫 아침을 여는 해는 희망과 평화 그리고 행복의 빛으로 산하를 비춥니다. 밝은 빛살 속으로 상서로운 군마(群馬)가 힘차게 달려오며 희망과 행복의 장엄한 서곡을 연주하는 듯합니다. 일체중생이 밝은 기운을 받아 환희 공양을 베푸니, 삼라만상이 그대로 불보살의 구현입니다.

이 찬란한 새 아침, 우리는 올 한해를 살아가는 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올 한해는 일체를 공경하는 해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나를 낮추면 세상이 높아지고, 상대를 높이면 세상이 평화로워 집니다. 모든 갈등은 나를 높이는데서 비롯되고 모든 고통은 나에 대한 집착으로 오는 것이니, 올 한해는 나를 낮추고 일체를 공경하는 지혜로 살아갑시다.

일찍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고집멸도의 성스러운 진리로 법계의 근원을 파악 하셨으니, 그로부터 팔만사천의 법문과 십조구만오십팔자의 장광설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러나 일체의 법문과 장광설도 결국은 나 한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발현하고 귀착되는 것이니 나를 다스리는 것이 우주 법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것의 최상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니, 상불경보살의 다함없는 수행이 그 표본이라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아집과 독선 그리고 편견의 파도가 한 순간도 그치지 않습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재해와 전쟁의 공포는 물론 장기적인 경제 불황과 국가 민족 간의 갈등이 들끓고 있으니, 어느 땅에 평화의 꽃 한 송이를 피울 수 있겠습니까?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상불경 보살로 살아갑시다.

다툼이 없으면 평화롭고 차별이 없으면 평등합니다. 일체를 긍정하는 마음에서 천지의 조화가 드러나고, 상대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상생의 복락이 펼쳐집니다.

갑오년 새해를 시작하며, 천지가 원융하고 일체가 원만하여 정토의 문을 활짝 여는 대지혜가 함께하길 기원 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긍정의 힘이 수행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갑오년 새해, 불자(진언행자) 여러분 모두에게 복과 지혜 가득하시길 서원합니다. 갑오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은 긍정의 희망과 의지의 서원으로 가득합니다. 더불어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의미 있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저마다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가벼이 하지 않습니다.

불자 여러분, 올 한해, ‘긍정’ 이라는 희망으로 나의 모든 일을 받아들여 자신을 키우는 수행의 주인이 되어봅시다.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은 나와 인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자로서 좋고 나쁜 일을 분별하지 않고, 일체를 나의 인연으로 받아들여 새기는 일은 인과의 이치를 밝히는 지혜, 그 자체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다가올 미래에 의지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하는 실천이 불자로서 지혜를 밝히는 최선의 길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수행자의 참모습으로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불자(진언행자) 여러분, 지난 한해 모두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쉽지 않은 한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나 올해는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긍정의 힘으로 세상을 헤쳐 나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인과의 이치를 알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긍정의 힘은 타인을 이해하는 힘이 됩니다. 나의 그릇을 반듯하게 키우는 지혜와 복덕이 됩니다. 나아가 부정과 갈등을 극복하는 우리 사회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수행 또한 긍정의 힘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실천이 되어 이웃사회에 밝고 희망찬 웃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행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긍정의 힘입니다. 웃음 넘치는 사회의 씨앗입니다.

불자(진언행자) 여러분, 수행의 씨앗을 키워 나누는 힘차고 멋진 한해의 주인이 되고, 복과 지혜 가득한 나날 되시길 서원합니다.

근본자리로 귀일하길 축원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갑오년 새해가 밝으니 곳곳에 희망의 물결이 가득합니다. 눈 덮인 산에 이는 활연한 바람과 납월(臘月)의 모진 추위는 아직 결기를 부리지만 금풍에 씻기던 암자의 매화 가지는 벌써 봄빛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옛 조사 스님의 말씀에 ‘춘색무고하 화지자장단(春色無高下 花枝自長短)’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글자대로 풀이하자면 ‘봄빛은 높고 낮은 것이 없이 두루 비추건만, 꽃가지는 스스로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다’ 란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염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치 평등한 봄빛에도 길고 짧은 꽃가지가 생겨나듯이 온갖 번뇌에 스스로 묶여 괴로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천만 불자 여러분, 참된 행복이란 밖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지혜와 덕성을 고루 갖춘 자기의 본래 모습이 있음을 자각하고 ‘천지와 나는 같은 뿌리요, 만물은 나와 한 몸’ 이라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을 일으킬 때 우리 곁에 다가올 것입니다.

동지섣달 추위를 뚫고 납매(臘梅)가 먼저 갑오년의 꽃소식을 전합니다. 금년 한 해는 활발발(活潑潑)한 청마의 기운처럼 천만 불자 모두가 오고 감이 없는 기용(機用)속에 평등과 차별을 뛰어넘어 근본의 자리로 귀일(歸一)하시기를 축원 드리며, 나라가 부강하고 문화가 융성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회와 발원으로 새해 맞으라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大慈大悲恒相續
大喜大捨無間斷
爲有緣者導妙法
晝夜修心常精進

욕망을 쫓아 업이 된 세월, 참회로 비우고
인간 몸 받은 귀한 인연 기뻐하며 원을 세우라.
꿈같은 세월에 속지 말고
명명백백 분명한 이 순간을 영원으로 살려라.
새사람이 되어 새해를 맞는 이들이여.
새아침의 기쁨 함께 나누니
누리에 복이 가득하여라.
걱정 근심 번뇌덩이 본래 있었더냐.
언제나 밝고 깨끗한 본성의 빛을 바로 보아라.

자주·화해의 심전을 가꾸자

성초 정사
진각종 총인



천지天地의 운행이 다시 돌아 갑오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의 대일(大日) 광명이 산하대지를 감싸서 법계의 중생들이 안락(安樂)의 새해를 가꾸어가기를 서원합니다.

심인을 밝혀 청정심을 터득하면 말법시대(末法時代)의 중생심을 다스리고 명문이양(名聞利養)의 집착을 벗어나서 피아(彼我)의 차별이 화합으로 승화(昇華)하는 수행과 교화의 수승(殊勝)한 수행공동체가 열립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함께 정법(正法)에 귀 기우려야 보수진보의 두 바퀴가 파열음을 내지 않고 사회의 뭇 계층은 상보(相補)의 터전을 마련하여 국론 통일과 국정 안정의 두 기둥이 굳건히 서서 복지사회가 자리를 잡습니다.

과학문명의 혜택으로 미증유의 풍요를 누려도 심성을 정화하는 공부를 더불어 해야 물심이 이원전문(二元專門)의 조화를 이루어서 개아(個我)의 이기심에 전도(顚倒)되는 세류(世流)를 돌리고 공존공영(共存共榮)의 사회에서 화평(和平)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주와 화해가 대중의 심전(心田)에서 생기를 얻고 방방곡곡에서 새 희망의 기운이 넘쳐흐르며 너와 내가 저마다 소질과 능력을 찾아내어 소담한 웃음 넘치는 행복의 삶을 빚어 가는 따뜻하고 새로운 세상이 되도록 정진합시다.

국론화합 원년으로 만들자

효강 정사
총지종 종령



희망찬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불자님들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서원합니다.

우리는 연기의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 무연대비 동체대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이쪽을 해치면 저쪽은 따라서 손해를 보고, 저쪽을 도우면 이쪽도 따라서 이익을 받습니다. 남을 해치면 내가 죽고, 남을 도우면 내가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요, 진리입니다.

일체만물은 서로 의지하여 살고 있어서, 하나도 서로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이 깊은 진리는 만물은 원래부터 남남이 아니라 한 뿌리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분들에게 자비의 법등이 밝혀져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서원합니다. 자비와 보살행의 원력이 국론화합과 경제난 극복의 원동력이 되기를 지심으로 비로자나 부처님께 서원합니다.

어려움에 처해도 최선 다하면 그 자리가 '극락'

갑오년, 오유지족의 해 되길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새해가 밝아옵니다.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는 오유지족(吾唯知足)의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즉, 스스로 오직 만족할 줄 아는 새 해를 맞으십시오! 극락에 있어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극락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유지족하기 위해서는 첫째,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양보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내야합니다. 셋째,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아야 합니다.

이러한 참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간다면, 힘찬 말과 같이, 우렁찬 말발굽 소리같이 확! 트인 갑오년이 될 것입니다. 마하반야바라밀!

바른 정치 이뤄지도록 해야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법등 정사



부처님께서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생사고(生死苦)라는 인간고의 해결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고에서의 해방의 길은 정신적 측면뿐만 아니라 물질적 환경 즉 국가의 경제, 정치적인 측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치적 현실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라,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군주와 백성을 인격적으로 교화하는데 많은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여 나 자신을 정화하고 그러한 나의 정화를 바탕으로 사회와 국가를 위하고 나아가는 한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공존 · 공영 사회 만들자

(사)대한불교원융원(종) 종정 일공 스님



원통융화(圓通融和)한 인간사회,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가정으로부터 사회국가 내지 전 세계에 이르기 까지 원통융화(圓通融和)되어야 합니다. 원통圓通은 조금도 간격이 없이 둥글게 통한다는 뜻입니다. 원통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도와주는 인도의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그렇게 둥글게 통하는 곳에 만복이 따릅니다. 융화는 서로 단합하고 친선하면 서로를 도와서 공존(共存), 공영(共榮)하는 공동생활의 규범입니다. 스스로가 예를 갖추고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이사회는 가장 평화롭고 밝고 안락한 이상사회가 될 것입니다.

다 버리면 싸울 일도 없구나

(사)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스님



烏飛兎走 誰能止 雪中木蓮 己春色
兩羊一橋 終日鬪 身在東持 依西風
狐質虎皮 有甘言 是非勝敗 悉慾生
皆棄虛心 何事爭 一切作福 唯心造

오고가는 세월은 막을 수 없어 눈꽃 속에 목련은 어느덧 춘색이네. 외나무 다리위에 양두마리 다툼은 해지는 줄 모르고 몸은 동에 앉자 서쪽노래 부르네.

여우가 범가죽 둘러쓰고 도리어 여우의 울음을 짖고 시시 비비 이기고 지는 것들은 욕심에서 생겨나니.

다 버리면 편해지네 싸울 일도 없구나. 모든 것들은 내 마음으로 만드는 일.

중생의 지팡이되는 불자 됩시다

국제선불교조계종 대승정 목탁 스님



正等覺無畏 漏永盡無畏
設障法無畏 說出道無畏

생동감이 가득한 갑오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오른손을 무릎 위로 늘어뜨리고 왼손으로 옷자락을 쥐고 있는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바라보십시오. 대지에 맹세하여 마왕을 조복한 부처님의 큰 깨침을 명기하신 인계(印契)입니다. 욕계의 인간이 살아가는 지표입니다. 새해에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부처님을 닮아 중생들의 지팡이가 되고 살아있는 대자대비 하신 관세음보살이 됩시다.

해조음의 광명을 보라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스님



갑오년 새해아침 해조음을 타고 밀려오는 광명을 보십시오. 부처님의 음성입니다. 보살의 자비행입니다. 묘법연화경의 대광명입니다.

거짓 나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마음눈을 뜨고 보십시오. 귀로 듣고 마음을 씻으십시오. 높이 오르십시오.

무명을 깨고 나오십시오. 묘법의 평등대혜가 온 세상에 펼쳐짐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바른 지혜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 우리 불자님들과 국민 모두가 함께 부처님이 되는 한해가 되길 서원합니다.

참회구현이 부처님 광명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스님



새해를 맞고 묵은해를 보내고. 날과 날이 그냥 이어지는 것인데 우리 기준으로 새해니 묵은해니 합니다. 매일 매일이 새날이고 매일 매일이 묵은 날인 것인데.

서로를 둘러보고 보듬어 함께 잘 살아 봅시다. 같이 힘들고 같이 아파하는 열린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밝게 미소 짓는 불자가 됩시다. 항시 자기를 낮추고 온화한 미소로 함께 살아갑시다. 아집과 이기심을 비우고 참회를 구현할 때 부처님의 크신 광명이 나투시고 중생들은 비로소 행복과 안위의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심행하면 만인 존경이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혜봉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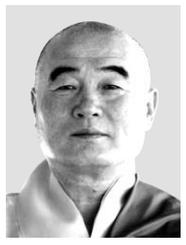


부자(父子)간에, 형제간에, 부부간에, 친족간에, 이웃 간에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며 탐욕도 성냄도 벗어 놓고 증오하지 말며, 안색은 화평하게 하고 아상을 버리고 하심 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만인의 존경을 받는다.

대해가 티끌을 품어도 말없이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부처님의 한결같은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온 인류의 행복을 위하는 대승적인 참된 불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항시 부처님을 찬탄하고 정진해 나갑시다.

국난 극복 해법이 불교

(사)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회장 무산 스님



국난극복의 저력과 중심축은 불교가 해법이다. 존경하는 불자여러분!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국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나투어 행복가득 하시기를 합장 기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한국불교가 세계 일류 종교로 힘차게 나아가는 "희망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불교인들이 오직 신심과 용맹정진으로 일체의 단합과 화합으로 솔선수범하여 정법안정의 지혜를 모아 반드시 더 큰 한국불교 발전을 다함께 열어갑시다.

삼라만상이 한 법성체

(사)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스님



칠흑 같은 무명과 함께 묵은해가 사라지고 밝은 마음으로 희망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탐욕과 무명의 허망한 꿈속에서 보게 되니 삼라만상이 한 법성체로 우리 주위에 있는 중생들이 모두 부처입니다.

아미타불의 사십팔 대 서원처럼 어둠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중생들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중생요익의 밝은 지혜로 어둠을 밝히고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밝은 법등 명되어 남과 북 동과 서 온 세상이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모든 것을 참으면 덕이 돼

(사)대한불교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甲午年 大運智通
忍之爲德 不忍不戒
小事成大 忍爲之上

모든 것을 참으면 덕이 되며 참지 않고 경계치 않는다면 적은일이 더 크게 화가되니 참는 것이 상위가 되는지라

새해에는 참나를 찾아 대 자유인이 됩시다. 티끌 속에 살면서도 티끌을 벗어나는 참다운 무아를 깨닫길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데 작은 등불이나마 지켜 나갑시다.

죽음 가운데 살아나니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승 스님



거울 앞에 서니 아름다움과 추함이 분명히 구분되고 명검이 손에 있으니 죽이고 살리기를 마음대로 하도다. 밤이 가면 낮이 오고 낮이 가면 밤이 온다. 죽는 가운데 살아나며 산 가운데 죽는다.

계사(癸巳)년은 가고 갑오(甲午)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일년지계는 재어원단(一年之計 在於元旦)이라. 어렵지 않은 해가 어디 있었던가? 어려움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이천만 불자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마음먹기 달렸으니 어려움에 빠져 있지 말고 새해에는 심기일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부처님이 가피를 모두모두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실천하는 참모습 돌아가자

(사)대한불교승가회 총재 무공 스님



자정기의를 실천하는 참 불자가 되자. 진리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진실한 것이다.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진실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것을 우리가 제각기 지니고 있는 알음알이로 차별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제멋대로 개념 지어 그 개념에 사로잡혀 진실한 자기 자신을 망각하는 것이다. 우리 승가와 불자들은 자정기의(自淨其意)를 실천하는 참모습으로 한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라

세계승가회 회장 아신 수완나 스님



如烏飛虛空 影則常相隨
通達無我法 卽眞是涅槃

창공을 노니는 새 그 자취 찾기 어렵고
언제나 따르는 상은 그림자와 같음이네. 일체의 실상이 모두 없다함을 통달하면 그것이야 말로 참다운 진여열반이니라

무릇 일체중생이 열반에 이르지 못함은, 집착이 근본이 되어 허망한 경계에 빠져있음이니, 이러한 이는 마침내 객진번뇌에 둘러싸여, 참다운 고요함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망상을 일으키는 알음알이로부터 벗어길바랍니다.

팔정도를 행하는 한해되길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정 지공 스님



자기를 믿는 자는 남도 믿고(自信者人), 자기를 믿지 못하는 자는 남도 또한 믿지 못하고(自信不者人), 마음이 밝으면 있는 곳이 극락이고(心明之樂), 마음이 어두우면 있는 곳이 지옥이니라.(心暗之獄)

다가오는 갑오년에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 자기성찰(自己省察)과 함께 팔정도(八正道)를 행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불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되길 진심으로 서원합니다.

분별심 벗어나면 극락세계

(사)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스님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말해(午年)의 기운으로 힘차게 달려갑시다. 어려웠던 묵은해는 다 잊으시고 새로이 다가오는 한 해는 모든 중생이 행복이 넘치는 활기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이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며 모든 이들의 갈등과 대립, 경쟁심이 사라지기를 기원합시다.

깨닫고 보면 날마다 좋은 날이지만 권력과 부귀와 입신출세만을 바라며 살아간다면 하루하루가 힘들고 결국 그 끝은 암울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이기적 분별심을 벗어나 나와 이웃과 함께 한다면 모두 극락세계일 것입니다.

모든 세계 나의 말따라 변해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



갑오년 새해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희망찬 새해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지혜광명이 두루 하니 온 만물이 불성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불성을 모아 내안의 청정함을 되찾고 사랑과 신뢰, 믿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치유하며 평화로운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모든 세계가 나의 말과 행동에 따라 변합니다. 참나를 자각하여 공존공생의 삶이 되도록 바로보고 바로 행하도록 합시다. 부처님께서는 평생에 걸쳐 중생들의 미혹함을 깨우쳐 주려고 하신뜻을 마음에 새깁시다.

미움도 고움도 털어버리고

(사)대한불교염불종 종정 성인 스님



갑오년 새해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 할 것을 기원합니다. 부처님이시여. 갑오년 오시는 길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일들만 가지고 오시옵소서. 갈등으로 가득한 이 세계를 부처님의 자비로 어루만져 주시고 가르침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 미움도 고움도 털어버리고 한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부처님께서는 온 세계가 불난 집에서 소꿉질하는 것이 중생의 삶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려면 나를 버리고 자유로워질 때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좋은일, 나쁜일 내가 뿌린 씨앗

대한통일불교조계종 종정 벽암 스님



좋은 일, 나쁜 일, 내가 뿌린 씨앗.

농사짓는 농부가 씨를 뿌림은 싹 나는 것을 믿기 때문.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생각하며 믿음을 바탕으로 나아간다면 어려울 일 전혀 없다네. 인연한 모든 자 새해에는 복덕이 함께 하시기를. 괴로움의 원인이 욕심이니 이 욕심의 덩어리를 없애는 길이 괴로움을 없애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희망찬 새해, 쉼없는 정진의 각오를 굳건히 해 좋은 인연 만드는 원년으로 삼아봅시다. 새날 새해 아침 모두의 건승을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자비는 보살의 연꽃으로 변한다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무심(無心)하다면 자비(慈悲)는 보살의 연꽃으로 변한다. 희망찬 갑오년 새해가 세상을 향해 힘찬 첫 걸음로 밝아 왔습니다. 만약 여기서 분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처가 부서져서 마군이가 되는것요, 참으로 무심하다면 악마의 지독한 화살은 자비스러운 보살의 부드러운 연꽃으로

변할 것입니다. 불자는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여 모든 대중이 함께 지혜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할 이일 것입니다.

불교의 기본 가르침은 오직 하심 뿐일 것입니다.

이기적 분별심 벗어나 이웃과 불국정토 이루세

계율 청정, 대중 노랫소리 들려

불교조계종 종정 혜인 스님



계율이 청정하니 새해 대중의 노랫소리 들린다. 계율이 청정하니 남과 북이 화합하고 새해대중의 행복의 노랫소리 들린다. 자비로운 여왕이 권좌에 오르니 세계가 우러러 태평성대라. 대중은 화합하고 같이 나누고 자비롭게 말하고 남을 존중하니 국가는 융창하고 부모형제 이웃의 웃음소리 세계에 넘쳐난다. 새해 동녘 해는 밝고 한강은 유유히 흐른다. 남산의 소나무 힘 넘쳐나고 인왕산 산세들 한가롭게 뛰어논다.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우리 사회 공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불자들이 함께 노력해 갑시다. 화합의 물꼬를 트기 위해 지혜로운 대안을 모색해 나갑시다.

모든 생명을 부처님 보듯이

(사)현대불교조계종 종정 벽운 스님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아무런 동요가 없으며, 능히 일체 만법을 만들어 내거늘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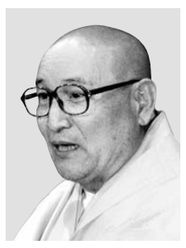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보고 합장 공경합니다.

새해 새날 우리 불자들이 나서서 정도와 정법으로 새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앞장 섰시다. 부처님 정법 안에 그 답이 있음을 알고 모두가 함께 정진해 나갑시다.

새해를 맞아 쉼없는 정진의 각오로 좋은 인연을 만드는 날마다 좋은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움 없는 종교인 되자

대한불교본조계종 종정 회암 스님



勿以貴己而賤人 勿以自大而蔑小
勿以恃勇而輕敵 心不負人 面無慙色

자신이 귀하다 하여 남을 천대하고 자신이 커다랗다 남을 작다 멸시하고 자신이 용감하다고 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마음속으로 남을 배신하지 않으면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나타나지 않는다.

새 해를 맞이하는 불자님. 평상심을 찾아 행복한 삶을 회복합시다. 본래 청정의 마음을 찾아 걸림이 없는 자유로 상생의 길을 열어갑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이 깃들고 이웃 간에 따스한 온정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자비로 원융화합의 새해되길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종정 연화 스님



無南北亦 無東西 天地萬物 與我空
貪欲滅濟 慈悲行 圓融和合 一切化
護國安民 生紫氣

일찍이 남과 북이 없었으며 동서도 없으니 천지만물도 나와 함께 비었네.

우리 모두 탐욕을 버리고 자비로써 행하면 중생들은 자연이 원융화합으로 일체를 이루리니.

그것이 호국이요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이요. 온 법계가 찬란히 빛날 것이로다.

붉은 태양은 어김없이 떠오른다

(사)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풍 스님



아무런 약속도 없었는데 저 동해구의 붉은 태양은 어김없이 떠오릅니다. 이 우주만상은 말없는 가운데 유전하고 항시 새로움을 줍니다.

刹眞信念加數知 大海中水加飮盡
虛空加量風加繫 無能盡說佛功德

우주의 먼지같이 많은 생각들을 헤아려 알고 큰 바다의 바닷물을 다 마시고 허공을 못 헤아려보고 바람을 휘어잡는 능력이 있어도 부처님의 공덕 다 설할 수 없네요.

오고감 없는 자리서 성불하세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능인 스님



謂心無爲淨修梵行 明達淸潔是爲比丘

마음에 어떠한 집착도 없고 부지런히 청정한 행동 닦아밝은 이치에 통달하면 이러한 사람을 비구라고 한다.

묵은 한해를 떨어 버리고 나니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가 밝았도다. 중생들은 언제나 부처의 종자니 오고감이 없이 모두가 앉아 성불하세. 부처님께서는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불자님들 모두 발원하시는 일 성취하시고 항상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양보와 화합의 사회 조성합시다

(사)대한불교삼계종 총무원장 일초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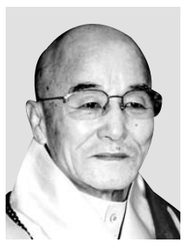


비로광명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갑오(甲午)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밝게 떠오르는 아침 해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분별. 자기 판단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 밝아도 밝음을 보지 못하고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조금씩 양보하고 한발씩 물러나서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 모든 이가 하나로 뭉쳐 화합된 사회가 조성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비방·칭찬은 모두 명리 때문

(사)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송산 스님



사람이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잘 한 것도 비방하고 못 한 것도 비방하고 말과 소리도 비방하고 세간에서는 비방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데 비방하고 칭찬하는 것은 모두 명리 때문이다.

명리 추구에서 벗어나 부처님 법에 따라 마음을 닦고 정진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불자님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진하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부처님에 자비광명이 가득하길 서원합니다.

번뇌는 좋은 공부재료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스님



色耶. 空耶. 放下着.
離忘覓心求龜毛.

빛깔이냐. 빔이냐. 놓아라.
망념떠나 마음찾음 거북털을 구함이네.

우리들은 항상 이분법 적으로 이것과 저것을 나눕니다. 또한 옳고 그름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법성의 자리에서는 항상 여여하며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번뇌는 좋은 공부재료입니다. 이러한 공부재료를 벗어나 마음을 찾는 것이 야말로 허망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청정한 마음자리 찾아 자유인이 될 때까지 정진 합시다.

부처님 가르침 거울삼아 정진

대한불교선종 총무원장 정관 스님



갑오년 새해에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새해에는 모든 불자들의 가정과 모든 사부대중들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믿고 다함께 정진합시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진한다면 청정한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면 다툼 갈등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웃음과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널리 퍼져 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불자들께서는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화합해야 합니다. 서로 양보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자신의 허물을 참회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불우 이웃을 위해 모두 정진합시다.

참으로 참회하여라

(사)호국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유심 스님



마음에 죄의 인연 없애려 하면 성품 가운데 참으로 참회하여라. 배움에 항상 자성관 하면 즉시에 부처님과 한 무리되리. 앞으로 법신을 찾고자 하면 모든 법상을 떠나서 마음 씻으면 노력하고 살피며 노닐지 마라. 뒷생각 끊어지면 한 세상 쉬리라. 이 게송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돈오 하리라…. 내 가족, 이웃, 사회, 국가와 민족 인류의 평화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스스로 내실을 다져 각 개인마다 충실하여 인격을 완성합시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한국불교법안조계종 종정 운봉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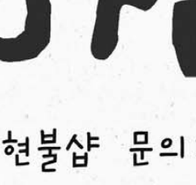


세월이 흘러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렇듯 자연스러운 자연을 닮아가는 것이 '도' 입니다. 우리의 삶도 자연의 일부분 이듯이 자연스러움이 넘쳐나면 삼독이 저절로 녹아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갑오년 새해 밝은 눈으로 생명의 실상을 바보 봅시다. 생명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자비행의 원력을 세웁시다. 모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듯이 불자님들도 올해의 원력을 더 크게는 평생의 원력을 세워 정진 정진합시다.

하심으로 솔선수범자세 가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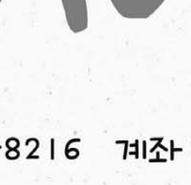
대한불교대승종 종정 천광 스님



새해 새날 항상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불자들이라면 마음을 담은 서원을 스스로 다짐하며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스스로가 하심으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갈등을 치유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청정한 마음으로 참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이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강해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보아 미망을 떨쳐버리고 진실된 나를 찾아가는, 정진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백년염불 남음이 없어

(사)대승불교조계종 종정 은파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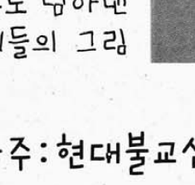
東海日光石窟漫 佛菩薩而微笑顔
颱風降雪佛非動 百年念佛餘無誦

동해의 일광이 석굴에 가득하니,
부처님과 보살의 얼굴에 미소를 짓는다.

태풍과 눈이 내려도 부처님은 흔들리지 않으며, 백년염불을 외워도 남음이 없다. 탐진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상을 가슴에 안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상을 놓아버리고 수행의 참모습으로 돌아가 불자답게 살아갑시다.

우리들의 본래마음이 평상심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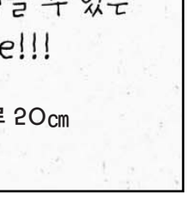


갑오년의 새 아침을 알리는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산하대지는 기쁨으로 넘쳐나고 온갖 중생들은 희망에 부풀어 웃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난날의 힘들었던 고난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힘찬 새해를 맞이합시다. 옛 선사가 '평상심이 도'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본래의 마음이 평상심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평상심을 찾아 행복한 삶을 회복합시다. 또한 청정한 본래의 마음을 찾아 상생의 길을 걸어갑시다.

사명지켜 세상의 빛 되자

종교세계신문사 발행인 윤기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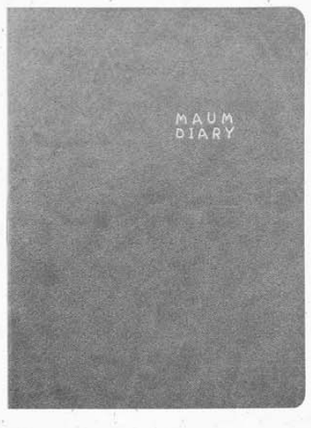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희망과 기대를 안고 2014년 새해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우리는 새해 평탄하지 않은 길을 가야합니다. 국내정치는 불안하고 경제여건 또한 여의어하지 않습니다. 주변여건이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 언론인들은 중심을 잡고 바로 서 있겠습니다. 언론인들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정신의 하나가 바로 비판정신입니다.

올해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 언론인들은 언론 본연의 비판정신을 결연히 지켜 국가사회의 빛으로 나툴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대행큰스님 말씀과 어린이들의 그림이 함께하는
2014 마음 다이어리

1 하루 하루의 지침이 되어주는 스님의 말씀
2 새싹 같은 마음으로 담아낸 아이들의 그림



3 늘 지니고 다니는 뜻으로 푼 경전의 소중함
4 날짜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free note!!!

♥ 크기 : 가로 14.8cm × 세로 20cm
♥ 가격 : 1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불샵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홍익 사상은 요익중생… 인류구원의 키워드”

2014년 초입, 설렘과 기대를 안고 올 한해를 바라보듯 세계적 석학의 눈을 빌려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전망해본다. 구랍 12월 일시 귀국한 오바마 정부의 명예장관 이홍범 박사와 현진 스님의 대담으로 한국 사회의 앞날과 불교를 통한 인류 화합을 모색한다. **정리=배현진 기자**

새아침을 여는 대담

이홍범 박사(美 헌팅턴대 학장, 오바마 정부 명예장관) : 진행 현진 스님(여의도 포교원장)



한국을 방한한 이홍범 박사가 신라호텔에서 현진 스님과 대담을 가졌다. 이 박사는 “로마가 무너진 것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라며 종교가 보이지 않는 정신권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불교가 인류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박사는 이를 위해 불교가 세계인들에게 행동하는 자비를 보여주길 주문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이박사님 안녕하세요. 연세에 비해 아직도 젊음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일체가 유심조라 마음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생활이 40여년 되셨습니다. 그간 이력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헌팅턴 대학 칼리지 총장으로 있으면서 오바마 정부의 키친 캐비넷과 캘리포니아주 의회 8인 정책위원, 세계 정치경제 학술협회 총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아시아 이상주의〉를 힐러리 클린턴이 읽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추천해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책을 읽고 한국에 대해 새로 알게 되었다며 저를 만날 것을 요청하였고 그 후 명예장관으로 알려진 키친 캐비넷으로 임명돼 정책 자문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불심이 돈독하셨다 들었습니다. 박사님 또한 남해 사찰에서 100일 기도와 불공 후에 얻은 손이라 집안에 불교가 깊이 자리잡혔을 듯한데, 불교가 박사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미국에서도 꾸준히 불교 신자로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불교적 우주관 역사관은 제 학문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무엇이 역사의 진실이며 진리인가를 추구함에 있어 과학적 차원에서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인데, 불교적 가치관, 역사관, 우주관에 담긴 과학적 성격이 이러한 제 연구와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 우주 · 역사관, 학문에 영향

–박사님께서 쓰신 책 〈아시아 이상주의〉는 미국 주요 대학에서 교과서로 상용될 정도로 명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연구를 하면서 저도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 중 하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바에 의하면 한국이 중국문화의 속국이었고 일본이 한 때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것도 한국이 뒤쳐졌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고대에는 한민족이 일본과 중국에게 영향을 끼친 바가 적지 않았고, 아시아문명의 원조가 한국 민족이라는 것을 역사적 고찰과 증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420페이지에 달하는 책에서 30페이지 정도를 이 부분에 할애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자 세계 학계에서 역사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만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은 저명한 학자들이 모인 역사재검토위원회 수장을 맡아 국제적 토론을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역사적 진리를 전세계에 소개할 것입니다.

〈아시아 이상주의〉를 연구하며 느낀 것은 한민족이 대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자 입장에서는 진실을 추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속속들이 발견되는 인류학적 고고사적 사료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사람이 동양문명의 어머니일 뿐 아니라 서구문명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오고 있습니다. 서구문명의 어머니라 알려져있는 수메르 문명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해보면 한국말과 유사한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수메르 고대유적 또한 조사해보면 여러 형상들이 한국의 문화적 유산과 유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책을 어떻게 쓰시게 된 것인지요.

“미국 하버드, 펜실베니아, 프린스턴, 예일 대학을 비롯, 전 세계 학계에서 역사, 정치 분야에서 첨단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이상주의에 대한 연구입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이 제게 동서양을 비교하는 이상주의 이론과 활동에 대해 비교연구를 해달라고 부탁해서 〈아시아 이상주의〉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제안을 수락한 것은 인류역사가 지속돼 오면서 종교와 관련된 전쟁과 정치적 투쟁, 대립이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저역시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에도 중동에서는 종교적 분쟁,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세계의 이상주의 활동을 연구하기 위해 동서남북 고금동서를 망라하고 자연과학 이론까지 비교하면서 새로운 총체적 연구방법론을 택했습니다. 한국의 동학, 중국에서는 태평천국, 소말리아의 이슬람 이상주의 운동 등 러시아 아프리카, 남미를 아우르면서 불교는 물론 기독교, 회교 등 주요한 종교적 활동을 역사적 관점에서 정치활동과 관련해 비교연구했습니다.”

미래사회의 동력

역사를 움직인건 경제, 물질 아닌
정신인격… 다름 아닌 ‘마음’
만유중생의 연기법은
세계 평화 위한 인생 · 우주 · 역사관

–대략만 들어도 하나의 역사책인 것 같습니다. 고대사와 근현대사를 아우르며 그 속에서 인류의 평화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탐구해보는 글인 듯 합니다. 책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뿌리인 단군정신과 홍익사상을 강조하면서 이 사상이야말로 세계 평화와 자유를 건설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불교가 홍익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홍익사상을 불교사상과 비교해보면 요익중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에게 유익함을 준다는 거죠. 기독교로 말한다면 사랑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홍익사상은 불교의 보살사상과 상통하네요. 요익중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기라는 독선, 이기를 버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지요.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인류 평화와 자유사상이 세상에 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회는 내 것만, 우리 것만 하는 독선 배타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책에서도 말했듯 문화권마다 이상주의가 있습니다만 근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통념은 나와 남의 구분에 있습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리고, 내가 믿는 신은 전지전능하고 다른 신은 사탄이라고 하는 등 나와 남을 구분하고 있는 이항대립위에서 세계는 움직입니다. 그것이 독선과 배타로 가면 자기 선이 최고이고 자기만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이는 필연적으로 마음 간 대립과 증오를 생산하고, 악화되면 전쟁까지 발생하게 되죠. 우주진리와 배타되는 역사관이나 진리관을 가지고서는 진정한 이상사회를 건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익중생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불교의 요익중생은 초이항배타주의로서 남과 나,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진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주가 나 자신이고 내가 우주면, 당신이 내가 되고 내가 당신이 됩니다. 자타불이(自他不二),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은 물론, 만유 중생이 모두 연기되어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우주관이자 역사관, 인생관입니다. 최고 진리라고도 할 수 있죠.

쉽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나 부처님당시에는 공해가 없었기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환경오염이 전 세계 문제로 확대 됐습니다. 우주 공기를 실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공기가 좋아야 우리도 건강해질 텐데, 주위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면 우리도 안전할 수 없겠죠.

이렇게 본다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 요익중생과 연계되며 인간사회를 이상사회로 만들 수 있는 주요한 가치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익중생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과 식물 등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우주 생명체를 포함하며, 이러한 진리를 제대로 활용하면 우리 건강과 행복에 기적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류구원의 위대한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책을 보면 우리나라 민중운동인 동학운동을 높게 평가하면서, 창시자인 최제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청년시절 절에서 살았으며 불교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동학사상운동은 평등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불교 사상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제우는 당시 조선에 밀려들던 서학의 흐름에 반대해서 유불선을 합해 동학을 만들었습니다.

동양의 종교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독선과 배타를 초월해 있다는 것입니다. 도교는 불교의 우수한 마음수행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의 뿌리는 무위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유교와 불교 또한 서로 어울려서 절에 와서는 부처님께 절하고 명절 때는 조상님께 제상지냅니다. 이렇듯 동양의 종교들은 화합과 합행의 정신이 잘 살아있습니다.”

한민족은 아시아 문명의 원조

–박사님께서는 과학적 역사의식의 중요성을 무엇보다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인류의 평화 행복을 위해서는 불교의 무아의 역사활동, 무아적 자아활동의 필요성을 피력하시는데, 역사란 무엇이며 평화를 위한 무아적 역사활동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유사이래 과학적 역사이론은 공산주의 역사관, 유물이 물질과 경제를 지배하고 창조한다는 변증법적 유물사관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는 반대로 역사를 움직이고 지배하는 최고의 동력은 정신인격에 있다 생각합니다. 정신인격은 바로 마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와 일치합니다.

왜 인간은 평화와 전쟁을 오가면서 끊임없는 고통에 속박 당하고 있을까요. 이는 인간의 이기심에 기초한다고 봅니다. 내 몸과 마음이 전부 ‘나’라는 생각과 몸과 관련된 욕망을 추구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투쟁하다보면 필연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내 몸과 관련된 육신의 욕망추구활동은 구름과 무지개 같은 일시적인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이러한 집착과 애착을 버리고 무아 수행을 하면 무상 증득의 경계에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저는 역사 활동을 두 개로 분류합니다. 하나 ↗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謹賀新年



주지 성타

관	장	종상	재	무	종천
학	장	덕민	사	회	종민
선원장		종우	포	교	성요
총	무	종천	호	법	각천
기	획	정문	사	서	정빈
교	무	정수	회	계	성명
			신도회장		이영숙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 유치원
- 성림 어린이집
-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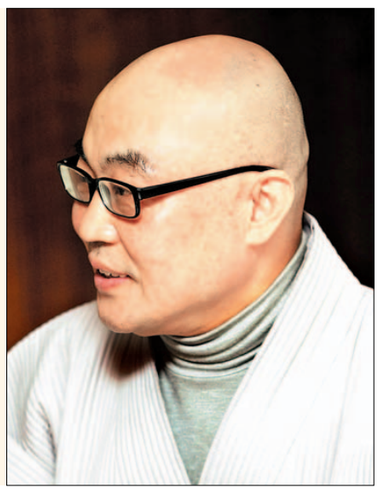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1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한국, 보이지 않는 역사 정신권력 회복해야"



이홍범 박사는 …
일본 도쿄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국제정치와 역사를 전공, 석사와 박사를 받았다. 하버드와 옥스퍼드대학에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전공했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키친캐비넷(kichen cabinet)으로 대통령과 함께 식탁에 앉아 편하게 식사하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격의 없는 지인이다. 현재 헌팅턴 커리어대학 학장이며 세계정경협회 총재이기도 하다. 저서로 〈아시아 이상주의〉가 있다.

현진 스님은 …
용문사에서 출가한 후, 화계사에서 숭산 스님을 계사로 법인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전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개혁종회 및 제11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이어 조계종 교육부장과 포교부장을 역임했으며 불교문화사업단 단장, 불교신문 논설위원을 지냈다. 현재 여의도 포교원 원장이며 사단법인 월드머시 코리아 대표이사다.



는 육신에 기초한 욕망 달성을 위해 투쟁하는 유아의 세계와 또 한편으로는 내 육신과 관련된 것은 무상한 것이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모든 것을 얻는다는 무아적 자아 투쟁을 통한 이상세계가 있습니다. 유아에 집착하는 역사와 정치 탓에 세계는 충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역사의식이 불교의 무아를 차용한 무아투쟁이죠.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무아적 역사활동을 이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강국 요소 '역사와 과학'

–현재 한국사회에는 이기주의가 첨예하게 일어나고 파벌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인의 역사의식을 냉정하게 비판하신다면요.

"어떤 나라가 선진강국으로서 부강을 누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역사와 과학입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역사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언어에 기초해 역사를 배우고 역사정신을 계승 발전시킵니다. 여기서 확립된 역사정신에 기초해 민족의 공통추구목표를 정립합니다. 미국의 청교도 역사정신이 추구하는 자유, 신국사관에 기초해 천황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본의 야마토 정신, 중국 한족에 깃든 삼황오제로부터 시작하는 중화 정신, 영국의 성공회 정신이 그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무의식적으로 교육받게 되기 마련입니다. 자연히 민족의 자부심을 높이고 조상에 대한 숭모의 정신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국민들은 이것을 중심으로 뭉치구요.

또한 외형적으로도 천황이라든지 조지 워싱턴, 링컨, 삼황오제, 관우 등 자기 민족의 조상을 기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게 민족을 통일 시키고 국가를 통합시키는 기능을 발휘해요. 어느 집단이든 통합을 시키려면 이러한 내형, 외형적으로 통일된 단결 상징이 필요한데 이를 통해 사회는 안정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안정된 상태에 있어야 협력도 가능하고 여유로운 생각도 하게 되면서 정치, 경제, 문화 부문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상징도 없을 뿐더러, 단합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분열과 혼란이 생길 수 밖에 없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한국 사회는 단합할수 있는 역사정신과 목표가 빈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례로 기독교가 들어온 후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전통도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결국 나라에 대한 애국심은 기대할 수 없죠. 종교가 국가위에 군림함으로써, 나라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핵심을 만들지 못하고 이를 파괴해 버립니다.

필수 교육 과목인 국사를 없애버린 것만 봐도 그렇죠. 일본은 거짓 역사를 만들어서 민족 통합을 꾀하는데, 우리는 있는 역사는 물론 단군상도 파괴

혼란스러운 한국사회

단합할 수 있는 역사 상징 없어
고유성 버리고 정치대국 따라가기 바빠
복사·모방은 한국의 비참한 실정

불교 나아갈 길

'파사현정' '항마호법'으로
행동하는 보살정신 살려야

해버립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말하길, 한국인처럼 '얼'이 없는 민족은 본적이 없다할 정도입니다. 이는 결국 민족에 대한 충심을 상실하고 양심과 진리를 외세종교에 바치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제1차, 2차세계대전 중에도 기독교인들은 자국을 위해서 충성을 했지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속에는 현실적으로 역사관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종교가 언제 창조됐고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오는지에 관해 기술한 것, 이게 전부다 역사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것을 역사정신권력으로 봅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이에요.

로마제국이 막강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보유했지만, 로마제국이 무너진 것은 기독교의 역사정신권력이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41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지 18년 만에 로마는 멸망했습니다.

서양 강대국들의 공통점은 외래 종교 역사권력을 자기 조상을 중심으로 한 고유한 역사관으로 융해시킨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유한 것이 없다면 신을 만들어서라도 동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인도불교가 오면 인도불교에 종속당하고 당불교에 종속당합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는 절대 최고 역사정신문명문화권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항상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대국을 따라가기에 바쁩니다. 복사와 모방, 주입식 교육 등은 한국의 비참한 실정입니다. 서울대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스스로 이스턴 바바리안(eastern barbarian, 동양의 미개인)이라고 칭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개탄할 만한 일이죠."

–한국의 역사정신도 한국인에 의해 파괴된다는 의미네요. 이러한 관점에서 불자로서 한국불교의 정신을 역사정신의 맥락에서 진단하신다면요.

"자비를 중시하다보니 파사현정, 즉 사를 타파하고 정을 일으키는 항마호법의 정신이 빈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당당한 지성인 파사현정과 항마호법의 정신을 가지고 나쁜 짓한 스님이나 신도에게는 일벌백계의 준엄한 벌칙이 필요하다 봅니다."

직관적 지혜 활용, 현대 문명 발전

–한국불교의 수행중심은 간화선 수행을 통한 직관력에 의한 지혜의 응시, 생명, 세계에 대한 본질적 통찰에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수행과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불교의 길은 행동하는 보살정신에 있습니다.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한다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죠. 진리 추구를 참선수행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물질 과학세계에도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상을 통한 직관적 지혜를 현대 예술과 과학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동양의 지혜를 잘 활용하잖습니까. 불교는 합리성과 과학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을 초월한 초과학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의 지성인 니체가 불교를 두고 그 어떤 종교보다 수백 배 과학적 종교라 했죠. 불교이론을 과학적으로 면에서 연구하면 우리 한국의 과학문명을 창조적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인슈타인, 스티븐 호킹, 칼 융 같은 천재적 위인들 전부 불교 공부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세계적 이론을 발표했다고도 볼 수 있죠. 게르만민족과 일본인 유대민족이 세계의 과학과 기술 문명을 주도할 수 있었던 데는 불교의 명상을 통한 직관세계에 영향을 받아서입니다. 명상을 통해서만이 직관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천국과 피조물로 나뉘는 이항대립적인 세계는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피조물 사이 뿐 아니라 천국과 지옥사이에는 중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초중도 세계가 존재함에도 이를 부인하는 흑백논리로는 문명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은 두뇌의 5프로밖에 쓰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95% 지혜는 불교의 직관을 통해 계발할 수 있습니다. 불교를 통해 사량분별을 초월하고 과학적으로 현대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불교가 우리 민족뿐 아니라 전인류의 평화를 위해 정신권력의 위대한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행동하는 자비, 행동하는 불교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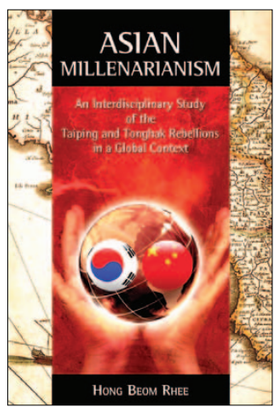
"요익중생을 위해 연구하고 활동할 것입니다. 불교는 물론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하는 도반들이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인면 뿐 아니라 물질, 경제, 정치적으로도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불교의 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불교의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가 바로 얼마 전 타계한 넬슨 만델라가 아닐까 합니다. 정계 은퇴를 만류하는 이들을 향해 '은퇴로부터 은퇴하겠다'라는 말을 남긴 그는 일체의 집착과 이기로부터 해방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요. 바로 이 마음이 평화와 자유의 정신 아닐까 합니다. 불교를 신앙으로 삼지 않아도 그러한 불교 정신이 갈등과 대립이 횡행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새해에는 국민들 모두가 불성을 찾아 행복하기를 희망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대담에 응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홍범 박사의 아시아 이상주의 Asian Millenarianism

오바마와 인연 맺게 한 책
아이비리그 등 최고 학술 서적 선정

한민족이 고대 중국과 일본의 원류
홍익사상 통해 이상적 평화 이룰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지구상에 질병과 전쟁, 빈곤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이상적인 꿈을 실현하자는 분야가 바로 '이상주의' 분야다. 책은 이러한 이상주의(Millenarianism)의 실마리를 한민족의 '홍익정신'에서 찾고 있다.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장에서 이상주의에 대해 기술하고 이어 그 기원을 설명하면서 한국 이상주의 역사를 짚었다. 중국과 한국의 이상주의가 나올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4장부터 8장까지는 태평천국과 동학에서 이상주의의 원류를 찾고 이상주의에 대한 총론을 제시한다.

저자는 세계 역사가 갈등과 전쟁위에 놓여있는 것은 나와 너라는 대립적 이항구분 위에서 내가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의 신만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것이 독선과 배타로 흐르면 필연적으로 대립과 증오를 생산하게 되므로 이러한 흑백논리의 극복을 위해서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사상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홍익사상은 자유도 평등도 담을 수 있는 포용성 덕분에 세계적 이상주의를 실현할 수 있고 인류에도 기여할 수 있는 평화사상이라는 것이다.

〈아시아 이상주의〉는 하버드 대학이 최고의 학술서적으로 인정해 연구도서 목록에 포함됐으며, 펜실베이니아대, 프린스턴대, 예일대, 영국의 캠브리지대, 독일, 캐나다, 유럽, 중동 등 명문대에서 연구 교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책이 세계 유수대학의 연구도서로 선정된 것은 기존의 역사를 뒤집는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민족이 고대 중국과 일본의 원류라는 것을 실증과 고증을 통해 밝히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책을 읽고 한국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 박사를 명예장관(키친 캐비넷)으로 임명한 바 있다.



2014년 새해 아침 인사드립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요!! 謹賀新年 福

각 종단 종정예하 총무원장님
법왕청 중앙정부에 모시고자 초대합니다

10월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의 세계불교법왕 및 승왕 추대위원회 출범식을 성대하고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동참해주신 대덕 큰스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정각회 국회의원님들과 불교국가 대사님들 미얀마 연방 정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축하사절로 종교성 부장관의 참석, 연방 승가회 회장스님의 축사, 120여 각 종단 대표 스님들의 동참 그리고 연합뉴스에서까지의 보도 등 전례가 없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세계불교법왕청은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들이 역시 그분이라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불교의 최고의 어른을 선정 추대 하고자 하며, 지구촌 중생교화, 교육, 중생구제, 인간 방생을 통한 세계가 하나 됨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함없는 격려와 질책 깊은 관심과 동참을 기대합니다.

社團法人 世界 佛敎 法王廳

세계불교 고승 및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 1080인 委員會
법왕청산하 소속 350여 종단 및 단체 총연합 협의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위원장 대승정 목 탁 – 혜 은 합장
02)733-5665. 011-229-6061

2014년 (불기 2558년) 주요 행사

1. 각료 임명식 : 임명식 행사의 건 의견 청취
2. 출범핵심 각료 선정 (특명대사)
중국. 달라이나마.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일본 등
3. 대외 활동 홍보 및 고유 의식으로 중국 지장도량 및 관음도량 성지순례 및 단합대회
2014 년 5월 9일 지장도량, 관음도량 7일 성지순례 및 임원진 단합대회 개최
세계불교법왕, 이 회의에서 승왕 추대 명단 확정하고 취임식 준비에 따른 의견 청취. 세계불교 법왕청과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이름으로 고승단 및 임원진 高僧. 대종사 품수 추대의식 봉행.(경비 없음)
선착순 108명 접수
4. 법왕추대의식 및 장소, 법왕청 준비.
5. 1080인 고승단 및 세계불교지도자 인명 대사전 발간 (경비 없음)



✲ 유사 단체 명칭 도용을 금합니다 ✲

2014

갑오년 새해벽두 일천만 한국불자와 세계 불교계에 전하는 신불교의 메시지

Ⅰ. 왜 신불교, 영산불교인가?

영산불교는 부처님의 법통을 이어받은 가섭존자 광명 만덕 큰스님과 아난존자 자재 만현 큰스님께서 왜곡되고 왜소화된 기존의 말법시대 불교를 혁파하고 정법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개창한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입니다.

1. 영산불교는 부처님의 법통을 이어받은 정법불교

◈ 정법을 부촉 받은 가섭존자와 아난존자

부처님께서는 영산 당시 가섭존자와 아난존자에게 부처님의 법통을 전수하셨습니다. 당시 가섭존자에게 분소의를 물려주신 것이라든가 세 곳에서 마음을 전했다는 삼처전심, ≪증일아함경 서품≫의 법통전수 증언내용 등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대승의 ≪대반열반경 애탄품≫에서도 부처님께서는 "내가 가진 위없는 바른 법을 이제 모두 마하가섭에게 부촉하였으니, 이 가섭은 너희들의 큰 의지처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대비경 이제비유부촉정법품≫에서는 아난에게 "내가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아승기 겁을 통해 익힌 아뇩다라삼먁삼보리와 큰 법의 보장(寶藏)을 너에게 부촉하니, 잘 설하여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간곡히 당부 하셨습니다.

◈ 법통제자 가섭 광명 만덕, 아난 자재 만현 큰스님 영산불교를 개창

정법을 부촉하신지 2600여년이 지난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부처님께서는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를 붓다 만들어 데려가시기 위해, 신불교 정법시대를 열기 위해 불신으로 와서 현지사에 상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산 당시 가섭존자 광명 만덕 큰스님과 아난존자 자재 만현 큰스님께서는 부처님의 지도로 한국에서 불과를 이루셨습니다. 광명 만덕 큰스님께서는 붓다의 신분으로 부처님의 법을 상속한 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수보살 법왕자 아난존자 자재만현 큰스님과 함께 영산불교를 개창하여(불기 2551. 음 6.15) 정법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날 광명 만덕 큰스님은 부처님의 법통을 자재 만현 큰스님께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 증표로 33쪽 가사를 물려주셨습니다.

◈ ≪열반경≫의 이자삼점(伊字三點 ∴)의 비밀과 정법의 출현

붓다의 출세와 정법의 출현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는 ≪대반열반경≫과 ≪화엄경≫과 ≪증일아함경≫ 등에 담겨져 있습니다. ≪대반열반경 수명품≫에서 말하는 이자삼점(伊字三點 ∴)의 비밀장은 삼신을 갖춘 세 분의 붓다가 출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중 두 분의 붓다는 바로 부처님의 법통을 전수하신 광명 만덕 큰스님과 자재 만현 큰스님입니다. 정법과 관련하여 ≪대반열반경≫에서는 영산 당시 아함경의 가르침을 반쪽자리 글자의 가르침(반자교, 半字敎), 즉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라 하고, 앞으로 온전한 글자의 가르침(만자교, 滿字敎), 즉 차원 높은 완성된 가르침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신불교인 영산불교입니다.

2. 영산불교는 왜곡되고 왜소화된 기존불교를 혁파한 신불교

왜곡되고 왜소화된 지금 세계불교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부처님 없고, 인간 영혼체 없고, 불보살 되는 수행법이 없는 3무불교(三無佛敎)라는 것입니다. 이의 근본원인은 "무아론의 왜곡" 때문입니다.

◈ 지금의 세계불교는 부처님 없는 불교

부처님께서는 시공과 유무를 초월한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의 불교는 부처님의 살아계신 인격적 불신(보신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마음이 부처라고도 합니다. 2600여년 전 인도 땅에서 열반하신 부처님은 공(空)으로 돌아가시어 완전히 무화(無化)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화경≫ ≪금광명최승왕경≫ 등 주요 대승경전과 논서에서 부처님의 실존 근거와 불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어도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지금의 오탁악세 말세불교의 실상입니다. 부처님을 모르고 부처님의 구원력을 모르는 불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 기존불교는 무아론을 왜곡하여 영혼체를 불인정

부처님의 무아 교설은 현상세계 모든 존재의 실체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실천적 의미는 물론"나에 대한 집착"이나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세계불교는 이를 잘못 해석하여 현상계 너머 본체계의 존재인 인간 영혼체 마저 없는 것으로 왜곡해 버렸습니다. 무아니까 윤회주체도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잘못 해석한 무아론을 근거로 ' 무아론과 윤회주체간의 모순' 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논리를 개발했지만 이 엉터리 논리가 설득력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왜곡된 무아론은 불교를 망친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본체도 부정하고 윤회와 해탈의 주체도 부정하고 불보살도 부정하면 불교의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간의 본체인 영혼체는 존재하며, 윤회의 주체는 바로 영혼체입니다.

◈ 지금의 세계불교는 불보살 되는 수행법이 없는 불교

남방불교의 위빠사나 수행은 아라한이 목표입니다. 자력수행에만 의지하기 때문에 불보살이 되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북방 선불교의 참선수행은 불교의 정통수행법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의 간화선은 경전에 없는 외도 수행법입니다. "견성성불(見性成佛)"이나 심즉시불(心卽是佛)이라는 교의는 본성을 깨치는 것과 부처가 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대망어입니다. 티베트밀교에서 삼밀수행으로 즉신성불(卽身成佛)한다는



초파일 10만봉축등으로 장엄된 현지사 전경

논리도 불신(佛身)을 모독하고 불교를 왜소화시키는 대망어입니다. 불신(보신)은 우주본성과 완전히 합일 될 때 무아속 절대계에 만들어지는 것이지, 삼밀수행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무상유가 딴뜨라 수행과정의 하나인 성(性)유가는 외도의 수행법입니다. 불보살이 되는 수행법은 칭명염불뿐임을 말씀드립니다.

3. 영산불교는 21세기 지금 이 시대 부처님(보신불)의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2600여년 전에 인도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불교의 씨앗을 뿌리시고 근본교설인 아함경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5~6백년 후에는 문수보살님 등 붓다의 화신을 사바세계에 보내시어 대승경전을 편찬케 하고 영산 당시보다 한 차원 높은 대승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21세기에 들어 부처님께서는 불신(보신)으로 한국에 오셔서 광명 만덕 큰스님과 자재 만현 큰스님을 지도하여 불과를 이루게 하고, 두 분 큰스님을 통해 최고 차원의 완성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산불교는 바로 21세기 지금 이 시대 부처님 보신불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Ⅱ. 인간 그리고 우주만물은 어떻게 생겨났나 -우 주 론

1. 하느님 창조설은 허구 - 기존 종교 · 철학은 인간 탄생비밀 못 밝혀

인간과 우주만물의 창조원리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 · 유대교 · 이슬람교 등 일신교에서 주장하는 하느님 창조설이고, 다른 하나는 불교 · 도교 · 힌두교 등에서 주장하는 자연법칙설입니다. 불교에서는 우주만물이 공(空)에서 나왔다고 하고, 힌두교에서는 범(梵)에서, 도교에서는 도(道)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생성과정을 포함하면 불교는 공과 연기법, 힌두교는 범과 전변설(轉變說), 도교는 도와 도생설(道生說)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힌두교나 도교의 우주론은 인간 생성과정의 핵심내용이 빠져 있어 껍데기 우주론에 머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창조설은 현대과학과 배치되고 건전한 상식을 벗어난 허구입니다.

그 이유는 ① 1만년도 안 되는 창조의 역사, 창조과정상의 모순, 무(無)에서 창조했다는 창조이론 등의 면에서 과학적 진실과 크게 배치됩니다. ② 불과 6일만에 무수한 동식물과 인간, 수많은 모래알에서부터 천체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를 일일이 설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③사랑의 하느님이라면 왜 장애인이나 불행한 사람을 만들었고, 왜 착한 사람이 못 살고 악한 사람이 잘 사는지 하는 현실상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철학의 경우, 존재의 근원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정리해 보면 물질적 요소기원론, 형이상적 실재론, 유신론, 실존론, 불가지론의 다섯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지만, 인간과 우주만물의 생성과정과 같은 깊은 비밀은 제대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과학적 입장에서는 빅뱅설이 통설이지만 빅뱅이 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빅뱅이전 상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2. 인간과 우주만물은 공에서 나와 중생의 공업과 공·연기법에 의해 생성

우주만물을 창조한 하느님은 없습니다. 우주의 생성원리는 중생의 업과 공 · 연기법입니다.≪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우주는 푸른 하늘에 갑자기 구름 한 점 일 듯, 이 세상 천지만물, 우주가 생겨났다."고 하셨습니다. 최근의 부처님(보신불) 말씀은 더욱 명확합니다. "하나님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지 본래 법계엔 주인이 없단다. 우주본체인 공과 하나 되어 자기 청정법신을 둔 붓다가 법계의 주인이 된다. 저 하늘의 태양이나 달, 별, 이 모든 것들은 자연으로 생겨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란다."

공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自存者)입니다. 공은 우주에 두루하는 실상이고 불생불멸하는 우주대생명입니다. 지혜자체이고 사랑자체이고 조화자체이며 빛의 존재입니다. 공은 우주를 생성, 운행시킬 수 있는 힘과 프로그램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법계에는 수많은 우주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의 공간적 구조는 삼천대천세계입니다. 우리 우주는 사람이 생노병사를 하는 것처럼, 지구에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이 있는 것처럼, 성 · 주 · 괴 · 공(成 · 住 · 壞 · 空)이라는 네 주기를 거치면서 무한순환을 반복합니다. 우주는 탄생해서(성겁) 존속하다가(주겁) 파괴되고(괴겁) 공(空)으로 돌아가는데(공겁) 각 단계마다 20겁, 총 80겁이 걸립니다. 지금은 주겁이고 붓다는 주겁에 탄생합니다. 괴겁이 오면 인간과 우주만물이 파괴되고, 공겁이 되면 인간 영혼체는 영적 씨종자로 회귀하여 공으로 돌아갑니다.

3. 인간과 우주 생성의 지고한 비밀 - 유아성기론(唯我性起論)

◈ 인간의 씨종자인 공아자에서 드러난 영혼체

우주는 공의 힘과 중생의 공업력(共業力), 연기법에 의해 생성되고 운행됩니다. 영산불교는 우주만물이 우주본성인 공에서 나왔다는 성기론을 새로운 차원에서 설파하고 있습니다. 우주만물이 생성되는 성겁이 되면 우주본체인 공에서 물질의 씨앗인 질료인(質料因)과 인간 씨종자인 공아자(空我子)가 영적 실재로 드러납니다. 이와 함께 공 자체의 에너지에 의해 질료인과 공아자는 상호 중중무진연기를 하여 좀 더 진전된 영적 실체를 형성합니다. 이 영적 단계의 인간 실체를 영혼체 또는 영체라고 합니다. 공아자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인간본체인 1번 영체입니다. 곧이어 2번 영체와 3번 영체가 갖추어지면서 업이 달라 붙습니다. 이렇게 하여 1 · 2 · 3번 영체를 가진 영체인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영체인간은 '나(我), 주인공' 으로서 나의 본체이고 창조주체입니다. 연기의 주체인 동시에 윤회의 주체이고 해탈의 주체입니다. 물질 우주의 창조는 공 자체의 힘에 중생의 공업력(共業力)이 가세하면서 연기법에 의해 빅뱅(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시작됩니다. 빅뱅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현대과학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주가 생긴 지 137억년이 되었고, 지구는 45억년이 되었다고 현대과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 영혼체가 별천지에서 온 조상인간을 부모로 하여 육체인간으로 탄생

이제 계속하여 육체인간의 탄생에 대한 만고의 비밀, 그 비밀의 베일을 벗겨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생겨난 영체인간은 괴겁 당시 자기가 살았던 세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지옥에 있었다면 지옥으로, 하늘에 있었다면 하늘세계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괴겁 당시 육체인간으로 있었던 영체인간은 바로 인간의 육체를 받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통하지 않으면 육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체는 부부가 결합할 때 모태로 들어가야 수정이 되고, 모태에서 4번 영체가 생겨야만 육체를 갖고 세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에는 지난 괴겁 시 모든 인간이 파괴되어 한 사람의 육체인간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 다. 그러나 자연은 인간종족의 보존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차원(異次元) 별천지에 사는 사람들의 지구로의 이주대책입니다. 이 별천지는 인간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과거 괴겁 시에 인연에 의해 선발된 지구대표 인간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우주 밖에 있는 인간들의 낙원, 무릉도원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아들, 딸 한 명씩을 낳고 살고 있는데 수명은 50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곳의 하루는 지구의 수십 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나중에 성겁이 되어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지구로 귀환, 각 대륙별로 돌아가서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따라서 영체인간들은 이 별천지에서 온 인간조상들과 부모의 인연을 맺고 모태 속으로 들어가 수정이 되고, 10개월간 자란 후 인간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모태에서 네 번째의 영체(4번)가 생기면서 인간은 네 개의 영체와 하나의 육체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믿기 어려운 설화 같은 진실입니다. 이렇게 '나(我), 주인공' 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영산불교의 성기론은 기존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적 성기론과 확연히 구별되는 유아성기론(唯我性起論)으로서, 매우 차원 높은 이론입니다. 특히 공(空)에 내재된 인간종자가 영체로 자라나고 다시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되기까지의 비밀을 인류사 최초로 공개하면서, 상상 속의 별천지 무릉도원의 실존을 밝힌 것은 신불교 성기론의 백미(白眉)라 할 만합니다. 이는 영산불교가 동서고금의 어떤 종교 · 철학도 넘보지 못할 가장 차원 높은 진리를 설파한 우주적 메타종교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한국에서 탄생한 최고의 한류사상으로서 세계적 자랑거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약사삼존불을 봉안하는 점안식 - 약사여래부처님과 좌우보처 일광불 일광변조보살님 월광불 월광변조보살님께 스님들이 공양을 올리고 있다

Ⅲ. 인간 영혼체의 실체적 비밀 - 인간본체론

1. 영혼체의 구조와 기능 - 네 개 영체의 비밀

우리 인간은 4개의 영체와 하나의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체는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영혼체는 전자파 에너지의 형태를 띤 생명체로서 의식과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체는 끈끈이막 같은 것에 의해 4개로 겹쳐진 상태로 계단식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립자보다 더 작은 초미립자로 되어 있으며 입자와 파동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동으로 본다면 영체는 파장이 극히 짧은, 곧 진동수가 극히 많은 전자파 에너지의 형태를 띤 생명체입니다.

인간의 4개의 영체를 질적 수준에 따라 각각 1 · 2 · 3 · 4번으로 구분한다면 1번이 가장 차원이 높고, 4번으로 갈수록 차원이 낮은 영체입니다. 4번 영체는 우리 몸과 100% 닮았습니다. 1 · 2 · 3번 영체는 모습이 약간씩 다르지만 근간은 닮은 형입니다. 1 · 2 · 3번 영체는 항상 뭉쳐서 다니면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체는 생명활동에서부터 업의 저장기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4번 영체는 육체의 복사체로서 육체와 나머지 세 영체를 접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육체와 함께 생명 유지와 생리적 기능의 원천으로 작용하며 주로 감정과 욕망의 영역을 담당합니다. 이 4번 영체는 모태 속에서만 생기는 한시적 생명체입니다. 명부에 들게 되면 4번 영체는 탈각 됩니다. 3번 영체는 감성을 주로 담당합니다. 2번 영체는 분석 · 추리 · 기억 등 지적 기능을 주로 담당합니다. 1번 영체는 입자를 완전히 초월한 빛의 존재로서 이성적, 예지적 기능을 주로 담당합니다. 이 중에서 1번 영체가 인간의 실체, 즉 본체입니다.

2. 영혼체는 인간의 본체이며 연기와 윤회의 주체

영혼체는 인간의 본체로서 연기의 주체가 되고 업을 짓는 행위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선악의 행위는 업으로 모두 영체에 반영되어 과보를 받습니다. 이 영체에 기록된 우리의 업을 인생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회를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인생성적표에 따라 지옥 · 아귀 · 축생 · 인간 · 아수라 · 천상 여섯 세계를 끝없이 돌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영혼체는 과보를 받는 주체로서 이 여섯 세계를 살아가는 윤회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불교에서는 무아론을 잘못 해석하여 영혼체가 없다고 하면서 심식류가 윤회의 주체라고 하는가 하면, 업상속설이나 오온상속설을 주장하면서 윤회의 주체가 필요 없다는 무아윤회의 논리까지 주장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참으로 통탄해마지 않는 망불적인 사마외설입니다. 무아윤회는 있을 수 없고, 아뢰야식을 포함한 심식류는 결코 윤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무아윤회는 "업을 지은 자가 과보를 받는다"는 인과법에 배치됩니다. 인과법에 의하면 당연히 업을 짓는 주체와 과보를 받는 주체가 있어야 하고 두 주체는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육근이 없는 식(識)은 업을 저장할 수도 독립적인 개체가 될 수도 없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몸뚱이 없는 식이, 찰나생 찰나멸하는 식이 지옥엘 가고 하늘을 가고 해탈을 합니까? 이것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무아라 해서 나의 본체인 영혼체가 없다면 업과 윤회와 해탈의 논리도, 불보살의 존재도 근거를 잃게 되고 따라서 불교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영혼체는 아래로는 지옥중생에서부터 위로는 붓다에 이르기까지 함께 가야하는 머나먼 여정의 주인공, 인간본체인 것입니다.

3. 영혼체의 청정도 · 분리도와 영체별 가는 세계

중생의 영혼체는 심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물통에서 막 건져낸 것처럼 악취도 나고 더럽습니다. 숯검댕이 같다고도 합니다.

먼저 영체의 색깔별 가는 세계를 보겠습니다. 지옥 · 아귀 · 축생의 삼악도에 갈 영체는 검은 색입니다. 하늘세계(1~6하늘 54품)에 갈 영체는 흰색이지만, 6하늘에 가는 영체는 회색입니다. 성중하늘(1~3하늘 27품)에 가는 영체는 빛이 납니다. 윤회를 벗어나는 아라한의 영체는 보름달처럼 빛이 납니다.

다음은 영체의 분리도와 가는 세계입니다. 대부분의 중생은 영체가 완전히 붙어 있지만, 깨끗할수록 모양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분명하게 분리가 됩니다. 하늘세계의 천인은 영체가 붙어있지만 다섯 손가락처럼 모습이 드러납니다. 윤회를 벗어나는 아라한은



현지사 부산분원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 불교사의 새 장을 열다!!

영산불교는 인류사 최초로

1. 인간 · 우주탄생과 영혼체의 비밀을 밝힌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2. 사후세계의 실상을 직접 보고 정립한 행복 생사관의 신불교 3. 부처님의 실존과 무한한 위신력을 밝힌 인류 구원의 신불교

오리손 정도로 분리됩니다. 정토보살이 되면 영체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리고 붓다는 네 개의 영체가 개별주체로서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체별로 가는 세계를 보겠습니다. 죽어서 저승에 못 들어가는 귀신은 4번 영체로 중음계에 갑니다. 지옥에는 3번 영체(4번 영체 속부분 포함)로 갑니다. 하늘세계에는 3번 영체로, 성중하늘에는 2번 영체로 갑니다. 극락세계에는 1번 영체로 갑니다. 각 영체안에는 나머지 영체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붓다의 절대계에 가려면 네 개의 영체 모두가 빛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네 영체는 개별적으로 활동하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Ⅳ.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 – 생 사 관

인간의 본체인 영혼체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입니다. 인간으로 사는 100년 남짓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을 우리는 몸뚱이 없는 영혼체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후세계가 행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행복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후세계의 존재와 실상을 명확히 알아야 올바른 생사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계를 저승이라 합니다. 불교에서는 명부라고 하는데 이 명부를 총괄하시는 부처님이 지장보살님입니다. 그리고 명부에 들어온 영가들을 심판하는 열시왕이 있고, 이승에서 수를 다한 사람의 영혼체를 저승으로 데려오는 저승사자(일직사자, 월직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도 저승에 못가는 무주고혼이 있는가 하면 정토보살 처럼 저승의 심판을 거치지 않는 성자도 있습니다.

일단 저승에 들어간 영혼체는 49일 동안 열시왕의 심판을 받고 지은 업에 따라 가는 곳이 정해집니다. 이 영혼체들이 가는 세계는 크게 육도윤회계와 해탈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저승에 못 들어간 귀신이 사는 세계 – 중음계

생전에 가족이나 재물에 대한 집착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 자살이나 비명횡사한 사람, 큰 병으로 죽은 사람 등은 저승에 들어가지 못하고 귀신이 되어 떠돕니다. 최근 현지사 천도재의 통계를 보면 죽은 사람의 40%가량이 중음계로 간다고 합니다. 중음계의 귀신들은 춥고 배고픈 환경 속에서 의식주와 욕망을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게 되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중음계는 4번 영체가 주가 되어 살아가는데 임종 당시의 기억과 의식을 그대로 갖고 갑니다. 따라서 큰 병으로 죽은 사람은 귀신이 되어서도 그 병의 고통을 그대로 받습니다. 조금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후손들에게 빙의하게 되면 영가장애를 일으켜 후손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천도시켜 하루 속히 저승으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현지사 고성분원

2. 죽어서 가는 고통의 육도윤회세계

〈지옥〉은 살생 · 절도 · 사음 · 대망어 등의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형벌을 받는 무서운 곳입니다. 형벌이 가장 무서운 것부터 차례로 극무간지옥 · 무간지옥 · 중지옥 · 하지옥 · 대기지옥의 다섯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중지옥 이상은 영혼체가 혼절할 정도로 가혹한 형벌이 자동으로 집행됩니다. 불바다지옥, 화탕지옥, 한빙지옥, 칼산지옥, 독사지옥 등 현실세계의 감옥은 천국이라 할 만큼 지옥은 극심한 고통을 받는 무서운 곳입니다.

〈아귀〉는 생전에 극히 인색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기아와 목마름의 고통이 극심한 곳입니다. 물이나 음식이 들어가면 불로 변해버린다고 합니다.

〈축생〉은 생전에 우치하고 사견에 빠진 사람, 음란한 성생활을 한 사람이 가는 세계입니다. 돼지부터 시작하여 열두 띠를 돌게 되는데 개를 끝으로 사람 몸을 받아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 동물로 여러 생을 살기도 합니다.

〈인간〉은 지은 업에 따라 지옥중생의 삶에서부터 붓다의 삶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의 생을 누립니다. 하늘의 별들에는 기체인간(외계인)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에는 온갖 마장이 많지만 이를 극복하고 수행을 잘 하면 그만큼 행복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수행의 적지이기도 합니다.

〈아수라〉는 1하늘 하품 정도에 해당하는 별도의 하늘로서 생전에 복은 많이 지었으나 싸움을 많이 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다툼이 많지만 부유다복한 곳입니다.

〈하늘세계〉는 욕계6하늘 54품, 성중3하늘 27품이 있습니다. 이 중 성중 1하늘 5품 이상은 윤회를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윤회의 성중하늘은 성중 6~22품을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가는 곳으로 즐거움이 많은 곳입니다. 성중하늘에 가려면 어느 정도 선정에 들 수 있어야 하며, 이 곳은 욕계 6하늘보다 훨씬 안락한 곳입니다. 하늘세계는 3번 영체, 성중하늘은 2번 영체로 갑니다.

3.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해탈세계

윤회를 벗어난 성자가 가는 세계를 해탈계라고 합니다. 공을 깨친 경지, 화두를 타파한 경지인 견성을 한 후 계율을 엄격히 지키면서 '나 없는 수행' 과 '보살행' 에 정진하여 나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떨어져야 해탈을 합니다. 해탈법위는 『아라한– 무루대아라한– 천녀– 보살대기– 정토보살– 불격을 갖춘 최상수보살– 붓다』의 순서가 됩니다.

〈성중해탈계〉는 성중 1하늘 1~5품으로서 윤회를 벗어난 성자(아라한)가 가는 세계입니다. 성중해탈계는 2번 영체로 가며 영체는 보름달 같이 빛이 납니다. 아라한은 그 곳에서 영원히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해탈계로 가기 위해 원에 의해 사람 몸을 받아 오게 되면 다시 윤회세계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토계〉는 보살이 가는 해탈적멸계로서 극락(極樂)을 누립니다. 아미타부처님의 극락세계(27품)가 있고 그 위에 약사부처님의 약사정토(27품)가 있습니다. 기존교학에서 보면 보살 8지 이상에 해당합니다. 보살은 정토에 자기의 분신(아기보살)을 갖기 때문에 윤회세계로 떨어지지 않는 불퇴전의 지위입니다. 정토보살이 되려면 ① 4중죄 소멸 ② 4영체 완전 분리 ③ 정토에 자기의 분신(보살아기) 보유 ④ 여자라면 영체의 성을 남자로 전환(변녀성남) ⑤ 약사정토의 청정한 피 교체 ⑥ 가까운 친척이 악도에 없도록 천도할 것 등이 필수적이므로 부처님의 가피가 없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1번 영체로 가며 영체는 아침햇살처럼 빛납니다.

〈무아속절대계〉는 우주법계에서 가장 차원 높고 행복한 극락중의 극락세계입니다. 상적광세계이고 연화장세계입니다. 최고의 우주성자 붓다가 가시는 세계입니다. 우주본체와 완전히 100% 하나가 되어야 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최초로 뚫고 들어가신 세계입니다. 언제나 대적정삼매에 들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량의 환희를 누리는 궁극적인 해탈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할 최고의 목표입니다. 붓다가 되려면 부처님의 선택과 지도와 인가가 필요합니다. 붓다가 되면 법신불 · 보신불 · 화신불의 삼신을 구족합니다. 네 개의 영체는 빛덩어리가 되어 불신에 계합합니다. 1 · 2 · 3 · 4번 영체가 함께 가는 것은 오로지 붓다 뿐입니다.

Ⅴ. 부처님의 실존과 우주적 구원력을 말하다 – 붓 다 론, 구 원 론

자연법칙인 인과법에 의하면 착한 행위를 하면 즐거운 과보를 받고(善因樂果), 악한 행위를 하면 고통스런 과보(惡因苦果)를 받습니다. 이 업이 저장되는 장소가 영혼체입니다. 영혼체에 저장된 악업의 업장 때문에 인간은 가난 · 병고 · 재난 등의 고통을 받고, 사후에는 지옥 · 아귀 · 축생세계를 돌면서 윤회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영혼체의 업장을 소멸시켜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고 행복의 세계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장은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자연법칙과 완전히 하나 된 부처님께서는 업장소멸이라는 구원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1. 무아속 절대계에 불신으로 존재하시는 부처님

부처님과 불과를 이룬 모든 붓다님들은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십니다. 이것은 신불교인 영산불교가 세상을 향해 외치는 사자후입니다.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가 우주본체와 완전히 하나가 되신 분이기에 절대계에 당신의 불신을 두십니다. 부처님의 실존은 바로 이 불신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최초불이신 우리 부처님과 모든 붓다님들은 법신, 보신, 화신의 세 가지 불신으로 존재하십니다. 법신불은 부처님의 성품과 지혜가 우주본성과 완전히 합치된 비인격적 우주적 광명지체(智體)이고, 보신불은 32상 80종호를 갖추고 중생을 구제하시는 무량광 빛의 인격체이며, 화신불은 중생교화를 위해 보신불이 만들어낸 분신체인 것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실존은 중심불인 보신불의 존재를 말합니다. 불신이 있다는 것은 부처님 실존의 증거이고, 우주본체와 완전히 합일 되었다는 증거이며, 업장소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이 계시기에 불교는 진정한 구원의 종교입니다.

2. 부처님만이 진정한 구세주, 불교만이 진정한 구원종교

부처님께서는 우주본체인 공과 완전히 합일이 되었기 때문에 공의 무한한 질료와 정보를 자유자재로 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을 정도로 전지하시고 만능자재하십니다. 부처님의 우주적 능력은 불신(佛身)을 이루고 있는 억종의 무량광에서 나옵니다. 무량광 하나하나마다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억종의 무량광이 갖는 능력은 가히 무한하다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외도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화광삼매에 자재하시고, 중생의 지중한 업장을 소멸시켜 삼악도에서 건져낼 수 있으며, 붓다를 길러내실 수 있습니다. 땅속, 물속, 허공 깊숙이 숨어버린 영가를 찾아낼 수도 있고, 천체를 집어던져 버릴 수 있는 무서운 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업장, 특히 지중한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부처님께서만 갖고 계십니다. 다른 종교의 어떤 수장도, 외도의 어떤 초인도 삼신을 갖춘 경지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업장소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주 가벼운 업장을 씻어주는 정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류와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구세주는 바로 우주법왕이신 우리 부처님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부처님께 귀의하여 지극정성 칭명염불을 하고 선근 공덕을 짓는다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는 이 구세주 사상을 바로 알고 지구촌에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불교만이 진정한 구원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희유하고 불가사의한 우주적 구원주체 –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영산불교를 관통하고 있는 이념은 중생구제와 호국평화불교의 실현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국은 통일이 되어 잘 살아야 하고, 지구촌은 큰 전쟁 없이 평화로워야 합니다. 이른 바 호국 · 평화불교론입니다. 이러한 호국평화와 중생구제를 위해 새로운 차원의 우주적 구원주체가 있습니다. 바로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붓다님들의 합일체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입니다. 비로자나불은 부처님의 법신불로서 원래는 인격체가 아니지만, 여기에 모든 붓다님들의 보신불이 들어가면 하나의 우주적 인격광명지체(智體)가 되면서 부처님과 모든 붓다님들의 우주적 능력이 합쳐진,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불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로자나부처님은 가히 하느님이나 창조주와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로지 불교에서만 있을 수 있는 희유하고도 불가사의한 우주적 구원주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교만이 진정한 구원의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산불교 현지사에서는 비로자나부처님이 정기적으로 뜨시어 남북의 평화통일과 국운융창, 지구촌 평화를 위해 우주적 구원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 인류는 이 크나큰 은혜를 알고 부처님께 오체투지 고맙게 생각해야할 것입니다.


현지사의 대적광전과 석가탑, 다보탑


현지사 정기 법회

Ⅵ. 영원히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 수 행 론

1. 정법에 귀의하여 석가모니불 칭명염불해야

우리가 행복하려면 불행의 씨앗이 되는 악업의 업장을 소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장소멸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처님회상을 만나고 정법에 귀의해야 합니다. 자력으로는 결코 업장을 소멸할 수 없기 때문에 삼악도를 벗어나기 어렵고 윤회를 벗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천만생을 가도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회상이 영산불교 현지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부디 정법에 귀의하여 부처님의 가피를 불러올 수 있는 칭명염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금생도 잘 살고, 죽을 때는 잠자듯이 가고, 죽어서도 삼악도의 고통을 벗어나 하늘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이 있는 해탈세계로 갈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성호를 부르는 칭명염불 수행은 대승경전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정통 수행법입니다. 모든 불보살님들께서 하신 수행법입니다. 영산불교의 두 분 큰스님께서도 수십 년간 목숨을 건 칭명염불 수행으로 붓다가 되셨습니다. 칭명염불 중에서도 붓다 중의 붓다이신 석가모니불 칭명염불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인격적 불신으로 한국 현지사에 와 계십니다. ≪금강경≫ 읽고, 부처님 다라니 독송하고, 간절하게 소리 내어 석가모니불을 불러야 합니다. 배고픈 아기가 엄마를 찾듯이, 아주 간절히 불러야 합니다.

2. 청정계율을 지키고 효행 · 보살행을 해야

계율은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부처님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계율 없이는 선정에 들 수 없고, 부처님의 가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청정계율을 목숨같이 여기는 마음을 갖고, 불살생 · 불투도 · 불사음 · 불망어 · 불음주의 5계와 10선을 철저히 지키고 실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은 죄는 진심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부모조상님께 효를 다해야 합니다. 효는 불교의 중심사상으로서 윤리적 개념을 넘어 우주이법 차원의 빚(은혜)을 갚는 행위입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잘해드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효는 사후에 축생이 되었거나 아귀, 지옥에 떨어져 극심한 형벌을 받고 있는 부모조상님을 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주관하는 천도재를 지내주는 것이 최고의 효행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끊임없는 보살행으로 선근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불쌍한 이웃을 돕고, 자비 이타행을 생활화하여 선근 보따리를 열심히 키워나가야 수행의 진전이 빠르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혜와 복덕은 해탈로 가는 양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 회상에서 짓는 선근공덕은 최고의 선근공덕으로서 높은 해탈세계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자량이 됩니다.

3. 자손의 행복을 위해 관음태교를 실천해야

태교는 태아의 일생을 좌우하며, 출산 후의 평생교육보다 더 중요합니다.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자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수행이고 교육입니다. 특히, 관음태교는 부처님께서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직접 말씀하신 태교법이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삼매 중에 현신하시어 자재 만현 큰스님께 부촉하신 새로운 차원의 태교법입니다. 관음태교는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잉태 전에는 좋은 영혼체와 인연을 맺게 해 줄 수 있고, 잉태 후에는 업장 정화를 통해 천재와 성현을 길러낼 수 있는 전인교육적 태교법입니다. 외국의 어떤 태교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계적 인재를 길러내는 태교법으로서 국가차원에서도 적극 장려해야할 태교법입니다.



현지사 대전분원

▪ 현 지 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메일 hyunjigung@hanmail.net

•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5 ☎ 033-243-1787
•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2동 1439-2 이센타워 15층 ☎ 051-554-5150
• 대전분원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14-39 ☎ 042-525-5325
• 고성분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195-2 ☎ 033-681-5515
• 서울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1동 630-41 ☎ 02-453-5953
• 대구분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50-13 ☎ 053-654-5557
• 제 주 분 원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163 ☎ 064-783-5355
• 일 본 분 원 일본국 야마구치겐 이와꾸니시 히라타 ☎ 0827-34-1626
•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14-39 ☎ 042-525-5325



새해 복 2014

謹賀新年 福

佛紀 2558年 甲午年 謹賀新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A15

욕심을 부리는 자는 돈이 비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만족할 줄 모른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비록 조금이라도 욕심을 맛보는 것을 괴로움으로 안다.

– 법구경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종)**

宗正 靈山 一空

종도일동

■ 총무원 : 서울시 구로구 구로 2동 704-39호
전 화 : 02)853-0531~2 / 팩스 02)853-0533

甲午年 새해 精進 또 精進 하겠습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사부대중 일동

서울 종로구 종로63가길 31 전화 02)763-0054 / 팩스 02)763-5851

www.kwanum.kr



인도 보드가야 마하보디사원 대탑 옆 보리수(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장소)

대한불교 삼론종

종 정 김혜승

부 종 정 이 인 봉

승 정 혜공. 향운. 은곡. 진봉. 지운. 지심. 명재. 명산. 해불. 성희

총무원장 지민
총무부장 성우
규정부장 혜암
재무부장 송광

총무부원장 혜관
교무부장 정현
사회부장 무간

종회의장 지경
종회부의장 해산
종회의원 보명. 도희. 일선 지향. 성현. 성각 일천. 정연. 어산 정산. 보광. 지화 지연. 성우. 성덕 무간. 혜암. 명재 혜인

서울경기교구원장 보명
충북교구원장 지허
전라남북교구원장 명재
충남교구원장 지향
경남울산교구원장 해산
대구경북교구원장 어산

사정원장 명산
포교원장 명재
문화원장 지향
기획원장 도희
수선원장 지화
교육원장 남륜

사정부원장 정산
포교부원장 보명
문화부원장 지학
기획부원장 성각
수선부원장 성덕

종도 일동

■ 총본산 : 충북 충주시 대가미 15길 11 우암정사 (2층)
전화 0502)321-3333 / 팩스 043)847-0118

사단법인 **대승불교 본원종**

종 정 이대화 사서 김경산
부종정 김동광. 유법용
총무원장 김만혁 사서 김해인

원로의장 김대원
원로의원 박대월. 이관곤 이대봉. 박보명

총무부장 정법성
재무부장 김성문
감찰부장 안도일
복지부장 심지연

교무부장 안자관
사회부장 강정오
포교부장 김용담
조직부장 최원광

교육원장 손무공
연수원장 최대광
문화원장 김송담
염불원장 김광수

감찰원장 정대능
포교원장 김청운
의전원장 이두산

부산교구종무원장 김동광
경북교구종무원장 윤자광
강원교구종무원장 지진묘

대전교구종무원장 최지천
충북교구종무원장 박대월

종회의장 김대운 종회부의장 윤자광. 정지명
종회의원 구원각. 안자관. 김용담. 박부용. 황현문. 이심공. 유승준. 유관공. 이수혜 김해인. 신대광. 김성인. 김광덕. 김지선. 지진묘. 배지명. 이혜은. 한혜경 이혜원. 허시원. 이지혜장. 권진광명. 신청연행. 김법륜해. 김한명화. 김광명화. 이대각화

종도 일동

■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17-3 전화 02)391-4376 / 팩스 02)379-2746

(사) 대한불교본조계종

원로의원 용암. 혜암. 지연. 법우

종 정 회암 사서실장 헌화

총무원장 융호
고시원장 혜산
감사원장 효현
법사원장 마생

수석부원장 산수
법규원장 혜공
복지원장 대경
포교원장 대안

부원장 법전
중앙선원장 보륜
호법원장 청암
감찰원장 도문

문화원장 법성
교육원장 중무

중앙종회의장 대호 부의장 청오
중앙종회의원 혜철. 반야. 현덕. 정주. 인덕. 대공. 천묵. 현덕. 도일. 경담. 무진 불광. 고운. 지현. 천묵. 법향. 지환. 보호. 명진. 해련. 구달. 성무 명덕. 무심. 도인. 청공. 마월. 독견. 덕용. 덕보

총무부장 도현
복지부장 덕화
조사부장 광덕

재무부장 고운
문화부장 자은
호법부장 법장

교무부장 경덕
조직부장 무진
포교부장 법묵

사회부장 독성
규정부장 석담
교육부장 법향

서울교구원장 무경
부산교구원장 도관
충남교구원장 여진

경기수원교구원장 진성
대구교구원장 대안
경남교구원장 경덕

대전교구원장 법우
경북교구원장 무진
전북교구원장 보명

강원교구원장 정일
전남교구원장 법성
전주교구원장 보현

고문변호사 김창규. 이승민 한국종교예술방송 사장 산수 스님

종도 일동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서울중랑우체국 사서함 제76호 전화 02)3436-0796-7 팩스 02)2201-1163

(사)대한불교삼보조계종

三寶曹界宗

● 名譽宗正 : 太然대종사 ● 4세宗正 : 직무대행
● 元老院長 금산 ● 副 宗 正 회천
元副院長 정공 諮問委員 한파

● 元老委員: 혜공. 법령. 효성. 도문. 홍국. 정공. 법일. 청암. 정민. 향적. 송암. 법천. 문봉. 오연

● 총무원장 법장
부 원 장 법경
● 감찰원장 법도
● 포교원장 법륜

● 호법원장 법천
● 교육원장 홍인
● 염불원장 청산

● 중앙종회의원
● 고시위원장 해룡
● 문화원장 도광
● 복지원장 지공

총무부장 평산 교육부장 도오 교무부장 무진 재무부장 법진 포교부장 혜수
호계부장 청파 규정부장 도철 교화부장 해운 사회국장 성수
총무국장 지일 문화국장 해공 포교국장 성조 교육국장 무선 조사국장 혜담
기획국장 청붕 홍보국장 강천 염불국장 진각 사서국장 성타 사 무 장 손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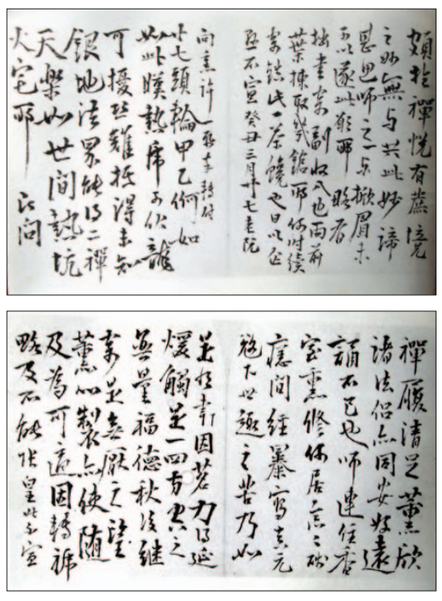
● 서울교구장 수산 경기교구장 법인 강원교구장 보산 인천교구장 불광
대구교구장 각원 경북교구장 용현 경남교구장 법융 울산교구장 도연
부산교구장 대전교구장 충남교구장 법송 충북교구장 지원
전남교구장 성종 전북교구장 청광
중국교구장 정륵 일본교구장 수원 스리랑카교구장 해국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분성로 455 삼보빌딩6층 / 055)334-1122. 338-0089
서울사무소 070-7124-3403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설사병으로 탈진… 차의 힘으로 생명연장”

〈완당전집〉〈여초의〉37신의 추사 편지는 〈여초의〉36신에 이어 보낸 편지인 듯하다. 이는 응송스님의 연구 자료 속에 들어 있던 추사의 친필본 간찰 도판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여초의〉 37신과 그 내용이 같다. 다만 사진 도판 자료에는 “27일 두륜산 샘물의 갑을을 따져보자는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二十七頭輪甲乙如何)”라고 한 내용이 들어 있지만 〈〈완당전집〉〉〈여초의〉 37신에는 “二十七頭輪甲乙如何”이 결락되었을 뿐 아니라 대흥사 대웅전의 원교 글씨에 대한 비평도 생략되었다. 따라서 이 편지는 1853년 2월27일에 보낸 〈여초의〉36신에 이어 보낸 편지이고, 〈여초의〉 36신의 하단인 원교(이광사)의 글씨 서평의 내용은 〈〈완당전집〉〉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추기된 것임을 드러낸다. 특히 추사가 과천에 머물던 시기의 일상적 단편을 잘 드러낸 이 편지는 다음과 같다.



〈완당전집〉〈여초의〉37신의 추사 편지

27일 두륜산 샘물의 갑을을 따져보자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와 같은 불볕더위는 범을 복종시키고 용을 길들일 만하여 당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은지법계에서는 이선천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 세간의 열 구덩이나 화택 같지는 않겠지요. 즉 묻노니 선리는 맑고 충족하신지요. 향훈과 자흔 스님도 모두 편안하고 좋으시며 원대한 수행을 그치지 않고 있겠지요. 그대는 일로향실에 죽 머무시는지요. 향훈 스님은 어디에 수행하고 있는지요. 늘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이 설사병을 만나 원기가 다 탈진되었습니다. 세상살이의 고통이 이와 같은 것인가요. 요행히 차의 힘으로 생명(煖觸)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방의 하늘에 내리는 무량공덕과 같습니다. 가을 이후에도 이어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싫증이 나지 않는 바램입니다. 향훈이 만든 차도 인편에 보내주었으면 합니다. 마침 돌아가는 인편에 대략 적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만. 노완

(대흥사) 대웅전 편액의 원교(이광사)글씨를 요행히 열람해 보았는데, 이는 천박한 후배의 글씨라 논변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원교가 자처한 것으로 논한다면 크게 전해들은 풍문만은 못하고, 조송설의 과구에 추락됨을 면하기는 어려워서 저도 모르게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났습니다. 이것이 어찌 원교 자신이 기대한 것이겠습니까. 더욱 서법이 지난한 것이고 쉽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만약 선종으로서 말한다면 바로 하택종과 같습니다. 하택이 사자후를 토하니 사람들이 번번이 떨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二十七頭輪甲乙如何 如此 e熱 虎可伏龍可擾 恐難抵得 未知銀地法界能得二禪天樂 不如世間熱坑火宅耶 卽問禪履淸足 薰欣製法侶 亦同安好遠誦不已也 師連留香室 熏修何居 念念 賤瘧間經暑寫 眞元敓下 世趣之苦乃如是耶 幸因茗力得延煖觸 是一四方空之無量福德 秋後繼寄 是無厭之望 薰製亦使隨及爲 可適因轉疏略 及不能愴皇姑不宣 老阮 大雄扁圓嶠書 幸得覽過 是非後輩淺薄者所可能辨 若以圓嶠之所自處者論之 大不如傳聞 未免墜落趙松雪 a中 不覺 然一笑 是豈圓嶠之自待者耶 益知書法之至難而未易下語也 若以禪宗言之卽一荷澤宗 荷作獅子哮 人輒震 者 何哉)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날, 관악산 줄기에서 나는 샘물은 그의 음다 풍류를 만족시킨 듯하다. 초의와 함께 차를 마시면 샘물의 갑을을 논하고자 했던 추사의 품천(品泉) 식견은 제주에서도 다듬었던 일이었다. “그 사이 설사병을 만나 원기가 다 탈진되었던” 그는 “차의 힘으로 생명(煖觸)을 연장하고”있다. 이 무렵 초의는 일로향실에 머문 듯, 일로향실은 초의의 실명(室名)으로, 차를 보내준 초의에게 보답의 증표로 보낸 것. 1844년 뭍으로 돌아가는 소치 편에 이 글씨를 써 보냈던 추사는 이 글씨가 초의의 수행처에 어떻게 걸렸는지를 궁금해 하였다. “일로향실” 차 향기 가득한 초의의 수행처의 선미 가득한 풍경을 잘 드러냈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참선으로 생활 포교 “국민 행복한 날 오길”

대효 스님 (안성 활인선원장)

오늘날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경제난, 취업난, 가정불화 등의 문제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근에 들어 불교계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 템플스테이, 명상, 불교 상담 등을 통한 치유활동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재가자들에게 참선을 지도해 수행자 스스로 고(苦)의 실상을 살펴보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선승(禪僧)이 있다.

제주 원명선원과 경기도 안성 활인선원 선원장을 맡고 있는 대효 스님은 40년 가까이 되도록 재가불자들에게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고 있다.

대효 스님은 사찰에서 ‘수련회’란 명칭조차 생소했던 시절인 1976년부터 매년 ‘삼매 체험 선 수련회’를 시작, 현재는 단기출가를 비롯해 죽염과 따뜻한 물만 마시는 금강단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 템플스테이와 비교할 때 스님의 프로그램은 제법 벅차지만 선원을 찾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 현재까지 1만 6000여 명이 거쳐 간 것으로 추정된다. “간화선 참구는 어린아이들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스님은 1978년부터 어린이불교학교를 매주 일요일 개최했고, 1982년에는 원명유치원을 개원하는 등 새싹포교의 싹을 틔웠다.

이밖에 스님은 지난 4월부터 경제난, 가정불화 등으로 괴로워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고(苦) 땡 캠프’ 도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 수행법임에도 선가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 불교 수행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수행으로 알려져 있는 간화선이지만, 대효 스님은 간화선 참구를 쉽고 재미있게 일상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새로운 ‘조사선 운동’을 펼치고 있다. 새해를 맞아 안성 활인선원에서 대효 스님을 만났다.

인간은 본래 깨달은 존재…바로 보아야

현대인들이 참선정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대효 스님은 “전통적인 계급차별의 문화나 윤리 도덕이 붕괴돼 가고 있으나 새로운 가치체계의 형성은 미흡해 문화, 윤리적으로 가치 대립이 극심한 시기”라고 현대를 진단하며 “현대는 윤리 도덕대신 개인의 자율에 의해 굴러가는 사회다. 그 말은 모든 개체가 존중될 가치가 있다는 뜻이며, 그 가치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깨달음은 조작하는 것도, 고치는 것도 아니며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게 깨달음이다. 그 깨달음은 참선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불교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귀의처이자 안심입명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즘 우리사회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갈등이 심하고, 생을 포기하는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가볍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자기가 있는 곳이 최상의 상태이며,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구경처(究竟處)라는 것을 알도록 합니다. 깨달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서지 않으면 불교를 위한 불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교는 외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깨달음이란 상근기 수행자들만 이룰 수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대효 스님은 누구나 깨달음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깨달음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사물을 있는 대로 보는 것은 거짓이 아닌 진실이며, 진실이 진리이며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보는데, 깨달음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완전무결한 지혜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주인인지 모르다 보니 갇혀서 사고가 제한을 받아요. 더 넓은 생각을 못해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데 모든 걸 집중해요. 그래서 결국 나란 존재는 무한한 능력을 지닌 완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갖지 않은 것, 가진 게 없는 것, 소유가 없다는 것에 대해 조금도 절망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은 고칠게 하나도 없어요. 고치려고 하니까 바쁘고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 하면서 속이 터지고 주체를 못해 자살하고 그러는데 그건 돈이 없어 자살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허약했던 청년, 참선 용맹정진하다

대효 스님은 어린 시절부터 몸이 허약했다. 세상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교육자가 꿈이었지만, 체질 탓에 의지도 약하고 갈등도 많아 꿈을 이루기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스님을 좋게 봤던 화주보살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여름방학동안 절에서 머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흔쾌히 절에 따라간 대효 스님은 즐거운 생활을 했다.

어린 대효 스님은 매일 밥 먹고 잠자고 흐르는 계곡물을 구경했다. 가끔 그 절에 있던 선객인 총무스님의 심심찮게 들려주는 얘기 즉 법문 듣는 것이 또한 일과였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노라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다. 신선놀음과도 같았다. 그렇게 한 달이 후딱 지나갔다. 집에 돌아오자, 대효 스님은 자신이 변했음을 감지했다. 평소 근면 성실하고 정직한 아버지를 존경해오던 스님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턱없이 작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한 달 간의 신선놀음이 내면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스님은 곧 출가를 결심했고, 날짜를 받은 후 야간열차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섰다.

별이 총총히 뜬 어두운 밤, 스님은 사립문 밖까지 나온 아버지에게 말했다. “지금 가면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별빛 아래 아버지의 굳은 얼굴이 보였지만, 아버지는 곧 “가보라”고 말했다.

문경 김룡사에서 행자생활을 하는 동안 대효 스님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님이 한 암자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걸어서 두 시간 남짓 걸리는 암자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 스님에게 법문을 듣고 있었다. 한국 최고의 선승인 서암 스님이었다. 대효 스님은 매일 두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고, 스님 밑에서 공부하기를 청했다.

당시 많은 스님들이 서암 스님 밑에서 공부를 했지만 3일을 넘기지 못했다. 낮에는 일만하고 저녁에는 정진 하는 서암 스님의 하루 일과를 좇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몸도 약하고 일도 해보지 않았던 대효 스님은 스승의 일을 돕기보다는 방해가 될 뿐이었다.

그래서 무자 화두를 드는 일념으로 일을 시작했다. 잡념이 끼어들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간은 더디게 갔다. 하루가 10년 같이 느껴졌다. 도중에 화두를 놔보기도 했다. 온몸의 세포가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았고, 다시 화두를 들었다. 그렇게 5~6년간 서암 스님을 시봉하며 살았다. 서옹 스님을 은사로 득도 한 대효 스님은 서암 스님을 비롯해 성철 스님, 향곡 스님, 경봉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 문하에서 수행하고 참방했다.

1976년부터 제주·안성서 재가자 참선지도
지도받은 수행자만 1만 6000여명
어린이에게 참선 지도해 본래면목 일깨워
축원 폐지·주말 법회 등 불교 현대화 앞장
지난해부터 일반인 대상 무료 캠프 열어
“고땡 캠프 확산해 전 국민 힐링 했으면”



제주 원명유치원 어린이들의 ‘동자승 체험 30일’ 삭발식이 열린 가운데 머리카락을 완전히 자른 한 어린이가 스님의 머리를 만져보며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고 있다.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사단법인 등록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 종정실 의전실장 황정재)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 동아매일신문사 사장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회 장 석무염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부 의 장 석월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만오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법담 사회부장 석혜주
정보부장 석보각 동원부장 석법원
행사부장 석지혜 의전부장 석근홍
사무총장 석초오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법승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강원원장 석법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제14기 영남(통도소리) 범음범패 교육생모집”

범음(홋소리,짙소리) 범패(강쇠, 북, 태징)
• 기초 2개월 _ 도량석, 종성, 각단 예불, 불공, 시다림,
• 고 등 1년 _ 중노릇하는법, 상주권공, 구병시식등, 천도재,
• 전 문 2년 _ 시왕각배,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
(기초의식부터 ~ 전통전문분야등 범패의 모든 것)
개강일 : 2014년 양력 1월 6일 (매주 월요일)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빛 2014

謹賀新年 福

佛紀 2558年 甲午年 謹賀新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A18

자고로 사람들은 말이 많아도, 말이 적어도, 말이 없어도 비방을 하고 비방을 받았다. 비방하거나 비방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세상에는 비방만 받고, 칭찬만 받는 사람은 지난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 법구경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원로원장 **범준**
위 원 **고산. 경호. 대명. 보현**
종 정 **혜봉**

총 무 원 장 **송산** 총무부원장 **도현. 보성**
총무부장 **덕광** 교무부장 **무연** 재무부장 **도은** 사회부장 **현무**
중 앙 종 회 의 장 **보장** 부 의 장 **수운. 호경**
중 앙 종 회 의 원 **서봉. 삼자. 혜언. 원철. 혜광. 수진. 법우. 지선. 혜가. 혜공. 연각. 지인. 보련. 이타**

중앙사정원원장 **정화** 부 원 장 **지성** 사 정 부 장 **백파**
중앙포교원원장 **혜일** 부 원 장 **보단** 포 교 부 장 **법공**
중 앙 교 육 원 장 **공덕** 교육부장 **무진** 중앙선원장 **현법**
중앙복지봉사원장 **무량** 부 원 장 **무봉** 복지봉사부장 **지연**

서울교구종무원장 **서봉** 부산교구종무원장 **삼자** 경기인천교구종무원장 **혜언**
경남동교구종무원장 **원철** 경남서교구종무원장 **혜광** 경북대구교구종무원장 **수진**
전북교구종무원장 **법우** 전남교구종무원장 **혜공**

중 앙 법 사 단 장 **무진** 법 사 단 부 단 장 **혜등** 법 사 단 총 무 **혜련**
비 구 니 회 회 장 **법인** (사)해동자비원장 **덕광** 국 제 교 화 원 장 **공덕**
용인소년의집원장 **무봉** (사)해동자비원부산지사장 **장양숙**

종 도 일 동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211-5 / 전화 031)262-1577 / 팩스 031)263-1353

(사) 호국불교조계종

이 사 장 **유심**
상임이사 **혜 명**
이 사 **일봉. 운암. 서암. 수연. 정무. 무여. 정학**
감 사 **관음**

■ 전국 각 교구원장

부산종무원 (직할교구)	051)468-5657		**서울교구원장**	법산	010-3011-0853
경남교구원장	운암(의령 분황사)	010-4773-1745	**거창교구원장**	봉덕(봉덕암)	010-8582-1309
대구교구원장	의광(약사사)	010-9884-0860	**불무도원장**	수연(천왕사)	010-8988-9672
울산교구원장	대일(마하선원)	010-3834-8034	**양산교구원장**	무천(천궁사)	010-2445-0160
사천교구원장	무무(연지암)	010-4595-2120	**포항교구원장**	(천왕사)	010-8988-9672

(사) 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유 심**

■ 총무원 : 부산 동구 중앙대로 231길 16 (부산역 앞)
전 화 051)468-5657 / 팩 스 051)442-5659 / http://jogyejong.kr

〔등록번호 206-82-65359〕

사단법인 대한불교 종단진흥총연합회

대 표 회 장 **회 암** (대한불교본조계종 정토불교 종정)
수석부회장 **향 운** (대한불교조승종 종정)
운영위원장 **산 수** (대현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운영부위원장 **월 광** (대한불교국제중도선 총무원장)

이 사 **고 산** (세계불교법사종 총무원장) **남 혜** (대한불교법보종 총무원장) **상 호**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법 광 (세계불교법륜종 총무원장) **일 원** (대한불교법화여래종 총무원장) **정 산** (세계불교해동원효종 총무원장)
탄 공 (대한불교법륜종 총무원장) **혜 남** (법화종 종정) **도 선**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청 호 (대한불교연화종 총무원장) **윤 식** (한국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 철** (대한불교대승연화종 총무원장)
법 성 (대한미타조계종 총무원장) **윤 서** (정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 장** (한국불교선조계종 총무원장)
태 춘 (대한불교용화종 총무원장) **허 범** (대한불교교화선종 총무원장) **회 례** (대한불교불승종 총무원장)
법 전 (대한불교미타조계종 총무원장) **혜 종** (대한불교선교종 총무원장) **동 범** (대한불교약사여래종 총무원장)
춘 서 (세계불교평화종 총무원장) **학 량** (불교영산법화종 총무원장) **숙 회** (불교용화세계미륵종 총무원장)
영 국 (대한불교일광종 총무원장) **청 열** (대한불교조계선종 총무원장) **대 월** (대한불교지음종 총무원장)
성 기 (대한불교해동평화종 총무원장) **우 열** (한국불교세계종 총무원장) **청 암** (호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관 봉 (불교도솔천유마종 총무원장) **묘 일** (불교실상연화종 총무원장) **혜 각** (세계불교복지종 총무원장)
한 영 (세계불교달마종 총무원장) **황 정** (세계불교일화종 총무원장) **중 규** (일체불교유법종 총무원장)
총 태 (진언불교지송종 총무원장) **정 자** (한국불교달마종 총무원장) **지 일** (한국불교대승법사종 총무원장)
용 환 (한국불교법성종 총무원장) **법 민** (한국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영 호** (한국불교조동선종 총무원장)
동 암 (한국무교교단 총무원장) **혜 상**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총무원장)

감 사 **영 도** (한국불교천일종 총무원장) **법 우** (대한불교조계종정토교 총무원장) **해 월** (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정 민 (한국신불교정토진종 총무원장)

고문변호사 김창규. 이승민 **한국종교예술방송국** 사장 **산 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서울중랑우체국 사서함 76호 / 전화 02)3436-0796 / 팩스 02)2201-1163

대한통일불교조계종

종 정 벽 암

종 도 일 동

귀의 삼보하옵니다.
본 종단은 부처님의 불법을 널리 펼쳐 불국정토를 이루고자 하는 큰 서원으로 참된 교육을 통한 정법 포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불심을 모아 함께 정진하실 승려, 법사님을 널리 모십니다.

{ 개인사암의 자산과 관리는 일체 주지 권한이며, 총무원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

■ **입종서류** 입종 등록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부,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도교육** **종도 강원교육, 집체교육, 사미기본교육, 통신강의**
(사미율의, 초발심자경문, 치문, 아함경, 방등경,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外 천수경, 반야경, 금강경오가해, 유식삼십송, 선문촬요, 정토삼부경, 원시불교, 부파불교, 불교계론, 기타 등등)

■ 총본산 : 경남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444번지 자비선원
■ 전화 055)391-3014(선원장실), 3004.3024(종무소) 팩스 055)391-3016

(사)대한불교 법상종

종 정 : 자 봉 **총무원장 : 해 월** **원로원장 : 학 암**

총무부원장 : **도일** 사정위원 : **지안.대광.강명** 총무국장 : **관보** 서울종무원장 : **지선** 중앙종회의장 : **대광**
사정원장 : **소운** 교무부장 : **원응** 사회국장 : **관덕** 부산종무원장 : **혜명** 중앙종회부의장 : **대화**
포교원장 : **천광** 사회부장 : **법산** 문화국장 : **법지** 대구종무원장 : **강명**
교육원장 : **성운** 재무부장 : **선혜** 포교국장 : **관지** 인천종무원장 : **원각**
참선원장 : **선담** 호법부장 : **선우** 교육국장 : **수운** 대전종무원장 : **송암**
홍보원장 : **해암** 문화부장 : **법연** 홍보국장 : **법은** 울산종무원장 : **석천**
연구원장 : **보월** 포교부장 : **선명** 연구국장 : **무상** 광주전남종무원장 : **성운**
역경원장 : **현산** 교육부장 : **혜각** 역경국장 : **임오** 경기북부종무원장 : **성상**
포교부원장 : **진광** 홍보부장 : **법성** 강원종무원장 : **대광**
연구부장 : **법성** 충남종무원장 : **원상** 사 무 국 : **관도**
역경부장 : **법화** 충북종무원장 : **강월**
복지부장 : **지공**
비구니부장 : **대화**

■ 총 무 원 : 경기 안성시 삼죽면 텃골길 105 / 전화 031)677-9950~1, 팩스 031)677-9953
■ 법상종 홈페이지 : www.bsj.or.kr 총무원 이메일 : bsj99501@naver.com

현대불교조계종

종 정 **덕현 벽운**
부 종 정 **성주 회천**

원로원장 **효덕** 규정원장 **혜원** 총무원장 **동화** 교육원장 **해인**
종회의장 **성해** 포교원장 **연담**

총무원 임원, 각 교구장, 종회의원

법성. 성해. 성문. 법진. 연담. 법연. 법인. 천봉. 도선. 고암. 성광
혜원. 시광. 정철. 보운. 고천. 광운. 해초. 해원. 흥덕. 종현. 고암
농해. 상락. 해일. 자현. 청정. 금화. 혜선. 효정. 정혜. 원욱. 화진
고산. 성진. 혜광. 월산. 해광. 원각. 진공. 자행. 혜초. 자명. 명안
자산. 수경. 성안. 도헌. 법인. 성수. 진광. 진각. 묵현. 현공. 진산
해인. 이착. 우하. 성일. 덕행. 현광. 종진. 삼관. 해성. 대산. 수암
수월. 여의주. 보현행. 보리심. 수월화. 천수화. 천모성월 외 종도일동

본 종단 입종을 적극 환영합니다

■ 총무원 : 대전 동구 은어송로 86-100 보광사 / 총무원장 주지 동화 : 전화 042)283-5896



새해 빛 2014

謹賀新年 福

佛紀 2558年 甲午年 謹賀新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A19

음욕(淫慾)은 불보다 뜨겁다. 음욕보다 뜨거운 불이 없고, 성냄보다 빠른 바람이 없으며, 무명보다 빽빽한 그물이 없고, 애정의 흐름은 물보다 빠르다. – 법구경



대한불교 대승종

종 정 법청 천광

원로원장 법해 도림

총무원장 법인 운남 종회의장 법보 일봉 감찰원장 법성 정산
교육원장 법기 무여 고시원장 법전 법현 연수원장 법신 노정
포교원장 덕일 종정사서실장 성각 기획실장 법장 원해

서울종무원장 경심 경기종무원장 무상 강원종무원장 탄해
충청종무원장 혜능 전라종무원장 덕운 군산종무원장 덕일
경북종무원장 탄영 경남동부종무원장 진공 경남서부종무원장 일봉

총무부장 진공 사회부장 진성 호법부장 진각 교육부장 진산
재무부장 혜각 연화부장 정혜 문화부장 공덕 교무부장 원봉
총무국장 화련 사회국장 화선

■ 총본산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250번지 흥도사
■ 총무원 : 경남 창원시 회원구 양덕1동 산 30-4번지 천연암

허가번호 2008-1-56-호. 등록번호 13467-0002921호

(사)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총 재 혜 정 (사단법인 대한불교일승종 종정)
부 총 재 혜 안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무 송 (사단법인 대한불교화엄선종 종정)
우 담 (중앙조계종 종정)
회 장 송 산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부 회 장 정 림 (사단법인 수미산문조동정종 총무원장)
마 정 (임제선학원종무총리)
사무총장 법 봉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 前총무원장)

이 사 법 인 ((사)대승불교육조조계종 총무원장)
향 운 (대한불교법보조계종 종정대행)
법 천 (대한불교정토조계종 총무원장)
법 성 (국제불교선덕종 총무원장)
일 초 (사)대한불교삼계종 총무원장)
대 명 ((사)대민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무 각 ((사)한국불교정토종 前총무원장)
정 일 (한국불교근본해동종 총무원장)
대 일 (대한불교법륜종 총무원장)
본 자 (한국불교법안조계종 총무원장)
덕 진 (한국불교원각종 종회의장)
지 고 (대한불교법사종 종회의장)

회 원 일 동

■ 총무원 : 경기도 안산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 / 전화 : 사무실 031)676-3960
031)262-1577 FAX 031)262-1353

(사) 대한불교염불종

종 정 월담성인

총무원장 만공 호조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충북 제천시 수산면 봉화재길 5 화엄사
전 화 : 043)652-0331 팩스 043)653-0332

社團法人 大韓佛教三界宗

종정 서허석법수

총무원장 박일초 종회의장 우원경

■ 산하단체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
한국불교예술대학. 삼계종 의료법인 정광병원

http:www.samgyeoijong.org
http:www.bumpae.org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997 (부평동) 인해빌딩
총무원 : 자원사 TEL 032) 529-5191 FAX 032) 529-6709 | 문화원 TEL 032) 529-6708 FAX 032) 529-6709
한국불교예술대학 TEL 032) 529-5190

■ 총본산 연화사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후평1리 산 9-2호 TEL: 031) 988-3531 FAX: 031) 988-1876



대한불교조동종 전종도 일동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

종 정 성파 대종사

원로원 의원 일동

총무원장 혜 륜 (실, 부장 일동)
중앙종회 의장 보 광 (중앙종회 의원 일동)

◇지방교구종무원
부산교구종무원(원장 지암) 경북교구종무원(원장 도광) 마산교구종무원(원장 법산)
강원교구종무원(원장 암현) 충북교구종무원(원장 도수) 경주교구종무원(원장 광래)
창녕교구종무원(원장 법원) 전라교구종무원(원장 복규)

전국 각 사. 암 주지 및 사부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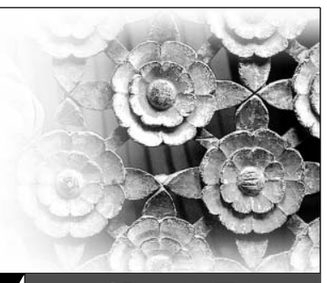
■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길 30 / TEL 02)762-2678 FAX 747-5044

대 한 불 교 법 화 종 총 무 원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되나니,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여러 겁을 겪어서 일을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보왕삼매론)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2)588-4606
비룡정사 제행스님

백발백중 귀장술
초보자 환영
쉽게보는 원판제공
다음. 네이버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자비 미륵암 (청학동)
미륵암 자비도량에서
삼신봉의 원력과 氣를 온 육신으로
받으시고 참선기도 하십시오.
(1일 만원)
미륵암에서 합께 수행하며
지내실 분 모십니다
010-2828-7113
055)883-7385



신심깊은 독신자 공양주 구합니다
(50대)
054)782-0659
011-9571-6559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달마도와 소나무 그림
원하시는 규격으로
그려 드립니다
(반야심경 금니사경, 용, 호랑이,
말, 다묵화, 선묵화 등)
010-8718-6262

초중생 한문학당
1차 : 12월 30일 ~1월 4일
2차 : 1월 6일 ~ 1월 11일
새로운 나를 발견하자
안면암 홈페이지 템플스테이
'일정안내란' 참조
대한불교조계종 안면암
041)673-2333
010-9407-0108

인로왕보살은 스님들입니다 춤으로 인도 하십시오
승무 · 관음춤 · 지전춤 · 살풀이 · 오행춤
반야용선춤 · 길배춤 외 기타 의식춤
스님 직강
010-8510-0108 보성 합장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대웅전 불사 원만 성취 발원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단체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법당화주 겸 종무보살 모십니다
-불심이 돈독한 법당 일천불 분양
권선할 유능한 화주보살을 모십니다
-불심으로 귀의할 출가 여행자
모집합니다
꼭 필요한 분만 전화주세요
(부산 금정구 소재 사찰)
010-6390-189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단양)
010-9373-377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안동)
010-4658-7870

부전소임을 원합니다
(창원)
010-2991-114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창원)
010-9325-7286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특수한 기도법
●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가족세우기 지도자과정 모집
대 상 : 가족세우기, 조직세우기, 지도자 원하신 분
자신의 가족관계 치유를 원하신 분 (조상,부모, 부부, 자녀)
성공, 번영, 풍요, 건강 관계치유를 원하신 분
명 상 : 깨어남코스와 인도명상 여행안내
네이버 카페 - 원네스 행복한 가족세우기 참조하세요
신청 및 문의 :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삼 보 양 초
삼보양초의 장점
1) 심지가 견고하며, 최고급의 파라핀으로
제작되며 그을음이 적으며 오래 탑니다.
2) 냄새는 맑고 향기로우며, 촛물이 깨끗하고
투명하다. (최상품의 삼보향초)
3) 신상품 금초는 모양이 아름답고 불빛이 찬란합니다.
삼보양초의 종류
1) 원기둥 홈초 (대) 1박스 20개 9만원
2) 돈타레 홈 (중대) 1박스 40개 9만원
3) 밀대 (중) 1박스 50개 8만원
4) 등신불 (소) 1박스 40개..... 9만원
5) 신상품 금초 1박스 40개..... 11만원
▣ 삼보양초는 종도사찰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종단차원에서 공급하여
▣ 품질은 우수하게, 가격은 저렴하게, 주문은 편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불교용품상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택배비 포함)
▣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주 문 전 화 : 010-9421-0772
사업부계좌 : 농협 301-0121-9593-41 소원사
(사)대한불교삼보종 소 원 사

新영성 향상법
제 1기 수련회원 모집 (스님, 재가자 환영)
- 회원대상 영성의 수준을 높여 불법 포교와 평안을 찾아 활기찬 인생을 살려는 분.
- 수련기간 2014년 1월 21일 (화요일) 부터
매주 화요일
3개월간 (하루 2시간씩, 18시 ~ 20시)
선착순 10명
- 수련내용 순수자각 - 행복감 솟아나게 하기 연습.
영성중심 기둥 세우기 실습.
웨이스 박사의 스트레스 힐링 - 듣는 명상 실습.
- 학습내용 프랭크 킨슬러 박사의 순수자각과 유필링론
캔 윌버의 영성과 초월적 성장론
코스몰로지(우주생명관)의 확립을 위하여
연기론과 6바라밀의 실천
구르지에프의 다중 아이덴티론과 셀프 리멤버링론
화이트 이글의 힐링과 실버버치의 가르침
운명을 개척하는 유전자 활성화법
뇌에서 스트레스를 지우는 종합기법
아리타 히테오 교수의 세로토닌 신경 활성화법
감동뇌, 공감뇌를 활성화하는 매일매일의 생활법
행복 호르몬 옥시토신, 세로토닌학 등
레이키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정통성 있는 레이키
교육단체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010-8392-2557
www.reiki.co.kr / e-mail : reiki@reiki.co.kr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영가 찾는법 강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듭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요일 저녁반, 목 · 금요일 오전반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노후를 절에서 사실 분
1인 1실. 신축건물 청정지역
5천만원 시주하시면 평생 생활비 없이 지낼 수 있음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다음카페 "연꽃마을 복지관" 검색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914번지
054) 383-8553 / 010-8585-4908
<혜봉스님 직통>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 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물질에 관한 명확한 깨달음 있어야 윤회 종식

붓다와 물리학 연재를 시작하며

니나 판 고르콤 저 · 위오기 공주대 교수 강의

누구든 그러하겠지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왜 태어났고 어디로 가는가?' '어떤 삶이 바른 것인가?' 등등 본질에 관한 의문이 들 곤 한다. 필자 또한 이런 의문을 갖는 젊은 시절이 많았지만, 소위 말하는 출세를 위해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의 해답을 찾아 볼 겨를도 없이 경쟁에 이길 수 있는 알음알이만을 무장한 채 달리고 달려 비교적 안정적이고 존경받을 만한 직업인 교수가 되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던 본질에 관한 의문은 또 다시 변형된 행태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알고 가르치는가? 내가 기억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론을 종합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과연 내 것이고 내가 아는 것인가?" "나의 기억과 생각이 과연 내 것이고 내가 아는 것인가?" "이런 알음알이 교육을 20년 이상 받았던 나는 얼마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아는가?" "이런 교육이 인생에 얼마나 유용한가? 20년 교육을 받고도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불만족한 우리들 삶을 영위하는데 이것이 바른 교육인가?" 하는 등의 회의가 몰아쳐 왔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수들 모임인 '초자연현상연구회' 에서 주최한 '화고운전법(畵庫運錢法)' 이라는 제목으로 공주에 사는 김승도 선생 초청 초자연현상 시연에 참석했다. 그 때 마술같은 현상을 몇 가지 목격하게 되었다. 밀폐된 공간에 둔 돈이 순간이동된 것과 밀폐된 자루 속으로 강사가 순간에 이동하는 등의 시연과 쇠붙이를 그냥 씹어 먹는 괴력을 보았다. 참석했던 많은 교수들의 물리 화학적 알음알이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60여명의 교수들 앞에서 시연됐다. 이후 회식자리에서 그것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공부법에 의해 가능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날 후 그 단어와 관련된 책들을 찾기 시작하여 그 법이 실려 있는 '기문둔갑장신술' 이라는 책을 입수했고 그 속에 호리의 틀림도 없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신통법도 있어 이것이 내가 바라던 지혜로 가는 길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 관련된 법서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더 많은 도법이 들어있는 책들을 발굴하였고 정신력이 중요하고 이를 연마하는 공부법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후 한 삼년을 방학만 되면 토굴과 산사 등에서 좌도 대가 도인 선사와 함께 좌도 신통수련을 했다. 단식과 절식을 병행하면서 집중력을 키워나갔다. 이 공부 결과로 상당한 집중력을 키울 수 있었고 건강도 매우 좋아지게 되었지만, 미묘한 탐욕과 두려움이 바탕에 있는 이러한 공부는 모든 고통을 뿌리째 뽑는 정도는 아니다. 물론 몸에 집중하는 소위 우도명상법 또한 바른 정법이 아니다.

그 후 인연에 의해 위빠사나 수행을 접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명상대상을 개념이 아닌 몸과 마음을 가지고 공부한 첫 위빠사나 수행에서 놀랄 만큼 선명히 알게 되는 이 '코끼리 발자국' 의 위력을 경험하였다. 몇 년간 보리수 선원에서 몸과 마음을 배워 나갔다. 이 때 내가 몸과 마음에서 경험한 것들은 이미 지도자도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위빠사나법이야 말로 모든 수행자들이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붓다는 믿지 말고 스스로 해 보라고 하셨다.

이 법에 대한 확신이 생겨 나의 전공인 경영학과 연결해 교육권 제도권에서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후 위빠사나의 직무스트레스 해소 효과에 관한 연구와 병행했고, 일본, 뉴질란드, 호주의 고엔카 위빠사나 센터들에서 명상과 봉사를 하며 종교가 배제된 교육법의 선례를 배워 나갔다. 이 때 많은 외국의 도반을 만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보내는 그들을 보며 우리나라에도 부담 없이 편안히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2004년 겨울에 전통적인 남방의 위빠사나 수행법을 배우기 위해 미얀마 파아욱센터로 갔었다. 파아욱 사야도께 직접 아침, 저녁으로 인터뷰 지도를 받으며 많은 몸과 마음의 실재를 보고 알게 되었다. 사야도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행의 큰 진보를 보았다. 육안인 두 눈을 감아도 총천연색으로 계속 펼쳐지는 광명의 세계를 체험하였고 말로 필설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실재의 변화를 몸과 마음에서 경험했다. 이 때 사선정을 경험했고 첫 번째 통찰지혜인 '물질과 마음을 구별하는 지혜' 에 도달하게 됐다. 2006년 홍인사 창립기념행사차 오셨던 사야도께서 의심하는 여러 대중들에게 "여기 물질현상을 직접 보고 온 교수가 있으니 들어 보라"고 해서 선물을 전해 주려 참석했던 필자는 준비 없이 그 때 본 것을 말한 바 있다.

그 후 보리수선원과 위빠사나 센터 호두마을에서 사마타와 위빠사나 명상 지도강사로 명상을 지도했고, 명상을 종교적 색채 없이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다가 2007년 가을 학기부터 열린사이버대 컨소시움 사이버 강좌인 '명상과 마음경영' 과목을 만들어 대학 학점으로 연결되는 제도권내 교육적 방법으로 '법' 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해 가을부터 10개월간 중국 청도에 있는 해양대학에 교환교수로 파견되어 재직하면서 오랜만에 다시 집중수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청도 소재 푸산의 동굴에서 수행하는 한편 붓다의 물리학의 원서인 〈물질현상에 대한 불교적 가르침(The Buddhist Teaching on Physical Phenomena, Nina van Gorkom, 2008)〉의 번역 초고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귀국 후 금년 7월과 8월을 하동과 홍천의 수행처에서 집중 수행을 하면서 파아욱 사야도의 제자인 실라 사야도의 지도하에 다시 한번 물질현상에 대해 명확히 보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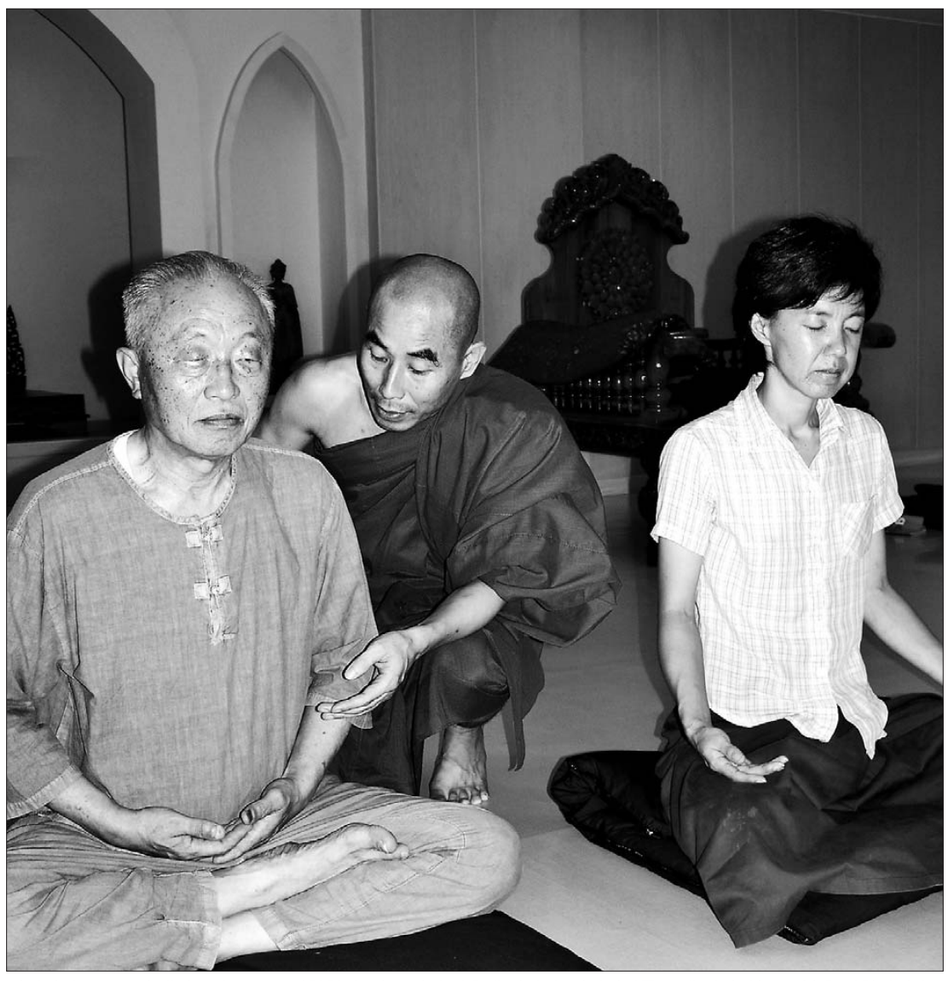
본 연재는 보리수선원의 붓다락기타 스님의 요청에 의해 상기 번역원고를 아비담마 길라잡이와 해설서 및 청정도론을 보완하고 본인의 수행경험의 사례를 추가하여 보리수 선원에서 10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강의하였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붓다께서는 칸다 쌍윳따의 삼매의 경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삼매를 개발해야 한다. 충분한 삼매가 있다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다.' 또 ' 모든 정신-물질과 그 원인을 3가지 통찰지혜에 의해 알지 못한다면 니르바나에 도달할 수 없다. 3 가지 통찰지에 의해 그것을 아는 자만이 니르바나에 이른다.' 그러므로 니르바나를 원하는 모든 수행자들은 삼매를 개발하여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아 정신-물질과 그 원인을 통찰지혜로서 깨달아야 한다. 또한 청정도론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차츰 물질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얽힘이 풀리며 아주 선명하게 될 때 그것을 대상으로 가진 정신의 법들도 스스로 분명하게 된다.' (제18장 15) 또 '이와 같이 물질을 파악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정신의 법들은 세 가지 양상으로 분명해진다. 그러므로 물질을 파악하는 것이 선명하게 된 사람만이 정신을 파악하는 수행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면 안 된다. 만약 한 가지나 두 가지의 물질의 법들이 분명해졌을 때 물질을 버리고 정신을 파악하기 시작하면 명상주제를 잃고 만다.' (제18장 23)

따라서 모든 고통을 끊고 윤회를 종식시키는 길로 들어서기 위해 물질에 관한 명확한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 물질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의 기회는 두 번 주어진다. 첫 번째 통찰지혜인 '물질과 정신을 구별하는 지혜' 에 이르면 삼매의 힘으로 마음의 창에 드러나는 물질들의 성품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확연히 알게 되는 것은 네 번째 지혜인 '일어나고 사라짐의 지혜' 의 단계에서이다. 붓다가 설하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붓다의 물리학의 세계는 일반 물리학의 세계와 다르다. 붓다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라 하기보다 물질의 성질에 관한 궁극적인 실재의 세계이다.

아무쪼록 현명하신 독자 여러분들이 선각자들이 얻었던 통찰지혜를 얻어 예리한 지혜의 칼로 번뇌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버려 영원한 행복의 길로 가는데 이 연재가 작은 징검다리가 되길 희망하는 바입니다.

위오기(공주대 경영학과 교수)



위빠사나는 모든 수행자들이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위빠사나를 통해 사선정(四禪定)을 경험하면 '물질과 마음을 구별하는 지혜' 인 통찰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 붓다는 '모든 정신-물질과 그 원인을 3가지 통찰지혜에 의해 알지 못한다면 니르바나에 도달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사진은 보리수선원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하고 있는 수행자들.

붓다의 물리학은 물질 성질에 관한 궁극적 실재의 세계
니르바나를 원한다면 삼매 개발해 현상을 그대로 보아야
정신-물질과 원인을 통찰지혜로 깨달아야 니르바나에 도달

위오기 교수는



부산대학교 무역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경영학박사)를 졸업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미국 NYU 스턴스쿨 객원교수(풀브라이트 미드 리서처), 일본 나고야 대학 경제학부 동태경제원 및 국제대학원 GSID 문부성 초청 외국인연구원, 호주 그린피스 대학 멀티페이스 센터 객원교수, LG전자, 농어촌공사 근무의 경력이 있다. 저서로는 '글로벌 경영(법문사)' , '국제경영(학현사)' , '명상과 마음경영(공주대)' 등과 역서로는 '마음 누구나 다스릴 수 있다(보리수선원)' '지금 현재를 알기(보리수선원)' 등이 있다. 현재는 공주대학교 경영학과(국제경영학 전공) 교수로 재임 중이며, OCU(열린사이버대학) 컨소시움 '명상과 마음경영' 강좌를 운영(cafe.daum.net/samadhisati)하고 있다.

니나 판 고르콤(Nina van Gorkom)은



1928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레이덴(Leyden)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재학 중에 가톨릭 신자가 됐다. 1952년에 외교관인 로데윅(Lodewijk)판 고르콤과 결혼했다.

1965년 로데윅은 태국에 부임했고 니나 판 고르콤 여사는 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불교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마하탓 사원(Wat Mahathat)의 외국인을 위한 법회에 참석했다. 1966년 여름, 그녀는 그곳에서 수진 보리한와나껫 여사(Khun Sujin Borihamwanaket)를 만났다. 불교의 심오함에 깊은 감명을 받은 그녀는 부처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됐고, 나중에는 수진 여사가 태국 라디오 방송에서 불교에 관한 토론을 할 때 대담자로서 참여했다. 이 토론은 나중에 "일상생활과 불교(Buddhism in Daily Life)" 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첫 번째 책으로 출판됐다.

고르콤 여사는 1970년에 태국을 떠나서, 일본, 뉴욕,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리아에서 살았으며,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에 산다. 그녀의 저술은 영어를 사용하는 불교도 사이에 유명하고, 태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그녀를 존경하고 있으며, 그녀의 책 몇 가지는 태국어로 여러 판 번역돼 24만 부가 넘게 팔렸다. 그녀의 책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네팔, 독일과 한국 등에서 번역됐으며 7권의 저술과 4권의 번역서가 있다.

목 차

1. 4대근본물질
2. 8원소 기본물질
3. 감성물질
4. 대상물질
5. 섬세한 물질과 업
6. 암시물질
7. 네 가지 요인들에서 생기는 물질들
8. 특징물질
9. 물질모임
10. 결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사)대한불교법화종

북한산 무량사

전통사찰 경기등록 제 1호

전통사찰 북한산 무량사 주지 무 량

신도회장 송순남 총 무 정미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464-1호 TEL 02)385-7777, 351-3789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한국불교태고종

광주전남교구 종무원

원로의원 지허. 지암. 도수. 무봉. 현암. 법천
금용. 혜림. 금명. 설봉. 서봉

종무원장 호산

종회의장 승범 부원장 월인. 혜광

총무국장 보각 교구국장 원일

재무국장 법진 문사국장 도안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운천길 85-15
TEL 062)375-1820, 팩스 381-0944



새해 빛 2014

謹賀新年 福

佛紀 2558年 甲午年 謹賀新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A22

악을 두 번 다시 범하지 말아라. 악 속에 즐거움을 누리지 말아라. 악의 축적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되느니. 작은 악이라도 경시하지 말거라. 물방울이 비록 작지만 마침내는 큰 물병을 채우느니.

– 법구경



社團法人 대한불교 대원종
社團法人 정통불교 조계종

종 정 정허당 신풍　　총무원장 비상 대광

원로원장 정봉　　부원장 청량 범왕
원로위원 법교 대경 지성 대원
연수원장 민재　　부원장 범수
감찰원장 청량범왕　　부원장 법조
포교원장 경덕　　부원장 원효
호법원장 법경　　부원장 대원
불교예술원원장 소연　　부원장 도이
비구니회장 대광　　비구니부회장 연아
대원신풍불교(승가)대학학장 신풍　부학장 민재 대광
사무처장 성원　종정사서실장 법수　종정큰스님시봉 소원 법수

부산교구종무원장 민재　　경북교구종무원장 혜정
대구교구종무원장 대각　　경남서부교구종무원장 경덕
포항교구종무원장 조향　　목포교구종무원장 법주
전남광주교구종무원장 법정　　인천교구종무원장
충남교구종무원장　　거제교구종무원장 도언
강원교구종무원장 각오　　경남서부교구부원장 원효
대원종법사단장 수안　　창녕지회장 연아
대원종전국신도회장 신우연　　부산법사단장 도이
신풍사 신도회장 이정민(청암)

중앙종회의장 법조　부의장 대경
중앙종회의원 민재 대광 연아 혜정 도언 경덕 범수 혜인 혜도 대오 도하 혜성 원효
총무부장 대오
규정부장 혜정　교육부장 정법　재무부장 연아
사회부장 도하　홍보부장 도언　기획실장 대각



▸신규사암 등록하실 스님 항상 환영합니다. 행자승 모집합니다. 무료 숙식제공, 역학(철학, 사주관상, 성명학, 풍수지리) 대원승가(불교)대학 및 불교의식 교육생 모집합니다.
▸지역교구 종무원장 하실 분 초빙 환영합니다.
▸역학 철학 풍수지리 속성 개인지도.
▸신규사찰 등록 환영 사찰이나 포교당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994 대한불교대원종 총무원 신풍사(원적사)/한국역술철학 협회 회장 시인 철학박사 종정(총무원장) 정허당 신풍
총무원 055)346-2909 / 사무장 010-8548-8608 / 무료전화 080-3030-5959 / 팩스 055)346-2909 / 큰스님 直 055)346-2908
휴대폰 011-869-8608 / 대한불교 대원종 홈페이지 DW108.com / E메일 asp8990@naver.com
※본 종단은 승려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려제명 및 종단에서 발행한 제반증서 무효처리(폐기소각처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종 정 혜강당 능인대종사
원로원장 범아대종사
중앙종회의장 법장

총무원장 동담　사정원장 인묵　포교원장 효천
교육원장 덕암　감찰원장 인묵　사무총장 백담
재무부장 홍신　교육부장 혜광　사회부장 보운
문화부장 수연　사서실장 원담

■ 총본산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 5길 197 각황사 / 053)325-0400
■ 총무원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 192-7번지 극락사 / 031) 641-4772

한국불교 법안조계종

종 정 운봉
총무원장 본 자　　종정사서실장 도현

승정원장 영암　승정부원장 성암 정암　자문위원장 대현
종회의장 승법　종회부의장 홍운 법신　종회의원 성각 성견 성진
감사원장 법안　교육원장 혜초　호법원장 원광　수선원장 서연
의전원장 동선　기획원장 법장　비구니원장 효상　비구니부원장 설운
호법부원장 광월　문화부원장 설운
호남교구원장 도암　경북교구원장 제법　경남울산교구원장 갑태
총무부장 불현　교무부장 도문　재무부장 혜진　문화사회부장 현공
포교부장 각초　규정부장 도영

종도모집 안내
종도 한분한분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본 종단에
법연으로 함께 하실 종도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 총무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500-1번지 / 전화 031)323-1325

대한불교 선종

종 정 효담
총무원장 정 관

총무부장 인성　재무부장 행우　포교부장 효은　사회부장 인호
홍보부장 행수　호계부장 심인　감 사 무 구　사서실장 인우
예경실장 효웅

경주교구 중앙종회의원
종회의장 무초
의 원 용현 무구 행우 효은 심인 행수 인성

포항교구 중앙종회의원
의 원 혜문 일우 일웅

울산교구 중앙종회의원
의 원 무초 행삼

직할교구 중앙종회의원
의 원 인호 효웅

영천포교원 중앙종회의원
의 원 법인성

경주교구임원
종무원장 용현
교육국장 법운
재무·사회국장 인성

포항교구임원
종무원장 혜문
재무국장 일웅
사회국장 행화

울산교구임원

영천포교원
포교원장 법인성

■ 총무원 : 경상북도 경주시 동방동 831-99번지 / 054)748-0462 팩스 054)771-6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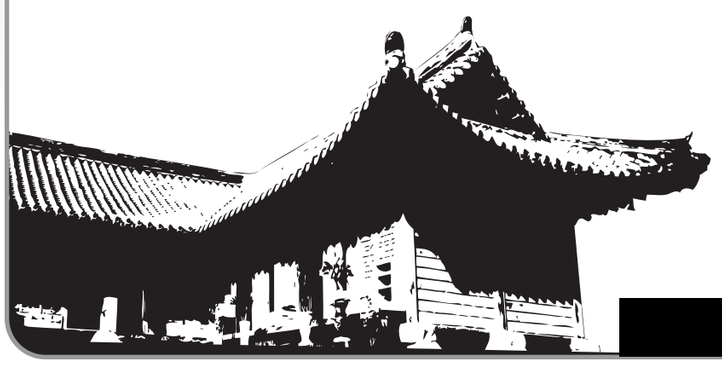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산 현불
총무원장 자 명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8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041)585-4153
H.P 010-6478-1569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새해 복 2014

謹賀新年 福

佛紀 2558年 甲午年 謹賀新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A23

탐욕에 비유될 만큼 격렬한 불길은 없으며 분노에 비견할 만큼 강한 악력(握力)은 없으며 어리석음에 견줄 만큼 촘촘한 그물은 없으며 애욕보다 더 빠른 물결은 없다.

– 법구경



대한불교조계종 • 무등산

證心寺

주 지 연광

사부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6번지
전화 062)226-0108 / 전송 062)222-5997
www.jeungsimsa.org



도심 속 전통의 멋스러움이 숨쉬는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광주포교당

원 각 사

주 지 도 요

- 원각사 지장전 만년위패 봉안
-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 정진기도
  매월 첫째주, 셋째주 금요일 오후 7시 봉행
  지도법사 : 도요스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4가 51번지
전화 062)223-3168 / FAX 062)224-5280
www.wongaksa.org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광주포교당

성 거 사

주 지 혜 공

사부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남구 서2동 143-2
전화 062)676-1080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광주포교당 **길 상 사**

주 지 도 제

- 새 벽 예 불 – 매일 오전 5시
- 유식학 강의 – 매일 오전 5시 30분
- 일요가족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어린이 법회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목련합창단 연습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로 5번길 7 전화 062)955-4407
www.kilsang.kr



기장군불교연합회

회 장	정 오 (장안사 주지)
수석부회장	법 안 (안적사 주지)
부 회 장	보 혜 (청량사 주지)
감 사	혜 성 (해광사 주지)
총무국장	도 은 (장안사 총무)
재무국장	혜 명 (혜명사 주지)
포교국장	성 타 (동림사 주지)
복지국장	법 귀 (백련암 주지)
홍보국장	정 산 (덕주사 주지)

기장군불교연합신도회

회 장	이재순 (장안사)
수석부회장	조창국 (옥정사)
부 회 장	박애란 한정희 김경옥 이해수 최선애 강다영 김춘애 성환필 이영화 심승희 이수복
감 사	송재일
사무총장	최임진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임밖길 12(안평리)
TEL 051)723-1851 / FAX 723-1852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불광산 장 안 사

대웅전 국가문화재 보물 제 1771호

주 지 정 오

신도회장 이재순

사부대중 일동



백의관음도량

기장 청 량 사

주 지 보 혜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임밖길 12(안평리)
TEL 051)723-1851



대한불교조계종

대 성 사

주 지 김유정

〈부설〉

- 동해유치원 053)652-5760
-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TEL 053)624-0542 / FAX 053)623-0265
홈페이지 www.daesungsa.or.kr

기도 교육 행복 복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정 각 사

문학박사 · 주지 정 엄

사부대중일동

운영시설

- 군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 군포시 장애인보호작업장
- 군포시립 노인요양센터
- 사단법인 좋은친구
- 정각사 화엄불교대학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38-1 거성 3차
TEL 031)398-8001
www.junggaksa.com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 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접수일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02)2004-8215
▷ 가 격 : 1회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학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괴로움은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반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행복과 보람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다. - 법구경 -

삼 보 사 찰 안 내

상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부산
- 법당 : 25
- 요사 : 35*2동
- 총부지 10,000
- 대지 650평
- 가액: 12억

- 위치 : 의령
- 대지 : 목조25
- 법당 : 30방4개
- 대지 : 200
- 가액 : 4억

- 위치 : 포항시내
- 대지 : 55평
- 법당 : 25평
- 요사 : 방2개
- 가액 : 1억 3천

※서울 경기 경남 부근 매도사찰 급히 구합니다.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전화 환영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 홍천
- 목조법당50㎡요사채85㎡
- 토지2,100m2
- 접근성좋은사찰임
- 마을부근 위치좋음
- 양도금액2억9천만원

010-7347-1010(사찰전문)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사하구. 큰도로변
- 2층건물에 2층 평수 60평
- 법당 30평, 공양간, 친견실, 침실 3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 80만원
- 시설비 : 상담 후 절충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 즉시법회가능

010-9396-7133

고 산 지

- 위치 : 경북 영양 관내
- 고산 국유림 내 대지 124평
- 조립식 건축물 21평은 도로 전기 식수 다목적
- 최고의 물건 저렴한 매가
- 주소공개

010-8899-8899
010-7621-76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
- 대지 800평, 대웅전 20평,
- 산신각 3평, 요사채 20평
- 주차장 100평,
- 산세수려하고 기도도량
- 가액: 2억 3천만원

054-782-0659
011-9571-6559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수도권
- 대지 : 130평
- 법당 : 35평
- 요사 : 60평
- 가액 : 3억5천
- 위치 : 서울
- 부지 : 9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6억5천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사 찰 (급) 안 내

아름다운 토굴 안내

- 총부지 970평 (칠보 삼존불 봉안)
- 법당 및 요사채, 산신각, 용왕각, 독성각
- 50년역사와 정원수 다량, 나비형 큰호수
- 양도가액 : 1억 8천만원

양산(급)사찰

- 위치: 양산 신도시 10분거리
- 대지: 1350평
- 법당: 33평 산신각 및 용왕각 기타등등
- 버스주차장, 산세수려, 계곡물 철철
- 은행 안고 3억인수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 주소 http://cafe.daum.net/temple0
직통 011-560-8522, 051-863-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 중심부
- 대지 2013㎡
- 법당. 요사채 : 약 100평
- 후원, 창고 약 15평
- 주차공간 넓고, 경관 수려함
- 가액 : 답사 후 결정
- 직거래-부동산 사절

010-7582-0098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동고성 IC 5분거리)
- 벽방산 인근 • 산세 수려한 부지
- 면적 : 5,500평
- 시설 : 미륵불상(전라도 화강암, 7M, 20톤)좌대(자연바위 약20평), 유실주 약 150그루 주택1동(약30평),창고1동(약40평)
- 양도가격 : 4억5천만원 (미륵불상포함), 웅자 1억6천만원
- 건강상 급 안내

010-9056-245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4층 5층
- 보증금 : 2000만원
  시설비 : 2000만원
  월세 : 50만원
- 온천장 요지, 시설완비, 주인직

010-3836-6566

사 찰 안 내

- 전망 및 도로 사정 좋은 바닷가 사찰
- 대지 약 500㎡, 건물300㎡(4동)
- 관세음보살상, 약사여래상
- 후불탱화 108위, 소불 500불
- 주차 10대가능, 대출 2억
- 가액:8억 3천만원(중개업자사절)

010-2372-7681
055)761-9646

별장같은 아늑한 포교원

- 위치 : 거제시 최요지
- 거제시 양정동 936-96번지
- 아파트밀집지역 등산로 입구
- 대지 약 270평 건물 약 40평
- 1층 법당, 공양간, 방2, 욕실2
- 2층 방1, 주차장 약 30대
- 전세 8000만원, 월세 없음
- 시설비 1000만원
- 모든 비품 있으니 즉시 입주 가능

010-6393-5352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010-3426-9393(사찰전문)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주택(절터)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주거지역
- 면적 360평, 건물 50평
- 가액 : 평당 200만원 (시세 절반 가격)

010-8676-2278

암 자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학장동
- 독채건물, 인법당, 석가, 관음, 지장, 산신각, 거실, 주방, 창고, 마당, 세면장, 화장실2개
- 육십년 된 암자
- 버스정류소 40m 아파트 밀집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

011-768-135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감만동
- 2층 건물 중 2층 (30평)
- 주택밀집지역
- 삼존불, 신중전, 칠성전
- 산신전은 별도로 모심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010-2503-38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진구 전포동 (놀이터시장입구)
- 2층 건물 2층 법당, 방2개, 20평
- 보증금 6백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
- 위치 좋음, 즉시 법회 가능

051)817-1326
010-8872-1326

신축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임실군 국립 회문산 천마봉 옥정호 섬진강 IC 입구
- 2012년 신축 한옥 법당 2동 (토지매입 3억, 건축비 2억 5천만원)
- 호남 8대 명당터, 전 + 토지 3천여평
- 전세 3천만원 5년 장기 임대 가능
- 종교시설완비, 부처님 3분 모셔져있음
- 추가법당 불사비 협의 인정해 드림

010-9647-0723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구포시장 신협 옆
- 평수 75평
- 2층건물 중 2층 독채, 시설완벽
- 삼존불, 지장전, 신중전, 삼성전
- 소불 108불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85만원
- (주차장 운영수입 45만 발생)
- 시설비 3500만원

010-7601-693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2층 건물
- 1층 요사채 35평, 2층 대법당 30평, 산신각 5평
- 법당, 산신각, 인등, 산신불, 관음불, 지장불, 영단 후불탱화(입체금탱화)
- 황토방 2, 주방 15평
- 조경시설, 과실수, 텃밭, 우물, 용궁
- 즉시법회가능, 집기 일절
- 가액: 4억 5천만원

010-4561-2149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생비량면
- 진주에서 15분거리 전망좋음
- 대웅전1채, 요사채
- 약 1000평
- 가액: 1억 5천만원
- 충분한 협의가능 합니다
- 금액 생각하시지 말고 문의 바랍니다

010-3586-869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진구 재래시장 앞 버스정류장
- 2층 25평. 공양간 방1
- 3층 25평, 법당(삼존불,)방1,
- 옥상, 옥탑방1
- 가액 : 보증금 1천원, 월 40만원
- 시설비 2300만원

010-4840-3939

사찰부지 터 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 360번지
- 평수: 3,500평(오래된 금강송 소나무가 많음)
- 특징: 노적봉이 있는 좌청룡 우백호에 앞은 저수지요, 좌우는 큰 계곡물이 흐르는 백두대간 혈자리가 맺힌 곳
- 교통 : 동해바다 및 고속도로 I/C 5분거리
- 가액 : 1억 5천만원

010-3531-5562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종교용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가액: 8억 8천만원

직)010-3858-8335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사진 열람)
※ 주소 http://cafe.daum.net/temple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 3층 중 2층
- 약 60평
- 위치, 시설, 환경 특 A급 (넓은 법당, 넓은 공양간, 방3, 샤워실)
- 보증금 :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2700만원(조절불가)

010-5560-173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1층 포교원
- 삼존불, 소불
- 쑥뜸 치료 찜질방
- 주차 3대 가능
- 가액 : 전세 8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9376-7242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 동구 남월동 산 16-1
- 대지 400평
- 보증금 1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010-8775-1677
042)273-1677

사찰터 최적지 안내

- 위치 : 대구 달성군 가창면 오리
- 최정산자락,
- 임야 1천평,건물1동
- 최정산정상부분 자연형성
- 바위 불상3분(죄불 석가상, 입불 보살상, 좌불 보살상)
- 가액: 3억5천만원 (가칭 오동사)

010-7755-2661

별장같은 사찰(급)안내

- 위치 : 충청도청 10분 도립공원 등산로
- 총평수 1020평 (대지 : 190평, 전 830평)
- 황토건물 50평(1,2층)
- 마당에는 450년된 큰나무. 오래된 돌담. 연못조경
- 옆 큰저수지, 자연경관최고,8대명당
- 가액: 답사 후 결정

010-9805-5528

성덕 문도회 공고

귀의 삼보하옵고!

성덕 문도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4년 1월 4일(토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대원사
■ 안 건 : ① 문도 발전의 건
② 기타의 건
■ 안 내 : 054)976-8116

성덕 문도대표 혜성 합장

영남범패학인 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3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아 래

〈진주교육원〉

* 입교일시 : **2014년 1월 13일 〈월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 수 강 일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 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① 상용의식 및 재의식
② 사물 다루는 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문의전화 : ☎ 055)747-8419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검색해 보세요.

영남범패불음원장 원명 합장

Hwalbup Apitherapy Correct Master

벌(蜂)침관리사

일침 이구 삼약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벌침(蜂)관리사란?

벌(蜂)꽁무니에 있는 침을 손과 핀셋으로 압통점 및 경혈에 직침과 자침을 하여 일침이구삼약(침/뜸/약)의 동시 효과로 밸런스가 무너진 몸의 균형을 신속히 회복되도록 하는 방법으로써 활법 교정술과 접목되면, 몸의 자연 치유력이 평생 유지되어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벌침관리 전문가다.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 바른자세와 근육론 / 경혈론 / 증상론 ● 벌(蜂)침의 척추신경 / 경락의 활용법 ● 척추와 아시혈 찾기 / 주의사항 ● 활법교정과 벌침의 직,자침 실기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 교육기간 : 6주과정 (토) 오후 1시 ~ 5시

▶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 자
▶ 특 전 : 봉산물 및 가축(봉침)용 양봉기술 전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대행 스님

무조건이지, 이리 왈 저리 왈 이유를 붙이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안방에 앉아서 세계를 봅니다. 또 인공위성을 통해 여기 한국의 신문이 미국으로 떨어지는데 한 찰나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가르치는 것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걸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신통이라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전자에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해 놓으신 것이 지금 실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신통의 핵심을 안다면, 인공위성을 띄워서 아는 것보다도 인공위성 띄우는 그 자체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이치를 정복해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 그 연구하는 사람의 앞장을 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를 제대로 못할 때는 내가 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돼야 된다 이거죠. '모습 없는 모습이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온다.' 이 소리가 바로 팩스하고 탐지기, 통신기, 이런 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력으로써 전 세계를 지금 누비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부처님께서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고, 모습 없이 화(化)해서 천백억화신이 들고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가르치는 게 여줄가리에 뭐, 이 담벽이 어떻고 이 담벽이 어떻고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그대로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고정됨이 없다 이겁니다. 항상 흐르고 흘러서 가는, 찰나찰나 화하고 변해서 돌아가는 내 마음이 그렇게 만법을 응용할 수 있고, 만법을 바로바로 우리가 찍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걸 가르친 거지, 이리저리로 다니며 이론을 파악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먹는 겁니다. 쌀이나 밥으로 비유하건대, 쌀이 옳으냐 밥이 옳으냐 했을 때 밥도 아니고 쌀도 아니다. 그냥 밥을 먹을 뿐이다 이 소립니다. 배고프면 밥 먹을 뿐이다.

그거는 왜 그러냐?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사람들이 전부 알고 있고 나쁘다 좋다, 이걸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사유는 전부 알고 있습니다. 행이 문제지. 그래서 세 살 먹은 어린애도 불교라는 말은 다 아는데, 구십 살을 먹고 백 살을 먹어도 행하기는 어렵다는 얘깁니다. 우리는 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지 지금 이론을 배우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팔만대장경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질문하기 이전에 내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팔만대장경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림 · 최주현

신도1(남): (대중 가운데서) 마음에 있습니다.

큰스님: (잠시 멈추시고) 또 세상살이, 전 세계가 돌아가는 이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도2(남): (대중 가운데서) 현재 이 자리 아닙니까?

큰스님: 허허허…. 그렇게들 잘 아시는 분이 실천을 하지 못한다면 억울해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전 세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주먹에 넣고, 내 근본을 그대로, 이 핵심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하죠. 지금 가고 옴이 없이 일을 해야 하고 이럴 때…, 만약에 전파를 저 미국에 쏘는데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도 그랬지만 우리가 핵심을 꿰뚫어서 파악하면요, 전부 우리가 가고 옴이 없이 빛보다 더 빨리 찰나찰나 옮겨서 돌아간단 말입니다. 금방 아버지가 됐다, 금방 할아버지가 됐다, 금방 남편이 됐다, 금방 형이 됐다가, 동생이 됐다가 온통 그렇게 바뀌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적인 각자, 나의 그 핵만이 나를 지금 운행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핵심은 뭐냐? 안에서도 지금 오십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러한 생명의 의식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렵니까? 이것도 혹성입니다. 그런데 항상 했던 말이지만 다시 한 번 반복하는데, 지구에 지금 생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을 딛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구도 지금 그 마음의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전부 나고 들고 하면서 대기권이 생기고 법계(法界)가 생긴 겁니다. 우리도 지금 생명들이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발로다가 여기 딛고 다닐 수도 없죠, 뱅글뱅글 돌아서.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나에게서, 원자에게서 입자가 그렇게 많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불성 자체, 자기 자생(自生)이 자승(自昇)이 된다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말하자면 자생이라면 자기를 자기가 발견해서 자기가 새로 태어난 겁니다, 마음이. 그러니 태어나 가지고 자승을 한다는 것은 승화를 시키는 거죠. 일으킨다는 겁니다. 일으키는 게 만약에 불이라면 이 몸뚱이는 촛대이고 심지는 마음내는 거다. 마음 이 자체, 즉 불이라는 건 본래 밝았으니까 불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심성(心性)이 무심성(無心性)…, 이 깊은 속에는 연등이 항상 밝아서….

나는 여러분처럼 책을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책은 못 읽었지만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전부 팔만대장경이에요.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허허허. 그러니 아니, 굳이 그 한문으로 된 거를 읽어서 요게 언짢으니 요게 좋으니 하고 까발리면 무슨 소용 있느냐 이겁니다. 행이 문제지. 내가 배고플 때 밥 먹을 수 있어야 배고픈 걸 면하지 않아요? 내가 똥 눌 때에 이유가 뭐가 붙습니까? 똥 눌 때는 똥을 시원하게 눠야 아주 가뿐하죠. 잠잘 때에 잠잘 수 있어야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용이하게 방편 삼았다 이거죠.

미국에 들어가서 보니까 "돈오돈수(頓悟頓修)냐 돈오점수(頓悟漸修)냐?" 이게 유행이 돼 가지고요. 여기 한국에선 난 몰랐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유행이 돼 버렸어요. 날더러 묻기를요,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오돈수가 옳습니까, 돈오점수가 옳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스님께서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바로잡아 놓기 위해서 돈오돈수를 말씀하신 걸로 됐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다른 말 안 했습니다. 단 한 가지, 핏물 구정물 고름물 뭐, 갖은 물이 다 그냥 고랑으로 쏜살같이 내려가는데 그 물을 핏물이다 고름물이다 가를 게 없다 이거죠. 돈오돈수다, 돈오점수다가 어디 거기에 붙는 자리냐 이거예요. 그저 똥물이든 핏물이든 젖을 뿐이죠. 그것도 방편입니다, 이름해서. 그렇게 말했죠. 다들 헤어지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 '야, 참 그건 말할 바도 못 되고 말할 건덕지도 없는데….' 이 세상에는 말이 다 필요 없

☞ 26면으로 계속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삼탑 법인 대승불교조계종



종정예하 은파 원로부원장 만송. 경월 총무원장 혜암

중앙종회의장 만송 부의장 명현 사무처장 현담

중앙종회의원 만송. 혜암. 화산. 경월. 정암. 법승. 선우. 근파. 명현. 대전. 법광. 한파. 종원. 선산. 정혜. 법공. 법인. 유초. 무애. 연지. 도일. 성각. 인각. 혜원. 혜광. 현담. 만법

총무원부원장 혜암

총무부장 도일 재무부장 묵암 규정부장 인각 교육부장 성각 포교부장 법광 사회부장 혜원

부산교구종무원장 유초 경남서부교구종무원장 만법 경남동부교구종무원장 법우 중부교구종무원장대행 도혜

◇ 입종을 환영합니다.

본 종단은 사단법인 등록 제184721-0000861호로 등록되어 있는 종단입니다. 유사 종단에 유의하십시오.

◇ 입종 구비서류

· 본종 입종 신청서(총무원 비치, 홈페이지 출력가능) 요청시 우편 발송 · 주민등록등본 1부

· 타 종단 승려증 사본 1부 · 사진 1장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 사찰 전경사진(내,외부)

◇ 문의 및 접수처 : (사)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 주소 : 부산시 동구 초량2동 423-16번지 301호 전화 051)527-7733, 5431 / 팩스 051)527-5432

부산교구종무원 051)468-6790. 010-4133-0333 경남서부종무원 055)884-1017. 010-9099-5859

경남동부종무원 055)251-7542. 010-9814-7542 중부교구종무원 031)671-0522. 019-241-0522

우리는 이론이 아니라 행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 25면에서 계속

는 겁니다. 이게 크니 이게 작으니…. 모두가. 제가 이번에도 '야,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고 듣는 그런 걸로 관념적인 행이 그대로 박혀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글쎄, 예를 들어 얘깁니다. 무조건 불 속에 들어가서 재판관을 만나서 사유를 따질 건 따지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니, 불 속이 뜨겁다고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뜨겁다는 건 물질적으로 살아서 돌아가던 사람들의 습관적이고 의식적이고 관념적인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체가 없어서 불 속에 들어가도 타 죽을 리가 없는데, 불 속에 못 들어가거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휴, 지금 정신이 이렇게 돼서 정말 죽겠습니다." 할 때 "그렇게 놓고 가세요." 그러면 "안 놔집니다." 그럽니다. "놓는 것이 어떤 건지 그걸 모릅니다." 이거죠. 그리고 또 며칠 있다 오면 또 똑같은 소릴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럽니다. 참 저 때 벗기기가, 꺼풀 벗기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관념적인 때, 무슨 죄를 지었다는 때가 아니라 살아온 습, 착, 욕심 이것이 그냥 주저리주저리 붙어 있어서 도무지 한 꺼풀 한 꺼풀 이렇게 벗길 수가 없는 거죠. 대신 좀 해 줄 수만 있다면 모조리 그냥 대신할 텐데 말입니다.

물론 병이라든가, 우환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집을 나갔다든가 하는 천차만별로 돼 있는 거를 "스님! 저기…." 하면 심부름꾼은 돼 줄 수 있을지언정, 마음을 깨닫게 해 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건 스스로 본인 자신들이 해야지…, 그게 뭐 어렵습니까? 세상에 고깃덩어리를 믿으랍니까, 이름을 믿으랍니까, 형상을 믿으랍니까, 허공을 믿으랍니까? 자기 자신을 끌고 다니는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데 왜 못 믿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답답한 것도 자기 자신한테 놔야 그게 입력이 돼서 앞서 입력됐던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소리를 자꾸 왜 하느냐 하면 나도 골치 아프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마는, 천성인가 봅니다. 허허허…. 이거를 재서 그냥 어떡하면 알게 할까 하는 그런 그 욕심에…. 내가 이러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에요. 그래서 항상 '몸은 깎아질지언정 내 마음이야 어찌 깎아질 수가 있겠느냐.' 하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몸이야 오늘 살다가, 오늘 길을 가다가 엎드러지든 제껴지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핵심적인 귀중한 사실은 꼭 거기에서만이 전체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앞으로 십 년을 내다볼 때, 아주 간단히 십 년만이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그게 만 년도 되고 그러니까. 십 년을 내다볼 때에 핵심적인 이 도리로 만약에 앉아서…, 지금도 앉은 자리에서 전 세계를 통해 모든 것이 전파가 되고, 이 법계로 전체 통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 통신망이 없으면 안 돼요. 첫째 통신망, 둘째 전파를 해서 알리는 거, 세 번째는 하는 겁니다, 그냥. 뭐 그건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여기 철철 넘는다면 '물이 철철 넘어서는 안 된다.' 이걸로써 끝나는 거지, 거기 이유가 붙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법은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법이 부처님 법이니까. 여러분이 없고서 부처님이 어딨으며 법이 어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이끌어 가는 것에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을 겁니다, 아마. '저 사람 무슨 씨나락 까 먹는 소리 하고 있다.' 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철철 넘으면 안 돼." 하면 그냥 법이지, 어떻게 이유가 붙겠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부패되고 하는 그 모두가 마음에서 나오는 그 염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잔잔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고, 전 세계를 파악해서 올라가는 거는 좀 내리고, 또 내려가는 건 좀 올리고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세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주장자가 바로 여러분의 핵심에 있다 이 소립니다.

항상 말하지만, 우리 역사도 몰라서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또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국이 급속도로 발전이 됐다고 하는 동시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수만 가지 부패적인 문제들이 그냥 왈싹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완전히 안정되게, 기계를 조립을 해도 완전히 잘 조립을 해서 틀림없게 만들어 놨어야 기계를 돌려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 아, 기계를 불완전하게 조립해서 그냥 갖다 틀어 놓으니까 부속품이 이리로 하나 빠져서 달아나고, 저리로 하나 빠져서 달아나고 이러는 격이나 똑같은 게 우리 경제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경제 발전만이 아니라 문화 문명의 발전도 있겠지만 손실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손실이 됨으로써 자기가 또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손실이라고만 볼 수 없죠. 그렇게 돼야만이 개선해 나가고 다시 생각해서 다시 갖다가 굳건히 나사를 박을 수가 있으니까요.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가 지금 좋은 여건에 처해 있고 발전은 됐지만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발전은 아니다라는 평판이 돌고 있죠. 하지만 지금 여기 선원에서 배워 가지고 나가는 분들이 세계를 좀더 밝게 보시고 밝게 듣고서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미리 '아, 내가 이런다고 될까?'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죠.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도 완성 못하거니와 세계를 가고 옴이 없이 무심(無心) 축지법으로 해서, 전파를 통해서 통신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의 머리가 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 **세계적으로 지금 부패되고 하는 그 모두가 마음에서 나오는 염파입니다.**
> **그러니까 이거를 잔잔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고**
> **전 세계를 파악해서 올라가는 거는 좀 내리고, 또 내려가는 거는 좀 올리고**
>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세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주장자가**
> **바로 여러분의 핵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이론이나 따지고 이게 그르다 옳다 이러고 앉아 있을 시기가 아닙니다. 이 모자라는 내가 볼 때도 그렇게 느낌이 드는데, 어쩌면 그렇게 모두 잘 배우신 분들이…. 여러분이 배우신 거를 나에게 조금만 줘도 내가 응용해서 잘 쓰겠는데요. 배운 지식이나 학식이나 이런 모두는 내가 핵심을 터뜨려 놓고서야 그걸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버릴 거는 버리고 쓸 거는 쓰고 이렇게 추려서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란 그렇게 위대한 존재며 광대무변한 법을 한 주먹에 쥐고 나갈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얘기죠.

나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밖에 나갈 때 꽃이 피어 있으면 "얘, 네가 애당초에 꽃으로 나온 것은 바로 마음이 유하고 또 부드럽고, 남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냐? 그래서 너는 이렇게 꽃으로다가 환생이 돼서 나왔잖아?" 하고 말이죠. 물론입니다. 여자는 여자대로 여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여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 행을 해야 하고, 남자는 남자로 나왔기 때문에 남자 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일체 만물이 다 그렇거늘…, 어떠한 것이라도 다 내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물질이니까 모든 물질이 나 아님이 없죠. 그래서 일체 만물의 색(色)이 공(空)이요, 공이 즉 색이니라.

그런데 나 혼자만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니 어떡합니까? 여러분한테 핵심적인 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유를 붙이지 마십시오! 무조건이지, 내가 모른다고 해서 이리 왈 저리 왈 마음을 자기가 괜히 흔들리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괜히 자기 마음으로, 지금 아는 지식으로, 듣는 지식으로, 보는 지식으로 괜히 흔들리고 방황해.

신도3(남):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방황이 되는 것이죠. 하하하.

큰스님: 방황하니까 방황이 되지.

신도3(남): 방황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큰스님: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야. "야, 죄가 있다면 무슨 죄가 있겠나? 죄 붙을 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르는 게 죄로구나." 이랬다고요. 아, 모르니까 방황하지. 그러니까 모르지 않게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광대무변한 법을 왜 썩히느냐 이거야,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태어나기 이전에는 아주 착하고, 부처란 말이야, 다. 괜히 이 세상에 나와 가지고는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는 그냥 습이 배었어, 그냥. 그 사이에 그냥. 허허허…. 여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물이 들었죠, 어린애 적부터. 그러니 그걸 떨쳐 버리기가 어렵지마는 그거를 '어느 놈이 하는 거냐.' 이 소립니다. 그 모두를 어느 놈이 하는 거냐?

질문자1(남): 그런데 '놓고 가라' 이런 말씀하셔서 놓고 갔다고 하는데 놓아진 것이 아닌 그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큰스님: 이거 보세요. 놔진 것이 아니든 놔진 것이든 그냥 놓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우리가 되풀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냥 지금 놓고 가는 건데…. 아까도 과거예요, 우린. 정락 스님이 아까 설법하신 것도 벌써 과거로 지나간 거예요. 아니, 내가 들어와서 처음에 말한 것도 벌써 과거로 흘러간 거죠. 그렇게 빠르게 흘러갑니다. 벌써 오백 년 전으로 흘러갔대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그 핵심으로서의 내가 작용을 해서 그대로 중용을 지킬 수 있느냐?

그거 어렵지 않아요. 일체가 자기가 하는 거고, 답답하든 뭐든 무슨 생각이든 모든 게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 '네가 하는 거지, 영원한 친구야. 네가 하는 거지, 내 몸뚱이가 하는 게 아니잖아? 몸뚱이는 널 따라다니면서 이날까지 시봉을 하고 있는데 아, 시봉을 잘해야 누(累)가 되지 않도록 심부름 할 수 있잖아, 이 친구야.' 이렇게 가깝게, 아주 가깝게 하라고요. 그게 이름이 부처가 아니니까. 만약에 이름이 부처라면 부처는 없어요. 이름이 부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사십구 년 설했다 하시지만 '사십' 이라면요, 이 세상이 십(十)으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그래 '사십' 했단 말이에요. 또 '구 년' 했단 말이에요. '년' 자는 언제나 붙어요, 꼬리에. 그래 구 년 했는데 과거 삼(過去三), 현재 삼(現在三), 미래 삼(未來三), 구(九)란 말이야. 구가 이게 우리 수효로다가 세는 구 년이 아니에요. 구경지(究竟地)를 말하죠. 그러니 없는 숫자를 말한 거지, 있는 숫자를 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사십구 년이라고 한다고 모두 숫자로 사십구 년, 사십구 년 이런단 말입니다. 사십구 년이 삼일이 될 수도 있고, 삼 초가 될 수도 있고, 일 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지금까지도, 하시는 게 없으면서 지금까지도 설하고 나가시지 않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십시오. 저렇게 말없이 설하고 돌아가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모두 부처 아닌 게 없어요. 꽃은 꽃대로 가지각색으로 남을 위로해 주고, 또 극복하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마음이 화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 줘요. 나무들은 또 시원하게 응달을 지어 주기도 하고, 보는 데 눈을 즐겁게 해 주기도 하고, 또 추운 데 그냥 뜨듯하게 해 주기도 하고요. 또 나무는 우리가 밑을 닦고 뭐, 매사에 쓰는 종이를 전부 만들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게 보시를 하는 겁니까? 자기 몸뚱이를 다 그냥 보시하는 거예요, 다 그냥. 일체 만물이 다 그렇게 보시를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보시를 하고 가는 겁니까? 그래서 첫째 육바라밀의 무주상 보시, 핵심으로서의 무주상 보시를 해라 이랬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91년 1월 6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도심 속 천년 고찰 '봉은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이 땅에 불교가
더욱 찬란히 꽃피울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奉恩寺

주 지 원 학

총무국장	종 민	기획국장	정 문
교무국장	본 오	선 감	진 법
포교·사회국장	혜 찬	교육국장	일 진
원주국장	성 륜	노전국장	상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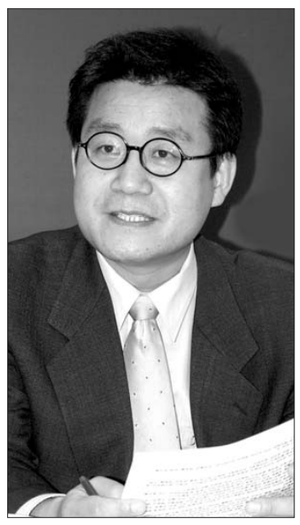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 奉恩寺 |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73번지) / www.bongeunsa.org
TEL 02)3218-4800 / FAX 02)544-2141

2014 신년사
갑오개혁과 불교개혁

변화하는 불교를 위한 10가지 제언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푸른 말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갑오년'이다. 신년 벽두에 새삼 '갑오년'을 떠올리는 것은 이 해가 '개혁'과 '혁신'이라는 상징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갑자 전인 1894년 갑오년은 외세와 열강의 침탈로 인해 바람 앞의 등불 같았던 조선의 위급을 극복하고자 개혁과 혁신의 기치를 올린 해이다. 그로부터 두 갑자를 뒤인 갑오년은 1994년의 조계종 불교개혁회의 출범 20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당시 조계종 서의현 총무원장의 3선 연임 반대로 촉발된 조계종 개혁회의는 이후 불교혁신의 시금석이 되었다. 종헌을 개정하고 종조를 도의, 중천조를 지눌, 중흥조를 태고선사로 봉합하였던 1994년의 미진했던 개혁은 다시 1997년과 1998년 두 해에 걸쳐 거듭 혁신을 꾀하면서 일정한 제도개혁과 체제혁신을 이룩하였다.

시대를 변화시킨 갑오경장

1894년 7월부터 1895년 2월까지 이루어진 갑오개혁 즉 갑오경장은 청일전쟁과 청·러·일 삼국의 간섭, 1895년 10월의 명성왕후의 시해로 이어졌다. 갑오경장의 가장 큰 특징은 개항 이래 쌓여온 각종 모순과 백성들의 개혁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자주적 개혁 추구에 있다. 갑오개혁은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일본과 러시아가 각축하는 사이에 김홍집, 어윤중, 유길준 등을 중심으로 한 친일 내각이 3차례에 걸쳐 시행한 일본 지향의 개혁이다. 먼저 개혁의 주체들은 1차 개혁을 통해 대원군의 섭정 아래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김홍집 등의 친일내각을 탄생시켰다. 이때 연호의 사용과 개국기원 설치, 아문 설치, 과거제 폐지가 이뤄졌다. 그리고 반상 신분제도 폐지, 재정 일원화(탁리아문 관장), 은본위제, 조세금납화, 도량형 정비를 도모하였다.

2차 개혁에서는 고종이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 홍범 14조로 표현되는 독립 선고문을 바치고 반포하였다. 8아문을 7부로 조정하여 지방관 8도제를 23부의 소지역주의 체제를 정착시켜 행정권만 행사하게 함으로써 지방관의 사법권을 독립시켰다. 3차 개혁은 을미사변 이후 친일 내각이 추진한 을미개혁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갑오개혁은 정치 연호를 사용하고, 왕실과 정부의 분리를 도모했다.

도성출입 가능, 500년만의 변화

일본 일련종 승려 사노 젠레이(佐野前勵)의 건백서에 의해 조선승려들은 합법적으로 한양 도성출입을 경험했다. 조선승려의 도성출입제한의 폐지(1895)는 조선승려들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자극하였다.

그동안 승려들은 신분제의 공고한 틀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평등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도성출입 허용과 신분제의 폐지는 불교계의 오랜 숙원을 일거해 해소시켜 주었다.

반면 경허 성우(1846~1912)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나라의 주권을 빼앗아가는 전단계임을 알지 못하고 거저 천왕에 대한 만수무강 법회를 열고 환호하는 당시 승려들의 몰주체성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는 "나에게 원이 하나 있다면 다시는 내 발이 경성 땅을 밟지 않는 것"이라고 사자후를 토하였다.

경허의 사자후에도 불구하고 대한 승려들의 한양 입성은 불교계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당시 승려들은 일본불교의 눈부신 포교전략과 교리정비에 커다란 자극을 받았다. 이미 이동인과 탁정식 등에 의해 선진화된 일본불교의 동향을 접하고 있었던 승려들은 일본불교의 조선불교 진출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깊이 숙고하지 못하였다.

조선 정부는 사노 젠레이(佐野前勵)의 건백서에 의해서 승려들의 도성출입을 허용한 뒤 '동대문 밖 영미정(穎眉亭)에 소흥사(紹興寺)를 창설하고 13도 사찰을 통할' 하게 하였다. 이후 소흥사를 원흥사(元興寺)로 고치고(1902) 이 절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사사관리서(寺社管理署, 1902~1904)를 폐지되었다. 1906년 일본 정토종의 후원을 받던 불교연구회의 이보담(봉원사 주지)과 홍월초(화계사 주지)는 원흥사에다 근대적 교육기관이자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명진학교 건립을 주도하였다.

이어 대한불교계는 1908년에 원종을 창종했다. 하지만 이회광 종정이 일본 조동종을 방문한 뒤 연합체맹을 하여 원종을 일본 조동종 산하에 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명고축출(鳴鼓逐出)을 당하였다. 이어 1910년에 부산 범어사를 거점으로 하여 임제종이 창종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1910년에 한일병탄을 통해 국권을 침탈하였고, 1911년에는 사찰령을 반포하여 조선반도 내의 모든 사찰 재산권과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불교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바라본 대한불교의 지식인들은 조선(대한)불교의 개혁과 혁신의 이론을 제기하였다. 이들의 안목에서 보면 당시 대한불교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종래의 전통을 견지하면서도 개혁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불교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교단의 지도자들은 불교 교단의 혁신을 위한 담론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 "1894년 시행된 갑오경장 반상제 폐지 등 변화 시작 근대를 알리는 신호탄
>
> 한국불교도 근대물결 속 변화도모… 교단혁신 현대도 개혁 필요할 때"

갑오개혁에서 제시된 신분제의 폐지와 이후 전개된 도성출입 허용은 조선승려들의 주체성과 능동성 회복의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일본불교의 앞선 포교전략을 접하였던 불교 지식인들은 다양한 불교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지난 100여 년 전 일본불교에 자극받아 제기했던 혁신의 담론들은 지금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채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현재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그리고 개선해야할 가장 급선무는 무엇일까? 이들 질문에 대한 대답에는 대내적인 측면과 대외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다. 대내적인 측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첫째, 교단 내 비구와 비구니의 권리를 상호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종회의원의 숫자와 비율 및 소임과 역할 등에서 비구와 비구니의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출가 승려와 재가 신도가 교단 안팎에서 상호 역할을 통하여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사부대중의 교단답게 출가 승려에 상응하여 재가 신도의 교단 운영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셋째, 엄격한 계율 수지와 청정한 수행 견지를 통해 지나친 세속화를 지양해야 한다. 출가자와 재가자는 적정한 차량 운행, 검소한 주거 환경, 절도있는 문화생활 등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투명한 재정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종단의 혜택을 받는 승려는 모든 소유물에 대해 공적 소유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 소임에 대한 보시는 일정액의 월급제 형식으로 정착해야 한다.

다섯째, 교단의 대표자(총무원장, 본사주지 등) 선출에서 1승려 1투표 방식의 직접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통적인 산중 공의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선거방식의 견지가 요청된다.

이어서 대외적인 측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와 교단의 관계를 대등하게 견지해야 한다. 국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정교 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교단의 독립성이 지켜져야 한다.

둘째, 교단의 분파를 최소화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분종과 탈종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개선하여 사상적 이념적 차이에 따라 통합을 유도했으면 한다.

셋째, 교육기관과 연구소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대학교의 경영과 연구소의 운영을 통해 교육이 보다 전문화되고 연구가 좀더 체계화되어야 한다.

넷째, 교리와 의식이 과감하게 한글화되어야 한다. 기본 의식 문헌에서부터 전문 교리에 이르기까지 한글화를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의 제고와 승려들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켜야 한다. 계율 엄수와 불교의 대사회적 존재감 확장을 위해 자기 정화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산업화와 민주화 및 정보화를 거쳐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불교가 이러한 몇몇 가지 급선무를 개선해 나간다면 선진불교로서 튼실하게 자리매김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조계종 개혁회의 출범(1994) 20주년이 되는 갑오년 신년 원단에 120년 전의 갑오개혁의 의미와 20년 전의 불교개혁을 대비하여 현대 한국불교계가 나아갈 할 방향을 짚어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社說

역동의 해 갑오년, 새 역사를 쓰자

2014년은 갑오년(甲午年), 말띠 새해가 밝았다. 갑자(甲子)년에서 시작하는 60간지(干支)로는 31번째에 해당한다. 60간지의 절반이 지나고 다시 남은 절반을 디디는 첫 해라고 해서 역학계에선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말의 상징은 무엇보다 박력과 생동감이다. 예로부터 소를 탄다는 것은 세사나 권력에 민감하게 굴지 않는 것을 의미했지만 말을 탄다는 것은 권력과 권위의 아이콘으로 비쳐졌다.

청마는 특히 드높은 기상을 가진 활력이 넘치는 동물로 꼽힌다. 그래서 갑오년이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들이 많다. 갑오의 강한 에너지가 개인 활동과 국가의 명운에도 큰 변화를 줄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국사에서도 갑오년은 에너지가 분출하는 한 해였다. 120년 전인 1894년 갑오년 봄엔 갑오농민전쟁이 발발했고 여름엔 김홍집 내각이 갑오개혁을 단행했다. 신분제를 폐지하고 노비 매매를 금지했으며 공식적으로 양반과 평민을 구분하는 반상제를 폐지하는 등 조선 최대의 개혁이 바로 이 해에 있었다. 같은 해 8월에는 동아시아 전체를 전란으로 이끌었던 청일전쟁이 일어났다.

한국불교에도 올해는 좀 더 의미가 깊다. 1994년 종단 개혁이 2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이다. 94년 개혁을 통해 조계종은 현재와 같은 체재를 구축했고 지금도 그 정신은 면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도저했던 개혁정신이 퇴색했다는 지적이 많다. 범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고, 선거로 불거지는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

역동성을 상징하는 말(馬)의 해, 어느 시기보다 변화가 높았던 갑오년 초입에 향후 백년을 위한 한국불교의 변화가 이뤄지길 바래본다. 그 변화의 주체는 한국불교의 주인인 사부대중이다.

사찰 공정무역 앞장서 공생도모 하자

공정무역의 국제기구는 1989년 결성된 국제대안무역연맹(IFAT)이 시발점이었다. 이후 2008년 세계공정무역기구(WFTO)로 이름을 바꿨으며 현재 생산자조합, 수출입회사, 소매상, 지원 단체 등 70개국 약 300여 단체가 가입해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3년 아름다운 가게가 공정무역의 시작이다.

공정무역이란 제 3세계국가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아름다운 거래행위다. 무역에 '공정(fair)'이란 단어가 붙어 친환경 직거래 개념이 생겨났다.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이윤을 최소화하면서 최대 이윤을 자본가가 획득하는 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게 공정무역이다. 런던을 포함해 전세계 1300개 공정무역 도시들은 도시 차원의 공정무역 운동으로 국제적 빈곤, 불평등 극복을 위한 시민 인식 확산에 힘써왔다. 이는 종교기관들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점에서 구랍 22일 열린 조계사와 서울시,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의 공정무역사찰 협약식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번 협약으로 조계사는 앞으로 공정무역 캠페인과 더불어 공정무역 제품 사용을 포함한 윤리적 운동에 동참할 방침이다.

그 동안 한국불교계에서는 미약하나마 생산자와 소비자 간 공정한 거래로 공생을 도모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상을 따지고 보면 거의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조계사가 공정무역 대열에 합류하게 되면 불교계의 윤리적 소비를 통한 국내외 공생 운동에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미 조계사는 매년 가을 함평 국화재배농가로부터 구입한 국화로 '시월국화는 시월에 핀다더라' 축제를 열고 직거래를 해왔다.

앞으로도 조계사를 기점으로 불평등한 유통 구조에서 피해를 입는 국내의 이웃들을 우리 불교계가 외면해선 안된다. 대중곁으로 다가가서 나눔을 더 확산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공정포교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공 고

대한불교원효종

종도 여러분께 고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제2대 중앙종회 (2008통합이후)에서 종회의장 태일스님, 부의장 자은스님, 부의장 보광스님을 선출하였으며,
종회의장 태일 스님의 사회로 총무원장 선출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총무원장으로 본인(우석)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전 총무원장 향운스님의 깨끗한 승복으로 종회가 잘 진행 되었음을 종도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종단의 업무를 11월 28일 당선된 이후 제가 (우석)보고 있음을 종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서로 화합하고 합심하여, 종단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효보살의 화쟁사상에 의하여 지금까지(2008년 통합 이후) 이루어진 모든 징계에 대하여 전부 사면을 합니다.
종도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은 잊어주시고 앞으로 우리 종단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모두 다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단의 일을 가지고 사회법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종도는 우리 종단을 분열하고 와해 하고자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제명 처분을 하겠습니다.
모든 종도 여러분은 종단에 일어난 일은 종단 안에서 해결해 주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부디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종단이 되도록 모두 다 노력합시다.
새로운 총무원은 경주시 서라벌대로 322-10 에 주소를 두고 현판식을 1월 10일 10시에 종도 여러분을 모시고 조촐하게 하고자 합니다,

부디 많이 참석하시여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7(2013)년 12월 19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우석(손영채)

자성의 불을 밝히는 생활 속의 참선수행도량

우리 삶은 흐르는 물과 같아

닮아 놓을 것이 없다.

대행선사 법어



甲午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주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4구 산5-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3리 152-3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95-7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04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113-3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52-19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449번지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FAX:(1-718)939-3974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FAX:(1-323)766-1316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Tel)031-470-3100 (Fax)031-470-3116

불교 공동체운동은 '미래세대 동력'

왜 공동체를 주목하는가

현재 한국사회는 공동체 운동이 붐이다.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표방한 협동조합들이 지난해 여럿 출범을 했다. 지난해 주요 계간지들의 의제와 담론을 연결했던 말들은 '연대' '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같은 것들이다.

실제 '역사비평'은 상호부조와 연대를 열쇠말로 뽑았고, '황해문화'는 시민운동, 격월간 '녹색평론'(3~4월호)은 농어촌과 도시농업 공동체를 주요 기획으로 다뤘다.

이 같은 바탕에는 2012년 12월 통과된 협동조합법이 있었지만,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대중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부터 강조한 '마을 만들기' 사업도 인기다. 실제로 서울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소정의 성과를 보이



그림 · 강병호

협동조합법, 2012년 제정
서울시 마을 만들기 '인기'
'공동체', 트렌드로 부상 중

고 있고, 이미 다른 지방 도시들도 서울시의 지역공동체 활동을 주목하며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 시대의 새 화두 '공동체'

근현대적 공동체 운동의 태동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1787년 시작된 쉐이커공동체를 비롯해 공상적사회주의자들이 완전사회를 꿈꾸며 만든 뉴하모니공동체, 후터파공동체, 드호볼파공동체 등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60년대부터 반전운동, 반문화운동에 힘입어 새로운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다만 도피 형식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는 질서가 잡히지 않고 혼란스러운 형태여서 오래 지속된 것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3만여 개의 공동체가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가장 큰 계획공동체(Intentional Community) 인터넷사이트 'www.ic.org'에는 2011년 2월 현재 미국에만 1,827개의 공동체, 미국 이외의 나라는 795개 등 총 3,600여개의 공동체사이트가 모여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사회가 공동체 운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적지 않는 전문가들은 경쟁으로 내몰려 파편화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진단했다.

유정길 에코붓다 이사는 "자본주의의 사회적 원리라고 생각해온 '생존경쟁, 적자생존, 약육강식' 등의 정글의 법칙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생태와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그러한 법칙을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며 "자연계는 상호의존, 상호보완, 상호부조하며 협력하는 종들만이 진화에서 오래 살아 남았다는 것을 깨우치면서 자본주의 법칙을 부정하게 되고 곧 협력적 공동체들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생태와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구성되기도 한다. 실제 하이데거는 현대적 생태 위기는 인간 관계의 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위기 극복의 여부는 관계 회복 가능성에 있다"면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 회복이 그 핵심 과제이며 여기에 몸소 뛰어들어 역량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이상형 인간"이라고 규정했다.

공동체적인 가치 지닌 불교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대안 문명으로서 공동체 운동을 실행하기에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애초 공동체로 출발한 불교는 지금도 대중 생활을 통한 공동체적 삶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의 역사 안에서도 이 같은 공동체적 전통을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신라시대 이후 신앙공동체인 향도(香徒)는 불교신앙을 목적으로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결사조직이다. 이곳은 길흉경조, 재난구조 등의 역할도 하면서 이후 점차 마을공동체로 변화된 대표적인 불교공동체이다.

신라후기와 고려전기의 향도는 전국적으로 분포하였고, 불상, 종, 석탑, 사찰등을 조성하거나 법회, 보시, 매향 등 대규모적인 노동력과 경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불교신앙활동이 주된 활동이었다고 한다.

고려 시대에는 사찰의 세력이 커지면서 사찰의 일을 담당하는 승도(僧徒)들도 나타났으며, 이들은 지역의 민정기능을 수행하기도 했고, 국가가 위급할 때에는 예비군 기능을 했다고 전해진다.

불교와 사회개혁을 위한 공동체로는 결사를 들 수 있다.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개인들의 결합된 단체를 의미하는 결사는 역사 속에 불교가 권력과 유착하여 중생을 외면한 채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마다 분연히 나타나곤 했다.

최초의 결사는 중국 동진 혜원 스님의 백련결사였으며, 한국의 근현대에는 성철 스님을 중심으로 한 정혜결사가 있었다. 최근에는 조계종 종단 차원에서 '자성과쇄신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불교적 공동체의 지향점은?

현재 한국불교에서 현대적 공동체 운동은 시작 단계이다. 종단 개혁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일련의 불교운동들이 불교와 사회개혁에서 문명적 대안의 그 궤적을 넓힌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실상사와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이며, 수행을 중심으로 모여 영역을 확장한 정토회도 손에 꼽히는 성공 사례이다.

특히 공동체 운동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마을과 지역 그리고 사

불교는 공동체적 역사 산물
향도 · 결사 등 공동체 존재
본래 정신 회복이 급선무

찰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구성을 강조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사찰이 있는 만큼 사찰이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마을 주민들과 실제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것인지, 어떤 생산 방식을 가질 것인지, 마을 간 연대의 필요성 등을 함께 사찰과 마을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마을과 지역 공동체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찰은 지역 공동체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이 같은 역량을 함께 할 수 있는 활동가와 리더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인드라망 생협 이사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나 사회운동은 이미 선점 조직들이 많다. 하지만 생명 평화, 공동체 등은 대부분 출발선 상에 서 있으며, 불교가 좀 더 좋은 조건을 가진다"면서 "향후에는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운동이 대안운동의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불교가 주도적으로 공동체 운동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한국 대표 마을 공동체 성미산을 가다

사람들 스스로 가꾼 행복한 마을

성미산마을은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 인근을 이른다.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체 정신을 배우겠다며 벤치마킹하러 들르는 곳이지만, 이곳에는 따로 마을이 없다. 행정구역상 경계도 불분명할 뿐더러 언뜻 보면 다른 동네와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마을을 모른다고 하는 주변 사람도 심심찮게 만나게 된다. 주민수도 구역도 불분명한 곳. 하지만 이곳에서 마을 주민들은 기업도 세우고 학교도 세웠다.

성미산마을은 공동체 운동의 '조상' 격이다. 20여 명의 주민들이 공동육아를 해보자고 모여 1994년 문을 열게 된 공동육아협동조합 우리어린이집이 현재 많은 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의 시초였다. 그 후 날으는어린이집, 성미산어린이집 등이 잇달아 문을 열면서 성미산 마을에는 현재 5개의 어린이집이 있다. 공동육아에서 시작한 운동이 자연스레 대안학교 등 교육으로 외연을 넓혔고 반찬가게, 생협, 식당, 마을극장 등으로 규모를 키우며 문화경제 생활형 공동체로 자리잡아갔다. 8가구 정도가 모여사는 소행주(소통이 있어서 행복한 주택)라는 공동주택도 생겨났다. 집값 부담을 줄이고 이웃끼리 오순도순 모여 살면 좋겠다는 생각 하에 구상된 것이다. 설계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단계에 거주자들의 의사가 반영됐다. 마을의 일상적 욕구와 필요에 따라 사람들이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 나간 것이다.

이러한 마을 기업의 운영은 주민들의 출자로 이루어진다. 원하는 주민들이 각자 조합원이 되는 것이다. 사랑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다수의 제안에 따라 까페 작은나무가 만들어졌고 160여 명이 이에 동참했다. 공동의 필요에 의해 네트워크화 된 느슨한 커뮤니티다 보니 수익이 목적은 아니다. 결산을 0에 맞추고 1년에 한 번씩 이사회를 개최해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전부다.

성미산마을이 20년이 되도록 와해되지 않고 이어져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느슨함에 있다. 각 단위 운영은 개별 운영위원회가 맡지만 1년마다 운영진들이 바뀌고 주민들의 대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사람과 마을이라는 주재자 역할을 하는 단위가 운영조직간 소통과 외부와의 연결을 담당할 뿐이다.

사람과 마을의 운영위원장인 김우 씨는 성미산마을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권력을 배제하고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다 보니 공의를 모은 과정 중에 크고 작은 갈등

육아 시작해 20년 간 진화
이제 주거 · 교육 · 문화로 확대
구성원 수평적 관계가 '해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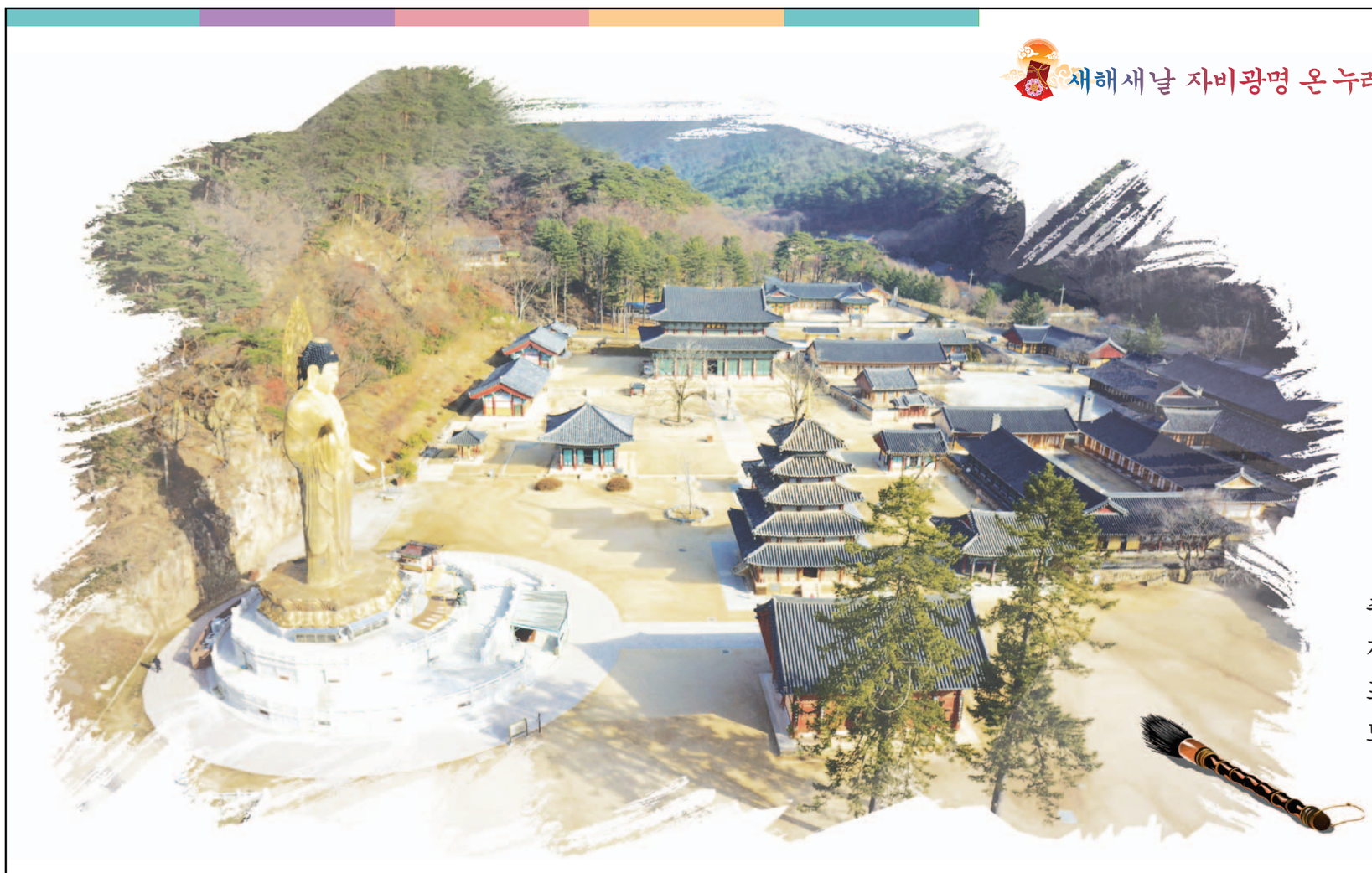
이 일어나지만 구성원들은 이를 필연적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초중고 12년제로 운영되는 성미산학교는 이러한 능동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교육과정에 적극 포함시킨다.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사람'을 교육이념으로 삼는 학교에서 아이들은 협동을 몸소 익힌다.

스스로 진화해 온 성미산마을은 공동체의 가능성을 확대하며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올해 만들어진 좋은날 협동조합은 학교를 졸업한 장애인들의 취업을 연계함으로써 노동력을 순환시킨다. 주민들이 만든 비누는 두레생협연합회를 통해 전국으로 판매되며 사회로 점차 발을 넓혀가고 있다. **배현진 기자**



2011년 성미산 마을 축제 모습. 한국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마을 공동체로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찾고 있다. <사진제공=김명집>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法住寺

조실 천호 월서
회주 미룡 월탄
주지 현조
관장 성천
수련원장 현진

총무국장 보광 교무국장 각주 선학승가대학원장 청원
재무국장 정덕 사회국장 원철 승가대학장 진원
포교국장 도암 연수국장 보관 보은포교원 현지
도감 지정 포교차장 무경 교구신도회장 최윤철

사부대중일동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405번지 ☎ 043)543-3615 www.beopjusa.or.kr

한국 불교 공동체 운동 어디까지 왔을까?

한국불교는 1990년대 이후 대안 문명 운동으로서 공동체 만들기 작업을 끊임없이 해왔다. 선우도량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도법 스님이 인드라망생명공동체를 출범하고 실상사에서 귀농운동을 시작했으며, 법륜 스님은 제도권 밖에서 정토회를 이끌며 청년불자들을 불교로 이끌었고, 생태?통일 운동으로 지평을 확대했다. 최근에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되면서 조계사가 이에 동참하고 나섰다. 또한 스님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복지 사업도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운영돼 눈길을 끈다.

신중일 · 정혜숙 · 배현진 기자

승가·마을의 연계를 고민·실천하는 곳

실상사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지리산 실상사는 공동체 정신을 표방하고 있는 곳이다. 논밭 한 가운데 있는 실상사가 내건 정신은 '우리 동네 사찰' 이다.

이 같은 실상사 사부대중공동체의 시작은 1999년 9월 11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출범에서 비롯됐다. 초기 이 공동체를 기초한 도법 스님은 이전에 90년 초 실상사를 근본도량으로 한 '선우도량' 이라는 불교 결사모임을 만들어 다양한 모색을 해왔다.

모색과 고민 끝에 나온 한국불교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연기적 세계관에 근거한 사부대중공동체와 지역마을공동체와 도농교류를 위한 인드라망생명공동체를 창립한 것이다.

굳이 실상사 사부대중공동체는 종단 사찰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중 소임 스님, 약수암, 서진암, 백장암 스님이 있으며, 공동체 운동을 진행하는 실상사 귀농학교, 사단법인 한생명, 산내여성농업인센터, 대안학교인 실상사 작은학교, 지리산영농조합법인등이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불교계에서 처음 시작했던 귀농운동의 경우 실상사의 농지를 이용해 매 기수 20여 명의 사람들을 졸업시키고 귀농을 유도했다. 이들 중 일부는 실상사 인근 마을들에서 안착했고, 그 수가 500명에 이른다. 아이 울음이 없던 곳에서 아이들의 소리들이 채워졌고, 자연스럽게 육아 공동체가 구성됐다. 또한 대안적 교육을 위한 '실상사 작은학교' 로 개교로 이어졌다.

실상사의 사찰불사도 마을주민들과 숙의하며 만들어나가고 하고 있고, 백제의 폐

우리 마을 사찰을 꿈꾸며 불사 귀농 선도하며 지역 부활 견인


실상사 작은 학교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하고 잇다.

사지에 귀정사라는 절을 짓고. 생명평화의 장 '쉼' 이라는 2박3일 명상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에는 광주 선덕사 前 주지 행법 스님이 사찰 운영을 의뢰해옴에 따라 이를 지역도시 교육도량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실상사와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새로운 대안 운동을 찾기 위한 보림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1994년부터 시작했던 화엄산림과 불교 최초로 시행한 실상사 귀농학교는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운동 역량이 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간의 역량을 모아 대안 대학의 개교를 준비 중이다. 불교계 최초의 대안대학인 '인드라망 대학' 은 제도권 대학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활동가를 양성하는 데 지향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교육 방향 역시 △불교 인드라망 세계관을 통한 삶의 정체성 확립 △대안적 삶의 문화와 가치 실현 등을 추구한다.

이 같이 실상사의 지역공동체는 승도를 모델로 한 대안적인 승가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불교를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생태적 마을공동체로 대표적인 곳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출가부터 입적까지… 노스님 복지 책임

선운사 승려 노후 공동체


선운사 승려 노후 마을 전경

스님들의 안정적 노후는 요원한 일일까. 무소유의 가르침에 한 치 어김없이 정직하게 수행해왔는데 나이 먹고 병들면 의탁할 곳이 없어지는 현실. 출가를 독려하다가도 병에 걸리면 모른척 외면하고 마는 불편한 사실로 인해 몇몇 병든 스님은 미안한 마음으로 속가 가족을 다시 찾기도 한다.

선운사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자 노후 복지마을 조성에 나섰다. 노스님들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이 전제되어야만 불교 발전과 수행풍토 조성이 형성될 것이라는 법만 스님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노후복지에 손을 놓고 있던 종단을 대신해 개별 사찰, 스님이 나선 것이다.

노후수행마을은 선운사에 적을 둔 스님 중 승납 30년, 세수 65세 이상의 원로스님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주거공간과 수행연금을 제공한다. 이곳에는 현재 스님 3명이 여생을 보내고 있다. 그중 병원에 입원해 있는 스님에게는 의료비지원까지 이뤄진다.

2009년 선운사 인근 아산면 석상마을에서 첫 기공식을 열때만 해도 2만㎡부지에 한옥 18채를 지을 예정이었지만 현재 순수하게 수행마을에 포함되는 한옥은 1채. 템플스테이용 한옥 2채와 마을회관의 일부가 현재 선운사가 노스님들을 위해 유용할 수 있는 공간의 전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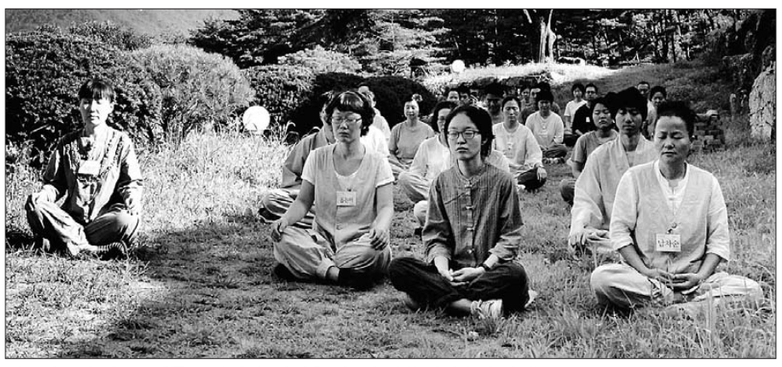
50여 명의 스님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천천히 수행마을을 조성해나갈 예정이지만 개별사찰이 재정을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스님 1명당 5천만원의 비용을 책정해놓았다"는 이성수 선운사 종책실장은 "현재 복지재단을 통해 선운사에서 생산하는 보은염 판매와 만등불사 판매수익금 등으로 재정마련을 하고는 있지만 어림없다"며 "종단차원의 지원이 어렵다면 개별 사찰이 목적기금 형식으로 분담할 수도 있다. 안정적인 승가 노후 복지에 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대표 수행공동체 '자리매김'

불국정토를 꿈꾸는 정토회

스스로 수행하며 사회운동도

전국 300개 법당 건립 추진


정토회는 수행공동체를 표방한다. 사진은 정토수련원 명상수련 장면.

1988년 수행공동체를 표방하며 설립된 정토회는 '맑은 마음, 좋은 벗, 깨끗한 땅' 을 만들기 위한 정토사회구현을 목표로 한다. 정토회의 공동체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수행공동체 생산공동체 생태공동체를 지향하며 마음수련을 담당하는 '문경수련원' △전국의 정토 법당을 관할하는 '중앙사무처'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평화재단 · JTS · 에코붓다 등의 '사회단체' 로 나뉠 수 있다. 모든 기관의 운영은 수행을 근간으로 하는 봉사자들이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정토회 시스템을 모델로 회원들이 각자의 수행공동체를 확장하는 추세에 있는 것도 정토회의 특징이라 하겠다.

문경 가은읍에 위치한 문경수련원은 현재 100여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농사와 수행프로그램 진행, 불사 등을 하고 있다. 또한 문경수련원은 쌀과 채소의 자급자족 생산을 목표로 유기농 농법으로 청정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 공동체 불사를 자체 내에서 해결하고 있으며 최근 수련생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봉화와 지리산 등에 생태공동체를 지향하는 수행공간 확장 불사를 진행중에 있다.

또한 정토회는 중앙사무처를 중심으로 82개의 전국 · 해외 법당을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100개를 목표로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군구에 정토법당 하나를 건립하는 것이 목표인 정토회는 향후 3년 내에 300개 법당 설립을 목표로 한다.

현재 중앙사무처가 있는 서초동 정토법당에는 40여 명의 실무자들이 정토회 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진행한 대의원 제도는 사찰 행정에 민주주의 제도를 적극 도입해 혁신적인 성과를 낳았다. 각 지역 법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직책인 대의원 제도를 두고 3달에 한번 전국대의원 대회를 열어 각 지역 법당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토 행자라고 불리는 정토행자는 발심-서원-결사 행자 세 단계로 나뉘어 봉사와 수행 등의 기간을 바탕으로 단계를 나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밖에도 정토회는 평화재단 JTS 에코붓다 등의 단체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열어 놓았다. 종교색을 배제하고 사회 · 환경 · 제 3세계 국가 기아와 문맹 퇴치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토회의 특징이다.

대표 도시마을공동체를 꿈꾸다

조계사 행복마을센터, 협동조합


조계사 마을공동체 사업중 하나인 '빌딩숲속 이웃사촌'

서울 조계사(주지 도문)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세에 맞춰 불교계 최초로 마을공동체사업과 협동조합을 운영해 지역주민과 상생을 도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계사가 운영하는 마인드 케어 평생교육원은 2012년 5월, '행복한 마을 만들기' 를 주제로 도시마을공동체 실무과정을 운영했다. 이 곳 수료생들과 종로 지역 법회, 대한불교청년회 회원들 가운데 마을공동체 활동에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행복마을센터(센터장 서양희)' 를 발족하고 서울시 종로구와 2012년 7월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마을공동체를 꾸려나가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그 첫 사업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수송공원 마을공동체-빌딩숲속 이웃사촌' 을 조계사 인근 수송공원에서 진행했다.

이밖에 행복마을센터는 '행복마을 협동조합' 을 설립하고 종로구 봉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재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종로구 창신동 아동의 부모 대부분이 봉제업에 종사 중이며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육아와 교육에 쏟을 시간이 적다는 지역적 약점을 착안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행복마을 협동조합은 초기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계사 승복과 버선 등을 제작해 물량을 소화하는 등 봉제의류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유아나 어린이가 그린 그림을 디자이너가 리터칭해 인형으로 구현하는 '맞춤형 인형사업' 을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 판매상품' 을 개발해 조계사 및 조계종 산하 사찰에 유통 · 판매할 예정이다.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효찰대본산 龍 珠 寺
주 지 정 호
특 보 정 성 로 직
부주지 정 성 해 각
기 획 인 본 승
사 회 보
박물관장
재 무 응 진
포 교 중 원
연 수 대 현
총 무 성 무
교 무 덕 만
호 법 성 유
신도회장 해인화
■ 부설 ■
효행교육원
템플스테이
효행박물관
용주사불교대학
www.yongjoosa.or.kr
경기도 화성시 용주로 136 (구. 송산동 188번지) ☎ 031)234-0040 / 팩스 031)234-2818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古佛叢林白羊寺
방 장 학봉지선
주 지 대련진우
총림대중일동
홈페이지 : www.baekyangsa.org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전화 061)392-7502 / 전송 061)392-2081

해외 불교 공동체 어느 곳이 있나

단절된 존재의 고리, 사회적 유대의 해체, 파편화된 삶의 일상화, 고독사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인류가 오랜 세월에 걸쳐 꿈꿨던 공동체적 정신과 삶일 것이다.

이제 종교도 물질문명과 핵가족화시대에서 파생된 삶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됐다. 함께 어우러지는 삶, '나' 라는 협소한 자아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인간적 유대와 배려가 살아 있는 공동체적 삶의 길을 제시해야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종교의 첫 출발은 공동체의 형태로 시작했다.

특히 불교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공동체를 지향해 왔다. 불교사는 절속(絕俗)과 은둔이 아니라 이상적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과정이었다. 불교 교단은 승가(僧伽, Samgha)라는 전통과 함께 출발했고, 사부대중 공동체인 승가는 철저한 공동체를 지향했다.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수행하고, 함께 공부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승가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승가는 공동체에 대한 불교적 모델이다.

건강한 수행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

특히 중국의 여산혜원 스님에 의해 결성된 백련결사 운동은 신행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수행공동체로는 프랑스의 플럼빌리지, 태국의 아소케공동체, 캄보디아의 사방승가운동, 미얀마의 마하시 명상센터 등이 있다. 공동체 운동은 분명 불교를 건강하고 발전시키는게 큰 역할을 했으며, 세속화로 치닫는 타락을 극복하게 하는데 공헌했다. 이런 점에서 세계적인 수행 공동체를 조망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글=김주일 기자

근본불교서 가르치는 '호흡관법' 주로 수행

프랑스의 플럼빌리지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플럼빌리지 국제수행센터는 1982년 베트남 선사인 틱낫한 스님에 의해 설립됐다. 깨어있는 삶을 위해 수행하는 비구, 비구니, 재가남성불자, 재가여성불자들로 구성된 4개의 수행 공동체를 포괄한다.

도르도뉴 시골지역에 폐 농가의 시설을 이용해 숙소를 만들어 시작된 것이, 지금은 200명의 비구와 비구니 그리고 재가불자들이 총 3개의 마을을 이루어 사는 규모로 성장했다. 비구와 남성불자들은 테냑에 위치한 '윗마을' 에서 거주하며, 비구니와 여성불자들은 루브-베르낙, 디유리보에 위치한 '아랫마을', '새마을' 에 거주한다. 플럼빌리지 상가 공동체는 플럼빌리지 국제 상가라고 불리기도 한다.

20개 이상의 나라에서 찾아온 다양한 국적의 수행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이다. 틱낫한 스님은 800여명 이상을 자신의 상좌로 받아들였고, 수행 본부를 프랑스에 두고, 세계 각 도처에 수행센터를 만들었다. 독일의 '생활불교 유럽회', 미국 캘리포니아 '디어파크 승원', 뉴욕 '블루클리프 승원', 미시시피 '매그놀리아 그로브 승원', 태국 팍총 '태국 플럼빌리지 수행센터', 홍콩 '생활불교 아시아회', 말레이시아 샤알람 '함께 하는 마음챙김 수행센터', 호주 빅토리아 '보퍼트 입류 승원' 및 베트남에도 있다.

프랑스 플럼빌리지가 최초 수행센터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플럼빌리지를 그대로 플럼빌리지라고 부르고 있으며, 특별히 다른 기능이 있는 센터를 제외하고는 각 나라에 있는 센터들을 모두 플럼빌리지 태국지부, 플럼빌리지 홍콩지부, 플럼빌리지 독일지부 등으로 부르고 있다.

플럼빌리지는 깨어있는 삶을 살고자 찾아오는 수행자들을 연중 환영한다. 매년 여름마다 1달 동안 운영되는 '열린 플럼빌리지 명상 수련회' 에 2012년에는 50개국의 4,000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해 1주일 혹은 그 이상 머물면서 수행하였고, 크리스마스 주간에는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영적으로 즐겁게 맞이하기 위하여 몇 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리고 틱낫한 스님은 전 세계를 두루 방문하여 사람들에게 마음챙김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플럼빌리지의 불교는 고통과 아픔을 평화와 행복으로 승화시키는 생활불교다. 일상생활에 무상, 무아, 열반의 가르침을 적용한다.

플럼빌리지 수행의 기초는 부처님 당시의 근본불교에서 가르치는 '호흡관법' 을 바탕으로 한다. 수행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플럼빌리지는 인도 4세기 스님이자 사상가였던 아상가와 바수반두가 창시한 마음과 의식에 대한 가르침인 유식, 즉 유가행파를 따르고 있다.


플럼빌리지를 이끌고 있는 틋낙한 스님.

소비는 적게…남은 것은 모두 사회 환원

태국의 아소케공동체

태국불교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이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태국불교개혁운동이 발생하게 됐고, 이는 '아소케 불교 공동체' 가 성공을 거둔 후에는 특히 더 큰 힘을 받았다.

아소케 공동체는 마을 단위로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뤘다. 과도한 물질적 소유를 부정하고, 아소케 구성원들은 최소한으로 생존에 필요한 물질만을 소유하며 '복' 을 쌓는다는 의미에서 보시를 실천한다. 1969년, 아소케 수행을 하는 승려들과 재가불자들의 헌신을 통해 이러한 삶의 철학을 현실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체계화시켰다. 재활용과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를 최소화시켰다. 1975년 초, 지도자 프라 보디락(전직 성공한 TV 연예인)이 태국 승려 위원회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상좌부불교와 대승불교를 모두 적용한 수행법을 만든 뒤에 방콕 북쪽 외곽지역에 '산티 아소케' 라는 첫 번째 공동체를 창설했다. '아소케' 란 단어는 '고통 없음' 을 뜻하는 것이고 '산티' 는 '평화' 를 뜻한다. 의 · 식 · 주 및 약의 4가지 기본적 욕구를 만족시키며 사는 것만이 오염된 마음이 야기하는 사치스러운 삶을 방지한다. 아소케 공동체는 받기보다는 주는 것을 바탕으로 한 대안적인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들이 유일하게 얻는 이익은 '복' 이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자본주의(Tun-ni-yom)를 거부하며, 복 짓기 주의(Bun-ni-yom)에 대한 열정을 키운다. 복 짓는 수행을 통해 오계가 지켜지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사는 것이 성취되며 더 발전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바로 불교적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통적 운동이다. 2004년에는 4개의 힘을 기본으로 한 '복 짓는 단체(Bunniyom Society)' 가 태국 내에서 처음으로 출범하기도 했다.


식사 준비중인 아소케공동체 사람들.

아소케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마을, 사원, 학교로 이루어져 있다. 아소케 소비 시스템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다. 그 원칙은 말과 행동, 생각에 있어서 친절하기,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행동하기, 공동으로 소비하기이다. 이들은 "적게 소비하며 많이 일하고, 사회에 환원하자." 라는 슬로건에 따라 생활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은 공동소비에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이번 생애에 지은 '선업(복)' 이 다음 생애에는 반드시 좋은 삶을 만들어줄 것이며, 이번 생 역시 지난 생에 지은 행위의 결과라고 믿는다.

더 작은 규모로 아소케를 따르는 회원들의 공동체들이 있다. 아소케 공동체에서는 사람들이 건강과 영적 수행을 위해 맨발로 걸어다니며, 공동체의 슬로건인 '적게 소비하고 많이 일하자' 에 따라 식사는 하루에 1~2끼만 한다. 그럼으로써 요리하고 먹는데 들이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수행하고 남을 돕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국경과 종파 초월하며 생태주의 원리에 충실

캄보디아공동체 사방승가 운동

사방승가(四方僧伽) 운동은 일본어로는 '시호상가(しほうさんが)', 영어로는 '카투디사 상가 (Catuddisa Sangha)' 라고 부다. 2000년에 캄보디아로부터 시작된 사방승가운동은 취지문을 통해 "사방 승가는 동서남북,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본래 하나의 커다란 승가(화합승)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본래의 근본 가르침이며,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 이뤄야 할 부처님의 대원입니다." 라며 "지금 세계의 불교도들이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손을 잡고 슬픔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불교의 진정한 화합의 모습을 세상에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라며 결성의지를 밝혔다.

기본 실천원칙은 ① Self - sufficiency (순환적이고 자족적인 삶) ② Dharma Practice (마음의 수행) ③ Autonomy (자율적인 자치와 상호 부조적인 연계) 등 3 개의 화두를 갖고 있다. 현재 이 사방승가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국경, 종파를 넘어 주로 아시아 불교 국가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고 그 풀뿌리 네트워크는 현재 일본, 대만,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버마,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티베트 (인도 국내), 티베트 (중국), 위구르 (중국), 몽골, 러시아의 칼미크 부랴트, 투바등의 3개 공화국, 호주, 프랑스, 영국, 미국의 20개국에 이미 활동중이거나, 활동을 시작중이다.


캄보디아 스님들. 이들은 하나로된 사방승가를 꿈꾼다.

그런데 이 사방승가운동은 바람직한 환경운동이면서, 동시에 바람직한 개발협력운동이자, 근본적인 비폭력 평화운동의 요소를 골고루 갖췄다. 이 운동은 그야말로 생태주의 원리에 아주 적확하게 충실하고 있는 환경운동이기도 하지만, 개발국가들의 자립적인 개발지원방식으로 아주 적절하고 또한 불교적인 가르침과 원리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개발운동이자. 모든 나라가 국가에 제한되지 않고 서로 긴밀히 네트워크되고 있는 평화운동이기도 하다. 이 운동은 각 국가간의 경쟁과 대립을 어떻게 종식 시킬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이 운동은 기본적으로 아시아각국가들의 마을단위의 자립적 지역공동체의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념처관 기본으로 순수 위빠사나 수행 선호


마하시센터에서 수행중인 수련생들.

미얀마의 마하시명상센터

미얀마 양곤에 있는 마하시 수도원은 사념처관(四念處觀) 수행을 기본으로 순수 위빠사나 수행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매일 법문과 인터뷰를 통해 수도자들의 수행력을 바로 잡는 지도방법으로 전 세계인을 수행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다.

위빠사나 수행이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수행법으로 몸과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면밀히 관찰해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 등을 끊는 수행을 말한다.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등 남방 불교권에서 전통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불교 수행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마하시 수도원은 1947년 마하시 대선사가 세운 것으로 현재 약 70여개 이상의 건물이 있으며 한번에 4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종교와 국적을 떠나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수행에 참여할 수 있다.

좋은 것만 보고, 듣고, 느끼고 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을 보면 좋고 나쁜 것을 보면 나쁜 것이 이치다.

단, 그 순간에도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행선할 때 걷는 동작을 알아차리면서 공부를 지어가되 다리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보지 말고 다리에서 일어나는 실제 감각에만 마음을 집중하도록 하라고 가르친다.

마하시 수행법은 위빠싸나 명상이다. 마하시 사야도 선원장이 지도한 수행법은 초심자에게도 쉬운 것이었다. 모든 초심자에게 쉬운 방법이기에 단기간 동안의 수행으로도 정신집중에 도달하게 된다. 마하시 사야도는 현명한 사람이었기에 초심자와 수행 경험이 전무한 사람을 위해 배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들은 마하시 수행센터로 와서 단기간에 마음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해 모든 수행자는 마하시 사야도의 수행 방법에 만족하게 된다. 이렇게 쉬우면서도 고통이 덜한 실용적 수행 방법은 마하시 수행센터의 명성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다.







새해 빛 2014 謹賀新年 福

佛紀 2558年 甲午年 謹賀新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B4

한 가지 가르침도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며 후세를 생각지 않는 사람은 모든 죄를 범하는 것이다. 거친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온다.
악(惡)도 화(禍)도 모두 오고 가며 보복(報復)의 지팡이는 네 머리 위에 내려진다.
– 법구경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광덕사
주지 운성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TEL 053)763-0068

대한불교조계종
정혜결사도량 오백나한기도도량
팔공산 거조사(암)
주지 태관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
TEL 054)335-1369 FAX 054)335-2609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천년고찰 팔공산 불국사
종회의원 주지 덕조
신도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5
TEL 053)854-0440
http://cafe.daum.net/bulgulsa.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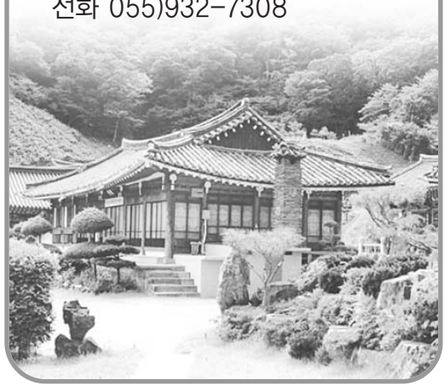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보경사
회주 법달
주지 철산
재무지범
사부대중 일동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TEL 054)262-1117 FAX 054)262-0149

대한불교조계종
서봉사
회주 경희
주지 명연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39-2
TEL 053)471-4812
FAX 053)471-4813

송림사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61-6
TEL 054)976-8116
FAX 054)976-6802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태실기도도량 선석사
주지 법인
사부대중 일동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강좌
■ 경북 성주군 월향면 인촌2리 217
TEL 054)933-9800
www.seonseoksa.org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원당암
"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
감원 원각
사부대중 일동
■ 경남 합천구 가야면 치인리 10(해인사)
전화 055)932-7308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사
주지 묘청
· 선화여자고등학교 교법당
· 은해사 불교대학개설 운영
■ 경북 영천시 교촌동 237
TEL 054)334-3526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산 통천사
주지 선지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3-1(아양교옆)
TEL 053)941-3503, 053)953-4481

대한불교천태종
포항 황해사
주지 이문덕
신도회장 김길환
국내최초
「관음33응신불」봉안
■ 경북 포항시 북구 학잠동 169-3
TEL 054)277-3611~3
FAX 054)277-3644

대한불교조계종
파계사
주지 남명허운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7번지
TEL 053)984-4550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요일 저녁반, 목 · 금요일 오전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총림 보현사
주지 지우
▶보현사 기초 불교 입문 2기 모집
불교의 기본 가르침을 기초부터 잘 배웁니다.
세존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 새로운 행복이 열릴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로 살기 좋은 공동체를 열어 갑시다.
● 개강 : 2014년 1월 14일(화요일)
매주 화요일 저녁7시 ~ 9시
● 법사 : 보현사 주지 지우스님
● 대상 : 원하는 사람 누구나(수강료 있음)
▶보현사 문화 강좌 회원 모집
● 차문화 예절 지도사 다도반 회원모집
매주 목요일 오전 09:30 / 저녁 7시
● 한지공예반 한지 등 만들기 강좌 수강생 모집
기간 : 2014년 1월 ~ 3월(매주 수, 오후 3시 ~ 5시)
(다양한 한지그림공예 등, 초파일 나만의 등, 행렬등, 실내인테리어 조명등)
● 사경반 : 매주 수요일 12시 ~ 오후 6시
● 서예반, 문인화반 모집 :
매주 화요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첼로 찬불가반 모집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저녁 7시~
● 요가교실 회원 모집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3시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2동 932-35
TEL 053)431-5400.
Email : bohyunsa5400hanmail.net
※ 대구은행 : 006-05-336518-001

해운정사
주지 청명
관음회 신도일동
청명노인복지센터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1928-13
TEL 053)621-6237

‘함께 사는 삶’ 이 공동체… 불교가 운동 주도해야

불교 공동체 운동 어떻게 할 것 인가

한국 사회는 현재 공동체 운동에 주목하고 있다.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법이 협동조합 설립에 불을 지폈고, 서울시의 마을 만들기 정책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주요 계간지들의 의제와 담론을 연결했던 말들은 ‘연대’ ‘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같은 것들이다.

적자생존 사회 이제는 ‘NO’

사회는 왜 공동체에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대중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생태적 위기를 맞은 시대에 인간 관계의 복원이 대안으로 나온 점도 주요하다는 것이다.

유정길 에코붓다 이사는 “그동안 자본주의의 사회적 원리라고 생각해온 ‘생존경쟁, 적자생존, 약육강식’ 등의 정글의 법칙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생태위기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그러한 법칙을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서 “실제 자연계는 상호의존, 상호보완, 상호부조하며 협력하는 종들만이 진화에서 오래 살아 남았다는 것을 깨우치면서 자본주의 법칙을 부정하게 되고 곧 협력적 공동체들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태환경위기가 높아지면서 오늘과 같은 경제성장, 풍요지향의 사회를 극복하고, 자발적인 가난, 주체적인 청빈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많아졌고. 이것은 개인 홀로 가능하지 않으며 곧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 훨씬 용이하다는 생각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높게 만든 또 다른 이유”라고 말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개인주의 등으로 파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공동체 운동이 대중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도시를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가 구성되고 있는 것도 부서진 공동체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공동체 정신 복원이 숙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불교가 공동체 운동을 하기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한다. 불교는 공동체의 역사이고 이 같은 가치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교단이 운영돼 왔다. 연기론적 세계관이 불교의 기본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유정길 이사는 “불교의 승가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 중에, 계획공동체의 모델로서, 승도라고 하는 마을공동체의 모델이 있다”며 “특히 승가의 청규와 대중공사, 포살과 자자, 계율과 계차법, 삼의제 등의 공동체적 질서와 의사결정 등은 공동체 운영에 대단히 훌륭한 노하우이자 지혜로 주목할 만한 전통”이라고 주장했다.



도법 스님

“의상 스님의 법성게가 불교 공동체 근간될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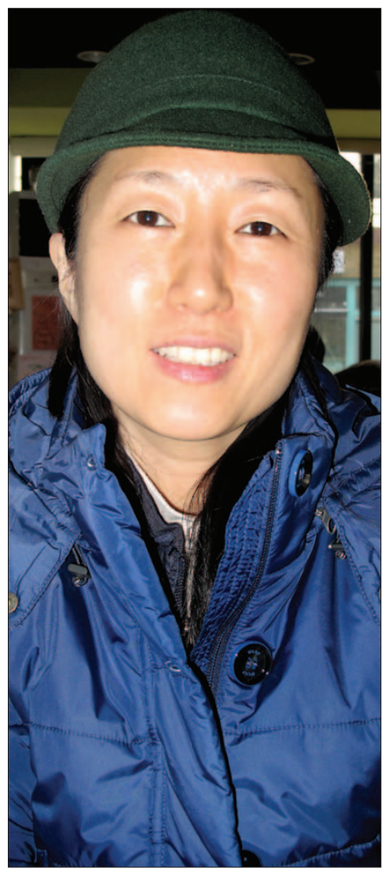
유정길 이사

“지역 본사와 사찰 풀뿌리 공동체 선도해야”



김응철 교수

“공동체 이끌어 나갈 불교 활동가 · 리더 필요”



김우 운영위원장

“불교 공동체 운동 부족함 성찰하는 게 우선”

하지만 현재 한국불교를 살펴보면 이 같은 공동체 정신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주와 소작인으로 나뉜 사찰과 마을은 단절돼 소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도법 스님(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은 “불교적 세계관과 역사는 공동체적 삶과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상은 퇴색되고 사찰은 지주가 됐다. 이제 공동체적 삶은 붕괴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부터 할 일은 불교의 정체성인 공동체 정신을 이것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단의 결사도 공동체 운동

도법 스님은 조계종에서 추진하는 결사도 광의적 의미의 공동체 운동임을 분명히 했다.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개인들의 결합된 단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조계종이 진행하고 있는 자성과쇄신 결사도 한국불교 변화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공동체 운동이다.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평가는 매우 박하기 만하다.

도법 스님은 결사를 통해 한국불교를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극소수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결사를 통해서 미래를 열자 뜻을 가진 사람들이 적다. 뜻은 가진 사람은 실력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면서 “앞서 이어진 역사적 멍에도 너무 무겁고 이를 벗기 위한 구성원들의 의지와 노력, 실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종단의 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쇄신위원회를 좀 더 확대?발전시켜야 한다고 도법 스님은 주장했다. 3원장과 부실장, 중앙종회의원과 제도권 밖의 스님과 재가자들이 참여하는 (가칭)종단 백년대계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한달에 한번 한국불교 조계종단의 중요한 과제를 논의해야 하자는 것이다.

도법 스님은 “스스로가 의결을 하고 종책을 펴면 사부대중의 주인의식과 원력이 함께 생겨날 수 있다”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종단은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발판이 생겨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구 중심제를 공동체 운동으로

전문가들은 불교 공동체 운동의 선결과제로 구성원들의 불교적 세계관과 가치가 공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치가 공유되지 않으면 구성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수평적 구조의 의사 결정 시스템도 한 가지로 지목됐다.

도법 스님은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살려갈 수 있는 중도적인 실천론과 가치들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공동체 운영 방식은 어렵지 않다. ‘바보 셋이 모이면 문수 하나의 지혜가 나온다’ 고 했다.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고 지혜를 모아낼 수 있다면 공동체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정길 이사는 “공동체의 운영원리는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있다’ 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나의 주관적인 시각, 편견에서 비롯되며, 결국 문제해결의 주체도 나에게 있다는 생각, 밖으로 그 원인을 돌리는 시각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향후 사찰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촌에 주목할 것을 당부했으며, 역량 있는 활동가와 리더를 양성할 것도 충고했다.

김응철 교수는 “마을과 지역 공동체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찰은 지역 공동체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길 이사 역시 “앞으로 불교의 사회활동의 방향은 곧 지역공동체의 중간거점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역에서 주민들끼리, 농민들끼리 서로 돕고 협력하도록 지역공동체와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중심이 되고 촉매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법 스님이 제시한 안은 조금 더 구체적이다. 제34대 집행부가 공약으로 내건 교구 중심제를 공동체 운동의 형태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법 스님은 “금산사의 경우 금산사가 몸담고 있는 모악산 일대를 공동체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사찰 내부는 승가 공동체로 외부는 마을 공동체로 운영하고 교구 역시 공동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불교가 최종 지향점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공동체 운동은 일종의 실험이고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우 사람과 마을 운영위원장은 부족함을 성찰하면서 자신감과 오만을 내려놓고 꾸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종교는 꾸준히 사회활동을 해왔던 경력들이 신뢰를 줄 수 있는 있는 단위가 될 것”이라며 “불교가 세상을 평화롭고 조화롭게 하는 삶을 지향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사람들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법 스님은 한국불교가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배우기 위해 의상 스님의 법성게를 공부할 것을 당부했다. ‘법성원융무이상(法性圓融無二相)’ 으로 시작하는 법성게는 첫 구절부터 ‘세계 자체가 두루 두루 어울려 나뉘어 있지 않다’ 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스님은 “의상 스님의 법성게야말로 공동체 세계관과 정신을 그대로 함축하고 있다.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려면 이 게송을 공부해보라”고 강조했다.

도법 스님은 “공동체 운동의 최종 지점은 시민불교이다. 시민불교의 경전적 근거는 〈화엄경 입법계품〉”이라며 “〈화엄경〉의 53선지식은 공동체 정신으로 삶은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덕목”이라고 말했다.

신중일 · 정혜숙 · 배현진 기자

사부대중을 모십니다.

여래의 청정수행을 실천하실사부대중께서는
세계승가회와 아름다운 동행을 인연 지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승가회는
국적에 관계없이 청정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부대중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원등록자는
세계승가회 멤버쉽 정회원으로 등록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기부를 통하여 자비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방법 : 인터넷 다음 “세계승가회”에 접속하여 가입안내에 따라 등록

세 계 승 가 회 사 무 국

사단법인 대륜불교조계종

대륜불교조계종은 근본 가르침을 복원하고
불조의 혜명을 이어가기위해 삼수삼행(三修三行)으로
평등자비를 실천하는 청정승단입니다.

승가학과 강원생 모집

1. 모집학과 : 승가학과 2년 과정 00명
2. 강론과목 : 아리야삿짜수행론. 능엄경. 초전법륜경. 원각경. 잡아함경. 능단금강경.
3. 강의시간 : 매월 2째주 토, 일요일(1박 2일) *단, 법회일 중복시 다음 주로 연기됨.
4. 강의장소 : 성남 동화사 설법전(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3638번지)
5. 수강대상 : 종단 관계없이 수행자 누구나 수강 가능합니다.(수강료 무료)

● 문의는 종단홈페이지 참조 【 대륜불교조계종. http://www.arahan.org 】

사단법인 대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효원 능인



새해 복 2014 謹賀新年 福

佛紀 2558年 甲午年 謹賀新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B6



어리석은 사람은 한평생 어진 사람을 가까이 섬겨도 숟갈이 국맛을 모르듯 참다운 법을 알지 못하고, 슬기로운 사람은 잠깐동안 어진 사람을 가까이 섬겨도 혀가 국맛을 알 듯 곧 참다운 법을 안다.

– 법구경

대한불교조계종
용 문 사

주지 청안
사부대중일동

•윤장대 •불교유물전시관

■ 경북 예천군 용궁면 내지리 391
TEL 054)655-1011

한국불교태고종
능 하 사

주지 성련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마포구 공덕1동 105-95 4층
TEL 02)701-7488

대한불교조계종
대 승 사

주지 철산
사부대중일동

*한국도예.천년의 혼을 굽는 대승요.금우요(옹기.다기)

■ 경북 문경시 산북면 대승사길 283
TEL 054)552-7105

대한불교조계종
혜 인 선 원

주지 성경
사부대중일동

■ 서울 성북구 장위3동 111-1번지

대한불교조계종
화엄도량 부석사

주지 근일
사부대중일동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TEL 054)633-3464

재단법인
보 현 장 학 회

이 사 장 정여
상임이사 각우
이 사 여현, 정현, 정만
백대일심, 심금윤월
감 사 상현, 오미희
사무국장 이욱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490번길 8-22 (동삼동)
TEL 051) 400-2303 FAX 403-9810

도서출판 무량수
불교전문 기획출판
보 안 기 획

대표 주영배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북대로 60
센텀IS타워 1009호
TEL 051)248-0011, 255-5675
FAX 051)255-5675
www.무량수.com

지역사회의 든든한 디딤돌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임직원 일동

■ 경남 거제시 양정 1길 45
TEL 055)636-0303 전송 636-8992
www.gjcw.or.kr
facebook.com/geojeswc

부산연꽃모임

회장 이대원성
총무 김보광명
김무심화

회원일동

김해불교사암연합회

신년하례 및 김해불교연합신도회장
이.취임법회

회 장 성 남
상임이사 월 주
총 무 송 하
연합신도회장 이임회장 성해진
신임회장 장영환

· 일시 : 2014년 1월 17일 오후 6시
· 장소 : 김해불교사암연합회 3층법당

김 해 불 교 사 암 연 합 회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 관 사**

회 주 진 관
주 지 계 호
사부대중일동

[부설] 보현정사 포교원 , 코끼리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진관무위원,
진관지역아동센터
불광노인복지관 · 불광데이케어센터
(사)진관사국행수륙재보존회,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
구파발 어린이집

■ 서울시 은평구 진관길 73
TEL 02)359-8410 / www.jinkwansa.org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도량
신 흥 사 청소년 수련원

템플스테이사찰
신흥사 불교대학

주 지 오성일
대중일동
신도일동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신흥사길 17-34
TEL 031)357-2695, 357-3916

대한불교조계종
등 명 낙 가 사

주 지 청 우
신도일동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 1리
TEL 033)644-5337, 5475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경 국 사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성북구 보국문로 113-10(정릉동)
TEL 02)914-5447, 2828
FAX 02)914-4326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 산 반 야 회
동 산 불 교 대 학

학 장 법 산
이 사 장 이상우
동산가족일동

www.dongsanbud.net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대한불교조계종
수 안 사

회 주 세 민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68길 30
TEL 02)587-4677 / FAX 02)522-5666

대한불교조계종
염 불 사

회 주 성직 스님
사부대중일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245길 150
TEL 031)471-2300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 지 진산 종하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관악구 승방1길 109-80(남현동)
TEL 02)582-8609
www.kwaneumsa.net

(사)대한불교무량종
비 룡 정 사

주 지 박보산
신도 일동

■ 인천시 중구 선린동 57-7

대한불교일승종
약 천 사

주 지 자 운
신도 일동

■ 서울 노원구 중계4동 450번지 4층
TEL 02)3391-8523

설국에 묻힌 월정(月精)의 진경, 여기가 불국토

눈길이 아름다운 산사 - ① 진부 월정사

오대산은 예로부터 눈이 많기로 유명하다. 10월 중순이면 첫눈이 내리고, 툭하면 대설이 쏟아진다. 선재길은 거의 평지라 걷기에 부담이 없어 좋다. 선재길 출발점은 월정사 부도밭 위에서 시작된다. 매표소를 지나 200m쯤 도로를 걸으면 월정사 일주문이고, 거기서부터 다시 그 유명한 월정사 전나무숲길이 시작된다. 그 길을 따라 걷다가 전나무숲길이 끝나면 바로 월정사다.

월정사 경내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이 바로 국보 팔각구층석탑이다. 그 앞에는 석조보살좌상이 아름다운 미소를 살짝 머금고 있다. 월정사는 자장율사가 신라 선덕여왕 12년(643년)에 창건한 했는데 전나무 숲길과 함께 사찰 내 자리 잡은 팔각구층석탑(국보 제48호 · 높이 15.2m)과 석조보살좌상(보물 제139호 · 높이 1.8m)이 주요 볼거리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탑은 고려시대 최고의 석탑으로 손꼽힌다. 현재 국내 팔각석탑 중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적으로 날씬하게 위로 솟은 모양에, 윗부분 금동 장식이 기품을 더한다. 갑석(층탑 아랫돌 위에 포개어 얹는 납작한 돌)은 복련(누운 연꽃 모양)이다. 수려한 자태 앞에 서니 '후다닥' 만든 '연꽃' 이 더욱 볼품없게 느껴진다. 석조보살좌상은 모조품으로, 진품은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중국 산서성 청량산(별칭이 오대산임)으로 유학을 갔던 자장율사는 그곳 문수사에서 기도하던 중에 문수보살(文殊菩薩)을 친견하였다. 그는 지금의 오대산의 형세가 문수보살이 머무는 성지라고 생각하고, 문수보살을 친견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그는 비록 문수보살을 친견하지는 못했으나, 이 때부터 월정사는 오대천 계곡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월정사 일원에는 오대천을 따라서 맑고 아름다운 계곡이 이어진다. 호명골, 중대골, 서대골 등의 계곡물이 만나 흐르는 오대천은 동대천과 합류하면서 정선을 지나 남한강으로 굽이굽이 흘러든다.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오대산의 우통수(于筒水)는 한강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지금의 월정사는 꾸준히 중건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너무 번듯하게 복원된 모습 때문에 과거의 월정사에서 느꼈던 고즈넉함은 잘 느껴지지 않는다. 사천왕문을 지난 곳에는 1999년에 낙성된 금강루가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찰은 일주문, 사천왕문, 불이문으로 이어지는 3개의 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월정사는 불이문의 자리에 금강문을 두고 있다. 금강문에 자리한 금강역사는 강한 힘과 지혜로 불법을 지키고 사찰을 수호하고 있다.

월정사 대부분의 전각들이 최근에 중건된 것은 오랜 역사를 간직해 오던 월정사가 한국전쟁 중에 전쟁의 참화를 입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당시에 월정사는 17동 건물이 모두 불타고, 소장 문화재와 사료들도 모두 재가 되어버렸으며 석조 유물들만 남게 되었다. 이 월정산 전각들을 낱낱이 폭격기가 폭격하였던 것이 아니고, 적군이 숨을 것을 없앤다는 이유로 일부러 불질러 버린 것이다. 안타깝다.

1999년에 개관한 불교전문박물관인 월정사 성보박물관에는 국보인 상원사 중창권선문, 보물인 수타사 월인석보가 있으며, 팔각구층석탑 사리구 11점,

고려시대 최고석탑… 국보 8각 9층탑
스님들 오가던 옛 길, 선재길 조성돼
성보박물관, 5백여 점 유물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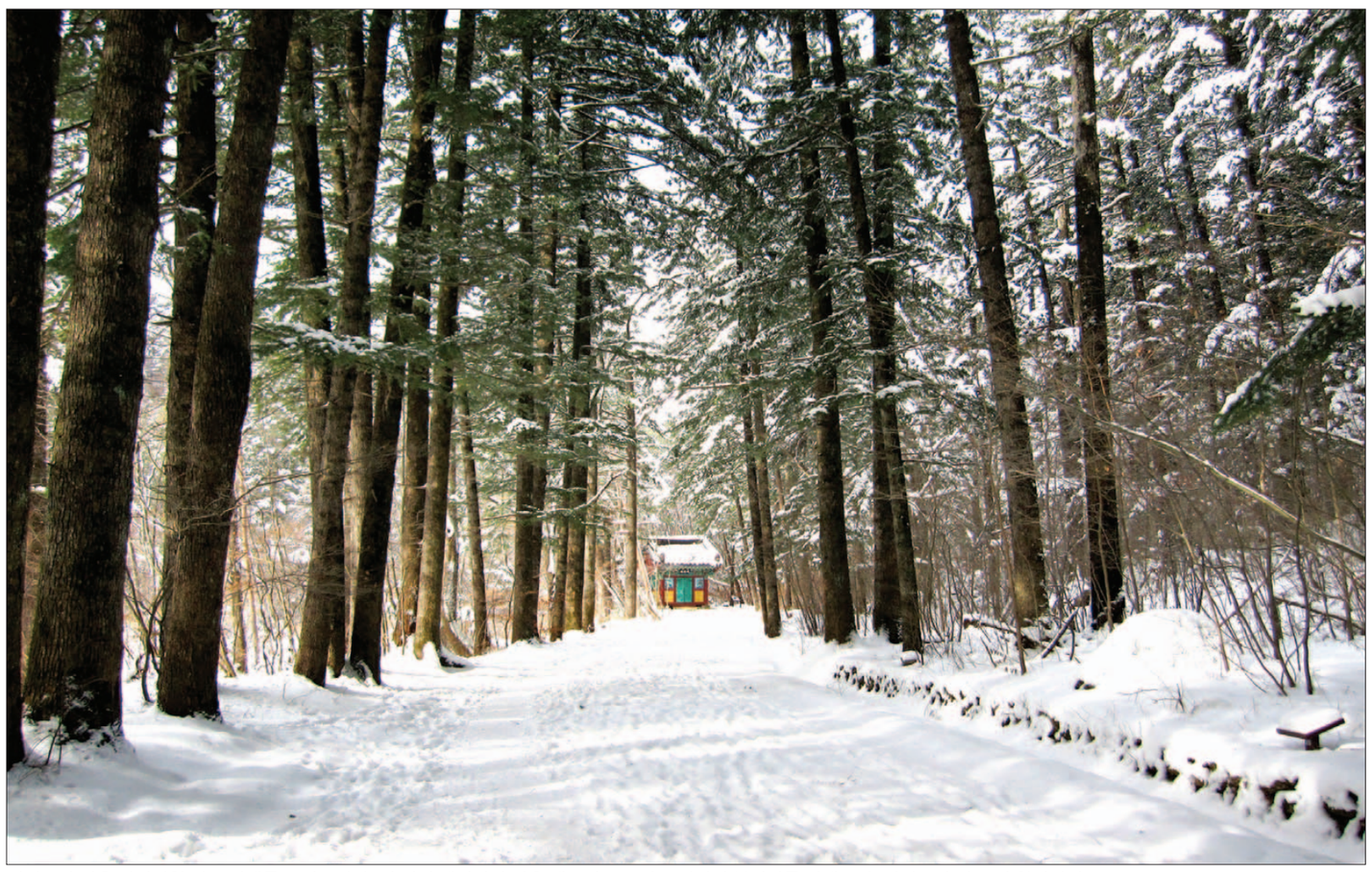
상원사 문수동자상 복장 유물 23점 등 약 500여 점의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다.

선재길은 오대천 계곡 오솔길을 따라 상원사까지 이어진 길로 예로부터 승려들이 다니던 길이었다. 오대산이 배출한 걸출한 대사인 방한암 스님(1876~1951)과 탄허 스님(1913~83)도 오갔던 구도의 길이자, 깨달음의 길이다. 선재는 '화엄경' 의 선재동자에서 이름을 따왔다.

후일담이지만 길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공모했는데, 불교계 사진기자 출신인 월정사 성보박물관 홍은미 학예사가 선재길을 써내 당첨됐다.

여기서 오대산장까지 서너 번 계곡을 건너고 섶다리를 지난다. 오대산장은 지금 공사중이다. 월정사서 일했던 박미숙 보살이 올 4월경에 사찰음식점을 오픈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오대산 곳곳을 둘러보니 눈과 함께 고요함이 쌓여 겨울 수행처로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제격이다. **진부 월정사=김주일 기자**


오대산은 예로부터 눈이 많기로 유명하다. 툭하면 대설이 쏟아진다. 사진은 눈에 쌓인 월정사 경내다.


전나무 숲길은 사시사철 다른 자태를 보여준다. 눈이 많이 내리면 숲길은 태고적 고요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전해준다. 전나무 숲길 끝이 월정사다.

주지 스님이 추천하는 이것만은 클릭

"석조보살좌상 응시하면 깊은 울림 전해줘"


주지 정념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월정사에 와서 팔각구층석탑 앞에 위치한 석조보살좌상을 꼭 놓치지 말고 볼 것을 권한다. "대웅전 앞쪽서 보면 뒷모습 밖에 안보여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돌아가서 정면을 응시하면 표정이나 자태가 토속적이고 친근해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현재 석탑앞에 위치한 석조보살좌상은 모조품이다. 5년전에 진품은 월정사 성보박물관으로 옮겼다.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조보살좌상이 외부에 있다보니까 풍우에 침식돼 보관이 용이치 않아서다.

석조보살좌상은 월정사 경내의 팔각구층탑을 향해서 정중하게 오른쪽 무릎을 꿇고 왼다리를 세워 탑에 대해 공양하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높이 1.8m의 보살상이다. 머리에는 높다란 관(冠)을 쓰고 있으며 갸름하면서도 복스러운 얼굴에는 만면에 미소가 어려 있다. 머리칼은 옆으로 길게 늘어져 어깨를 덮고 있고, 목에는 아주 뚜렷한 3줄의 주름이 표현되어 있다. 목걸이는 매우 섬세하고 곱게 조각하여 가슴에까지 늘어지게 장식하였다. 보살이 입고 있는 옷은 얇고 가벼워 몸에 밀착되어 있고 옷주름은 모두 희미하다. 오른쪽 팔꿈치는 동자상을 받침으로 고이고 있으며 동자상의 머리에 팔꿈치를 올려 놓아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념 스님은 "고려시대 화엄종 계통사원에서 만든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며, 당대 불교사상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으로 높이 평가된다."고 설명한다.


성보박물관으로 옮기기전 석탑앞에 위치한 석조보살상 모습.

먹거리&숙박

교통편

자가용=영동고속도로 진부 IC에서 빠져나와 진고개 방면 6번 국도로 4킬로 정도 직진하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좌회전한다.

대중교통=동서울종합터미널→진부행 버스가 06:32~ 20:05, 약 40분 간격으로 다니며 2시간 15분 걸린다. 진부시외버스터미널(033-335-6963)에서 월정사(상원사) 가는 버스는 06:30~19:40, 1시간 간격으로 있다.

먹거리

오대산식당(033-332-6888)의 산채정식과 산채비빔밥도 유명하다. 진부 시내 부일식당(033-335-7232)은 오직 산채정식만 내오는 맛집이다. 메미리(033-335-5999)는 메밀부침 전문점으로 메밀전병, 감자전, 감자송편 등을 판다.

묵을 곳

오대산 가는 길에 자리한 켄싱턴플로라호텔(033-330-5000)은 조망 좋은 고급 숙소다. 오대산 입구인 동산리에 큰 민박촌이 있다. 오대산콘도형산장민박(033-332-6589)이 깔끔하다.

禪本寺 (갓바위)

■ 기도안내 ■

- 약사재일법회 매월 음력 8일
- 정초보름기도 음력 1월 1일 ~ 1월 15일
- 철야정진기도 매월 그믐 - 7일, 매주 토요일(신묘장구대다라니)
- 영가삼칠기도 입재 및 회향 매월 음력 1일 ~ 21일
- 산신삼일기도 입재 및 회향 매월 음력 3일 ~ 5일
- 칠성삼일기도 입재 및 회향 매월 음력 7일 ~ 9일
- 용왕삼일기도 입재 및 회향 매월 음력 11일 ~ 13일

삼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사년이 저물고 어느덧 갑오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금번 주지 소임을 맡은 성본스님 및 선본사(갓바위) 사부대중은 두 손 모아 인사드립니다. 팔공산 갓바위 약사여래 부처님은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시는 부처님으로서, 깨달음을 구하는 이는 정법으로 이끄시고, 병든이에게는 약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또한 힘들고 지쳐 쓰러졌을 때 항상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며 '약사여래불' 명호를 부르는 순간 부처님은 우리 곁으로 다가 오십니다. 저희 사부대중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달리는 말처럼 열심히 기도 정진 할 것을 다짐 합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부처님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 나아가시고, 우리 불자님들이 가정에 약사 여래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하시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십이상원약사여래불

문 의 : 053)851-1869, 853-9877, 851-1868
계좌번호 : 대구은행 179-04-060280-001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선본사)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선본사 갓바위
사부대중 두손모음

강학과 수선, 문화와 복지공동체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구본사 禪雲寺

주 지 법 만

사부대중 일동



선운사 초기불교승가대학원
선운사 성보박물관
선운사 승려노후수행마을
사회복지법인 선운사 복지재단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고창군 노인복지회관
고창군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063)561-1422 Http://www.seonunsa.org

"괴로움, 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밝은사람들연구소 학술연찬회에서 한목소리



밝은사람들연구소는 12월 21일 '괴로움'을 주제로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괴로움, 그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며 그 근원은 어디일까?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와 서울대학원대 불교와심리연구원(원장 윤희조)이 1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제 8회 학술연찬회에서는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를 주제로 초기불교와 선불교, 기독교를 포함한 서양철학, 심리학과 진화심리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괴로움에 대한 근원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서 8명의 학자들은 괴로움은 인간이 피해야만 하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제안했다.

먼저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불교학과 교수는 초기불교의 입장에서는 사성제 중 '집'이 '갈애 · 집착 · 느낌 · 자아관념'이며 이들이 서로 연결되고 중첩되며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고'는 '무상(無常)이 일으키는 불만족성'의 의미로 풀이되며 넓은 의미에서 즐거움도 포함된다고 밝힌다. 정 교수는 초기불교에서는 심리적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궁극목표로 하며 그런 점에서 불교는 결코 염세주의가 아님을 역설한다.

은해사 기기암 선원장 월암 스님은 선불교에서 '번뇌 즉 보리'의 불이법문, 고와 낙의 불이중도를 주장했다. 월암 스님은

초기불교 '고에는 즐거움도 포함'

선불교 '중생부처요, 번뇌 즉 보리'

가톨릭 '인간 유한성으로 고통 당연'

번뇌의 공성(空性) 및 번뇌와 깨달음이 둘이 아닌 점에서 선불교와 대승불교의 입장이 같으며 번뇌의 공성을 자각함으로써 번뇌에 기반한 고통을 이겨나가는 것이 선종의 관점이라고 밝혔다.

월암 스님은 "달마선에서 조사선으로의 이행은 중생 불각의 입장에서 부처 본각의 입장으로 바뀌는 과정"이라며 "번뇌는 곧 보리이라는 관점에서 이에 기반한 고통을 이겨나가는 것이 선종"이라고 접근했다.

박승찬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는 고통이 선천적, 후천적의 두 부분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극복방안이 다르다고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인간의 유한성에 의해 수반되는 고통은 성숙한 자세로 수용하며 인간 상호협력을 통해 지양돼야 할 고통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전중환 경희대 교수는 진화심리학에서 괴로움의 원천을 4가지로 분류하고 그 괴로움을 원인을 제거하는 효과적 방안이 찾아질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 기대를 제시했다.

권석만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인간의 삶이 괴롭고 힘든 이유를 인류, 한국사회, 개인 차원으로 범위를 좁혀가며 논하고 인지행동치료에서 제시하는 괴로움 극복의 길로서 '인지적 재구성과 행동적 변화'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고통의 원인 및 해결책을 물질이나 신이 아닌 인간 마음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심리학과 불교의 유사성을 역설했다.

노덕현 기자

이애주, 전통춤의 백미 승무 완판 공연

1월 6일~7일 아르코예술극장서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예능보유자 이애주 명인이 2014년 새해를 맞아 50분 완판 승무를 선보인다. 한국전통춤회가 주최하는 '이애주춤 천명'은 1월 6일~7일 저녁 7시30분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린다. 1월 6일 완판 승무 · 본살풀이를 7일에는 승무 · 살풀이 · 태평무를 선보이는 이애주는 60년을 이어온 50분의 춤 완판 승무를 유감없이 보여줄 것이다.

특히, 이번 6일 공연에서는 무대위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50분 완판 승무를 선보인다. 한국전통춤회는 "이애주가 지난 60년 동안 진행한 완판 승무의 무대는, 승무를 왜 전통춤의 백미로 꼽는지를, 승무를 왜 인생의 모든 것이 응축된 춤이라고 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한다. 이밖에도 이애주는 바람맞이 '씨춤' '상생춤' '길닦음' 등의 춤을 보여준다.

한편 이애주 명인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예능보유자로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한국전통춤회 대표다. 1984년 '춤패 신'을 창단 '나눔 굿' · '도라지꽃' 공연을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바람맞이' 공연을 했다. 2003년 만해대상을 수상했으며 2012년 서울문화투데이 문화대상(전통부문)을 수상했다. 관람료는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02) 564-0269

정혜숙 기자

〈한국불교학〉 제69집 원고 공모

한국불교학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학회지 〈한국불교학〉 제69집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한다. 원고 모집 분야는 불교교학, 불교사학, 응용불교 3개분야로 원고마감은 12월 26일까지다. 〈한국불교학〉 제69집은 2014년 2월28일 발행될 예정이며, 한국불교학회에 연회비와 심사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 투고 자격이 주어진다. 〈한국불교학〉은 매년 2월 28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등 네 차례 발간된다.

노덕현 기자

BBS 인천지역 방송 개시

BBS 불교방송은 12월 24일 BBS FM방송국 준공신고를 완료하며 인천지역에 방송을 개시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 7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인천중계소 허락을 받은지 5개월만이다.

이제 BBS인천중계소 설립으로 88.1MHz 를 통해 인천 지역 불자들도 맑고 또렷하게 법음과 교계뉴스, 다양한 부처님의 말씀, 불가를 청취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인 지역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동구, 중구 일대와 서구, 남동구 일부를 추가로 확대하였으며 수도권 서부지역 언제서든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다.

BBS는 "인천광역시의 난청지역 대부분이 해소되었으며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하여 중생의 보살화, 사회의 정토화를 추구하며 참된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시비 소리 들릴까 물소리 온 산 에워싸네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① 최치원과 해인사 (上)




지관 스님이 1996년 해인사 농산정에 건립한 최치원의 일대기를 기록한 비석

천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불교와 유교는 동양의 문명시대를 견인해 온 양대 축이다. 석가모니 고타마시타르타(B.C 563~B.C 483 추정)의 시대와 공자(B.C 551~B.C 479 추정)의 실존시대가 엇비슷한 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두 성인의 위대한 가르침은 종교와 철학은 물론이고 세계관과 통치이념, 윤리도덕, 문화예술 등 광범위하게 동양 역사의 대간을 이루어 왔다.

우리나라에 불교와 유교가 전래된 시기도 그리 다르지 않다. 기록상 전하는 불교 전래는 372년(고구려 소수림왕 2)인데, 묘하게도 고구려는 같은 해에 국립 유학교육기관인 태학(太學)을 설립했다. 이 또한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땅에 들어 온 불교와 유교는 곧바로 이 땅의 역사를 끌고 가는 축이 되었다. 그 길항(拮抗) 속에는 대립과 화해의 잔상이 공존한다.

고려는 불교에서 통치 이념을 찾았고 조선은 유교를 절대시했다. 그 천년의 시간과 공간속에 형성된 문화유산은 우리들의 거울이다.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자화상이 보이는 거울.

불교를 이끌어 온 집단이 승려라면 유교를 주도해 온 집단은 선비들이다. 많은 선비들이 시대와 이념적 간격에 상관없이 산사를 찾았다. 그리고 산사의 풍경이나 불교의 교의, 승려와의 친분을 제재(題材)로 시를 지어 남겼다. 선비들의 시를 통해 불교와 유교가 어떻게 만났고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살펴보는 일은 흥미롭고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 하겠다.

천 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오며 산사라는 공간에 알알이 박힌 선비들의 시심을 탐구해 가는 여행. 그 첫 여정은 우리나라 한문학의 종조(宗祖)로 추앙되는 고운 최치원(孤雲 崔致遠, 857~?)의 시심이 깃들어 있는 가야산 해인사가 마땅할 것이다.

육두품의 성공과 좌절

사람들은 왜 그가 신선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가? 살아서 불행했던 사람, 죽어서라도 신선으로 만들어 주고 싶은 집단적 연민일까? 신선이 된 그를 통해 위로받고 싶은 것이 많아서 일지도 모르겠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살이 곤고(困苦)한 것은 마찬가지고, 이루고 싶은 꿈을 다 이룰 수 없는 것도 다를 바 없으니까.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태어난 최치원. 그의 죽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이 40세에 가야산 홍류동으로 가족을 이끌고 들어가 은둔하던 그는 어느 날 숲에 관(冠)과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사라졌다. 그래서 신선이 되어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숲으로 들어갔다느니, 하늘로 올라갔다느니 하는 얘기만 전해질 뿐이다.

"신이 열두 살에 집을 떠나 서쪽으로 가려고 배를 탈 때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훈계하기를 '10년 동안 공부하여 진사에 급제하지 못하면 나의 아들이라고 하지 말라. 나도 또한 아들을 두었다고 말하지 않겠다. 가거든 부지런히 공부하며 힘을 다하거라' 하였습니다. 신은 그 엄격하신 훈계를 마음에 새겨 조금도 잊지 않았습니다. 상투를 대들보에 걸어 메고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러가며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문가의 자제였다. 골족(骨族)은 아니었지만 두품층(頭品層)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인 6두품이었기에 12세의 어린 나이에 국비생으로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다. 그리고 조기유학은 성공하여 당나라의 과거에 급제했고 '격황소서(檄黃巢書)' 등으로 문명(文名)을 떨치며 벼슬까지 살았다. 하지만 외국인으로서의 한계가 그의 길을 막아섰고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귀국길을 독촉했다.

위에 보인 글은 최치원이 당나라에 있는 동안 지은 시문들을 가려 28권으로 엮은 〈계원필경(桂苑筆耕)〉 서문의 앞부분이다. 28세에 귀국한 그는 2년 뒤 왕에게 이 책을 바쳤는데, 그 서문에 자신이 당나라에서 어떻게 지냈는가를 자세히 밝히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작품과 이력을 드러내는 것은 충성심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등용해 달라는 자천(自薦)의 의미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치원에게 고국은 자신의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했다. 육두품이라는 신분적 제약과 골족들의 세력다툼이 횡행하는 중앙정치판의 말기적 징후는 해외파 신진 지식인의 성장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지금의 전북 태인과 충남 서산 등지의 군수로 몇 년을 떠돌던 최이원이 둔세(遁世)를 작정하고 선택한 곳이 가야산 홍류동 계곡이었다. 산이 크고 골이 깊은 것도 이유였겠지만 무엇보다 그곳에는 해인사가 있었다. 화엄종 사찰인 해인사에는 친척 되는 현준(賢俊)이라는 스님이 있었고 정현(定玄)이라는 스님과도 도우(道友)를 맺었다고 전해진다.

광분첩석후중만(狂噴疊石吼重巒)
인어난분지척간(人語難分咫尺間)
상공시비성도이(常恐是非聲到耳)
고교유수진롱산(故敎流水盡籠山)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 울리니,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하기 어렵구나.
속세의 시비 소리가 혹시라도 귀에 들릴세라,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에워싸게 하였다.

– '제가야산독서당' 〈동문선〉 19권

홍류동 계곡, 해인사 아래쪽 물가에 위치한 농산정(籠山亭)은 최치원이 둔세하던 곳으로 시에 나오는 독서당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최치원이 농산정 맞은편 석벽에 새긴 이 시는 둔세시의 상징이다. 흐르는 물소리로 온 산을 둘러싸 시비하는 세속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했다는 절묘한 표현. 최치원이 아니고는 누구도 할 수 없을 절창이다.

[불기2558년]
謹賀新年



부처님 제자들이 희망입니다.



강한 인문학과 따뜻한 과학
동국대학교 융복합교육으로 키워낸
부처님 제자들이 세상의 희망이 됩니다.

dongguk UNIVERSITY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우
사 부 대 중 일 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1길 56 (수서동)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 (02)3411-8103~4 www.kbiguni.org



새해 빛 2014

謹賀新年 福

佛紀 2558年 甲午年 謹賀新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B9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깎아서 바르게 만들고 물 위에서 사는 사람은 배를 조종한다. 목수는 나무를 조종하고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조종할 수가 있다.

– 법구경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대구광역시 신도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동화복지재단 부설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

회 장 류병선

장학사업 및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 운영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32-35 (보현사 별관 3층)
전화 053)253-2886, 팩스 053)252-2886(신도회)
053)253-1082 (자비의 집 봉사부장 장춘강)

■ 장학후원계좌
대구 043-10-010486
국민 028201-01-013886
우리 1005-901-797252
외환 630-007485-229
농협 301-0075-8540-01

•무료급식소
후원계좌 대구은행 096-04-000193-7
(복지재단 무료급식소)

※ 입금후 연락바랍니다.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대구교구청

교구청장 정 효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3동 584-1
TEL 053)255-1450,1411
FAX 053)252-9703
홈페이지 www.jingak.or.kr

대한불교 구화종 총무원

총본산 구화사

총무원장 석 혜성
부 원 장 석 현진
총무부장 석 지법
재무국장 석 지함

대중일동

■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응추리 산 92
TEL 054)977-9733 / FAX 054)976-6454

■ 서울 중구 신당동 840 현대아파트 상가 406호
서울 포교원 대신정사
TEL 02)3298-5026 / 팩스 02)2234-6454

대한불교법화종

무우소 수참사

가 람

주 지 영암

신도회원 · 관음회원 일동

고통의 삶에 기적은 일어난다.
한가지 소원만 말하세요.
'30년 전통 맞춤형
방편 전문도량'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137-1
(평리6동 640-5)
TEL 053)561-3129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혜 안

사부대중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052)295-2335
FAX 052)295-2336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지원장 혜 문

사부대중

■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 054)232-3163
FAX 054)241-3503

보건복지부지정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본부장 박종명

장기기증 / 헌혈지원사업
환우지원사업 / 결연사업

■ 후원계좌 안내
대구은행 188-13-073651
농 협 301-0031-1553-61
국민은행 805501-01-375024
예금주: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324 (구.신암동)
TEL 053)945-0007 / FAX 053)945-0008

■ 산하기관 :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TEL 053)944-0007

高靈 Goryeong Roofing Clay Materials



(주)고령기와가
불교 건축문화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주)고령기와는 국내 1위
한식형 그을림기와 전문업체로서
지난 60년간 국내 주요 사찰을 비롯해
궁궐 및 각종 문화재 복원사업과
그 외 주요 건물에
기와를 생산, 공급해 왔습니다

(주)고령기와
Goryeong Rooftile Co., Ltd.

www.rooftile.co.kr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400-1번지
Tel 054-954-8008(代) Fax 054-954-8308

학교법인 동곡학원

선화여자고등학교

이 사 장 운곡 돈관
교 장 장정익
교 감 이희명
행정실장 김인수
법인사무국장 강희중

「새롭게 도약하는
선화여자고등학교에
새로운 교육의 가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 경북 영천시 화룡동 산 7번지
TEL 054)333-3431
FAX 054)333-3432

합동석물(주)

석재가공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대 표 탁희열

■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TEL 054)955-8200~1
FAX 054)955-8202

대한불교조계종

월인사

주 지 포전 혜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로 85길 52
TEL 053)767-3971

대한불교법화종

천불사

주 지 법 원

■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32-1
TEL 054)933-7881

대한불교조계종

청계사

회 주 무 공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626
(월드컵 경기장 안쪽)
TEL 053)793-1551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환성사

"흥덕왕 10년(835년)에
심지 왕사가 창건"

주 지 성 담

■ 경북 경산시 하양읍 사기리 150
TEL 053) 852-6561

대한불교조계종

성주 취운향당

주 지 능 혜

■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845
TEL 054)933-6371~2 / FAX 054)933-6373

BBS부설

방송자비의 전화

회 장 고경순

임원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38-7
(서봉사 극락암 2층)
TEL 053)471-5631
FAX 053)471-5632

운불련 호출택시

회 장 성승길

■ 053)766-7777,053)323-7777
053)566-7777,053)744-8888
053)764-0763~4
FAX 053)764-0766

謹賀新年
'큰사람을 키우는 민족사학'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전법도량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중·고등학교

이사장 향 적
중교장 아 용
고교장 조상승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7(지산동 800)
TEL 053)764-0802



새해 복 2014

謹賀新年 福

佛紀 2558年 甲午年 謹賀新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B10

'내겐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고 마음 어두운 사람은 자랑을 한다. 자랑일랑 그만두게나 나 이미 내가 아니며 어디에도 자식과 재물은 없네.

– 법구경



대한불교조계종
감 천 사
■ 대구광역시 동구 진안동 151-1
TEL 053)982-0562 / FAX 053)983-6668
■ 사회복지법인 감천복지재단
후원계좌 : 대구은행 179-04-153377-001
(예금주: 감천복지재단)
■ TEL 053)986-5522~3 / FAX 053)986-5524
www.gamchun.com

대한불교조계종
관 운 사
주지 지 산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526
TEL 054)931-7777,933-0808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구룡사
주지 효 재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 2리 328
TEL 054)975-9045, H·P 010에 9045또 9045

대한불교조계종
대 승 사
주지 석 지형
신도일동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458-1
TEL 052)298-5865 · 6623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천년기도도량 덕 사
주지 연 암
신도회 일동
■ 경북 청도군 화양읍 소라리 1번지
TEL 054)3727645

대한불교선각종
영천보현산 등명사
조 실 석정암
주 지 석혜명
신도회장 이선혜
신 도 일 동
■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오동리 603-2
TEL 054)337-4572(등명사) 054)281-7712, 7719(포항지명선원)
H.P 010-5506-9448

대한불교조계종
대 비 사
주지 지 연
■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박곡리 794번지
TEL 054)372-3876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대구포교원 만공선원·만공사
주지 범 진
■ 대구시 북구 복현2동 376-20 (4층)
TEL 053)939-3690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포 교 당
주지 효 신
대구·경북지역 전법단
(경찰·교정포교)
「매월 셋째 토요일-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점심무료급식」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470-5
TEL 053)637-0900

대한불교조계종
보 리 사
보리불교대학
학장 증 악
대중일동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신묘장군대다라니독송법회
(문화강좌안내) 선체조/다도/어린이 천자문 교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TEL 053)522-7611 FAX 053)522-7612

마음청정·국토청정
대한불교조계종 보 현 암
하루헌·영남불교문화원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257
TEL 053)767-0274 FAX 053)762-8950
휴대폰 010-3534-8950

대한불교조계종
법 왕 사
주지 실 상
경율론 삼장 백고좌 대법회
「해오름 요양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산 116
TEL 053)766-3747 9088
FAX 053)767-6095

불교자원봉사단
주지 정 법
(자원 봉사단 모집중)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 1동 885-4
TEL 053)767-8866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경북불교대학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함께하는 삶"
학 장 운곡 돈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
TEL 053)792-1353, 1181 FAX 053)791-4951

대한불교조계종
삼 보 사
주지 정 혜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백운리 136
TEL 054)977-4884

대한불교조계종
석 가 사
주지 경 암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97-3
TEL 053)791-8137
FAX 053)792-0784

관음보살원만성취 지장보살업장소멸 기도도량
까치산 길 조 암
주지 보 현
■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 3리 471
TEL 054)931-5204

대한불교원효종
고 왕 사
주지 상 일
사부대중일동
■ 경북 포항시 흥해읍 옥성2리 367-3
TEL 054)262-0991

구 화 사
주지 도 광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520-2
TEL 053)324-0856

재단법인 선학원
기 원 정 사
주지 우 록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152-5
TEL 053)982-9329 / FAX 053)983-1698

우리불교 우리절
용암산 미 륵 사
주지 석청송
■ TEL 053)981-1199
FAX 053)982-0683

古佛 전법도량
비슬산 보성선원
주지 한 북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1동 1952-1
TEL 053)653-7558

대한불교정화조계종
석 송 사
주지 법 장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월호 3리 838
TEL 054)636-2201

팔공산 갓바위 앞산
용 주 암
주지 韓成鶴
사부대중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

(株)玖峰·鍍金·精工
ISO 9000:2000 인증업체/QS 2000-1998 인증업체
代表理事 金 明 錫
■ 구봉정공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 3가 620-1
TEL 053)351-0009,4856 / FAX 053)352-1717
(주)구봉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905-9
TEL 053)582-0156 / FAX 053)582-0157
구봉도금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100-65
TEL 053)581-0009,8907 FAX 053)582-4173
Hompage : www.goobong.com
E-mail : gnbong@kornet.net

관음기도도량
수 국 사
주지 지 원
■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236
TEL 053)983-1816

대한불교조계종
가야산 심 원 사
주지 응 관
■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 65-1
종무소 : 054)931-6886
팩 스 : 054)932-3838
www.simwonsa.kr

대한불교조계종
아 미 사
주지 덕 현
신도일동
■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 3리
TEL 054)932-9847

대한불교조계종
포항 옥 천 사
회 주 법 조
주 지 혜 주
신도회장 최중훈
■ 경북 포항시 북구 방장산길5(득량동)
TEL 054)272-4633

대한불교조계종
원 만 사
약사여래대불
주지 법 홍
원만사 부설 유치원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708
TEL 053)257-1914

謹賀新年

“ 등근해가 떠오르니 번뇌는 자취없고 깨침의 향기는 무한하도다 ”

금강불교조계종 이사장 활안
무궁화무한월드 회장 애므린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일관도광명문화재단 이사장 광명
대한불교조계미륵선종 총무원장 설송
생활불교범행종 총무원장 지광
대한불교금륜조계종 종정 청해
대한불교승가회 총재 무공
환국불교조계종 종정 아산
한국거창배왕석예술문화연구원 위원장 석호
마애삼존불상무량정토성지순례봉찬회 회장
우리불교우리절용암산미륵사 총무원장 청송
고려대장경진흥원유지재단 이사장 장수
대한신불교천우종 종정 일강
대한불교단체총연합회국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철
한국불교조계종 종정 정암
대한불교조계선종 이사장 지암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서울지부 지회장 청산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부산지부 지회장 구암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대구지부 지회장 지영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인천지부 지회장 석수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광주지부 지회장 만봉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대전지부 지회장 태대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울산지부 지회장 월정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강원지부 지회장 월광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경기남부지부 지회장 일오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경기북부지부 지회장 광명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경남지부 지회장 청광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경북지부 지회장 설송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전남지부 지회장 동화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제주지부 지회장 경흥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충남지부 지회장 정섭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강원지부 지회장 병대
한국불교약불조계종 종정 불광
불교조계종삼화불교 총무원장 혜인
대한불교대선종 총무원장 대봉
법사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해동
달마선원예술문화진흥원유지재단 이사장 청광
대한불교신인종 종정 보인
대한불교천우종 총무원장 지암
환단도 이사장 태대
한국불교천신종 종정 정암
백산소도삼신문화재단중앙본부 이사장 일광
천통사찰조계종 총무원장 진상
해동불교임제조계종 총무원장 동진
대한불교해탈종문화재단 종정 대광
환국불교환인종 종정 아산
대한불교마야종 종정 정암
대한불교위앙종 종정 위산
정토불교조계종 정정 일오
한국종교무교천왕종 종정 송월
한국도교본산수성궁 회장 금란
세계불교달마조계종 종정 태일
대한불교호국조계종 종정 무량수
대민불교조계종 종정 일공
국제대성황문화재단 이사장 환인
대한불교구생종 총무원장 원당
한국불교조계종종단연합회중앙본부문화재단 이사장 월정
진언불교 종정 도성
법행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광
대불교조계종 종정 청해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천
대한불교승정원문화재단 원장 현각
한국호국불교조계종 종정 혜륜
금산문화재단 이사장 길주
대한불교유마종 총무원장 무허
한국생활불교보림종 총무원장 운장

천지신명봉양회 회장 성덕
대한불교종단단체사암총연합회 회장 도광
한국무교총본산 회장 일강
한정연무교총연합회 회장 일광
무궁화어머니재단 회장 뮤린
한국고건축진흥원예술문화재단 회장 광선
한국불교조계교종 종정 법성
대한선불종 종정 명조
대원불교유심종 종정 법일
한국범종교단체연합회 종정 청산
지역복지교정협의회 종정 인산
대한불교달마선종 종정 현광
대한불교의성종 종정 의성
대한불교해탈종총본산소원사문화재단 회장 동환
대한불교태선종연합 종정 태선
한국불교동방조계종 총무원장 법성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동산
세계불교약사종 종정 인산
대한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일웅
한국불교원각종 종정 혜철
월드불교법왕청 종정 청암
대한불교가야조계종 종정 혜산
대한불교팔만종 종정 운월
대한불교연화종 종정 동원
대각불교조계종 종정 혜남
용화세계미륵종 종정 월단
대한불교불광종 종정 청원
법왕불교조계종 종정 보문
세계불교지장선원종 종정 혜봉
사회복지재단황손보살의집 원장 지영
해탈불교조계종 종정 대광
박정희,육영수추모제례진흥회재단 회장 대광
법천불교종단연합회 회장 법천
해동불교화엄종 총무원장 영관
대한불교약사법사종 총무원장 약산
한국불교원효종 종정 법민
대한불교구화종 종정 구화
세계불교승가회 회장 원당
동도해인대법국미륵진법강원 회장 해인
목멱사랑회 회장 재연
중앙불교조계종 종정 우담
한국고건축예술문화진흥원 회장 태인
대한불교대각종 종정 만청
선법륜종 총무원장 월암
대안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월
현대불교미륵종 총무원장 원공
세계불교화엄종 종정 월담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한국불교내외종 종정 청담
대한불교관음성종 총무원장 관행
미타불교조계종 종정 월산
대한불교조계종봉정선원 총무원장 법기
한국전통불교천부종 총무원장 서광
한국불교미타종 이사장 원상
대한불교금강여래종 총무원장 연화
법신불교정법종 총무원장 법통
대한불교반야종 총무원장 지법
대각교단대한불교현수종 총무원장 금화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풍
한국불교현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대한불교법인종 종정 만오
대한불교선조계종 종정 기복
세계선불교조동종 총무원장 공산
대한불교약사여래종 총무원장 법환
대한불교천왕종 총무원장 해인
임제불교조계종 종정 지암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총무원장 연화

세계불교종단연합회 회장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선종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대한불교반야수교원 총무원장 월성
천지대학일월용봉신선도문화재단 이사장 선학
세계불교대각종 종정 보각
한국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삼신신앙봉천재단 재단장 진순
참좋은인연문화재단 이사장 밀허
한국불교천불종 총무원장 혜담
통일불교조계종 종정 벽암
한국불교나한종 종정 대보
한국불교법인선원덕선사 이사장 도운
세계평화불교연맹 이사장 혜승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한국불교승가종단연합회 회장 지암
현대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동화
임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암
대한불교연합조계종 총무원장 혜일
대한불교신조계종 총무원장 금당
해동대한불광종 종정 법경
한국불교청동불상예술연구원 원장 청담
대한불교임제선원문화재단 주지 법현
대한불교조계종금강회 주지 청광
대중불교조계종문화재단 종정 향덕
세계불교국제연맹재단조계종 총무원장 향덕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무원장 원광
대한불교일월여래종 원장 해월
대한불교원조계종 총무원장 만오
세계평화재단법황청 총무원장 태산
한국전통범종연구소 소장 광식
대한불교밀인수증회 주지 덕천
한국불교미술원보응문도회 사장 규진
한국불교환인종 종정 정안
대한불교전국비구니진흥회 이사장 일경
세계불교만불종 종정 일월
세계불교세심종 총무원장 범행
대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대한불교대각조계종 총무원장 부건
한국전통불교천불종 총무원장 만봉
대한불교여래종 종정 혜담
한국법화종 종정 법천
대한불교가야법사종 종정 혜법
대한불교일월조계종 총무원장 장원
동방선도총본산 도령 이지영
용화사월대도 도주 용화
해동불교금강종 총무원장 해원
대한불교법운종 종정 지암
대한불교연지조계종 종정 황봉
한국불교종단단체협의회 회장 성철
한국도교삼청관문화재단 도장 대도
세계불교승가회한국본부 회장 보각
대한불교본조계종 총무원장 불광
천지불교태극종 종정 법성
대한불교통합조계종 총무원장 해봉
한국불교금강종 총무원장 진공
대한불교조계종국제승가총연맹 종정 혜산
대한불교용산조계종 종정 철산
한국불교화엄지장종 총무원장 영암
중생불교조계종둥지복지문화재단 종정 진표
대한대승불교조계종 종정 성범
석가불교조계종 종정 대각
대한호국무불천지종 종정 청산
유신불교조계종 종정 금강
대한불교조계종통합불교연합 이사장 영월
환국신앙천신교 종정 법안

세계불교법황청 종정 법열
대한불교염불종 종정 벽암
세계불교선종 총무원장 무상
정법대승불교조계종 종정 고림
한국불교조견종 총무원장 성문
대한불교법인통합조계종 총무원장 지현
조선불교조계종 종정 중천
한국전통민속문화강원도협회강원도교구 교구장 만오
대한용화불교칠성산신종 총무원장 천공
대성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현
대한불교보현종 총무원장 영사
세계불교법사종 종정 청하
21세기디지털불교미륵대도 종정 흑성산
대한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현송고림
대한불교승가조계종사회복지협력봉사단 총무원장 월암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단체총연합회복지재단 이사장 도광
대한불교대조계종 총무원장 대공법해
대현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청각
불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운봉
대한불교법음종 종정 청암
세계불교조계종 종정 자현
생사참사랑실천회(웰다잉) 회장 보현
한국고미술문화재진흥협회 회장 무산
문화예술불자연예인협회 단장 운봉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각성
대성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거목
실천생활불교진흥원 원장 경산
대한불교불조계종 총무원장 혜암
대한불교서각종 총무원장 법운
강원율사승가교육원 원장 월성
대한불교조계종승가회 회장 경보
포항시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법진
대한불교연화조계종 총무원장 일경
한국불교염불선종 총무원장 영운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보현종영사복지재단 원장 영사
한국전통문화총연합회충남교구 교구장 태극
한국전통문화총연합회강원도교구 교구장 신명
대한불교유가종 총무원장 법륜
대한불교원각회보리원 원장 각화
대한불교반야선종 총무원장 도우
한국대승불교불이종 총무원장 도원
한국불교선조계종 총무원장 법성
마하야나불교조계종 회장 청송
한국전통승복양공진흥회 회장 여래심
대한불교연화종용남사 주지 법성
한국불교태극조계종 총무원장 해도
해동불교일광조계종 총무원장 능견
자비실천운동본부 회장 해광
종단세계선불교 총무원장 안심
대한불교국제중도선 총무원장 동천
대승불교삼론종 총무원장 석봉
한국불교효예종 종정 법진
한국불교성지종 종정 원담
마하야나승가조계종 총무원장 청송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원봉
문무대왕대제보존진흥협회 회장 운담
중생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문
대연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연
대한불교해인삼보종 총무원장 해인
법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무허
화쟁교단분황종 종정 현불
대한불교근본조계종 총무원장 성공
홍지문화재단 원장 홍지
사회복지법인산촌마을사람들복지재단 이사장 인봉

“중생정재의 합리적 관리와 통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사단법인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법인이사회 대표이사 윤기순 / 이사 이명득, 신상길, 장석학, 송만석, 유명식, 박인해, 이종수, 이봉우, 주형원, 김병태, 차우영, 황의덕 / 감사 동진, 해원

110-85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412호

전화 : (02)2198-5022(代), 2198-5023~4 팩스 : (02)2198-5025 H.P : 010-4167-3666 / E-mail : jonggyo119@hanmail.net http://www.kntga.or.kr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18 ~ 12/2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7	비울수록 가득하네	정목	쌤앤파커스
3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청전	한겨레출판사	8	붓다 수업	법상	민족사
4	알고 보면 괜찮은	마가	불광출판사	9	참선 잘하그래이	김형효	김영사
5	천당과 지옥은 번지수가 없다	김진태	동숭동	10	괴로움 어디에서 오는가	정준영 외 4인 공저	운주사



선지식이 남긴 玉稿 켜켜이 쌓아놓으니…



효당 최범술 문집 1,2,3

편자 채원화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 민족사

각권 2만 5천원



구랍 12월 20일 열린 효당 최범술 스님 문집 발간 및 효당본가 반야로 차도 문화원 개원 30주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1회 효당 차문화상 수상자로 안선재 서강대 교수를 선정 · 시상했다.

"무념무상한 이 자리에 있어 내 보좌의 미달을 뉘우쳐 마지않는 바이다. 제불이 일찍이 말하시되 법을 위해 몸을 돌아보지 마라 하였으니, 곧 참을 위해 거짓을 짓지 말라는 말이시다.〈효당 문집 1권- 광복 후 기고문 '新年初心'〉中"

1948년 1월에 발간된 〈불교〉지에 수록된 효당 최범술 스님의 신년 기고문이다. 불제자로서 부처님을 향한 보좌가 함량 미달이었음을 자책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법을 위해서는 몸을 돌아보지 말라"했음을 강조한다. 수행자로서의 신년 초심을 다지는 각오가 남다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효당 최범술 스님은 민족의 수난기인 일제 강점기부터 광복과 해방공간, 남북분단 등 질곡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받아 안은 인물이다. 역사의 격변기 속에서 효당 최범술 스님은 출가한 승려로서 원효 교학 복원에 매진했고, 항일운동가로서 옥고도 겪었으며, 다인으로서 잊혀져가는 한국 차문화를 부흥시켰다.

1904년 경남 사천군 곤양면에서 4남 3녀의 넷째아들로 태어난 효당 최범술 스님은 1910년 고향의 사립학교인 개진학교에 입학했으나, 재학 중 일본인 교사 배척과 동맹휴학 사건으로 퇴학당한 후 곤양공립보통학교를 졸업했다. 고향의 다솔사와의 인연으로 14살의 어린 나이에 출가했다.

1922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왕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가 옥고를 치렀으며, 1931년 만해 스님이 불교계의 비밀결사인 만당(卍黨)을 조직하자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다시 옥고를 치렀다.

1933년 도쿄의 다이쇼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한 후에 조선불교청년동맹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명성여자학교를 설립했다. 1942년 김법린 등과 해인사, 다솔사 등에서 한글을 가르치다 조선어학회사건에 연루돼 또 다시 옥고를 치렀다. 광복 후 1947년 해인사 주지로 살았고, 1948년 제헌의원에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인물이었던 만큼 그의 생전 집필했던 원고들의 층위도 다양하다. 불교학자로서 학술논문부터 짧은 기고문과 불교 교학 주제 저서와 차 관련 저서까지 그 폭이 매우 넓다. 그런 그의 저서를 한데 망라한 문집이 발간됐다.

근현대 선지식 효당 스님
논문 · 단행본 저서 등 망라
茶人으로서 면모 알게 돼
명사들의 추모 문집 '눈길'

효당 최범술 스님의 사상을 선양하기 위한 단체인 효당사상연구회의 채원화 회주가 편저한 〈효당 최범술 문집〉은 총 3권으로 구성돼 있다.

1권에는 학술 논문과 광복 전후 짧은 기고문과 연재물 '청춘은 아름다워라'가 수록돼 있다. 논문으로는 해인사사간루판목록 · 원효성사 반야심경복원소 · 판비량론 복원문 · 〈십문화쟁론〉복원을 위한 수집자료 등 모아져 있다.

2권은 △한자서고(漢子書考)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국차생활사 △한국의 다도 등 효당 최범술 스님의 저서가 망라돼 있다.

3권에는 편자인 채 회주가 쓴 '현대 한국 차도의 중흥조 효당 일대기'와 △효당 추모학술논문집 △추모집: 老佛微微笑 △효당의 차와 삶 등이 수록돼 있다.

이중 의례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는 현대인들에게도 잘 생각할 수 있는 글이다. 또한 각계 인사들이 쓴 추모집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이 문집은 효당 스님의 탄신 100주년이 되는 2004년부터 10년 간 준비해 세상에 내놓은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유족인 본가가 보유하고 있는 원고를 비롯해 그 외의 자료는 온 가족이 자료 수집에 나섰다. 채 회주는 사람을 직접 만나 구술 자료를 비롯한 자필 기록물을 받았으며, 아들인 화정은 인터넷과 도서관 목록을 뒤져가며 자료를 모았다.

이 과정에서 효당 최범술 스님이 친일인사로 분류돼 7년 간 재판까지 치루는 등 적지 않는 고초도 있었다. 그만큼 문집에 대해 연구회가 가지는 애정은 깊다.

그렇다면 문집을 통해 알 수 있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불교는 무엇일까. 채 회주는 "효당 스님은 승과 속을 이원론으로 나누지 않았다"고 말한다.

채 회주는 "효당은 계행을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우려나오는 흐름으로 보았으며 그 흐름은 가름의 결이었을 따름"이라며 "일생 동안 원효학 복원연구에 매진하며 이 땅의 우리 불교를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효당은 원효를 보편성을 지닌 불교와 특수성을 지닌 우리의 낭가사상이 만난 접점에 두었다"면서 "보편성의 불교와 특수성의 낭가사상이 만난 접점은 원효이자 국학이었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존재인 것은 무엇이나 찰나적이다"

찰나멸논증

우제선 역저 | 소명출판 펴냄 | 1만5천원



인도불교 여러 학파의 교설을 통합한 인도 후기 유가행파의 논사 라뜨나끼르띠(약 1000~1050)가 남긴 논서 중 하나인 〈찰나멸논증〉이다.

〈찰나멸논증〉은 유가행파의 중심 논제와 관련된 10권의 논서 가운데 하나로 '존재인 것은 무엇이나 찰나적이다'는 명제를 논증하기 위한 것이며, 불교의 교설 가운데 후기 유가행파의 핵심 이론을 논증하기 위한 것으로, 존재성(sattva)을 논리 근거로 하여 '찰나멸'을 논증한다.

다르마끼르띠 이래로 후기유가행파의 논사들이 시도한 '존재성으로부터의 추론'에 입각한 찰나멸론 입증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이 논서는 그의 스승 즈냐나스리미뜨라의 〈찰나멸론〉을 불교논리학의 논증방식을 통해 간략하고 명쾌하게 정립한 것인데, 인과론의 입장에서 존재의 본성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담고 있어 불교학 및 인도철학 전반에 기여한 바가 크다.

〈찰나멸논증〉은 그것이 다루고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 논서의 형식은 '찰나멸'을 부정하는 브라만 논사들과 이에 맞서는 불교 논사들의 대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뜨나끼르띠가 사용한 이지작법(二支作法)의 논증식, 논리근거(hetu)를 통한 논증방법 등은 11세기의 인도 논사들이 어떻게 논쟁했는지를 보여줌과 아울러 당시의 논리학의 체계를 알려준다.

〈찰나멸논증〉은 논증하는 방식에 따라 둘로 구분된다. 긍정수반의 형식으로 찰나멸을 논증하는 '긍정수반체(肯定隨伴?)'와 부정수반의 형식으로 찰나멸을 논증하는 '부정수반체(否定隨伴?)'이다. 전자의 논증방법은 귀류법과 귀류환원법이며, 후자의 논증방법은 '모순인 것에서 논리근거를 부정하는 인식수단'이다. 이 책은 그 범위를 '긍정수반체'로 한정했다.

이 책에서는 앞서 언급한 즈냐나스리미뜨라의 〈찰나멸론〉과 라뜨나끼르띠의 관련 논서인 〈지속성비판〉, 브라만교의 논사인 바짜스빠띠미스라의 〈니야야까니까〉와 〈띠까〉, 그리고 다른 브라만교의 논사인 바사르바즈냐의 〈니야야부사나〉 등도 함께 비교하고 대조하여 새로운 정판본을 편찬했다.

이는 모든 불교연구자들에게 매우 혁신적이며 유용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바로 이 점이 역저자 우제선 교수의 작업을 단순한 번역을 넘어 정신鼎新의 수준에 다다르게 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책은 쉽게 읽히는 책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라뜨나끼르띠가 천 년 전에 펼쳤던 논증을 한 땀 한 땀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논리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지적 유희의 극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박재완 기자

아이들의 질문은 질문이 아닌 '답'

백문백답

천명일 지음 | 지혜의 나무 | 1만5천원



"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하나요?" / "신은 어디에 있나요? 신이 실제로 있나요?" / "사람은 왜 죽어야 하나요?" 아이들의 질문은 끝이 없다. 책은 한학자이자, 불교경전 연구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산성할아버지'로 잘 알려진 천명일의 저서로, 어린이와 주고받은 백문 백답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식이나 막연한 종교적 신념의 지식이 아닌, 인간 의식의 절정을 들려준다. 순진무구한 어린이들의 질문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진리의 내면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왔다.

책은 어린이들의 질문에서 출발한 책이지만 그렇다고 어린이들만을 위한 책은 아니다. 순진무구한 어린이들의 질문을 통하여 모든 이로 하여금 진리의 내면세계로 이끌어주는 책이다.

사념(邪念)으로 만들어진 지식이나 삶의 상식은 어린이들도 너무나 시답잖게 여겨서 듣지도 않는 것이 세태다. 금세기 과학으로 무장된 어린이들에게 지금 여기 산성 할아버지가 천심들의 물음에 답을 주고 있다.

책 〈백문백답〉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일반 세속의 상식에 물들지 않은 동심들이 물었기 때문이다. 곧 책 속의 질문들은 천심에서 우러나온 질문들이고, 그 답 또한 천심을 보는 혜안이 없으면 줄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 어린이와 주고받은 백문백답은 일반 상식이나 막연한 종교적 신념의 지식으로 대답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어린이들이 묻고 있는 답은 지고한 인간 의식의 절정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들의 질문은 천진난만하고 때론 어른을 당혹스럽게 한다. 그러나 그 어린이들의 질문들은 사실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질문 이였고, 또 내일의 어린이들의 질문들이기도 할 것이다. 우린 그런 질문들의 답도 모른 채 어른이 되었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세상살이에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궁금증들을 갖고 있었는지조차 잊고 살아가고 있다. 책은 그 동심이 궁금해 할 수밖에 없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다.

책은 어린이의 질문을 통한 인생의 진리를 꿰뚫는 명쾌한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남녀노소 누구나 읽어 보고 다양한 견해로 좀 더 성숙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결국 아이들의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성숙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답', 즉 질문 자체가 답인 것이다. 마음을 찾는 이에게 마음을, 신을 좇는 이에게 신을, 이야기를 듣고 싶은 이에게 이야기를, 천리를 알고자 하는 이에게 천리를, 물리(과학)를 연구하는 이에게 물리를, 윤리 도덕을 익히고자 하는 이에게 윤리 도덕을,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이에게 진리를, 그 밖의 것을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바를 알려줄 것이다.

박재완 기자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회 장 공병수
명예회장 하도명화. 류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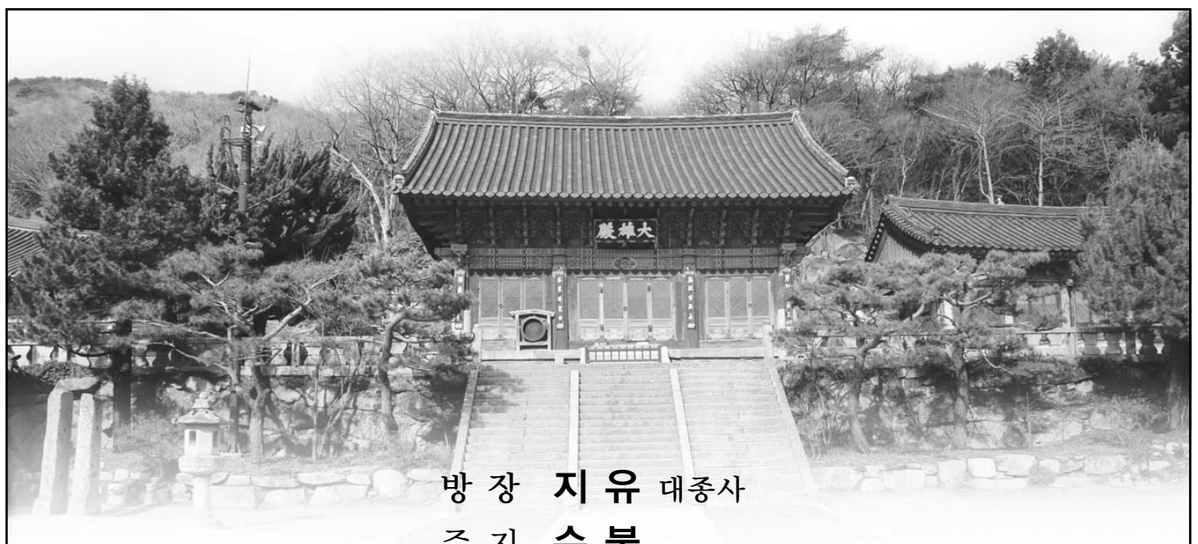
대한불교 조계종
법 계 정 사

주 지 원오스님
법 사 보광 이욱태
회 장 최문식
직전회장 배태순
부 회 장 송귀종. 박상덕
이평자. 김용원
인등회장 권선호
관음회장 최길문
지장회장 김순곤
연꽃법회장 이덕자
사무총장 최용진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
부산불교인재원
로터스불교대학

운영위원장 지안스님
학 장 공병수
총무처장 김순곤
교무처장 장태석
학생처장 최용규
대외협력처장 홍성옥
원 장 이욱태
총동문회장 김영일
1기 회장 이덕자
2기 회장 이명숙
3기 회장 유학재
4기 회장 최문식
5기 회장 김용원
6기 회장 김위련
사무총장 이호열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43(연산동) TEL 051)853-2021 / FAX 853-2036



방 장 지 유 대종사
주 지 수 불

수 좌 인각
부 주 지 범산
재무국장 무관
호법국장 강하
도 감 응진
율학승가대학원장 수진
총무국장 혜성
사회국장 보산
연수국장 오산
신도회장 이윤희
승가대학장 용학
기획국장 원걸
문화국장 성공
사서국장 법성
박물관장 경선
교무국장 승련
포교국장 지장
원 주 석산

총림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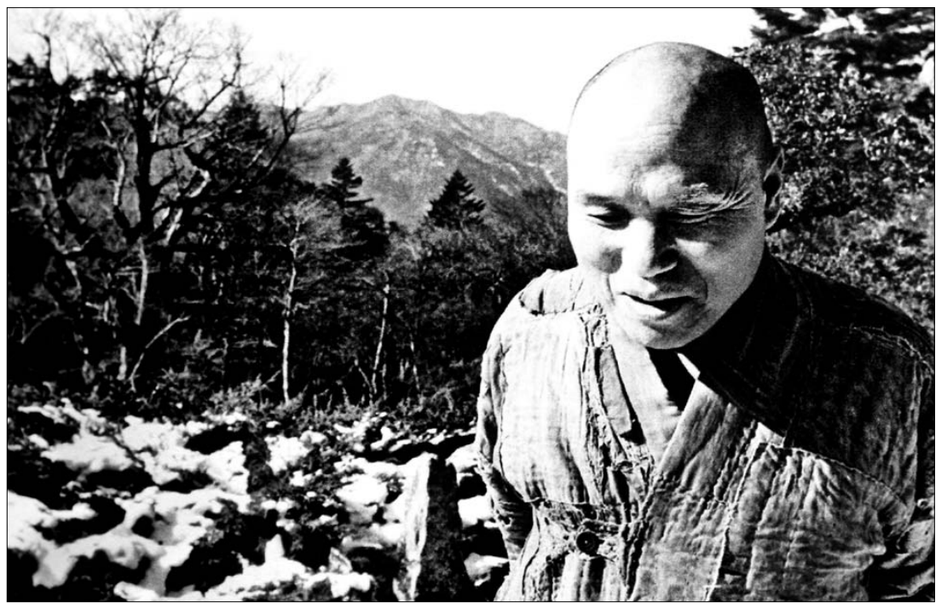
大韓佛敎 曹溪宗 第14敎區 本寺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 (청룡동 546번지) www.beomeo.kr 종무소 ☎ 051)508-3122

극단성 벗어난 '돈수' 여야…



가야산 호랑이의 체취를 맡았다
서명원 지음
서강대학교 출판부 펴냄
1만6천원



예수회 사제 서명원 교수 논문 6편 묶어
스님의 삶·사상 깊이 있게 재조명
〈선문정로〉의 326 인용문 철저 분석
백련불교문화재단 오류 부분 지적

'점수'가 아니라 '돈수'라고,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이라고. 노장은 그렇게 이르고 생사를 접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결론으로 인해 한국불교와 한국사회는 많은 생각을 해야 했다. 선종이 큰 테두리인 한국불교는 새로운 결론 앞에 조용할 수 없었고, 그 동안 산과 물을 제대로 모르고 살았던 국민들은 산과 물 앞에서 새로운 사색을 해야 했다. 그렇게 후학들에게 텍스트와 숙제를 남긴 선지식은 1980년대 조계종 종정으로서 해인사 방장 스님을 지낸 퇴옹성철〈사진〉(1912~1993) 스님이다.

책은 성철 스님을 연구한 논문 6편이다. 예수회 사제로서, 지난 2004년 '퇴옹성철 선사의 생애 및 전서'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프랑스 파리 7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서강대 종교학과 서명원 교수가 지난 20여 년 간 성철 스님을 연구하며 국내와 학술지에 발표했던 논문을 선별하여 묶은 것이다.

한국 현대불교사를 주목하게 하는 인물 중의 하나인 성철 스님은 출가한 수행자들과 불자들은 물론 종교에 대한 관심이 적은 일반인들까지도 불도(佛道)를 이루고자 하는 수행자의 삶과 사상에 관심을 가지게 했다. 또한 '산은 산, 물은 물' '돈오돈수/돈오점수' '간화선' 등 낯선 불교 용어를 사회 속으로 던져 넣었으며, 열반 후에도 여전히 그의 생애가 조명 받는 것은 한국을 대표하는 선사 중의 한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은 성철 스님께서 태어난지 100주년이 되신 해였고, 2013년은 스님이 열반하신지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성철 스님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뜻 깊은 행사가 이어졌고, 관련 도석도 다수 출간됐다. 그리고 책 〈가야산의 ~〉가 더해지게 됐다.

성철 스님을 연구할 때, 테크닉에 있어서는 종교학 방법론에서 사용하는 환원주의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을 채택한 저자는 종교학자들이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위해 '그것의 부재로써 종교가 성립되지 못하는 바로 그것'을 찾아가듯, '그것이 없을 때 성철 스님의 생애 및 전서가 성립되지 않는 바로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자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 책에 실린 6편의 글은 이러한 연구의 일부로써 각기 뚜렷한 주제를 나타내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맞물리며 더 큰 그림의 일부로 상호 작용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성철 스님을 넓고 깊은 안목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한편 불교, 나아가 종교의 목적과 역할도 새롭고 풍요로운 시각에서 사고할 수 있는 길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제1부 '돈점논쟁 그리고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만남'에서는 성철 스님의 선종에 대한 인식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본지광풍〉과 함께 걸작으로 꼽히는 〈선문정로〉를 해석학적 문제와 관련하여 탐구하고 있는 제1장은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사상이 〈선문정로〉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났는지를 면밀하게 고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성철 스님이 88권의 전통적인 경론 및 조사어록에서 발췌하여, 〈선문정로〉에서 소개한 326개 인용문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분석을 6개의 그림 자료와 함께 제공하고 있으므로, 성철 스님의 해석학적 시각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스님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다.

제1부의 제2장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조명하는 돈점논쟁'에서는 돈점 논쟁을 통해 그리스도교의 핵심적 경전인 신약성서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글을 통해 돈점논쟁에 있어 그리스도교와 불교가 돈점논쟁에 있어 그리스도교와 불교가 아주 가까운 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성철 스님이 주창한 '돈오돈수' 사상의 구체적 의미를 그분이 그리스도교 최고의 핵심적 경전인 신약성서에서,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표현이나 유사한 낱말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 불교용어들이 뜻하는 진리에 대한 체험의 구조와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에 따르면, 성철 스님은 간화선을 통하면 누구나 단박에 구경각에 이를 수 있다고 한 반면, 그리스도교에서 '단박에 깨쳐 단박에 수행이 이루어지는' 확실한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저자는 그리스도교 전통 속에서 나타난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관계를 통해 돈오돈수의 우수함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성철 스님을 지눌과의 관계를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며, '지눌 없는 성철'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성철 스님 사상의 한 특성인 극단성에 빠지지 않으면서 돈오돈수의 핵심성을 받아들일 때 한국불교가 더 아름답게 꽃피우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제2부 '한국불교의 세계화와 포스트-퇴옹성철'은 제1장에서 가야산 호랑이의 선사상을 민주주의 요람인 서구 문명에 알리기 위해 극복해야 할 여러 어려움을 지적하고, 제2부에서는 퇴옹성철의 영향 아래 한국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인정받아 온 간화선을 서구 문명에 진출시킬 때 만나게 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1987년 〈돈황본 육조단경〉을 펴낸 성철 스님이 이 책을 통해 어떻게 당신의 생애 및 전서에 월계관을 씌웠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성철 스님과 스님의 사상이 한국 현대불교에 미친 영향력과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제3부 '20세기 한국사와 퇴옹성철의 사자후-깨달음과 역사인가, 역사와 깨달음인가?'는 영어 논문 한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가세존과 초기불교, 아쇼카불교의 사회와 정계의 관계를 살펴보고, 역사적 관점에서 중국과 한국의 돈점논쟁의 정치적 배경을 각각 드러낸 뒤, 현대 한국돈점논쟁 역시 그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정치적인 배경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 대하여 6가지 공진점 또는 공명점을 들어 입증해 낸다.

한국 현대불교사에서 한국불교계에 가장 큰 충격파를 일으켰던 분이 바로 성철 스님이라는 데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또한 한국적인 정서상, 워낙 거인이었기에, 그동안에는 주로 성철 스님의 장점들에 대한 의견들은 많았으나 스님의 생각을 정면에서 지적하는 일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책은 보조지눌 선사의 '돈오점수' 사상과 극명한 대립각을 세우며 일관되게 '돈오돈수'를 주창했던 성철스님의 삶과 사상을 자세히 조명하면서 장단점들을 나름대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각도로 잘 검토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성철 스님 선양운동 단체인 백련불교문화재단의 관계자는 박영재 교수가 쓴 성철 스님의 열반송 일부분이 잘못 기술됐으며, 서명원 교수의 영어 논문 내용 중 성철 스님이 독재와 조응했다는등의 내용은 오류라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우리 고전으로 지구를 살린다

〈녹색고전〉한국편
김욱동 지음 | 비채 펴냄 | 1만3천원



"이제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지구의 몰락'을 말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학문도 환경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외출하기도 힘든 오늘,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구와 공존하는 지혜가 아닐까. 책은 그 길이 고전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책은 문학 연구의 최고 권위자였고, 중년 이후의 삶을 환경 운동에 바친 석학 김욱동이 침몰하는 '지구 호'에 탑승한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간절한 녹색 외침이다.

빠른 성장으로 인해 날로 풍요로워지는 세상. 오늘의 지구다. 그러나 경제중심, 물질중심, 인간중심을 뜻하는 그 관점의 이면에 생태를 훼손하고 환경을 외면하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닐까. 자연이 주는 기쁨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국제중과 자사고에 매달려 자라는 기형적인 사회, 수십여 종의 생물이

"지구와 공존하는 지혜 고전에 있어"
"봄과 가을에 생물을 죽이지 말라" 등
우리 문학에 깃든 혜안 통해
환경위기 극복 방법론 제시

매일같이 멸종되는 하루하루, 갈 곳을 잃은 철새와 돌고래들이 길을 잃고 집단으로 자살하는 하늘과 바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참모습이다. 환경학자들은 입을 모아 2050년의 지구, 그 죽음의 땅을 상상해보라고 이야기한다. 먼 아마존의 이야기가 아니다.

"너희들이 먹이를 얻는 것이란 불인(不仁)하기 짝이 없도다!" 연암 박지원의 〈호질〉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분뇨 구덩이에 빠진 북곽 선생을 준엄히 꾸짖는다. 인간중심주의를 향한 신랄하고도 생태적인 비판이었다. 그러나 200년이 넘게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는 오히려 파괴를 일삼는 삶을 살며 멸망을 향해 달려간다. 호랑이의 꾸짖음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못한 셈이다. 그뿐인가. 봄과 가을에 생물을 죽이지 말라고 이른 원광법사의 가르침부터 〈청산별곡〉에 묘사된 은거와 '힐링'의 공간으로서의 자연, 화롯불에 던져지는 이(蝨) 한 마리를 두고도 슬퍼한 옛사람들의 삶까지…. 문학적으로 깊은 공감을 자아내는 우리 고전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담은 생태 교과서로 읽어도 손색이 없다.

책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옛 노래부터 현대 작가들의 작품까지, 오래도록 기억될 우리 고전 30선을 선별해 각 꼭지를 여는 글로 삼았다. '창세무가'에 담긴 무궁한 생명력, 연암 박지원의 〈호질〉에 담긴 엄중한 꾸짖음, 〈삼국유사〉에 담긴 만물평등사상, 그리고 이양하의 〈나무〉가 전하는 살아 숨 쉬는 자연. 우리 문학에 깃든 혜안을 부드럽고 친절한 경어체에 담아 알기 쉽고 호소력 있게 전한다. 여기에 인기가수 김경호의 '만물의 영장'과 같은 대중가요까지 더해 고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즐기는 법을 보여준다. 고전작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는 '김욱동식 고전 읽기' 야말로 논술의 핵심이자 사유의 확장이다.

발간의 의의는 첫째, 고전문학이 말하는 자연 친화적 삶을 통해 생태의식 개선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창세무가〉에서부터 김지하의 〈작은 것을 보자〉와 같은 현대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전작품에 담긴 우리 선조들의 생태적 삶을 재조명함으로써 환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생태문학 읽기'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교과중심의 해설을 탈피하고 우리 고전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열린 사고'의 장을 마련했다. 주입식 교육의 단점인 '획일화된 해석 방법'을 탈피하여 1318세대 아이들이 '생각의 틀'을 깨고 확장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셋째는 '고전은 어렵다'는 편견을 없앤 것이다. 옛이야기를 듣듯 짧지만 깊이 있는 강의를 통해 고전을 읽는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다.

넷째, 시공간을 초월해 널리 사랑받는 작품을 선별하여 '생태 문학'의 계보를 이어갈 대표작을 총망라했다. 환경문학에 관심이 있는 환경운동가 및 생태교육 교사라면 〈녹색 고전〉 한국편과 곧 출간될 동양편, 서양편을 통해 '녹색 문학'의 계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생태 문학 읽기'라는 쉬운 실천을 제시했다. 책은 재미있는 고전 읽기를 통해 생태의식을 깨우는 비평서이자 그것을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는 안내서이다.

이처럼 생태학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녹색 고전〉은 세계관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아이들에게, 혹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잊어버린 어른들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전하는 책이자, 물질만능주의가 양산한 자원낭비 세태와 인간중심주의가 불러온 참혹한 생태 위기를 재조명하는 책이다.

박재완 기자

저자 김욱동은

한국외국어대학 영문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미시시피 대학에서 영문학 석사학위를, 뉴욕주립대학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 〈세계의 문학〉에 '언어와 이데올로기-바흐친의 언어이론'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이후 교수이자 저술가, 번역가, 평론가로서 주목받았다.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문학이란 무엇인가〉 등을 펴냈고, 〈위대한 개츠비〉〈앵무새 죽이기〉 등을 번역했다. 가속화되는 환경문제를 목도하며 '생태 위기 시대에 문학도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온 그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답을 찾아 '문학 생태학'이나 '녹색 문학'을 읽는 방법론을 도입하여 현대사회의 생태의식을 일깨웠다. 2000년 〈한국의 녹색 문화〉를 출간하며 환경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2011한국출판학술상을 수상하였고, 꾸준히 생태문학을 연구하면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현재 서강대 명예교수 및 한국외대 통번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불기2558년 단기4347년 甲午年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그득하시길 두손 모읍니다

중국광동육조사 한국육조선원

한국 육조선원 용화사 방장 석 연화

부 원 장 : 법붕, 일웅, 원덕, 청산, 혜봉
원로위원 : 지암 대선사, 건우 대선사, 도선 대선사
총무국장 : 혜광 총무부장 : 혜성

❁ 육조선원(용화사) 금강계단
전계아사리 연화 대화상 교수아사리 정암 대화상
갈마아사리 청암 대화상 설계아사리 법광 대화상

❁ 존증사(칠증사)
법붕 대선사, 청산 대선사, 임웅 대선사, 금붕 대선사
종섭 대선사, 혜문 대선사, 자운 대선사

❁ 선원장
서울 영산선원 혜성 대구 수미선원 도관 부산 은진선원 지암
울산 희망선원 자운 김포 무량선원 무량 충북 사미선원 월암
전남 만덕선원 법장 정읍 은곡선원 은곡 경북 원각선원 원각
경남 도솔선원 정원 원주 보림선원 혜일 강원 길상선원 혜선

주소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2리 247번지 용화사
전화 : 033)761-7008, 766-2556 / FAX : (033)761-3200 / 서울사무소 02)766-6800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명예종정 숭산 소림사 방장 석 영신

종 정 석 연화

❁ 원로원장 돈오 ❁ 총무국장 혜일
❁ 사서실장 무영 ❁ 총무부장 혜광

· 서울교구장 혜성(영산선원) · 경기교구장 수월(수월선원)
· 경기교구장 혜봉(옥천선원) · 원주교구장 혜일(보 림 사)
· 강릉교구장 수인(청 룡 사) · 충북교구장 연동(금 강 사)
· 경남교구장 자운(희 망 사) · 경남교구장 법붕(상 지 암)
· 경북교구장 금붕(길 상 사) · 양산교구장 혜문(대 용 사)
· 본 사 주지 혜암(용 화 사) · 본 사 총무 혜광(용 화 사)

중국 숭산 소림사 한국문화원 : 02)766-6800, 766-6900
중국 숭산 소림사 본찰 미륵산 용 화 사
(대)033-761-7008 / FAX : 033-761-3200



새해 빛 2014

謹賀新年 福

佛紀 2558年 甲午年 謹賀新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B14



내 어리석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이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 현명하다고 일컫는 것은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다.

– 법구경

부산불교회관은 도심포교를 위해
계획 설계된 미래불교 도량입니다

부산불교회관 (부산시청 옆)

여여선원·여여정사

(부설-자선단체) 세상을 향기롭게

선원장 정여스님(前 범어사 주지)
붓다선원 주지 도경스님
삼랑진여여정사 주지 도명스님
김해여여정사 주지 도명스님
해운대여여선원 주지 도우스님
여여선원 주지 효산스님
관음낙가사 주지 효원스님
울산여여선원 주지 효암스님
여여선원신도회 명예회장 김경환
신도회장 여만숙

신도회, 총동문회, 복지회, 선림회, 명상회
십만배기도회, 여여산악회, 여여선원카페,
지장회, 관음회, 청년회, 청소년회, 어린이회,
기초교리반, 여여불교대학, 선불교대학원

■ 여여선원·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15 (양정동)
부산불교회관
TEL (051)853-5486~7 FAX (051)863-6422
■ 여여정사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1058
TEL (055)355-9290~1

삼천배 참회기도 근본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감로불교대학

- 기초 / 경전 과정 -

회주 법 희
주지 혜 총
사부대중일동

■ 부산시 진구 전포 2동 33번지
TEL 051)809-0926 / FAX 803-0188

불교자비사상 실천현장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부산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 가릉빈가언어치료센터 ■ 용호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 용호방문요양파견센터 ■ 용호어린이집
■ 양정노인주간보호센터 ■ 용당어린이집
■ 무료급식(매일 400여명) ■ 노인대학(매일 200여명) 등

이사장 혜 총 관장 이춘성
소 장 김영곤 부장 서은해

■ TEL 051)628-6737 / FAX 628-6562

범어사금정불교대학
범어사금정불교상담대학

바로알고 바로믿어 바로행하는
범어사금정불교대학 ·
범어사금정불교상담대학

학 장 수 불
담임법사 지 장

총동문회
재 학 생
일 동

■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16번길 27(거제동)
TEL 051)866-7277 / FAX 051)864-7290

대한불교조계종

대광명사

대광명불교대학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불교법당

주 지 목 종
신도회장 신익철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로데오아울렛 3층)
TEL 051)742-7610 / FAX 051)742-7606
www.daekangmung.com

자비실천수행도량

미 룡 사

회 주 정각
법 사 범진, 만휴, 이구
신도회장 광운 김동렬

부산불교대학 학장 : 정 각
미룡사노인대학 학장 : 김연순
정혜어린이회 지도교사 : 이은희
바라말합창단 단장 : 노정임
한울타리예술단 단장 : 성정옥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장 : 이희숙

■ 부산시 영도구 동삼남로 11
(동삼동 323-194)
TEL 051)404-4300, 2100
FAX 051)403-4860

대한불교조계종

혜 원 정 사

조실 고 산
주지 원 허

신 도 일 동
[재] 고산장학회

사회복지법인 혜 원
영도구 노인복지관
혜원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
선 재 어 린 이 집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68번길 47(연산동)
TEL 051)866-7771~3 FAX 866-7777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기도도량

운 수 사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219번길 173(모라동)
TEL 051) 313-3300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산 선 암 사

주지 원 범

원효신도회, 원효봉사단회
원효불교대학, 원효거사회
원효합창단, 원효청년회
원효다도회

사부대중일동

고품격 추모문화를 추구하는 선암사추모관
· 선암사 직영으로 신뢰 높은 운영관리
· 천년고찰 선암사와 영구히 존재
· 매월1회 발복과 극락왕생 기원합동천도재
· 설, 추석, 백중 합동제사
문의 및 접수처 ☎ 051)803-757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산로 138 (부암동)
TEL 051)803-7573 / FAX 803-7521

대한불교조계종

황령선원 홍 제 사

선원장 혜 국
주 지 성 문

사부대중일동

· 매월(음) 초 하 루 - 초사흘 신중기도
· 매주(월) 다라니기도 - 오후 7시 ~ 9시

사회복지법인 화엄도량
노인요양시설 효 림 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304번길 34(전포동)
TEL 051)802-0130 / FAX 804-1037

석조약사여래대불

마안산 자 비 암



주지 자 관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로5번가길 46(명륜동)
TEL 051)802-0130 / FAX 804-1037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부 산 교 구

교구청장 효 원정사
총 무 학 인정사
신도회장 문연주(대원)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8-1 (수정동)
TEL 051)464-0668 /FAX 051)557-0668

---

dongguk UNIVERSITY

불교문화대학원
동 림 동 문 회

자 문 신풍
학산
명예회장 송월
심산
무상
회 장 광진
사무총장 법천

회원 일동

■ 사무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117번 나길 175-32(중동)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선찰

만 덕 사

(부산지방문화재 3호 만덕사지)

주지 금산 박혜명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만덕로 63-13(만덕동)
TEL (051)334-3009

대한불교조계종

김해 대법륜사
부산 광명선원

회주 금강 (효선)

대법륜사 343천도회
금강경사경회
금강경108사경회
매주 화요일 능엄기도회

■ 대법륜사(백팔윤장대도량)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1088-28(흥동)
TEL 055)324-5457
■ 광명선원(천도재,구병시식 전문도량)
부산광역시 동래구 석사북로 106(온천동)
TEL 051)503-5457, 504-6017

"무료 급식공간 건립 불사 숙원"

부산 혜일암 주지 우신 스님



"오늘을 충실히 살면 그것이 곧 행복이죠. 그러면 내일도 글피도 또 내년도 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해 계획이 없어요. 오늘 하루 열심히 잘 사는 게 제 계획이죠. 그러면 삶에 더 충실할 수 있고 삶이 더 풍성해지죠."

54년 말띠로 올해 환갑을 맞는 우신 스님은 유쾌한 웃음으로 이렇게 새해 계획을 말한다. 12년째 부산 지하철 구서역 인근에서 화요일 수요일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하는 스님은 그날 그날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 가장 즐겁다.

"어르신들에게 조미료를 넣지 않은 최상의 재료로만 음식을 만들어 대접해 드려요. 화요일은 식판에 반찬 3개와 국과 밥을 드리고 수요일은 국밥을 드리죠. 모두들 너무 잘 먹고 간다고 최고의 음식이었다고 칭찬하고 가실 때 가장 뿌듯하죠. 어르신들에게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보람입니다."

스님은 하루하루 즐겁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이 먹는 것이 슬프고 두렵지 않다고 강조한다. "보통 사람들은 늙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면 나이 먹는 게 너무 자랑스럽죠. 그렇게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 환갑을 맞았네요. 저는 환갑 맞은 저를 크게 칭찬하면서 사람들에게 환갑이라고 자랑하고 다닐 정도죠."

스님의 오랜 소망은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구서역에 급식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급식 장소가 노천이다 보니 비 오면 어르신들이 급식을 드실 공간이 없어요. 시장님이든 구청장님이든 만나기만 하면 이 부탁을 하는데 행정적인 문제로 급식 공간을 마련할 수 없다고만해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저의 오랜 소망입니다."

속가의 아버지를 4살 때 여의고 20년 전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을 발원한 스님은 12년을 한결같이 어르신들을 위해 공양을 올리고 있다. "저는 어르신들에게 급식을 해드리면서 제 수행의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수행만 했으면 이만큼 세상을 배울 수 있었을까 싶어요. 절 밖으로 나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니 수행자로서의 아상을 깨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2014년에도 꾸준히 한결같이 어르신들을 위한 공양을 올리며 부처님 법을 세상에 알려 나가겠습니다."

정혜숙 기자

"불교 명상상담 책 출간 발원"

'뫔' 센터 원장 선업 스님



마음치유 상담전문가인 선업 스님은 1966년 병오(丙午)년 생이다. 2014년 말띠 해를 맞아 신년을 맞는 소감을 묻자, 스님은 "수행자이면서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 순간순간을 지금 이곳에서 내가 어떠한 기능을 하며,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는 한 해였다"고 답했다.

뫔 센터 원장으로 활동하는 선업 스님은 불교상담개발원연구위원,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을 맡으며 행복한 인간관계 증진에 대한 해법을 전하는 인기 진행자이자 사랑 전문상담가로 종교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커다란 공감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선업 스님은 2013년 한해를 차(茶)를 매개체로 한 명상상담 활동을 해왔다. 스님은 "마음 불편한 사람들의 속을 풀어주고 마음을 꿰매어 주는 한해를 보냈다. 가정법원상담위원이다 보니 이혼상담, 연애상담 등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며 열심히 활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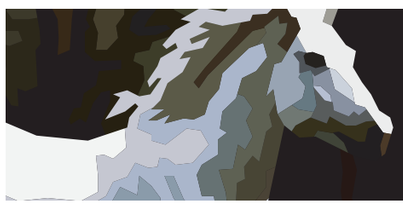
선업 스님은 갑오년 새해에는 전통적인 불교매체를 활용한 명상상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론서를 낼 계획이다.

"차 등 불교전통 매체를 활용한 명상상담을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해 불교도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책을 통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스님과의 차담(茶談)이 왜 좋고 왜 필요한지,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작업을 3년 동안 해왔습니다."

선업 스님은 불자들에게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기능(機能)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선종(禪宗)에서는 기능에 대한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나의 본질, 즉 불성이 해야 할 능력 발휘를 일컫는데, 나로써 해야 할 능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새해를 맞은 불자들에게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낄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명상법을 제시했다. "손가락 세 개를 이용해 이마, 무릎 등 내 몸 한 부위에 각각 대면서 속으로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여기는 어디인가',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쉽게 화두를 두는 겁니다. 처음에는 장소를 알아차리고, 다음에는 나를 챙기고, 그 다음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챙기는 겁니다. 이러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면 우리는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나은 기자



말띠 사부대중의 새해 서원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라는 말은 단어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곧고 푸른 기상을 상징하는 청마로 대변되는 갑오년을 맞아 모두들 새로운 계획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말띠를 맞은 사부대중들은 2014년 새해 어떤 목표를 세웠을까? 말띠 사부대중 그들의 새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성년 대학생 위한 수계식 추진"

최용춘 교수불자연합회 회장



말의 해를 맞는 54년 말띠 최용춘 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은 다가오는 2014년에 대해 소통과 화합을 통해 발전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최 회장은 2013년 많은 일들을 했다. 특히 창립 25주년을 맞은 교수불자연합회 회장으로서 '학문과 함께 보살의 길을' 문집 발간과 함께 대구, 부산, 광주, 청주에서 권역별 간담회 등을 직접 이끌었다.

최 회장은 "권역별 간담회가 하계 · 동계 교수불자대회보다 의미가 더욱 컸다"며 "특히 성년이 되는 대학생들에게 교수들이 주축이 돼 성년 수계식을 열자는 의견이 나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교수불자대회에도 근래 가장 많은 분들인 12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참여율이 늘고 있지만 전국교수가 약 10만 명임을 감안하면 교수불자의 활동이 참으로 미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자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회원 교수들이 좀 더 단합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교불련에서 불자 대학생들의 신행 활성화를 위해 지도교수들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권역별 간담회를 전북, 충북, 대구권, 제주권에서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수불자연합회는 2014년 2월 3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부처님 8대 성지를 중심으로 인도성지순례를 진행하며 7월 초에는 순천 송광사에서 하계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한다.

최 회장은 "교수들이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등에 동참해 어린 학생들부터 불자들로 키워 나가야 한다"며 "불교를 믿는 교수들이 적극적인 신행활동을 전개할 때 불교의 위상이 높아지고 대학생 불자들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개인적으로는 올해 '불교사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소고' 등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글을 썼는데 이 분야를 심도있게 연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끝으로 "새 해, 말의해라는 구분보다 모든 대중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보현행원을 실천한다면 날마다 좋은날, 매일 매일 새로운 날일 것"이라며 "새해를 앞두고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나가는 불자들이 되자"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새해에는 멘토 스님 만나고 싶어요"

영화배우 신이



"지난 한 해 불교방송 '활력충전 2시4시'를 진행한 것은 너무나 큰 행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셨고 저 또한 큰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고 해야 할까요? 올해도 불자님들을 위해 좋은 방송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78년 말띠 신이는 가문의 영광 시리즈 등에서 개성만점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슬럼프로 의기소침해 있던 가운데 지난해 5월부터 불교방송 진행을 맡으면서 그녀는 슬럼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동안 스스로 나는 너무 불행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부정적 감정에 빠져 힘들었어요. 하지만 방송을 하면서 애청자들의 사연을 듣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제가 잘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보람도 컸죠. 특히 제 방송을 듣고 행복하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의 문자를 받을 때는 정말 방송하는 보람을 느껴요. 또한 늘 영화와 방송 쪽 일만 하던 제게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라디오 진행은 세상을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신년 새해에는 불교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다짐을 한다. "불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부모님을 따라 절에 다니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불교방송을 진행하면서 스님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불교 서적들도 읽으면서 위안도 얻고 감명도 많이 얻었죠. 그래서 새해에는 불교를 본격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발심을 했어요."

또한 멘토 스님을 만나는 것도 신이 씨의 목표다.

"쑥스러움이 많아 아직까지 스님들을 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같이 진행을 맡고 있는 김주철 씨는 스님들에게 쉽게 잘 다가가는데 저는 그러기 쉽지 않아요. 올해는 꼭 제 인생의 멘토 스님을 만나고 싶어요. 스님께 인생상담도 하고 또 차도 마시며 담소도 나누며 제 삶을 좀더 풍부하게 만들어보고 싶어요."

방송을 통해 대중들과 소통을 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기쁨을 찾은 배우 신이 씨는 2014년 상반기 '가족사진'(감독 정흠문)으로 대중들을 찾아간다. 또한 로맨스 소설 등을 출간하면서 작가로 데뷔하기도 한 신이는 앞으로 방송기획안 등 새로운 글쓰기에도 도전해볼 계획이다.

정혜숙 기자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천태종

동해 관음성지

울릉 성인사·삼도사

주 지 정비룡



성 인 사 신도회장 도영국 外

주소 : 경북 울릉읍 서면 남서리 19 TEL 054)791-5011

삼 도 사 신도회장 김도근 外

주소 : 경북 울릉읍 서면 태하리 562 TEL 054)791-5457

ACE 잘 가 르 치 는 대 학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에서

참사람 인재를 키운다!

DONGGUK UNIVERSITY GYEONGJU

파라미타 칼리지 (PARAMITA College) 란?

- 불교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가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참사람 인재를 양성하는 교양 학부 대학**입니다.
-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사지도교수가 전담하여 지도합니다.
- 신입생 **기숙형 대학(레지덴셜 칼리지)을 운영**하여 기숙사 생활에서 개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운영합니다.

* 파라미타는 불교 용어 '**바라밀다**'의 산스크리트 발음을 음에 따라 옮긴 말입니다.



12월 22일 호국백마사에서 열린 일요법회에 참석한 군장병들과 자원봉사자들이 2014년 새아침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호국 백마사에는 100여 불자장병들이 신행생활을 하며 힘든 군생활의 원동력을 얻고 있다.



법회에서 반야심경과 천수경을 합송하는 백마부대 불자장병들.



석양이 지는 부대 경계초소에서 근무서는 백마부대 장병의 모습.

백마부대 불자들 "올해는 말처럼 뛰자"

현장 말의 해, 백마부대 호국백마사를 가다

매서운 추위가 몰아친 12월 22일 오전 10시. 원당역에서 30여분을 차로 달려 올라가자 철조망 담장을 친 부대가 나타났다. 바로 9사단 백마부대다. 말의 해를 맞아 찾은 백마부대 호국백마사는 일산 구도심 외곽에 자리하고 있다.

늦지 않게 찾아간 호국백마사에서는 동지기도를 겸한 신년법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매서운 추위로 다소 적은 20여명의 장병들만이 법회에 참석했다.

호국 백마사 주지 소천 정연태 법사는 "오늘따라 사병들이 적게 왔는데, 취재 거리가 되겠냐"며 미안함을 표했다. 하지만 이날 법회에는 장병들과 함께 자원봉사자와 신도 40여 명이 함께해 법당을 가득 메워 이런 걱정을 덜어줬다. 이날 법회에는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른 정광태 씨와 독도사랑회 회원, 고양시민연합 봉사팀, 호국 선우회 등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천수경 독경을 시작으로 진행된 기도법회 내내 장병들은 함께 기도하며 신심을 고취시켰다. 이날 법회에 다소 적은 인원이 참여했지만 호국 백마사는 100여 명의 불자 군장병들이 신행생활을 하는 열성 법당이다. 신심 넘치는 장병들은 매년 봉축 때 부대를 상징하는 백마상 연등을 만들어 군악대와 함께 일산사암연합회가 주최하는 연등축제에 참가하기도 한다. 또한 백마사에서는 2010년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개최한 '제1회 군종병 불교교리경시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법회 이후에는 팥죽과 다양한 음식들이 제공됐다. 장병들은 함께 모여 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두런두런 얘기를 나눴다.

신영옥 고양시민연합 회장은 "봉사자 모두가 장병들 또래의 자녀를 두고 있다. 자식을 대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이고 있다"며 "많은 장병들이 군법당을 찾아 좋은 법문을 듣고 용기와 의지를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새 해 전역하는 장병들, 남다른 포부 밝혀

새 해를 앞두고 불자장병들은 기대감을 표했다. 모두가 2014년이 전역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매년 초파일 백마등 제작
2014년 전역장병 포부 밝혀
백마사 신축불사 추진 '기대'

한종열 상병(22)은 "군대에 있으며 밖에 나가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적극적인 자세와 용기를 얻었다"며 "2014년 말의해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밝게 웃었다.

같은 소대 동기인 이준하、김주환 상병(21)도 "법당을 함께 다니며 동기의 더욱 많은 부분을 알게 됐다"며 "전역을 하면 여행도 다니고 학업을 위해 돈도 모으고, 모임도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1년 넘게 호국 백마사의 궂은일을 담당한 문영현 상병(21)은 봉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전역을 200여일 앞둔 문 상병은 "군종병으로 있으며 여러 봉사자들의 활동을 보면서 '나도 평생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소천 정연태 법사는 "군내에서 종교 활동이 장병들의 의지처가 되고 있다"며 "예전 폐쇄적인 부대 분위기에서 자율적인 분위기로 바뀌며, 군법당 신행활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멈춰진 백마사 불사 전기마련 될까

호국 백마사에도 2014년은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예정이다. 백마부대의 호국백마사는 1975년 8월 초대법사가 부임하며 준비를 시작해 1980년 3대 도중 정선진 법사 재임 시 창건됐다. 이후 2007년 노후화된 기존 법당으로 3년 동안 신축불사를 시작해 2010년 현재 원통전을 낙성했다.

특히 2010년 원통전 낙성 이후 중단된 불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정 법사는 "사실 정부의 복지예산 증액과 국방예산 삭감으로 군법당 불사와 관련된 예산이 없어졌다"며 "진작에 부지가 마련 된 상태여서 더욱 아쉽다"고 말했다. 정 법사는 "내년에는 예산이 배정돼 다시금 불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이날 법회를 함께한 이들은 모두 파이팅을 외치며 새해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호국 백마사의 새해맞이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제9사단 백마부대는?

9사단 백마부대 명칭의 시작은 현재 5사단이 방비하고 있는 백마고지 전투에서 나왔다. 1950년 10월 25일 서울 청계초등학교에서 창설된 이후 곧바로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을 진행해 놀라운 전과를 올린 백마부대는 6·25전쟁에서 매봉산 전투, 한석산 전투, 고지전 등의 눈부신 활약을 했다. 특히 철원 396고지에서 두 배가 넘는 중공군과 12차례나 고지를 내준 공방전을 통해 철원평야를 지켜냈다.

이후 1966년에는 월남전에 파견돼 베트남 중부지역을 담당했다. 당시 베트남전은 전후방 구분이 없는 전쟁이었는데 1973년 귀환 때까지 대부대작전 478회, 소부대 작전 21만여 회를 벌였다. 백마부대가 해외에 알려지게 된 계기도 이때 즈음이다. 부대마크 자체도 일명 '간지' 나게 생긴 덕분에 현재 해외 군사연구자들에게 '화이트호스'로 불리고 있다. 화제를 모았던 조성모의 '아시나요' 뮤직비디오에서 나오는 부대 또한 바로 백마부대였다.



말馬이 들어간 군법당 어디 있을까?

진취성과 기동력 등을 의미하는 '말(馬)'을 명칭에 사용한 군부대는 그다지 많지 않다. 말이 온순한 초식동물로서 용맹함과 전투력을 상징하는 호랑이, 용 등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제9사단 백마부대 호국 백마사와 함께 육군에는 제3군수지원사령부 삼마부대 호국 삼마사, 제57사단 용마부대 호국 용마사가 있다. 활발한 수송을 상징하는 삼마(三馬)부대의 삼마사는 부평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7년 부천 석왕사의 지원에 힘입어 완공됐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사단인 57사단 용마부대는 2012년 부대통합에 따라 56사단으로 통합됐다.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호국 용마사는 1991년 건립됐다.



謹賀新年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 운 사

조 실 현봉 근일
회 주 송암 혜승
회 주 원조 각성
주 지 남전 호성
부주지 등운

총무국장 도륜 기획국장 용담
교무국장 성공 재무국장 두견
사회국장 등안 호법국장 정우
포교국장 동우 연수국장 도승

고운노인요양원 원장 석우
영주장애인복지관 관장 도륜
의성노인복지관 관장 탄하
안동청소년문화센터 관장 등운
안성장애인복지관 관장 이호걸

템플스테이 둘째·넷째주 토 ~ 일(1박 2일)
신묘장구대다라니철야정진 매월 첫째주 토요일

사부대중일동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 (구계리116)
• ☎ 054)833-2324 템플스테이 833-6933 / 전송 834-6935 (www.gounsa.net)

謹賀新年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천년고찰 안흥사

주지 대웅

'자비도량 참법과 참선용맹 정진 수행도량'

■ 경북 경산시 상방동 71번지 TEL 053)815-4030 / FAX 053)814-5142

마두관음 축생교화… 정진·업장소멸 상징

불교와 말

인간과 밀접한 말

2014년은 갑오년(甲午年), 말의 해다. 12지 동물 중에서도 말은, 가장 역동적 동물로 자리잡아왔다. 말은 십이지의 일곱 번째 동물로 시간으로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방향은 정남, 달로는 음력 5월에 해당한다.

말은 민족의 힘찬 기상을 담아 오늘에 전해지며, 영혼의 전달자로서 영물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신라 고분 벽화에 등장하는 천마와 박혁거세 탄생 신화, 고구려 시조 주몽 신화에서 보듯 우리 민족에게 말은 제왕의 출현을 미리 알려주는 상서로운 동물, 초자연적인 세계와 교통하는 신성한 동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말로는 제주마가 유명하다. 부여 및 고구려 시대부터 사육되었다 전해지는 제주마. 제주마는 과수원 나무 밑을 통과할 정도로 작고 야무진 몸집을 가졌다하여 과하마라 불리기도 했다. 몸집은 작으나 강인한 지구력을 가지고 있어 가축이지만 귀중한 재산으로 인정받았다.

우리 민족에 말은 단순한 동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교통수단은 물론 생활의 일부로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과 함께 하면서 사람들 속에서 살았던 말. 당시 생활에 중요한 활동이었던 사냥에서 말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말은 국가에서 관리를 할 만큼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자원이기도 했다.

고대 유물 속에 나타나는 말의 의미는 특별하다. 말은 현세와 내세를 연결시켜주는 전달자로 역할 한다.

말이 유물에서 나타나는 것은 선사 시대부터이다. 가야, 백제, 신라, 조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 이 유물들은 죽은 자의 영혼을 저 세상으로 실어 나른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영혼을 태우고 천상 세계를 오가는 말은 숭배의 대상이 되어 토테미즘의 형태로 발전되기도 했다.

말을 천상의 동물로 승격시킨 천마도에서는 고대 신라의 미학이 그대로 드러난다.

고분은 역사 속에서 말의 위치를 말해준다. 말이 인간의 생활과 밀접했다는 것은, 고분에서 발견된 유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말장식이나 말띠드리개, 말방울 등은 말을 위한 장식물로 제작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장식은 우리의 조상들이 말을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동물로 우대했음을 알 수 있다.

불교에 나오는 말

말은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이 현신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관세음보살이 육도(六道)를 순회하며 중생을 교화할 때는 성(聖)·천수(千手)·마두(馬頭)·십일면(十一面)·준제(準提)·여의륜(如意輪) 관음 등 육관음으로 현신하는 것이 보통인데, 축생을 교화할 때의 현신 모습이 바로 마두관음보살이다.



12지 말 그림. 불교에서 죽은 이를 추모하기 위한 영산재(靈山齋) 때 사용하는 신장(神將) 그림이다. 백여 년 전 제작된 봉원사 소장 12지 신장 그림을 만봉(萬奉) 스님이 모사한 것이다. 불교에서 말은 생전(生前) 과 사후(死後) 금은(金銀) 지전(紙錢)을 부처님 앞으로 나르는 역할을 한다. (1977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유일하게 분노한 모습을 한 관음상으로, 머리에 말의 머리를 이고 있어 마두대사(馬頭大士) 혹은 마두명왕(馬頭明王)이라고도 부른다.

말의 머리를 이고 있는 것은 전륜왕의 보마가 사방을 달리면서 마귀를 굴복시키는 것처럼 생사의 바다를 누비면서 천마(千魔)를 항복시키는 큰 위신력과 정진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무명의 무거운 업장을 막는다는 뜻도 있다.

약사여래의 12대원을 수호하고 실현하는 12신장 중의 하나가 말이기도 하다. 〈약사유리광왕7불본원공덕경염송의궤〉를 보면, 약사여래의 각 서원에 응하여 이를 성취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역할을 맡은 12신장은 12간지에 각각 대응되는데, 이 중 오신(午神) 즉 말에 해당하는 신장이 마지라(摩尼羅, Majira)이다.

무릎 꿇고 슬피운 말 칸타카

경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 당시의 모습을 설명하는 유성출가상에서 말에 대한 충직성이 잘 나타나 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다룬 〈석가보〉에는 사문유관을 통해 인간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느낀 석가족의 왕자 싯타르타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가를 결심하고 모두가 잠든 새벽 유성출가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이 때 싯타르타가 타고 왔던 말 칸타카는 싯타르타와의 이별을 슬퍼하며 무릎을 꿇고 발을 핥으면서 비 오듯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경전에 나타난 칸타카는 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잘 나타나고 있다.

경전에서 말은 헤어짐을 아쉬워하고 주인의 서원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할 줄 아는 영리하고 의리가 있는 동물로 상징된 것이다.

사찰 창건 설화에서도 말이 자주 등장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 낙양의 백마사(白馬寺)다. 백마사라는 이름은 후한의 명제가 인도에 파견한 채음과 진경이라는 두 스님이 인도 고승 섭마등(攝摩騰), 축법란(竺法蘭)과 함께 불경을 백마에 싣고 낙양에 돌아온 것에서 유래됐다.

백마사(白馬寺)는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후 최초로 세워진 사원으로 '중국 제일의 사찰'이라고도 불린다. 1900년의 역사를 지닌 백마사 절 입구 양쪽에는 송나라 때 만들어진 두 마리의 백마상이 서 있다.

말과 관련한 창사설화 중 중국에 백마사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법주사(法住寺)가 있다. 신라 진흥왕 14년(553년) 의신 스님은 불법을 구하고자 천축국에서 공부를 하고 흰 노새에 불경을 싣고 귀국했다. 스님은 후학을 양성할 목적으로 절을 지을 만한 터를 찾아다니던 중 스님이 타고 다니던 흰 노새가 지금의 법주사 터에 이르러 발걸음을 멈추고 울부짖는 광경을 목격했다.

노새의 기이한 행적에 스님은 자리에 멈춰 산세를 둘러보고 절을 지을만한 곳으로 판단한 뒤 그 곳에 절을 지었다고 한다. 노새의 등에 싣고 다니던 경전이 이 곳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이곳의 절 이름을 법주사(法住寺)라고 부르게 됐다.

말띠 해에 태어난 불교계 인물로는, 신라 말 고승으로 선문구산(禪門九山) 중 사자산파(師子山派)의 제2조인 징효절중(826~900), 고려 숙종의 넷째 아들로 대각국사 의천의 제자였던 원명국사 징엄(1090~1141), 일제 강점기때 한국 불교의 일본 조동종 편입에 맞서 임제종을 세웠던 박한영(1870~1948) 스님 등이 대표적이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말띠해 불교소사

△526년 백제 겸익(謙益) 스님이 중인도 상가나대율사(常伽那大律寺)에서 범문과 율부를 공부한 뒤 범본(梵本) 아비담장(阿毘曇藏) 오부율문(五部律文)을 가지고 귀국해 율부(律部) 72권을 번역
△538년 백제 성왕, 처음으로 불상·경교(經敎) 및 승려를 일본에 보냄
△574년 신라, 황룡사(皇龍寺) 장육불상(丈六佛像)을 주성(鑄成)
△610년 고구려 고승 담징(曇徵), 법정(法定) 스님 일본에 건너감
△622년 신라 사신들이 일본에 건너가 불상 1구와 사리, 금탑 등을 전해 줌.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었던 혜가(惠慈) 입적.
△634년 신라 분황사 창건
△682년 신라 문무왕이 왜병을 막기 위하여 동해안에 착공한 감은사 준공
△754년 황룡사 대종 주성
△802년 순응(順應)·이정(利貞)스님, 가야산 해인사 창건
△850년 신라 문성왕 진감혜소(眞鑑慧昭) 국사 입적
△922년 고려 태조가 살던 집에 광명사를 세우고, 유가의 법사 담제(曇諦)를 주지로 삼음. 후백제 견훤, 익산 미륵사탑을 복구함.
△946년 불사리(佛舍利)를 개국사에 봉안
△982년 최승로, 시무책 20조를 건의하며 부패 불교 비판
△1018년 고려 현종(顯宗), 개국사탑을 중수하여 사리를 봉안, 계단(戒壇)을 개설하여 3,200여 인을 출가시킴
△1090년 우세승통(祐世僧統) 석후(釋煦)『신편제종교장총록』3권을 편수

802년 가야산 해인사 창건
1210년 보조국사 지눌 스님 입적
1966년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발견

△1210년 고려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智訥) 스님 입적
△1282년 고려 충렬왕 인기(印寄)에게 송나라 대장경을 찍어 오게 하여 강화 전등사에 봉안
△1330년 고려 충숙왕, 흥왕사 개창
△1342년 속리산 법주사에 자정국존(慈淨國尊) 보명탑비(普明塔碑)가 건립됨.
△1390년 고려 공양왕, 연복사 5층석탑, 삼지(三池), 구정(九井)을 중창
△1402년 조선 태종, 서운관의 건의로 전국 70개 사찰을 제외한 나머지 사찰의 땅의 조세를 영원히 군자감(軍資監)에 귀속시킴.
△1462년 간경도감 〈능엄경언해〉 10권 조판 간행.
△1510년 흥천사 사리각 5층 전소됨
△1642년 허응보우(虛應普雨)의 '수월도량 공화불사 여환빈주 몽중문답' 이 지선(智禪) 등에 의해 중간됨
△1810년 청나라에서 불사리를 건네 받아 대흥사에 봉안
△1930년 불교전수학교가 전문학교로 승격됨, 만해 한용운 스님이 만당(卍黨)을 조직함
△1942년 조계종법 발포. 김법린이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함흥에서 옥고를 치름.
△1954년 전국승려대표자회의 불국사에서 개최 불교조계종 종헌 공포 시행
△1966년 익산 미륵사지 발굴, 천태종 대각불교 창종 초대 종정 상월 스님, 불국사 석가탑 사리함에서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목판본으로 인정받은 신라시대의 목판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출현
△1978년 경주 황룡사터에서 청동거울 등 유물 250여점 발굴
△1990년 불교방송국 개국, 법주사 청동미륵대불 낙성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동참 가능한 성지순례

* 미얀마 성지순례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6일)...요금문의
  2014년 1월 11일, 2월 19일, 2월 22일, 2월 26일 등
* 미얀마 성지순례 (양곤 바고 시리암 5일).....요금문의
  2014년 1월22일 2월26일
* 운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 5일.....요금문의
  2014년 1월10 , 2월14일

불탑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

* 양곤 바간 헤호 5일.....요금문의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6일..... 요금문의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짜익티오 7일.....요금문의

해외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중국 정통 4대 불산 성지순례

- 지장도량 (구화산) 5일.....요금문의
- 관음도량(보타.낙가산) 5일.....요금문의
-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요금문의
-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조주 관음원 6일.....요금문의
-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대불,구패구 황룡 6일..요금문의

품격 성지순례

- 스리랑카 정통 성지순례(직항)7일.....요금문의
- 은둔의나라라오스성지순례(직항) 5일....요금문의
- 인도8대 성지순례 10일.....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요금문의

중국 · 태국 라오스 현지 직영 사무실 OPEN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기사, 각국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 2억원 여행자보험가입



새해 복 2014

謹賀新年 福

佛紀 2558年 甲午年 謹賀新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B18



떨쳐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고, 젊음만 믿고 힘쓰지 아니하고, 나태하며
마음이 약해 인형처럼 비굴하면 그는 언제나 어둠 속을 헤매리라.

– 법구경

대한불교조계종
영 주 암
[부설] 양정청소년수련관
영주암유치원,어린이집
회 주 불국 정관
주 지 범산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배산로76번나길 15(망미동)
TEL 051)754-2210
유치원 754-6120/수련관 868-0750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문수불교문화원
회 주 법흥
주 지 지원
신도회장 최묘각심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51-8
TEL 051)624-3754,7848/624-3754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금 강 암
주지 정만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TEL 051)508-4509
FAX 051)508-4870

대한불교조계종
자비실천도량 원오사
꿈나무가꾸기 명정 장학재단
회 주 고원 명정
주 지 정관
신도회장 박대건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윗반송로 124-5(반송동)
TEL 051)542-7949, 545-7949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
사부대중일동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재단법인 관음선행장학회
사단법인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 부산시 사하구 제석로 79번길 33
TEL 051) 294-9300~1

대한불교조계종 직할포교당
진여원불교대학
회 주 혜 총
주 지 무 성
원 장 남보타월
봉사단장 정보덕심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 664(구포동)
TEL 051)338-1008. 337-1080

대한불교조계종
청 량 사
주지 운암 현엽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도로 29(명지동)
TEL 051)271-2774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부산분원 보림사
주지 청봉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한들길 21
TEL 051)721-9500

백화도량 봉화산
길 상 사
주지 자인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촌소류지길 163-4(송정동)
TEL 051)973-5224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계 명 암
주지 선재
사부대중 일동
■ 부산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TEL 051)508-4345

대한불교원효종
총본산 금 수 사
주지대행 상천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533-1(초량동)
종무소 051)467-3316
팩 스 051)467-3338

대한불교원효종
천마산 약 수 사
주지 혜우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139번가길 41(감천동)
TEL 051)291-9681 전송 294-9681

새로운 천년 길상의 향기
대한불교조계종 **길 상 사**
[부설] 삼계선원 · 불교대학
법화경반 · 우담바라합창단
성현덕회
주지 만제 혜수
사부대중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로69번길 15(삼계동)
TEL 055)333-8202 / FAX 055)333-8203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지원장 혜도
사부대중 일동
www.hanmaum.org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79번길 23-26(동삼동)
TEL 051)403-7077 FAX 403-1077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
정토사·불교대학
주지 산하 덕진
사부대중 일동
조상님을 부처님 품 안에 영구히 모시는
정토사 극락원 (납골당)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217번길 15(옥동)
TEL 052)258-9944 / 극락원 212-7000

관음도량
신어산 해 경 사
주지 지현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725번길 32-57(지내동)
TEL 055)336-5193, 327-7926

지장불교 근본도량 **공덕원**
주지 능후 효선
사부대중일동
http ://www.gongdukwon.net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132 (용호동)
TEL 051)625-2253 / FAX 051)625-3886

엘리트 불자 양성(불교대학 · 대학원 · 영어불교대학
사보사찰 (불교쥬얼리 전시 · 판매)
반 야 원
주지 광원스님
*일요법회(법회와 밥회) 다문화*힐링*건강*복지 사업
세계 최고 영어공부*복합 봉사단(짜장스님과 봉사)
*결혼*중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87 (좌동) 영진파스타 8층
해운대 장산역 4번출구에서 3분(최고 교통) 최고 현대식 시설
TEL 051)701-5655, FAX 051)701-5654
Facebook/Twitter : 광원스님(Healing)monk

대한불교조계종
앵림산 안 적 사
주지 법안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길 461-16
TEL 051)543-9408

문화포교도량
동 림 사
주지 효산 성타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화 · 문인화 · 채색화 그림교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143-12
TEL 051)508-2917 / H · P 010-6609-8011

사단법인 대한불교
천 불 정 사
주 지 고 담
부 전 등 각
사 무 장 이정선
신도회장 이재덕
부 회 장 이정민
총 무 백서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230-9(장전동)
TEL 051)583-9233 주지실 518-6362

대한불교조계종
사 리 암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리로55번길 15(괴정동)
TEL 051)201-2255

아미타성지 부처님꽃이 핀 도량
운봉산 백 운 사
주지 마나
신도회장 김시근
성불회장 신부기
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운봉길 315(반송동)
TEL 051)542-4630

백 두 사
<부설>백화도자기
회 주 해 월
주 지 백 천
신도회장 노길남
장종임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후동길 164
TEL 051)721-3896

사)부산파라미타
청 소 년 협 회
총 재 수 불
부 총 재 원허, 진효
사무총장 지장
협 회 장 백명숙
중등부지회장 김정락
고등부지회장 김영일
사무국장 최낙현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43(연산동) 부산불교신도회관 4층
TEL 051)513-4306 / FAX 513-4307

보건복지부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부 산 지 역 본 부
본 부 장 원범
부본부장 자인, 목종, 문수용, 이경순
감 사 심산, 박분희 총무이사 해암, 이동권
기획이사 마나, 이욱태 재무이사 법안, 김법영
홍보이사 혜산 자살예방이사 하림, 백영선
이사일동
■ 생명나눔부산 자살예방센터 051) 442-0429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67 (수정동) 대성빌딩 3층
TEL 051)853-0429 / FAX 051)853-0439
http://www.bslisa.or.kr / www.bsmylif.or.kr
나눔은 습관이며 베품은 수행입니다!!!

부산여성불자회
총 재 혜 총
자문위원 백명숙 이경순 천양자
회 장 왕선자
부 회 장 정정자 이미춘 양외금
총 무 박정림 김명자
재 무 서정례 손하영
이사 · 회원 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양정동) 불교회관 4층
TEL 051)817-3166, 3168

사회봉사단체
부산불교 보현회 보 현 정 사
회 장 안성이
재 무 조영희
총 무 전영자 윤점자
감 사 김선언 홍보부장 유기선
회원일동
■ 부산광역시 동구 정공단로 15 (좌천동)
TEL 051)636-4531

복 짓고 원 세우고 전법하는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청년회원일동
53청년구법순례단 [구법순례 동참안내]
· 매월 1,3주 토요일 오후 7시~10시
· 부산시내 주요사찰
· 청년불자 누구나 참석가능
cafe.daum.net/kybabs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43(연산동) 부산불교신도회관 4층
TEL 051)861-5241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부산
코모도호텔 부산
Commodore HOTEL BUSAN
대표 이영숙
직원 일동
■ 문의 및 예약 051)466-9101



새해 빛 2014

謹賀新年 福

佛紀 2558年 甲午年 謹賀新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B19



만약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다면 그가 곧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를 슬기롭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것이다.

– 법구경

불교TV 염불공양모임

회 장 하정선
특별회원 임춘지
부 회 장 이경숙 하영순 한계순
감 사 김순이 하순임
운영위원장 서숙영
총 무 윤정희
재 무 안상희
홍보팀장 정승자
포교팀장 윤미자
문화팀장 남순옥

이사 회원 일동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102번길 16-10(범일동) 동양빌딩 7층
TEL 051)633-4020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상임고문 박수관
고 문 김재운 김재진 조효식 최칠관 설동근 이윤희 박민식 박흥대 허인구
회 장 박순곤
부 회 장 권청길 김수현 이상수 이시영 장남인 박영근 신재철 장인화 최삼섭 김종백 양재생
감 사 노종헌 박형주
사무총장 신상해 재무총장 박차수
총무이사 장병주 기획이사 안천일
친목이사 공정근 사업이사 정연식
조직이사 이현호 홍보이사 이현수

이사 회원 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71(부전동) 정산빌딩 9층
TEL 051)334-0108 / FAX 051)867-4397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 登一段하는

釜山佛教實業人會 妙光禪院

회 장 김윤환
고 문 강병중, 최 찰, 서춘석 박수복, 이상태, 하문원
부 회 장 조재원, 이근철, 이달수 황인관, 박주영
감 사 지호경, 이광재
총무이사 이환길
재정이사 이학성
사업이사 이종환
관리이사 이규인
재정자문 김정웅

회원 및 마야부인회 회원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37 부산불교실업인회관 4층
TEL 070-8133-9917 / FAX 051)818-9916

대한불교조계종

천성산 원효암



아미타삼존마애불

사부대중 일동

■ 경남 양산시 상북면 홍룡로 372
TEL 055)375-4111

"한국불교의 중심! 부산불교!"

2014 갑오년 새해 새 아침
화합과 번영의 21세기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가 수행과 정진에 앞장 서겠습니다.

(사)부산광역시 불교연합신도회

회 장 이윤희
상임부회장 김동열 김수현 김윤순 김형양 박순곤 허인구
감 사 권기우 하만경
사무총장 박대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 (양정동) 불교회관 401호
TEL 051)861-8800

K-MBSR 명상치유교육전문기관

해운대 시선원

MBSR 4기 수강생 모집
2월 개강

■ 마음공부, 명상수행, 상담 및 안내
■ 경전공부, 명상어록, 선어록 공부안내
■ 명상치유, 명상교육, 명상코칭, 워크샵 진행
■ K-MBSR 명상치유 교육강좌 개설

(MBSR은 마음챙김명상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프로그램으로, 과학적 연구와 임상에 의해 그 효과가 입증되어, 미국 대부분 대학병원에 시행중인 과학적 심신건강프로그램입니다. 전 서울대 심리학과 장현갑교수와 함께 하는 제2기 수강생 모집중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308 (좌동) 송강빌딩 11층
TEL 051)746-7611

마음편한절 · 관음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용두산 미타선원

주 지 하 림

사부대중 합장

"미타선원의 가장 행복한 공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선공부 · 명상상담 전문교육도량
행복禪수행학교
행복禪명상상담센터
청소년 명상치유 행복한 동행

■ 부산시 중구 광복로 77번길 용두산공원 에스켈레이터 첫 번째 하차점
051)253-8687~8 / www.mitazen.net

(재)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

천 불 사

사부대중 일동

■ 경남 양산시 매곡동 304번지
055)365-1463

세계무형문화 유산 영산재 보존도량

한국불교태고종 총본산

봉 원 사

회 주 조석봉
주 지 마일운
부주지 최원허
총 무 조고담
교 무 전지암
재 무 김미산
사 회 박처명
기 획 이동훈

봉원사 대중일동

■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번지
전화 02)392-3007~8
전송 02)393-9450
www.bongwo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회 주 대궁 종상
주 지 성 행
신도회장 자비화

사부대중일동

- 청계사 부설 -
지적장애인생활시설 녹향원
의왕시립희망나래종합복지관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11번지
TEL 031)426-2348, 2221 / FAX 031)426-3666
http://www.chungkeisa.com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사)지구촌공생회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복지법인 나눔의 집

위 단체는 영화사에서 후원합니다

조실 송월주 스님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9번지
TEL 02)444-4321, 7215

公益法人 大韓佛教華嚴宗
大本山 藥師寺

(약사 추모관 운영中)

회 주 화 담
주 지 화 응
부주지 대 휴

신도일동

財團法人 華嚴僧伽奬學財團
公益法人 大韓佛教華嚴宗奬學會

이사장 한상호(화응)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산 21
☎ 032)422-2066

서울사무소 소장 양위찬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1-6번지 삼선빌딩 412호
전화 02)730-0798 / 전송 02)730-0799

아주미디어

대표 오태준

콘서트. 체육대회,
대학축제, 지역축제
음향, 무대, 조명, 의자

■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42-6
TEL 062)381-8052
팩스 062)381-8056
010-3624-2321

자비신행회

빛고을 재가불자들의
아름다운 자비나눔
공동체
(사)자비신행회

■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5-1
TEL 062)234-0090

64형체질의학으로
난치성질환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경희한의원

사람은각체질별로 먹는음식. 약.차가 다르기에 모든병의 원인과성격변화를 방문하시면 성심껏알려줍니다.

만성폐쇠성폐질환(copd). 아토피 천식.비염.역류성식도염.홧병.우울증.강박증. 안면홍조증.상기증.등 심신의 병을 장부의 균형으로 근본적치유를얻을 수 있습니다.

경북.영주시 경희한의원.원장 류영준

■ 상담문의 010-3522-5717

갤러리 색즉시공



대 화

한 여인이 묻습니다.
"스님!"
스님이 대답합니다.
"예, 보살님!"
여인이 다시 스님에게 묻습니다.
"스님! 왜 이리 삶이 힘이 들까요?"
스님이 다시 대답합니다.
"그러게요…. 보살님!"
여인이 또 다시 묻습니다.
"스님! 인생이 무엇인가요?"
스님이 또 다시 대답합니다.
"…그러게요. 보살님!"
스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보살님! 함께 포행하실래요?"
여인이 환한 미소로 대답 합니다.
"예, 스님!"



글·그림 희상 스님

| 아침에 일어나 호미를 들고 들로 나가는 농부처럼 긴 세월 무심한 자세로 부처님의 사상을 예술작품을 빌려 표현하고 있는 스님은 경북 청도 운문사 운문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미술학과에서 한국화를 전공하였으며 해인사 선원 및 제방선원에서 수행하였다.

| 늘 다양한 작업을 통해 본질에 가까이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던 중 "바르게 바라봄"의 화두를 안고 독일로 건너가 브레멘 국립조형예술대학교에서 현대미술을 전공하였다.

|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예술에 더 가까이 접근시킬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는 스님은 현재 부산 해운대 유연선원 주지 소임을 맡고 있으며 선화와 수행을 접목한 포교를 위해 정진하고 있다.

미혹의 범부,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Buddha in Comic & Ani
데즈카 오사무의 '불새'



데즈카 오사무의 필생의 역작 '불새'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다룬 16권. 전17권으로 끝나지만 완료된 것은 아닌 미완작이다.

데즈카 오사무(手塚治蟲, 1928~1989)는 한국 30~40대에게는 친숙한 일본 만화가이자 애니메이션 감독이다. '밀림의 왕자 레오(원제: 정글대제)' '샤파이어 왕자(원제: 리본의 기사)' '우주소년 아톰(원제: 철완 아톰)' 등 그의 작품을 한국 공중파 TV를 통해 한 번쯤 시청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그의 작품 중 하나인 '붓다'가 극장에서 개봉하기도 했다.

아톰의 원작자다보니 소년 만화를 주로 그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는 '블랙잭'이라는 걸출한 의학 소재 작품부터 당시 사회상을 고발하는 '아야꼬' '재일'과 같은 작품을 내놓기도 했다. 사실 아톰도 원작을 살펴보면 완전히 소년 취향의 만화는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수많은 그의 작품 중에서도 '붓다'와 '불새'는 수준 높은 명작이다. 두 작품들은 생명, 죽음 등 철학적 소재를 삼았고, 오사무의 작고 후 어느 쪽이 더 명작인가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팬들도 있을 정도이다.

이번에 소개할 '불새'는 사실상 데즈카 오사무의 살아생전 마지막 작품으로, 블랙잭과 더불어 최후기의 작품이다. 그만큼 이야기 구조의 완성도나 치밀함이 극에 달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데즈카 오사무가 이 작품에 대해 쏟아부은 애정이 상상을 초월했음을 알 수 있다. '불새'의 첫 연재는 1954년으로 그가 죽기 전인 1980년대 후반까지 꾸준히 연재됐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완결되지는 못한 미완의 역작이다.

'불새'를 관통하는 주제는 '인간의 삶'이다. 인간이라는 미약한 존재가 불멸의 존재인 '불새'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작품은 다루고 있다. 시간과 공간 축도 고대부터 미래시대까지 지구와 우주를 오가며 다양하게 진행된다.

작품 속 불새가 인간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그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서양의 피닉스, 동양의 봉황 등을 모두 포함한 존재로서 시공을 넘어 세상을 오가며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보는 존재인 불새는 고대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수많은 시대에 모습을 드러내며 인간의 운명에 관여한다.

불새를 발견한 이들은 때로는 영생을 얻고자 때로는 권력이나 야망을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지식을 위해 불새를 쫓고 제각기 자신들의 운명과 마주한다.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고 문명이 흐트러지고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죽어가는 다양한 일들이 불새라는 존재와 엮여서 펼쳐지며 이야기를 만들어진다.

이를 잘 볼 수 있는 에피소드는 '불새- 봉황편'이다. 극장판으로도 개봉된 이 에피소드는 당시에도 작화 등 모든 면에서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봉황편의 주인공은 외팔이이자 애꾸눈인 남자 가오우(我王)로 자신의 콤플렉스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삐뚤어진 삶을 살아간다. 우연히 가오우는 조각가 아카네 마루를 만나서



극장판 '불새- 봉황편'의 주인공 가오우가 자신의 악행을 참회하며 불상을 조각하고 있다.

아톰 원작자의 미완 역작
1954년부터 30년간 연재
고대와 미래, 지구와 우주
인류의 업과 사랑을 그려

잠시 길을 동행하게 된다. 하지만 "언젠가는 봉황상을 조각하겠다"는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찬 아카네의 말에 가오우는 시기심으로 그의 오른팔에 큰 상처를 입힌다. 그후 가오우는 방랑하게 되고 출가해 불모(佛母)가 된다. 자신의 악한 감정을 조각을 통해 정화시킨 것이다.

오른팔을 다친 아카네 마루는 여행을 거듭하던 중 법무대신에게 발탁돼 불상 건립 책임자가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카네 마루는 사랑했던 소녀 푸치와 생이별을 하게 되고 세속의 때에 물들어 간다.

불상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여기에 헌상할 조각상이 필요하게 된다. 귀족들은 아카네 마루와 떠돌이 조각가로 유명세를 타고 있던 가오우를 불러 경합을 벌이게 한다. 10일 간 독방에서 조각을 한 두 사람은 동일하게 봉황을 조각한다. 결과는 자신의 죄업을 참회하며 살아왔던 가오우의 승리였으나 아카네 마루의 모함으로 도리어 나머지 팔을 잘리고 수도에서 추방당하는 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날 밤 아카네 마루가 조각한 봉황 조각이 안치된 곳에서 화재가 일어나고 아카네 마루는 그 불 속에서 생을 마감한다. 죽음의 순간 만난 봉황에게 아카네 마루는 내생에는 진정한 조각을 하고 싶다고 기원하나 불새는 그렇지 못할 운명이라고 답한다. 그렇게 자신의 생에 대해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아카네 마루의 영혼을 천상으로 인도하듯 봉황은 날개를 펼쳐서 날아오른다.

'불새'의 다양한 시간과 공간 축을 바탕으로 한 에피소드들은 마치 윤회를 거듭하고 있는 인간의 삶을 응축하고 있는 듯하다.

윤회는 인간은 자신의 업에 따라 육도윤회(六道輪廻)를 거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자기가 지은 업의 결과에 따라서 다른 세계로의 향상(向上)과 향하(向下)가 가능할 뿐이므로, 언제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자율적인 의지와 실천이 강조된다.

또한 선행을 통해 자신의 윤회를 끊고 해탈을 경지에 올라서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한다. 현재의 마음이 번뇌로 가득차 있는 것이 곧 지옥이고, 탐욕으로 가득차 있는 것이 아귀이며, 어리석음으로 가득차 있는 것이 축생이기 때문이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 생각 한 생각을 깊이 다스려 적정(寂靜)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효 스님은 윤회의 원인을 일심(一心)에 대한 미혹이라고 보았다. 스님은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에서, "일심 외에 다시 별다른 법이 없으나 다만 무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일심을 알지 못하고 갖가지 파도를 일으켜서 육도를 윤회한다"고 했다. 곧 일심을 깨달을 때 윤회를 면하여 해탈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시기심으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킨 가오우는 자신의 악행을 참회하며 불상을 조각했다. 종국에는 봉황의 모습을 보고 일전에는 없던 명작을 만들어 낸다. 그는 자신의 무명과 굴레에서 벗어났고, 업의 수레바퀴에서 내려왔다.

데즈카 오사무의 '불새'는 미혹한 중생을 보여주고 인간의 역사가 미혹의 윤회를 거듭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30년에 걸친 연재를 통해 데즈카 오사무가 보여주려 한 것은 미혹의 질곡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신중일 기자

"화는 참으면 병이 되고, 터뜨리면 죄가 되지만,
알아차리면 사라집니다."

출간즉시 베스트셀러

인생을 건너가는 지혜를 주는
마가 스님의 '마음 수업'
'자비로워지는 것'이 왜 궁극의 치유가
되는지를 전하는 성찰의 언어



최일도 목사, 김영택 신부,
권도갑 교무 추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연합뉴스 등
언론에서 집중 보도한 화제의 책!

마가 글 | 256쪽 | 13,000원

마가 스님 아버지가 남긴 상처를 딛고 일어선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웃음과 따뜻한 말을 되찾아주는 힐링 멘토가 되었다. "마주한 이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궁극의 치유"라고 말하는 스님은 전국의 기업, 학교, 사찰, 관공서를 돌며 자비 명상 보급에 힘쓰고 있다. 중앙대학교에서는 1초 만에 수강신청이 마감되는 최고 인기 강의 〈내 마음 바로 보기〉 수업을 이끌었으며, 최일도 목사, 김영택 신부, 권도갑 교무와 함께 희망이 되는 종교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자비명상 대표, 한국마음치유협회 회장, 동국대학교 정각원 교법사를 맡고 있다.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사랑, 관계, 돈, 욕망에 대해 붓다는
어떤 말을 했을까?

초기경전에서 찾은 삶의 힌트

세속적인 시대에 더욱 빛나는
붓다의 카운슬링
7년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에
같이 읽고 함께 공감한
초기경전 속 생활의 지혜



그동안 니까야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 같은 재가자들도 편하게 경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경전 내용을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물로 초기경전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경전 구절 몇 가지를 추리고 설명을 보태서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이 초기경전과 사람들을 잇는 다리 노릇이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엮었으며, 부디 많은 사람들이 초기경전 니까야와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_서문 중에서

이미령 지음 | 248쪽 | 13,000원

이미령 1964년 강원도 바닷가에서 태어났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불교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고(故) 고익진 교수의 법회에 참여한 인연으로 지금까지 경전을 읽는 행복한 삶을 살아오고 있으며, 경전 읽기의 즐거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경전 관련 강의와 칼럼 집필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07년 행원문화재단 행원문화상(역경 분야)을 수상했다. 현재 불광교육원에서 전임강사를 맡고 있으며, 불교계 신문과 잡지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그밖에 BBS 〈무명을 밝히고-보리살타의 서제〉, Y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을 진행하는 등 북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새해 빛 2014

謹賀新年 福

佛紀 2558年 甲午年 謹賀新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B21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악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괴로움이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반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행복과 보람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다.

– 법구경



지장도량 미륵사

사찰음식 전문점

수 자 타

주지 혜 법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469-3
TEL 062)222-1145

대한불교 조계종

대 광 사

주지 정 선

[부설] 사단법인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535번지
TEL 062)222-4613
다음카페 ttp://cafe.daum.net/rs211

대한불교 조계종

문 빈 정 사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TEL 062)222-2202

대한불교 조계종

비 전 사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489-22번지
TEL 062)951-3562

대한불교 조계종

연 화 사

주지 명 신

[부설]
연화유치원, 어린이집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2동 448-2번지
TEL 062)227-7295 / 유치원 227-0173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절

유 유 암

주지 아 도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 조계종

광 덕 사

주지 효 진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31-5
TEL 062)652-6050

현수막 제작 · 인쇄물 기획제작

부다기획

도서출판 수미등

현수막, 도서출판, 사보, 법요집
신문, 달력, 포스터, 카다로그
리플렛, 초대장, 봉투, 상장
상패, 수첩, 수료증, 명함, 스티커

광주시 동구 산수동 570-1
TEL 062)225-8825
FAX 062)225-8826

무등산 두암동

꽃 피 움 절

선각불교문화원

회주 자 공

주지 목 언

■ 광주광역시 동구 두암2동 7번지
TEL 062)263-0108

대한불교 조계종

선 덕 사

회주 도 법

주지 원 묵

■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2동 572-1번지
TEL 062)263-4460

대한불교 조계종

무등산 원효사

주지 현 지

신도회 일동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46
TEL 062)266-0326

대한불교 조계종

완도 신 흥 사

주지 법 일

완도 행복한 생협

청소년교육문화단체
장보고아카데미

■ 신흥사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성내리 168번지
전화 061)554-2634
신흥사 www.sinheungsa.net
완도행복한생협 www.wondocoop.com

한국불교 태고종

세 심 정 사

회주 지 암

주지 보 응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58
TEL 062)222-9442

대한불교 조계종
행복 나눔 도량

금 선 사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산 4-1번지
TEL 062)942-3260

대한불교 조계종

법 림 사

대해노인복지센터

주지 무 진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649-1번지
TEL 062)234-2207



새해 빛 2014

謹賀新年 福

佛紀 2558年 甲午年 謹賀新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B22

어진 이는 자기를 다스린다. 치수(治水)하는 이는 물을 이끌고, 화살 만드는 이는 살대를 바르게 하고, 대목(大木,큰 건축물을 잘 짓는 기술을 가진 목수)은 목재를 다듬고, 어진 사람은 자기를 제어한다.

– 법구경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익산 관음사

주지 덕림

관음사 성지순례단

신도 일동

이리 불교대학

학 장 덕림

부학장 김진수

■ 전북 익산시 갈산동 31-9
TEL 063)854-1578, 842-6652

대한불교조계종

옥 련 암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밀파마을
TEL 063)263-7098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금 선 암

주지 덕산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192-1
TEL 063)221-8486

대한불교조계종 24교구

월명산 동국사

주지 종걸

사부대중 일동

홈페이지 : http://www.dongguksa.or.kr/

■ 전북 군산시 금광동 135-1번지
TEL 063)462-5366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남 고 사

주지 원혜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전주시 동서학동 2가 724
TEL 063)284-9640

대한불교조계종 24교구

성 불 사

주지 월은 종명

명예회장 : 진여심
신도회장 : 정각회
거사회장 : 성문수

사부대중 일동

■ 전북 군산시 경암동 서래내길 34
TEL 063)445-3266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함라산 숭림사

(보물 제 825호 보광전)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주지 지광

신도회 관음회 일동

■ 전북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5번지
TEL 063) 862-6394
홈페이지 : http://www.sunglimsa.com/

정 안 사

주지 정안

신도일동

■ 전북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310번지
TEL 063)466-6055

참좋은 우리절

참좋은우리절 불교대학
2014년 신입생 모집안내

▣ 일 시 : 2013년 12월 23일 ~ 2014년 2월 28일
▣ 대 상 : 청정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삶을 일구고자 하는 모든 이
▣ 인 원 : 50명(선착순모집)
▣ 교육과목 : 부처님생애, 불교문화, 금강경, 대승불교, 한국불교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063)236-6633으로 문의하시거나 cafe.daum.net/urijeil을 참고하세요

지장보살의 사상을 실천코자 노력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오봉산 영선사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꿈을 실천하고 있는

등용청소년공부방

사단법인 사람과 희망

■ 전북 남원시 인월면 상우리 산32번지
TEL 063)636-2195
http://www.youngsunsa.org/
http://cafe.daum.net/youngsunsa

익산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덕림(관음사)
부회장 도안(백운사)
원영정사(관행심인당)
정수(금강관음사)
총 무 정산(삼기정각사)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익산시 갈산동 32번지
TEL 063)854-1578

익산불교신도연합회

회 장 : 이택회
명예회장 : 이의식 박중근
고 문 : 김동확 김진수
부 회 장 : 송동기 박찬용 김영배 김한철 최용호 모순영 문순복 윤광채 심송자 오창록 김효배 박순자
감 사 : 강권술 이영숙
사무1국장 : 유우상 사무2국장 : 이후범
재무국장 : 김종복 기획국장 : 한현상
홍보국장 : 이근영 환경국장 : 정현웅
문화예술국장 : 백상례 복지국장 : 정영임
포교국장 : 이병렬 예산국장 : 황금용
정보통신국장 : 김양희 체육국장 : 최형수
문화재국장 : 김용암 행사국장 : 이경재
봉사1국장 : 김효실
청소년교육국장 : 채곤석
대회협력국장 : 박종한 (무순)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익불련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단 장 주정기
수석부단장 고태용
부 단 장 이택익
감 사 최학성, 구강식
군포교총괄팀장 이성강
어린이청소년 1팀장 정현웅 어린이청소년2팀장 이정상
군포교1팀장 박중근 군포교2팀장 박갑기
군포교3팀장 박운성
교정교화1팀장 김진철 교정교화2팀장 김덕순
염불봉사1팀장 강석춘 염불봉사2팀장 서훈석
사찰문화해설1팀장 권대택 사찰문화해설2팀장 이택회
지역봉사팀장 이연자
무소유실천팀장 신병균
자원봉사1팀장 최영석 자원봉사2팀장 김기홍
3팀장 김생곤
홍보팀장 백덕기
호스피스팀장 박미숙

전북포교사 일동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56-5
전북불교회관내
TEL 063)252-4940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산 축서사

주지 무여

문수선원 · 시민선원
불교대학 · 대학원
축서사합창단 · 바라밀합창단

사부대중일동

* 만년위패.수목장
* 영가장애와 액운을 없애고 가정의평안을 성취

■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1번지
TEL 054)672-7579

풍기정품 **풍삼정**

홍삼액기스. 인삼

직접재배 가공하여 양심을 속이지않고
100ml X 60포(한달분)홍삼액기스.
산삼배양근추출액(레드파워)홍삼편.
홍삼청국장.직접재배하는수삼.미삼.
홍삼의 샤포닌은 성분과 향기를
보유하기 위하여 저온에서
72시간이상을 숙성 발효시켜 만든
홍삼액기스 최고인기상품

영농법인 풍기정품인삼제조창 풍 삼 정

■ TEL 054)636-2174
휴대폰 016-815-2174

서양인 최초 구족계 수지… '담마로카' 스님

브라이언 교수, "아일랜드인으로 미얀마서 1900년 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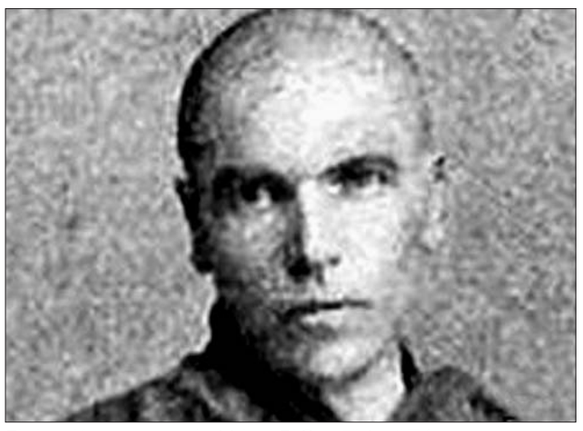
서양인 최초로 구족계를 받은 스님은 누구일까? 지금까지는 1902년 테레바다 전통을 수지한 찰스 헨리 알랜 베넷(Charles Henry Allan Bennett), 불명으로는 아난다 메테야(Ananda Metteyya)로 알려졌다.

그런데 영국 국영방송 BBC는 브라이언 보킹(Brian Bocking) 교수(University College Cork, Ireland · 아시아학)의 말을 인용, "아일랜드인 로렌스 캐롤(Laurence Carroll, 1856~1915)이 문헌상으로 서양인 최초로 구족계를 받은 스님"이라는 반론을 보도해 주목된다.

보킹 교수에 따르면 1856년 더블린에서 태어난 로렌스 캐롤은 10대 중반 미국으로 이주한 후 성년이 되어서 샌프란시스코와 요코하마를 잇는 연락선 선원으로 활동하며 3주간 미얀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보킹 교수는 로렌스 캐롤이 미얀마에 머문 '3주'에 주목한다. 로렌스 캐롤이 세속의 인연을 끊고 담마로카(Dhammaloka)라는 불명으로 수계 받은 시점이기 때문이다. 담마로카란 '불법의 빛(light of the Dhamma)'의 뜻이다.

"미얀마 랑군에서 스님의 위치란 대단히 높았다"고 전제한 보킹 교수는 "로렌스 캐롤은 아일랜드인 특유의 폭음하는 음주 습관을 가졌을 것인데, 이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이들이 바로 미얀마 스님들이었다"며 "스님들의 도움으로 로렌스 캐롤은 자신의 음주 습관을 끊고, '담마로카' 스님으로 출자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담마로카(Dhammaloka) 스님. 속명은 로렌스 캐롤(Laurence Carroll, 1856~1915 · 아일랜드)이다. 브리언 보킹(Brian Bocking) 교수에 따르면 담마로카 스님은 1900년 미얀마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이는 지금까지 서양인 최초의 구족계 수지 스님으로 알려진 아난다 메테야(Ananda Metteyya) 스님보다 2년 앞선다.



아일랜드에는 현재 1만여 명의 불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은 포탈라 카담파 불교사원(Potala Kadampa Buddhist centre)에서 명상하고 있는 아일랜드 불자들.

첫 수계자 아난다 보다 2년 앞서
속명은 로렌스 캐롤, 선원으로 활동
3주 미얀마 방문기간 구족계 수지
서구 침탈반대하는 '반식민지' 활동

또한 "미얀마 문헌상에서 '담마로카 스님은 1900년 구족계를 수지했다'는 기록을 찾았다."고 전제한 보킹 교수는 "이는 지금까지 서양인 최초로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이 1902년 테레바다 전통을 이은 아난다 메테야(Ananda Metteyya) 스님, 찰스 헨리 알랜 베넷(Charles Henry Allan Bennett)으로 알려졌지만, 담마로카 스님은 그보다 2년 앞선 1900년 구족계를 수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담마로카 스님은 불교연구회(Buddhist Society, 1907년)를 결성하는 등 미얀마불교계를 위해 헌신하며, '절제'를 주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한편, 서양인으로서 미얀마 스님의 길을 반추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르침의 주제는 '반식민지'로 옮겨갔다.

보킹 교수는 이에 주목, "담마로카 스님은 당시 미얀마의 사회 변혁을 주장하는 진보진영의 스님으로 활동했던 것 같다"고 추론하고, "이는 1910년 미얀마 정부로부터 '선동죄'라는 죄목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단초가 되었고, 이후 담마로카 스님은 1915년 세상을 등질 때까지 미얀마 정부의 감시를 받으며 활동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BBC는 "서양인 최초의 구족계 스님이 아일랜드 더블린 출생이라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이라는 켈상 치타(Kelsang Chitta) 스님의 말을 인용하고, "아일랜드에는 현재 1만여 명의 불교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불교는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이는 1970년대에 아일랜드의 교회 출석은 91%로 측정 되었으나, 2008년 일체조사에 따르면 교회 출석은 36%로 떨어진 상황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켈상 치타 스님은 북아일랜드의 유일한 구조계를 수지한 비구니 스님으로 현재 포탈라 카담파 불교사원(Potala Kadampa Buddhist centre)에 주석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대만 불교 자선단체 캐나다서 첫 자선행사 열어

대만 불교계의 국제자선단체 투 치(Tzu Chi) 재단이 지난 12월 20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랭글리 시에서 불우이웃돕기 행사인 '제1회 희망의 게이트웨이'를 마련했다고 지역 언론 〈랭글리(Langley)〉 지가 보도했다.

매년 20일을 전후해 열리고 있는 '희망의 게이트웨이'는 투 치 재단의 대표적인 동절기 자선 활동의 하나로, 행사 당일 겨울 코트 등을 비롯해 개인생활용품을 담은 1,000개 선물 꾸러미를 불우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행사이다.

"2003년 캐나다 밴쿠버에 투 치 재단 지부를 개설한 이래 지부 건물의 1층 로비에서 '희망의 게이트웨이'를 마련해 왔다"고 설명한 탐 토릉(Tom Torng、투 치 재단) 대변인은 "이제는 건물 로비를 박차고 나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현장을 찾아나서는 실천적인 자선 활동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 치 재단의 선물 꾸러미에는 겨울 코트를 비롯해 양말、장갑、치약、칫솔 등 개인위생 관리용품, 초콜릿 바 등이 들어 있으며, 그 꾸러미에는 겨울 코트의 색상과 사이즈를 표기해, 불우 이웃들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랭글리〉 지는 "불우한 이웃을 도우며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의 끈을 놓지 않는 투 치 재단의 자선 활동은 캐나다에서 깊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투 치 재단은 지난 4월 대형 화재를 겪은 다세대 주택단지의 피해 주민들을 돕고, 공립초등학교 학생 96명의 여름캠프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등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있고, 이는 가까운 미래에 투 치 재단과 지역 주민과의 연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만 불교계 국제자선단체인 투 치(Tzu Chi) 재단이 지난 12월 20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랭글리 시에서 불우이웃돕기 행사인 '제1회 희망의 게이트웨이'를 마련했다.

1966년 대만에서 창립된 투 치 재단은 자선, 교육, 환경, 재단구호 등의 분야에서 국경을 초월한 활동하고 있으며, '골수 기증 희망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세계의 이목을 잡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대만, 재가불교회관 철거 위기

씨유 사원 철거 후 개발…이정타이 박사 등 반발

200년간 선천파의 재가불교의 요람 사라질 듯

신타이페이 시 투청(Tucheng) 지구의 오래된 벽돌 건물이 대만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타이페이 타임즈(Taipei Times)〉 지는 12월 16일(현지시각) "200년간 투청 지구의 재가불교의 요람이었던 '재가불교회관(The Lay Buddhist building)'이 최근 시 당국으로부터 '철거 고지 예고'를 받았다."고 보도하고, 이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여성 불교사학자를 주목했다.

"시 당국의 이번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한 이정타이(Lee Jung-tai, 역사학) 박사는 "재가불교회관은 대만 특유의 '거사불교'의 한 주류를 이루었던 선천파(Hsientien School, 先天派)의 중요 사료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재가불교회관에는 200년 전 중국에서 건너온 일군의 한족이 지은 벽돌 건물로, 그들이 중국에서 가져온 고대 불 · 보상이 봉안된 것은 물론 대만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V자 모양의 고대 불교 악기와 1890~1940년대 사이 대만 화단의 정점에 서 있었던 불교미술가 리잉핀(Lee Ying-pin)의 벽화 등이 소장되어 있다.

타이페이 시 당국의 '철거 고지 예고'는 재가불교회관의 부지 등 그 일대의 대지 300만 제곱미터(약 90만여 평)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씨유(Cih-you) 사원이 최근 대지 일부에 대한 재개발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이정타이 박사는 씨유 사원 측에 '재가불교회관의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10만 제곱미터(약 3만여 평)의 대지에 대한 재가불교회관 측의 사용권을 놓고 씨유 사원 측과 소송을 벌렸으나, 신타이페이 지방법원은 씨유 사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타이페이 타임즈〉 지에 따르면, 이정타이 박사는 뜻을 같이 한 불자들과 함께 재가불교회관의 문을 굳게 닫은 채 회관 내부에 머물러 있고, 신타이페이 경찰들은 회관의 아치형 입구에 '접근 금지' 테이프를 붙인 채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티베트승려 또 분신자살…125명으로 늘어

19일 출트림 자초, 달라이 라마 귀환 요구하며 분신



티베트의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분신자 수는 늘어가고만있다. 사진은 한 티베트 인이 티베트의 독립을 요구하며 분신한 모습.

중국 내 티베트인 집단 거주지역에서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티베트인 1명이 또 당국의 강압통치에 항의하며 분신했다. 이로써 2009년 이후 중국 내 티베트인 분신자 수는 125명으로 늘어났다.

영국 BBC에 따르면, 간쑤(甘肅)성 간난(甘南) 티베트자치주 샤허(夏河)현 아무취후(阿木去呼)진에서 12월 19일 오후 2시 30분 승려 출트림 자초(43)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귀환, 판첸 라마의 석방, 그리고 600만 티베트인의 복지 향상을 요구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자초는 분신 후 즉각 숨졌으며, 그의 유해는 인근 아무취후 사원으로 옮겨져 화장됐다. 사원 내 승려 400여 명은 경찰의 제지를 무릅쓰고 자초의 명복을 비는 기도를 올렸다.

이번 분신은 쓰촨(四川)성 아바 티베트족、장(羌)족자치주에서 지난 4일 티베트인 콘촉 체텐(30)이 분신한 지 보름만이며, 지난 2009년 이후 125명째다.

중국 당국은 분신을 방조하거나 이에 관여한 현지인들을 체포、구속하고 이들에게 최고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이나은 기자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사단법인 대한불교 우담종문회

원 로 회
원로의장 은파
원 로 원파 동파 농파 근파 정봉 영파 진파 한파 영산

종 무 원
종문회장 근파 부 회 장 농파
총무부장 능산 재무부장 해암 교무부장 묵암
문화부장 자관 의전부장 덕산 기획부장 등암

교 육 원
불곡사 승가교육원장 영파 불모산 영산재보존회장 한파 본사 불곡사 주지 서암

감 사 원
감사원장 영산

법인이사회
이 사 장 근파 이사 은파. 원파. 농파. 정봉. 영파 감사 서암. 능산

우담 종문회 종도 일동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1036번지 / 전화 055)282-7402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제15회 산사에서 만나는 수행과 상담

"불성으로 깨어나기"

▣ 강 사 : 최훈동
서울의대 겸임교수/한별정신건강병원 원장
심경상담명상센터 원장/불교상담개발원 연구위원장

▣ 내 용 : 불교 명상과 심리치료를 통합하여 진정한 자기(불성)를 체험하는 치유의 과정(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원인을 바로 알고 생각의 틀을 벗어나 진정한 나로 깨어남)

▣ 일 시 : 2014년 1월 4일(토) 오전 9시 ~ 오후 9시
▣ 장 소 : 목동 국제선센터 바라밀실
▣ 참가대상 : 심리치유에 관심 있는 누구나(선착순 60명)
▣ 참 가 비 : 스님 12만원 / 일반 15만원
▣ 주최 및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 신청 및 문의 : 02)737-7378, www.kbcd.org

佛紀 2558年 갑오년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 자비의 빛이 충만하시길 서원합니다.

문 장 진불장 혜성
조 실 경하 현성
회 주 선묵 혜자
주 지 송산 도서
청담장학문화재단 이사장 동광

도선사 사부대중 일동
청담문도회
청담장학문화재단
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학교법인 청담학원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173길 504 (우이동 264) 전화:02)993-3161~3 팩스:02)993-3164 홈페이지:ww.dosu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화계사
Samgaksan Hwagyesa

갑오년 밝아오는 새해에도 각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로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화계사 사부대중은 서원합니다

조 실 송원 설정 대종사
회 주 성광 대화상
주 지 수암 화상
신도회장 대법성

화계사 사부대중 일동

정기법회

초하루 기도	매월 초하루
칠 성 기 도	매월 (음) 7일
산 신 기 도	매월 (음) 16일
지 장 재 일	매월 (음) 18일
관 음 재 일	매월 (음) 24일
철야다라니	매월 둘째주 토요일
철야삼천배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신도교육

기본반(3개월과정)	화요일 / 일요일
교 양 반	토요일 (천수경,예불반야심경, 의식교육)
불교대학(2년과정)	수요일 / 토요일
대학원(1년과정)	화요일 / 일요일
경 전 반	금요일 / 토요일

서울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 ☎ 02)902-2663 전송 02)990-1885 / wwww.hwagyesa.org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

www.naksansa.or.kr
관음진신주처 관음성지 오봉산낙산사

■ 무산사(양양포교당)
· 낙산유치원
· 낙산사불교대학
· 템플스테이
·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

■ 무산 복지재단
· 낙산요양원
· 노인복지센타
· 양양군노인복지관
· 무산지역아동센타
· 의상도서관
· 양양시니어클럽
· 아동청소년장학사업

주지 도 후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100 ☎ 033)672-2447~8 www.naksansa.or.kr

謹賀新年
2014년 甲午年
불기2558년 / 단기4347년

삼광사 산하교육기관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
부산금강불교대학 / 삼광교육대학 / 삼광다도대학

• 정 기 법 회 : 매월 1, 2일 오전 10시
• 간 부 법 회 : 매월 25일 오전 10시 30분
• 힐링어린이합창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청소년인성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청 년 회 법 회 : 매월 1일, 3주 일요일
• 철야 관음정진 : 매월 1주일 동안 봉행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힐링사찰 삼광사가
중생들의 마음살림불사를 위해 정진합니다.

주지 김무원 스님
총무 박거홍 스님 | 교무 박도선 스님 | 재무 손형선 스님 | 노천 김경필 스님
신도회장 이헌승
신도부회장 최주덕 | 총무위원 권길용 | 교무위원 정일태 | 재무위원 윤태용 안승진 신명옥
사업위원 김성춘 | 기획위원 김명호 | 복지위원 이정복 | 문화위원 김영수 | 홍보위원 김규옥
교육위원 정재위 | 고문 · 지도위원 · 지회 · 신행단체 간부 및 사부대중일동 합장

대한불교 천태종 힐링사찰 삼광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43번길 77
TEL:(051)808-7111~5 FAX:(051)803-1332
http://www.samkwangsa.or.kr

(재)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선원장 수 불
사부대중일동

■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금단로 124(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 · 0994 / FAX 051)583-0991
■ 서울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0-3(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www.angukzen.org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전화 053)767-3100 팩스 053)765-1600